速記總覽

第一輯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速記總覽

第一輯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發　刊　辭

人間의 思想은 言語에 依하여 表現되므로 言語와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

人間이 그의 意思表現인 言語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기 위하여 有形의 符號를 만들어 낸 것이 文字이고 이를 特殊符號로써 高速化한 것이 速記文字이다.

이 速記術이 近代史에 끼친 貢獻은 至大한 것으로서 오늘날 모든 分野에서 그 機能이 充分히 發揮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速記가 活用된지 20餘年이 넘는 동안에 各分野에서 祖國近代化作業 最一線의 記錄報國에 盡力해 왔음은 스스로 自負하는 바이다.

그러나 時急한 實務上의 技術開發에만 치우쳐온 까닭으로 그 理論的 體系를 갖추지 못 했음을 自認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大韓速記協會는 政府의 補助를 얻어 速記의 理論的인 體系를 一部 간추리고 國內外 速記論文을 한데 묶어 後日의 速記學 理論定立에 寄與하고자 이 조그마한 第1輯을 發刊하게 되었다.

여기에 論爲된 理論에 異見이 있거나 加筆 必要部分에 對해서는 隨時 指摘해 주어서 보다 完璧한 次輯이 되도록 協助하여 주기 바란다.

1972年 3月 10日

會長 金 龍 泰

速 記 總 覽 (第1輯)

目 次

第一編 速記의 學問的 考察

第1章 序 說 3
第2章 速記方式 8
第1節 形態論 8
第2節 構造論 12
第3節 言語論 15
第4節 劃線과 言語와의 關係 19
第5節 基本文字와 略字 25
第6節 構成法과 運用法 29

第3章 速記技術 35
第1節 速記와 速記技術 35
第2節 聽取와 理解 39
第3節 速記方式의 運用 43
第4節 文字化와 飜文 49
第5節 結 語 52

第二編 速記의 實務的 考察

第1章 速記價値論 57
第1節 現代에 있어서의 速記의 價値의 領域 57
第2節 速記記號 體系自體가 갖는 價値 58

第 3 節　速記記號가 使用됨으로써 생기는 價値 ……59
第 4 節　速記記號를 運用하는 人間의 價値 ……60
第 5 節　主觀의 客觀化 ……62
第 6 節　補　章……64

第 2 章　各國議會 速記錄의 作成과 刊行에 대하여……65
第 1 節　序　文……65
第 2 節　本會議速記錄의 發行 ……66
第 3 節　言　語……71
第 4 節　本會議速記錄의 內容 ……71
第 5 節　記錄의 方法 ……76
第 6 節　記錄職員……82
第 7 節　議會速記士의 養成狀況 ……86
第 8 節　速記錄의 索引 ……89
第 9 節　委員會의 速記 ……91
第10節　結　論……93

第 3 章　Computer 에 依한 記錄管理 ……100
第 1 節　文書管理의 機械化……100
第 2 節　記錄作成과 能率……112
第 3 節　우리의 現況과 展望 ……121

第 4 章　現代社會와 速記……125

第 5 章　速記의 進化와 將來性 ……128
第 1 節　速記의 社會的機能……128
第 2 節　今後에 있어서의 速記의 發達……134
第 3 節　速記의 役割에 關한 若干의 見解(1)……136

第 4 節　速記의 役割에 關한 若干의 見解(2)……140
第 5 節　速記의 役割에 關한 若干의 見解(3)……142
第 6 節　速記의 役割에 關한 若干의 見解(4)……143
第 7 節　總　評……145

第 6 章　새로운 可能性을 向한 空想……147

第 7 章　誤字, 脫字, 添字의 槪念과 問題點……150

第三編　外國速記 槪況

第 1 章　英　國……157
第 2 章　白 耳 義……164
第 3 章　瑞　西……168
第 4 章　土 耳 其……172
第 5 章　日　本……175
第 6 章　덴 마 크……183
第 7 章　美　國……185
第 8 章　INTERSTENO……198
第 9 章　U　N……208

第一編　速記의 學問的 考察

第1章　序　　說
第2章　速記方式
第3章　速記技術

第一編　速記의 學問的 考察

第1章　序　　說

速記라고 하는 것을 學問的으로 考察함에 있어서 편의상 그 범위를 잡기위해 一應(우리 言語生活에 있어서 音聲에 의한 의사표시를 文字에 의한 의사표시로 代替하는 活動의 總稱)이라는 형태로 잡아 보고자 한다.

그래서 이 速記라는 活動에 使用되는 手段을 速記方式, 또 이 速記方式을 使用하여 速記하는 技術을 速記技術, 이를 使用하여 作成된 것을 速記錄이라하고 이들에 關聯하여 實際로 速記錄을 만들어내는 作業을 速記實務, 이 速記實務를 행하는 者를 速記士, 또 이 速記士를 養成하는 敎育을 速記敎育, 速記에 의해서 이루어진 文化를 速記文化라고 分類하기로 한다.

考察하건데 速記라는 것은 文字가 考案 使用된 후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 活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나 文字라고 하는 것이 考案 使用되기 이전에도 現在의 速記가 담당하고 있는 役割의 一部는 必要했었다고 본다.

즉 그것은 들은바를 暗記했다가 必要에 의해 暗誦하는 形態를 취했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文字를 가지고 있지 않은 民族사이에서는 이러한 太古時代의 形態를 그대로 밟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이와같은 活動의 機械化라는 立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錄音機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歷史的으로는 이 錄音機의 出現보다 훨씬 以前에 音聲에 의한 意思表示를 表記하는 手段으로서 文字라고 하는 것이 考案 使用 되었고 人類文化는 이 文字라고 하는 것의 使用에 의해 急速히 發達했으며 이와 동시에 音聲에 의한 意思表示의 補助로서 出發한 文字가 獨自的인 價値를 갖기에 이르렀다.

한편 一般文字만으로는 滿足할 수 없었던 人類는 速記라는 새로운 형태의

記號文字를 발명해서 사용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速記는 우선 辯論이 盛行했던 古代희랍에 紀元하여 古代「로마」에 있어서 자라났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速記는 他文化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浮沈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른 것이며 더우기 現在의 文化社會에 있어서의 言語生活을 보면 물론 辯論은 活潑하고 거기에다가 印刷術도 크게 發達하여 文字에의한 意思表示는 古代희랍「로마」時代하고는 比할 수도 없을만큼 널리 利用되고 重要視됨에 따라 速記라고 하는 活動도 점점 커다란 存在價値를 갖기에 이르른 것이다.

그러나 이 地球上에는 700餘의 言語가 있지만 그것이 모두 文字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50餘種의 文字밖에 없기때문에 速記라고 하는 活動이 存在하는 言語는 스스로 限定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또 文字를 갖기에 이른 言語에 대하여도 모두 速記가 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速記라는 活動을 可能케 하는 手段으로서의 速記方式이 一般的으로 얘기해서 그 考案된 言語에만 適當하도록 發達되어 있기 때문이다.

速記方式의 發達史라는 立場에서 古代희랍 以來 온世界에 存在하는 速記方式의 系統을 여기에서 더듬어 본다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겠으나 한 言語에 대한 새로운 速記方式의 創案이라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作業으로 그 創案者를 中心으로 刻苦의 努力과 時間이 필요한 것이며 또 速記方式이 創案되었다는 한가지만으로서 速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速記方式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音聲에 의한 意思表示의 言, 句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듣는 聽取技術 또 거기에 의해서 速記方式을 自由로 驅使할 수 있는 方式運用技術, 그리고 그에 基礎를 두어 文字로써 正確히 表現할 수 있는 繕文技術等이 總合된 이른바 速記技術을 完成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現在와 같은 發達된 速記方式을 利用해 가지고 거기에 專念해서 2년 내지 3년의 敎育課程이 準備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하나의 言語에 대하여 速記가 可能케 될때 까지의 苦心과 努力은 상당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거기에다 이를 길러낼 수 있는 바탕으로서의 言論의 自由, 印刷術의 發達, 敎育의 普及, 여기에 基礎를 둔 出版文化의 發

達 등을 輕視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에서 使用되고 있는 國文速記에 있어서도 初期 創案期를 제외하고 解放以後 實用段階를 기점으로 하여 계산하더라도 지금 20餘年이 지난 오늘날 아직도 滿足하다고는 볼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으며 速記를 할 수 있게 된 言語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速記라고 하는 活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보통인데 그것은 日常의 言語生活이 會話를 中心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表現과 理解 또는 讀書를 中心으로 해서 理解하는 등에 그치고, 때에 따라서 「라디오」에 의한 理解, 편지에 의한 表現과 理解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速記라는 活動이 必要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速記라는 活動이 要求되는 것은 音聲에 의한 意思表示에 대해 文字化함으로 해서 記錄하고 傳達하고 表現할 必要가 생겼을 때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速記를 必要로 할 可能性이 있는 사람들로서는 우선 學生, 秘書, 記者等을 들 수가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배우기 힘든 速記보다는 이미 몸에 익혀져 있는 보통 筆記活動에 의해서 대신하고 있는 것이 普通이다.

즉 言語表現에 대한 意味內容을 要約해 가지고 文字化하는 要點筆記(노트) 또는 全部가 文字로써 받아 적을 수 있도록 천천이 얘기를 하게 하는 口述筆記 또는 뒤에 기억을 더듬으면서 文字化하는 想像筆記(記事) 等이 이것이다.

따라서 各各 때와 場所에 따라 이를 병용하면 一應 아쉬운대로 그 目的을 達成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速記는 이러한 各種筆記가 갖는 有利한 點을 모두 包含하는 形態로서 存在하는 것이나 그 習得이 普通敎育의 一部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 또 그 習得이 特別한 努力과 相當한 時間을 要한다는 점때문에 筆記를 必要로 하는 모든 分野에 있어서 速記가 利用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速記가 特殊한 筆記라는 形態로 筆記의 一種으로 생각되고 또는 筆記가 廣義의 速記로서 包括되면서도 여기에 速記를 業으로 하는 速記士라는

職業이 獨立되고 速記實務의 大部分은 이들 速記士라는 特殊技術者가 담당하게 되는 所以도 여기에 있으며 특히 速記士라는 職業이 獨立된 職業으로 成立되고 인정되는 것은 오늘날의 分業社會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一般的으로 言論文化로서의 演說, 討論, 會議, 講演, 座談, 談話等이 文字化되는 것에 대해서 關心을 갖고 또는 文字化된 記錄을 必要로 하는 여기에 速記士의 職場이 存在하는 것이다.

電話의 利用이 原稿의 授受에 있어서 극히 편리하다고 생각된 뒤로 여기에도 速記士의 活動할 수 있는 分野가 있어 특히 이웃 日本같은데에서는 활발히 利用되고 있다.

한편 스스로 붓을 들어 글을 쓰는 것보다 그 意味內容을 口頭로 發表하는 것이 時間的으로나 勞力面에서 극히 經濟的이라고 생각된 後로는 여기에도 速記士의 커다란 需要處가 發見되어 이 역시 日本에서는 著述速記라는 이름으로 활발히 利用되고 있는 것이다.

勿論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新聞記事의 電話送稿 또는 著述速記 이런 等等은 言論文化의 暢達을 위해 극히 必要한 速記分野라 할 수 있겠으나 經濟的인 理由와 當事者들의 理解不足으로 인해 아직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극히 活用度가 적은 分野라 하겠다.

그러나 雜誌에 있어서의 座談會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활발히 利用되고 있으며 이 速記라는 活動이 速記士라는 特殊職業에 獨占되어 있다고 하겠으나 速記의 成果로서의 速記錄, 速記에 의해서 만들어진 速記文化는 一般文化의 發達된 社會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存在로 되어가고 있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관심거리가 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 速記에 대한 實情과 그 本質을 把握한다는 것은 速記라는 活動을 하고 있는 速記士는 물론이려니와 直接 速記라는 活動을 하지 않는 一般사람들에게 있어서도 無意味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本稿는 이러한 速記에 대하여 速記活動에 使用하는 手段을 「速記方式」, 이 速記方式에 의하여 速記를 하는 기술을 「速記術」, 그 速記術에 의해서 完成

된 狀態의 것을 「速記錄」이라 칭하고 이에 관련하여 實際로 速記錄을 作成하는 業務를 「速記實務」, 이 速記業務를 行하는 사람을 「速記士」, 이 速記士를 養成하는 敎育을 「速記敎育」, 그리고 速記와 관련하여 이룩되는 文化를 「速記文化」라고 一應 槪念規定을 하고 以上의 모든 部門을 歷史的으로 그 發展過程을 살펴보고 比較分析하여 이를 體系化하고 그 속에서 보다 나은 未來의 可能性을 찾고자 하는 것이 目的이나 紙面과 時間上의 制約으로 여기에서는 速記技術과 直接 관련되는 「速記方式」과 「速記技術」에 대해서만 言及하기로 하고 「速記實務」와 「速記敎育」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第2章 速記方式

第1節 形態論(速記方式)

速記方式은 初期時代로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 많은 變遷이 있어 왔고 특히 現代에 이르러서는 各言語에 따라 數十 數百種에 이르는 各樣各色의 形態로 存在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오늘날의 이 科學時代에 있어서와는 너무나 異例的으로 어느 科學에 있어서나 前提條件이 되는 評價基準이나 比較分析이 없이 심지어는 用語의 定義, 用語의 統一조차도 없이 速記術이라는 것이 하나의 經驗的인 技術로서 發展해 왔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가. 速記方式의 原始的 形態

速記方式의 原始的形態는 一般人이 普通 使用하고 있는 筆記에 있어서 좀 더 그 能率을 올리려고 할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即 單位時間內에 될 수 있는대로 많은 文字를 筆記하고자 해서 쓰여지는 것으로서 草書體나 省劃體를 使用하는 것, 即 스스로 읽을 수 있는 範圍內에서 最大限으로 草書化하고 省略하는 것, 한걸음 나아가서 自己만이 알아볼 수 있는 어떤 符號를 섞어서 使用하는 것 等을 들 수 있는 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人間의 意思傳達方法이 人間의 慾求와 文化發展에 따라 必然的으로 發展해 온 過程이다. 손짓 발짓에서 言語로, 言語에서 다시 保存性과 傳達性을 가진 文字로, 거기에서 한걸음 벗어나 一般文字로서는 人間의 正常的인 發言을 記錄할 수 없다는데에서 言語速度와 一致한 記錄方法인 速記方式을 要求하기에 이르렀다는 點이다. 換言하면 우리말의 言語速度에 따라 記錄하자면 10分間에 2,000音字에서 4,000音字까지를 써야 하는데 一般文字에 의한 通常的인 記錄能力이란 國漢文 混用으로 10分間에 500字에서 700字程度가 그 限界點이다. (이에 對한 根據는 國會速記士 40名을 對象으로 制限時間內에 國漢文混用으로 筆記케한 結果 1分間 70字 5名, 60字 28名, 50字

7名이라는 統計에 의한 것이다.)

이와같은 關係를 一般文字가 처음으로 使用되기 시작했을 때로 遡及해서 본다면 兩者의 差異는 더욱 甚했으리라 생각된다. 그 當時에는 言語의 速度는 比較的 느렸으리라고 보지만 文字를 構成하는 劃線은 대단히 複雜하여 그것을 받아 쓰는데는 더욱 不便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文字 自體는 사람의 말이 끝나는 순간에 사라지는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을 그 速度에 一致하여 받아 쓰고자하는 意慾이 일어나서 앞서 말한바와 같은 速記의 原始的 形態가 試圖되고 거기에서 一步 進步된 形態로 速記文字라고 하는 特殊符號文字가 考案되면서 이것이 符號體系 速記方式의 起源이 되었다.

나. 符號體系 速記方式

一般的으로 速記라 할 때에는 이 符號體系(速記文字) 速記方式에 의한 速記活動을 뜻하고 있으며 速記의 槪念規定도 亦是 그렇다.

이러한 意味에서 現存하는 最古의 速記方式은 古代希臘語用의 Acropolis式을 들고 있다. 이러한 速記方式은 一般文字의 成立後 그 一般文字를 參考로 해서 一般文字보다 간단한 線으로 짜인 符號의 體系라는 形態로 出發한 것이다.

그 後 漸次 速記라는 活動이 必要하게 되어 그 手段으로서 速記方式이 考案되고 나아가 「點의 移動에 의하여 線을 긋는다」는 記線速記方式의 形態로 完成되어 온 것은 다른 文化面에 있어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歷史的 背景이 作用하고 있다.

即 어느 한나라, 또는 한時代의 文化가 그 나라 또는 그 時代의 모든 社會환경을 如實히 반영하는 것과 같이 速記도 그 創案과 發展과정에 있어서 歷史的 背景이 作用하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다. 例컨데 辯論이 한참 盛行하던 「로마」時代에 速記의 原始的 形態가 이루어졌고 그 후로 14,5世紀 동안 침체상태에 있다가 産業革命以後 歐洲諸國의 文藝復興에 힘입어 한층 發達된 速記法式을 創案하여 近代速記의 기틀을 잡았으며 어느 나라의 速記發達史를 보더라도 議會速記를 中心으로 發達되어 왔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社會制度의 發達과 速記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말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말 速記가 싹트기 시작한 것은 1910年代에서 20年代 사이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말 速記가 實用段階에 들어가고 또 그것이 必要에 쫓기게 된 1945年의 해방때 까지 오랜 沈滯期를 겪었던 것은 잘 아는바와 같이 日帝의 우리 語文抹殺政策에 起因했던 것이다. 따라서 序說에서 論及한바와 같이 速記가 發達하기 위한 社會的背景이랄까 環境은 言論의 自由, 印刷術의 發達, 敎育의 普及, 또 여기에 기초를 둔 出版文化의 發達등을 들 수가 있는 것이다.

다. 速記方式의 三大基本要素

速記方式이 速記라는 窮極的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構成하는 速記文字가 다음과 같은 세가지 基本的인 條件을 滿足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가.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을 그 速度에 따라 表記할 수 있을 것

나. 表記된 것이 後에 一般文字化될 수 있도록 飜文할 수 있을 것

다. 이들 速記文字들이 努力에 의하여 記憶 使用될 수 있을 것

이러한 세가지 條件은 一般的으로 「쓰기쉽고, 읽기 쉽고, 외우기 쉬운」이라는 말로 表現되고 있으나 이들은 어느 것이나 서로 相反된 形態로 相關關係를 가지고 있다.

가령 쓰기쉽게 하기 위해서는 簡單하고 쓰기쉬운 線을 使用하지 않으면 안되나 이 點을 좀 無理하면 똑 같은 形이 많게 되어 외우기 어렵게 되고, 高速度인 경우 흐트러져서 飜文하기 어렵게 된다.

읽기 쉽게하기 위해서는 各各 特徵이 있는 여러가지 形態의 線을 使用하지 않으면 안되겠으나 여기에 重點을 두면 線이 複雜하여져서 쓰기 어렵게 되고 種類가 많아져서 외우기 어렵게 된다.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使用하는 線이 相互關聯되어 全體的으로 體系가 서 있지 않으면 안되겠으나 言語自體가 數學의 原理와 같이 體系가 正確히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線의 使用에 無理가 생겨 쓰기 어렵고 읽기 어렵게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速記文字에 어떠한 線을 利用할 것인가에 대한 線의 硏究

가 行해지는 한편 그 速記文字의 對象인 言語에 대한 그리고 文字에 대한 硏究가 行해지고 여기에 맞추어 이를 速記文字를 如何히 體系化하느냐에 대하여 여러가지 法則에 關한 硏究가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硏究는 一般文字의 경우에도 若干 試圖되어 왔으나 一般文字의 경우에는 그 社會性과 關聯되어 있기 때문에 쓰여진 것이 그 文字體系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읽혀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다. 때문에 그 進化는 事實上 遲遲不振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言語에 대해서 數多한 文字體系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 大部分 一定時代 一種類의 形態를 이루었다.

이에 反해서 速記文字는 여러가지 流派로 나뉘어 發展되어 왔고 또 1言語에 대하여 數多한 速記法式이 出現되어 盛衰를 거듭하여 왔다.

勿論 모든 學問分野에서 그렇듯이 速記文字의 경우도 絶對 最善 最良이란 있을 수 없으나 이것을 目標로 많은 硏究를 하여 改良되고 또 새로이 創案되었다.

「라틴」語의 速記方式이라고 推測되는 「티로」의 略記法이 速記術의 嚆矢라고 普通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唯一絶對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近代語의 速記方式은 英國人 「티모디·브라이트」가 「라틴」語 速記法式을 再檢討해서 1588年 「런던」에서 英語速記法이라 하여 發表한데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 後 英語用의 速記法式만 해도 그 數가 3百餘種에 이르고 있다.

또한 日本의 경우는 1882年(明治 15年) 田鎭綱紀에 依하여 美國의 「그라함」式을 본따 만들어 낸 것이 最初인데 지금 日本에서 使用되고 있는 速記法式은 무려 70餘種에 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0餘種의 速記法式이 發表되어 왔다.

라. 機械速記方式

앞서 얘기한 符號體系 速記方式은 古代希臘에 그 起源을 둔 사람의 손에 의한 記線式의 速記方式을 통털어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機械速記方式이 나오기 前까지는 唯一한 速記方式이었다.

그러나 近代 機械文明의 發展은 손에 의하여서만 記錄이 可能하던 文字의

表記가 「타이프라이터」라는 機械에 의하여 能率的인 表記가 可能케 되어 이것이 速記方式에 까지 利用케 되었으며 사람의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을 그 原形대로 保存, 再生시킬 수 있는 錄音機의 發明은 지금까지는 手筆速記方式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補助器具로서 使用되어 왔으나 研究改良의 結果 一部에서는 錄音速記方式으로 使用되기 까지에 이르렀다.

① **打字速記** 「타이프라이터」의 原理를 利用한 打字速記는 1827年 佛人 「고노」의 『machine tachygraphiue』가 最初의 것으로 그 後 몇사람에 依한 實驗을 거쳐 1911年 美國人 「와드·스톤·아이랜드」의 Stenotype에 이르러 符號體系 速記方式과 겨룰 수 있는 程度의 實用化가 되었다.

② **錄音速記** 錄音機에 의하여 錄音된 「테이프」를 「스트렛처」(스피드를 느리게 하는 機械)를 써서 直接 一般文字로 베끼는 記錄方法이다.

前에 美國에서 手筆速記와 錄音速記를 競爭시켜 比較하였으나 그 結果는 手筆速記가 壓倒的으로 勝利하였다고 한다.

第 2 節 構造論(流派 및 法式論)

速記活動의 基本은 速記文字에 있으며 그 速記文字의 構造가 速記法式으로서 音聲學 그리고 그 나라 文字構成體系와의 關係에서 얼마나 科學的이고 合理的인 體系를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 該當 言語文字의 構造와 關聯하여 分析檢討하는 研究가 速記學의 基本課題라고 본다.

速記文字의 構造는 그 基本이 劃線體系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劃線이라 함은 符號體系 速記方式에 있어서 그 速記文字의 形式으로서 利用하고 있는 소위 「線」을 말하는 것으로 一般的으로 無限한 種類의 實際 쓰여지고 있는 具體的인 線을 線條라 하고 이에 대하여 특히 어떤 條件에 의하여 規制되고 있는 有限의 理想的 「線」을 劃線이라 하여 兩者를 區別하는 것이다.

이 劃線體系라는 立場에서 一般文字를 관찰하면 「로마」字의 筆記體는 斜線을 基礎로 하여 使用했고 漢字의 筆記體는 永字八法을 基礎로 하여 使用하고 있다. 古代速記方式은 一般文字를 參考로 간단한 線으로 짜보려고 했

기 때문에, 一般文字에서 使用하고 있는 劃線을 一應 體系로서 整理하여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諸劃線을 利用코자 한 것이기 때문에 一般文字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차츰 速記文字의 構成에 있어서 많은 種類의 線中 되도록 간단하고 記錄便宜한 線을 配當할 必要가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一般文字와의 關聯을 떠나 獨自的인 立場에서 劃線體系를 發見하여 그 構成要素로서의 各 劃線을 利用하는 편이 便利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劃線體系가 發見되어 符號體系 速記方式의 分類도 여기에서 可能케 되었다.

이를 大別하면 正圓派(幾何線派), 斜線派(草書派), 楕圓派(半草書派), 一般文字派의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 正圓派(幾何線派)

正圓派는 자(尺)와 「콤파스」에 의해서 쓰여지는 幾何學的 線을 利用코자 한 것이기 때문에 幾何線派라고도 한다.

即 正圓을 等分하여 그 等分된 圓의 둘레와 等分한 直線들을 基礎로 하여 여기에 「點」「圓」「楕圓」「갈고리」等의 點劃을 併用한다. 그 特徵은 各劃線이 幾何學的 性質에 의하여 分類될 수 있다는 點이다. 따라서 利用할 수 있는 劃線을 容易하게 抽出해 낼 수가 있어 學習에 있어서 상당히 理解하기 쉽다는 것이 定說이다.

歷史的으로는 1720年代에 나타난 「바이름」式에서 始作 1837年 「핏트맨」式과 「듀프로이」式에 이르러 大成했다.

우리나라의 速記法式들은 大部分이 正圓派인 「핏트맨」式의 原理를 利用한 것이다.

나. 斜線派(草書派)

正圓派가 利用可能한 劃線을 抽出하여 使用코자 한데 대하여 記錄便宜한 線만을 抽出하여 使用코자 한 것이 이 斜線派이다.

即 「로마」字의 筆記體를 整理 右上의 斜線과 左下의 斜線을 基礎로 그 斜線의 字頭나 字尾에 「갈고리」나 圓의 點劃을 붙여 整理한 것이다.

그 特徵은 日常的으로 使用하고 있는 「로마」字의 筆記運動을 그대로 利用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쓰기 쉽다는데에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로마」字를 常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學習上 오히려 서툰 點이 缺陷으로 指摘되고 있다. 歷史的으로는 1802年 Noe式(伊太利) 1808年 Thibierge式(佛語)等에 의하여 試圖되고 1834年 「가벨스버거」式(獨)에 이르러 一應 大成하여 독히 獨逸을 中心으로 發展하였다.

다. 楕圓派(草書派)

正圓派 及 斜線派에 대해서 이 兩者를 折衷한 立場에 있는 것이 楕圓派이다.

楕圓派는 「곱파스」로 그리는 幾何線的인 正圓代身 오른손으로 그리는 楕圓的인 自然圓을 使用코자 한 것이다. 即 水平, 左下向, 右上向 三種의 直線과 그 各各을 弦으로 하는 自然圓, 所謂 自然線을 線劃의 基礎로 하여 여기에 圓과 「갈고리」를 併用하고 있다. 그 特徵으로서는 正圓派와 같이 各劃線이 一應 幾何學的 性質에 의하여 分類됨과 同時에 斜線派와 같이 實際로 오른손으로 쓰기 쉬운 線을 使用하기 때문에 正圓派의 各 長點을 有效하게 利用할 수 있다는 點이다. 正圓派가 幾何線派, 斜線派가 草書派라고도 불리는데 楕圓派를 半草書派라고 하는 것도 이런 理由때문이다. 그러나 歷史的으로는 正圓派의 系統을 잇는 것이다.

即 正圓派의 劃線이 實際로 쓰이는 過程에서 조금씩 試圖되어 1886年 「매로우」式(英語), 1888年「그레그」式(英語) 等에 이르러 全面的으로 使用된 것이다.

라. 文字派

이 文字派의 劃線體系는 前記한 세가지 流派와 그 形式을 달리하고 있다. 速記方式의 發展過程上으로 볼 때에는 오히려 原始的인 方式에 屬하는 것으로 一般文字의 劃線을 重要視하여 一般文字의 草書化 또는 省劃化한 것을 그대로 使用코자 하는 方式이다. 따라서 實際로 쓰이는 劃線은 다르다 하더라도 速記方式의 發展過程으로 볼 때는 가장 먼저 나타난 形態다. 歐美에 있어서도 正圓派가 나타나기 前의 速記方式은 大部分 이러한 系統이었다.

이 文字派의 特徵은 一般文字의 劃線的 普遍性을 旣習知識으로서 利用하

기 때문에 記憶하기 쉽고 읽기 쉽다는데 있다. 이런 點이 近代的 劃線體系가 發見되어 使用된 以後에도 文字派의 劃線體系가 使用되는 魅力의 하나이다.

이 文字派는 특히 近年에 이르러 歐美쪽에서 所謂『알파벳 速記法』이니 「Speed hand」 또는 「Speed writing」이니 하는 이름으로 盛行되고 있고 이웃 日本의 경우에도 明治年代에 田鎭系의 實務者들에 의하여 一部 試圖가 되었고 그 後로 여기에 近代的 速記方式的 要素를 加味한 여러가지 速記法式이 나왔다.

以上 速記文字 構造上으로 본 네가지形態에 대한 說明을 略述하였으나 어느 것이 가장 우수한 劃線體系를 가진 構造냐 하는 點에 이르면 各各 一長一短이 있어 斷言키 어렵다. 따라서 前述한 어떤 流派의 劃線體系를 採擇하느냐에 따라 速記法式의 優劣이 決定된다기 보다는 記錄可能한 劃線을 言語構造上의 科學的인 統計資料에 의하여 合理的으로 如何히 配列하느냐에 따라 그 優劣이 決定된다고 할 수 있다. 이 速記文字 構造研究의 基礎로서 劃線論外에 言語論이 있어 이 兩者의 관계를 規定하는 것으로서 速記文字의 法則論을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第 3 節 言語論

가. 言語學上으로 본 速記文字의 發展過程

速記文字를 實際로 運用하는 경우를 생각할 때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을 귀로 들으면서 이를 速記文字에 의하여 記錄하고 뒤에 그 速記文字를 읽으면서 一般文字化하는 것이 即 速記活動이다.

따라서 速記文字가 어떠한 內容을 表現하든 그를 基礎로 나중에 文字化할 경우 最初의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 그대로 文字化되면 된다는 論據가 成立된다. 여기서 言語와 關聯 速記文字를 어떠한 形態로써 表記할 것인가에 關한 여러가지 說이 擡頭되고 있다.

그것은 結局 劃線을 形式으로 하는 個個의 速記文字가 어떠한 形態로써 어떻게 表示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點이다. 여기에서 速記文字의 立場에서

본 言語論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數種의 說이 있으나 大別하면 表字說, 表音說, 表語說, 表意說로 나눌 수 있다.

表字說—表字說은 速記文字의 形態를 普通文字가 나타내는 要素와 同一한 것으로 하려는 思考方式이다. 即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을 그대로 一般文字로는 받아쓰기 困難하므로 速記文字로 받아쓰자는 것이니까 速記文字를 一般文字의 代用이면 된다는 說로서 所謂 原始的 速記方法 即 文字派가 이 立場을 取한 것이다.

表音說—表音說은 近代速記의 大宗을 이루고 있는 「핏트맨」式이 取하는 立場으로 音聲學的 立場에서 言語의 表音的 原則에 重點을 두고 速記文字를 構成하자는 思考方式이다.

이웃 日本에서도 初期에 이 表音說에 置重, 어떤 말이든지 그 發音에 따라 쓰는 것을 理想으로 삼았으나 速記文字를 表音的으로 使用한다는 것은 다만 맞춤法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뿐이고 各言語表現마다 모두 表記하게 되는 것이다. (例 「가」「까」「카」와 같은 音도 各各 다 表記함)

그 結果 이 表音速記로서는 表記速度의 위축을 가져오게 하여 言語速度와 一致한 速記를 하기에 어렵게 되었다.

그리하여 速記文字가 그 役割을 다 하는데는 文字의 表記처럼 音의 表記를 充實하게 區別하여 나타낼 必要는 없고 言語에 있어서 劃線을 같이 써도 區別하여 읽을 수 있게만하여 나타내면 된다. (例 「가」「까」「카」와 같은 音에 대하여 「가」로 表記하여 「가」「까」「카」로 飜文하는 것 따위로서 이는 飜文에 支障을 招來하지 않는 範圍內라야 한다)는 方向으로 기울게 되어 表語說로 發展하게 되었다.

表語說—表語說은 表音說 自體의 缺陷이 점차 認識케 되어 나타난 것으로 速記活動이 窮極的으로 나중에 文字化하는데 目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들리는 것을 音대로 忠實하게 表記하는 것보다 그 뜻을 理解하면서 받아쓰는 것이 效果的이라는데에 結論을 얻어 近代速記들이 모두 이 表音說에서 表語說로 發展해 갔다.

表意說—이는 表語說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同一한 意味의 말은 同一한

速記文字로 表記(例 「사람」과 「인간」이란 單語를 「사람」이라는 速記文字 하나로써 表記하는 것 따위) 해도 된다는 說인데 이것은 速記가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을 그대로 文字化한다는 面이 強調되는 限에 있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文字化된 것의 그 表現(文體的인 面)이라는 面이 強調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에는 文字化된 것이 文體的으로 整理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表意說이 나올 수 있는 根據가 있다.

速記活動이란 人間活動中 言語活動에 直結되는 活動이다. 따라서 言語가 成立된 다음에 文字가 成立되었고 文字가 成立된 다음에 速記가 發生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言語의 研究와 速記의 研究는 密接不可分의 關係에 있으며 특히 速記文字와 그 나라의 國語와의 關係는 相關關係를 가지고 있다.

나. 우리말의 速記文字 構成上의 難點

言語는 思想傳達의 道具이며 社會區劃의 單位이고 社會的 產物이기 때문에 言語는 그 社會의 精神이요 性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社會는 歷史的으로 基本性格을 가지며 이를 生命으로 하여 發展하는 것이다.

社會의 部分的 特性은 時代的 地域的 與件에 따라 變轉할 수 있어도 그 核心的 基本要素에는 根本的 變化가 없기 마련이다. 言語도 마찬가지로 社會的 性格을 지니기 때문에 그 歷史性에 따라 生成, 轉化, 死滅하기는 하나 이는 그 一部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基本的 核心要素에는 變動이 없다.

이렇게 歷史的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는 한 나라의 言語現象이 複雜하면 그 나라 文字의 構成과 使用이 多端하며, 言語現象과 文字의 構成과 使用이 多端할 수록 이에 絶對的인 影響을 받아 그 나라 速記文字의 構成도 複雜多端하게 됨은 必然之事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곧 速記文字構成의 難易가 그 나라 言語文字의 現象에 左右된다는데 緣하기도 한다.

速記文字의 構成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은 基本音節의 문제로서 音節이란 單語 또는 單語의 一部를 이루는 發音의 單位이다. 單音은 音韻組織을 最

大限으로 分析하여 抽象된 音質的單位에 不過할 뿐 言語活動에 있어서 現實的인 最少單位는 亦是 音節이다. 言語는 대개 音量의 크고 작은 音이 쉬이고 바뀌어서 連續되고 여기에 「텐션」(tension: 發音器管의 諸筋肉의 努力)의 弛緩으로 말미암은 音의 強弱이 交替되기 때문에 一種의 「리듬」이 생기는데 이 分節된 「리듬」의 單位가 音節이다.

音節의 境界는 民族의 言語習慣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印度, 「유럽」語에서는 子音만으로도 한 音節의 形成이 可能하나 우리말에서는 반드시 母音을 必要로 한다.

또한 英語의 「Strike」나 獨語의 「Stein」은 한 音節이지만 우리말에서는 4音節 및 3音節을 形成한다.

그러면 우리말의 基本音節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우리말 速記文字의 構成上의 難點에 대하여 論述하고자 한다.

우리와 같은 系統의 言語로서 日本語와 比較하여 볼때에 日本語의 基本音節은 音的으로 不過 47音이고 拗音 21音과 濁音 21音을 合해도 不過 89個音, 우리말은 音字가 子母音의 2音合用보다 子音 母音 받침의 3音合用音의 使用이 매우 많다.

參考로 우리말의 音節構造를 쓴다면 다음과 같다.

1) 母音	「오」「이」
2) 子音+母音	「나」「라」
3) 母音+子音	「암」
4) 子音+母音+받침	「독」
5) 半母音+母音	「예」「요」
6) 半母音+母音	「웨」「워」
7) 子音+母音+流音+받침	「닭」「읽」

또한 音節別 分布도 1音節語가 26.2%, 2音節語가 49.5%, 3音節語가 19.5%, 4音節語가 4.8%로 2音節語가 半을 차지하여 우리말이 多音節語임을 알 수 있으며 文化가 發展하고 言語表現이 複雜해 짐에 따라 多音節語의 發達은 不可避한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말 母音의 類似音의 문제를 살펴보면 音韻學上 우리말의 母音은 그 變化가 尤甚하다.

母音을 陽母音(ㅏ, ㅗ), 陰母音(ㅓ, ㅜ, ㅡ), 中母音(ㅣ)으로 分類할 수 있으며 中母音을 陽, 陰母音에 合用하여 ㅐ, ㅔ, ㅟ, ㅚ, ㅢ를 이루고 또한 陽母音을 相互合用「ㅘ」, 陰母音을 合用「ㅝ」, 그리고 三重的 母音合用으로 「ㅞ」, 「ㅙ」까지 現用된다.

그리고 사람이나 地域에 따라 같은 말이라도 달리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아주(아조) 굼벵이(굼벙이) 돼지(도야지, 되지) 아기(애기) 만들다(맨들다) 제미(자미)등이 그것이며 發音上 類似하게 聽取되는 경우가 甚하니 그것을 分類 羅列하면

正 音 ㅏ ㅓ ㅜ ㅣ ㅐ ㅔ ㅚ

類似音 ㅘ ㅝ ㅡ ㅕ ㅟ ㅖ ㅞ ㅙ ㅢ등으로 正確한 發音을 日常生活에 나타내기란 힘든 것이다.

다음에 音韻變化의 문제도 있고 우리말의 特性이라 할 수 있는 助詞(吐)의 存在는 速記文字의 形式上 좋은 記號를 助詞(吐)에 빼앗기는 弊端이 생기고 자칫 言語上에 있어서 助詞(吐)를 略해 버리는 例가 許多하여 文章化에 있어 隘路가 많고 方言 또한 이에 못지 않게 速記에 커다란 隘路가 되고 있다.

以上에서 본바 言語學上 우리말의 基本音節이 많고 또한 子母 2音合用보다 子, 母, 받침의 3音合用이 많이 使用되며 우리말이 多音節語이며 母音의 類似音의 문제등 우리말을 速記文字化하는데는 許多한 難點이 많은 것이다.

第 4 節 劃線과 言語와의 관계

速記文字는 劃線을 形式으로 하고 言語의 어떤 要素를 內容으로 하여 成立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어떠한 劃線에 어떠한 內容이 配當되어 있느냐 하는 점이고 어째서 그러한 劃線에 그러한 內容이 配當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가령 보통文字에 있어서 볼 것 같으면 「로마」字는 「에집트」의 繪畵에서 發達한 「에집트」文字에 그 根源을 求할 수가 있다. 그리하여 그 劃線이 점차로 간단해 지면서 「페니기야」 희랍 「로마」를 거쳐 近代語의 表記에 使用하게 되었고 이 단계에 이르러서는 그 各文字의 形式인 劃線과 그 文字가 뜻하게 된 內容과는 直接관계가 없어지고 그 文字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 文字의 경위에 대해서 意識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文字의 形式인 劃線과 그 文字가 表現하기에 이른 言語의 어떤 要素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러한 結合이 이루어지기 까지의 經路를 더듬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必然性을 說明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速記文字의 경우에는 보통文字 以上으로 人爲的 要素가 強해지고 있다. 따라서 보통文字의 경우와 같이 歷史的인 경위만으로 이를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形式인 劃線과 그 내용인 言語의 어떤 要素와의 사이에 그래야 되겠다는 意圖가 있어 規定된 것이다. 가령 보통文字를 기초로 하여 그 表現하는 內容에는 변화를 주는 일 없이 다만 그 形式인 劃線에 있어서 草書化 또는 省劃化한 것을 사용한다는 方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편의상 省劃說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 省劃說은 速記文字라는 것이 그 原始的 形態에 있어서 劃線的으로는 文字派에 屬하고 그 表現하는 內容으로서는 表字說을 취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當然한 것이라 하겠다.

省劃說은 近代語의 速記方式에로 繼承되었다. 1962년의 Willis式(英語)에 있어서도 「A」를 「∧」로 「E」를 「<」, 「Q」를 「O」 이런 式으로 쓰이고 있었다. 그 以後로도 「C」를 「(」로 또는 「H」를 「h」로 「E」를 「e」로 하는 등은 普通文字의 一種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고 「U」를 「V」로 「G」를 「q」 「D」를 「)」로 하는 것등은 보통文字를 草書化 또는 省劃化한 것이다. 日本에 있어서는 「草가나」와 「가다가나」가 여기에 屬하고 明治以後에 있어서는 「가다가나」系의 日下部案, 櫻井案, 菅原案等을 거쳐 岩村式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有名無名의 사람들이 여러가지 형태로 이 省劃說에 의한 速記方式의 創案을 시도한바 있으나 너무나 無理가 많아 全혀 빛을 보지 못했거나

와 이것이 劃線的으로는 文字派에 屬하고 또 그 表現하는 言語의 要素라는 立場에서 表字說에 속한다 하더라도 劃線과 그 表現하는 內容과의 사이에 보통文字와의 관련을 重要視한 것이 아니면 省劃說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 速記文字를 記憶한다는 입장에서 보통文字와의 關聯을 強調하는 方式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나중에 억지로 갖다 붙인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역시 省劃說에 기초를 두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省劃說이 보통文字와의 關聯을 重要視한데 대해 發音과의 관련을 重要視한 방법도 있다. 그것은 劃線의 어느 要素가 音聲의 어느 要素를 象徵하도록 꾸며보려는 것으로 象徵說이라고 부를수 있는 것이다. 이 象徵說은 部分的으로는 有聲音과 無聲音을 같은 劃線으로 한다는 形態로 몇차례 試圖되어 1837年의 Pitman式에 있어서 積極的으로 採用되었다. Pitman式은 母音과 子音과의 區分을 點劃과 線劃, 前母音과 後母音과의 區分을 小點과 小線 短母音과 長母音과의 區分을 淡點과 濃點 無聲子音과 有聲子音과의 區分을 淡線과 濃線 이런 式으로 各各 象徵케 했고 1840年版에 이르러서는 子音에 있어서 한발 앞서 破裂音을 直線으로 其他를 曲線으로 하고 調音點에 의해 입의 앞쪽서부터 안쪽으로 劃線의 方向으로 應하게 하기 위해 脣音은 右下行線 齒音은 直立線 硬口蓋音은 左下行線 軟口蓋音은 水平線으로 했다. 그리하여 各 音聲이 갖는 여러가지 性質을 劃線이 갖는 여러가지 性質에 의해 象徵하고자 한 것이다. 이 Pitman式에 있어서의 劃線과 그것이 나타내는 音韻과의 관계는 Graham式을 通해 日本에 導入되어 日本最初의 實用速記方式인 田鎖式에 引用되었다. 그러나 이 田鎖式의 翻案態度에 있어서는 Graham에서 볼 수 있는 音韻과 劃線과의 對應이 이러 이러한 경위에 의해서 規定되었다는 사실이 意識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Graham式에 있어서의 音韻과 劃線과의 관계가 絶對的인 것으로 인식되어 이를 어떻게든 尊重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方法)을 絶對說이라고 하며 이 絶對說은 國語의 「로마」字 表記라든가 또는 英語를 위한 速記方式을 佛語나 獨語에 適用시키는 경우 또는 그와 反對의 경우에 항상 사용하는 方法이다. 따라서 앞서 든 日本의 最初의 實用 速記方式이었던 田鎖式에 있어서 Graham式이 갖는 劃線을 그

內容으로서의 音價에 必要以上의 변화를 加하지 않은채 日語의 表記에 利用되었다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 田鎖式은 絶對說에 基礎를 두고 Graham式이 갖는 表音速記文字를 「로마」字로 日語를 表記하는 것과 같은 方法을 取하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速記文字가 表現하는 內容에 대해서는 表音說이 채택되던 時代였기 때문에 田鎖式의 絶對說에 대해서 表音說的 觀點에서 지나친 牽強附會가 있었다. 即 田鎖系 森本案에 있어서는 母音을 나타내는 速記文字에 대해 「ア」(아)를 입을 크게 벌려 發音한다고 해서 大半圓을 사용하고 「イ」(이)는 입을 적게 벌려 發音한다고 해서 小半圓을 쓰고 또 「ウ」(우)는 두입술을 거의 붙여서 發音한다고 해서 水平小線을 使用하였다. 이와같이 各劃線을 各母音의 發音狀態의 模寫라는 形態로 說明을 하였다.

劃線과 그 表現하는 音과의 관계를 이와같이 생각하는 경우를 模寫說이라 부르고 앞서 말한 森本案의 경우는 田鎖系의 速記文字를 若干 改良해서 쓴데 不過하니까 速記文字를 記憶하는데 있어서의 便法으로도 보아지는데 여기에 한걸음 앞서 처음부터 이 模寫說에 根據를 둔 速記文字를 만든 것이 林式이다. 林式에 있어서는 發音의 관찰에 기초를 두고 입의 열고 닫음, 혀와 입술의 作用을 劃線에 의해 模寫하는 것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速記文字가 만들어지고 있다. 例를 들면 日語 「ク」(구)의 경우 혀의 끝을 입천장 안으로 말아 올려 그 틈으로 숨을 내알아 發音을 하니까 입천정 안을 표시하는 水平短線과 혀를 표시하는 右上行線과를 합치는 것을 表示하는 點에 의하여 連綴한다는 식이다.

이 模寫說은 Pitman式 以後에 있어서의 英國에서도 볼 수 있다. A. M. Bell이라든지 H. Sweet의 視話文字가 이것이고 Bell은 音聲學的 연구에 기초를 두고 1857년에 Bell式이라는 것을 發表를 했는데 여기에다 音聲學的인 面을 더욱 強調하여 1867년에 Visible Speech라는 책을 써서 視話文字로서 完成을 했다.

그것은 個個의 單音을 模寫的으로 表現하기 위해 各單音의 發音法의 기초가 되는 여러가지 條件을 各各 劃線的인 要素에 의해 나타내고 그것을 하나

의 記號體系로 整理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이 Sweet에 계승되어 Organic Notation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速記文字의 硏究에서부터 始作되었다고는 하나 이미 速記文字의 단계를 넘어서서 音標文字的인 것이 되고 말았다.

日本의 林式의 경우도 그 뒤에 劃線을 훨씬 간단히 했으나 역시 田鎖系가 發音의 理論에 反하는 것을 비난하고 發音狀態의 模寫에 더욱 힘썼다. 改正林式과 田鎖式과의 根本的 差異는 前者가 母音에 線劃을 配定하고 子音에 點劃을 配定한데 대해서 後者는 그와 반대로 母音에 點劃을 配定하고 子音에 線劃을 配定했다는 點이다. 林式에 있어서는 母音이야말로 發音의 기초니까 劃線의 基礎인 線劃을 配定해야 한다는 主張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여기에 대해 田鎖式은 Graham式의 方法을 그대로 계승한데 不過한데 이미 Graham式에 있으면서 日語의 表記에 쓸모 없는 速記文字의 劃線을 日語의 表記에 필요한 音을 表記하기 위해 미리 利用하고 있다. 때문에 林式은 劃線體系에 있어서 비교적 풍부한 線劃中 겨우 「ア, イ, ウ, エ, オ」(아, 이, 우, 에, 오)에 해당하는 다섯個를 골른데에 不過하고 主로 點劃을 利用했다. 이에 대해서 田鎖式은 線劃을 子音으로서 主로 利用하고 點劃의 利用을 다섯個에 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正圓派의 劃線體系의 有效한 利用이라는 立場에서는 田鎖式 쪽이 林式보다 앞서 있었으며 이 林式이 實用化라는 觀點에서 失敗한 하나의 원인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된다. 따라서 이 模寫說은 英國에 있어서나 日本에 있어서나 速記文字로서는 失敗에 끝났던 方法이고 한편 象徵說도 音聲學的 연구의 발달에 의해 그 기초가 흔들리고 劃線論的 연구의 발달에 따라 더욱 유효한 方向으로 發展을 보게 되었다. 對應說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方法이 이것인데 그것은 有效한 劃線을 有效하게 利用키 위해 利用하고자 하는 線劃의 體系와 區分해서 表示할 必要가 있는 音韻의 體系와를 재치있게 對應시키고자 하는 方法이다. 그 對應시키는 방법은 頻出度가 높은 音韻에 쓰기 좋은 劃線을 配定할 것, 잘 짝지워지는 音韻에 이어 쓰기 좋은 劃線을 配定할 것 等이 고려되어야 한다. 1881年의 Stolze式(斜線派, 獨語) 1860年의 Duployé式(正圓派, 佛語) 1888年의 Gregg式

(楕圓派, 英語)等은 어느 것이나 對應說에 基礎를 둔 優秀速記方式이다. 日本에 있어서도 田鎖式은 몇차례의 改正에 의해 결국 對應說에 기초를 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었다. 또 새로 外國語의 速記方式을 翻案한 경우 Pitman式에 기초를 둔 「칸트랫트」式, 武田式, 그리고 Gregg式에 기초를 둔 宅間式, Kunovski式에 기초를 둔 大場式等 田鎖式이 最初에 취한 絶對說에 가까운 傾向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나 「칸트랫트」式과 田鎖式과를 折衷한 熊崎式 또 武田式과 熊崎式과를 折衷한 中根式등은 어느 것이나 對應說에 基礎를 둔 方式이다. 또 毛利式은 몇차례인가 改正되어 결국 對應說에 기초를 둔 斜線派라는 형태로 成功한 것이다. 또한 泉式은 對應說에 기초를 둔 文字派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고 그 外에 田鎖系에 屬하면서도 積極的으로 對應說에 의해 再檢討하여 거기에 의해 크게 改良을 한 方式도 적지않다. 그中에서도 獨特한 존재가 된 것은 이어쓰기를 했을 경우의 흘림을 적도록 한 野崎式, 音韻의 頻度와 劃線의 速度와를 對應시킨 12年式, 融合運動이 利用될 수 있도록 한 森山式, 曲線을 中心으로 對應시킨 新丹羽式등을 들 수 있다.

다만 劃線과 그 表現하는 內容과의 관계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고쳐지지 않는 동시에 고쳐지는 경우에도 반드시 應分의 理由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劃線과 그 表現하는 內容과의 관계를 追究함으로써 速記方式의 系統을 더듬어 보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보통 文字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歷史的 經緯를 밝히는 것도 가능하다. 要컨데 速記文字에 있어서 劃線과 그 表現하는 內容과의 관계는 根本的으로 恣意的인 것이라는 點이다. 여기에 恣意說이 成立된다. 恣意的이라면 더욱 무엇인가 根據를 求해야 되겠다 해서 省劃說 象徵說 模寫說 對應說等의 理論이 생겼거니와 이 恣意說에 對立하는 것이 絶對說이나 이 絶對說은 方式翻案의 경우에서 찾을 수 있는데 不過하다. 그나마도 原方式과의 관계가 意識되지 않게 되면 田鎖式과 마찬가지로 恣意說에 의한 것과 같은 狀態에 있어서 獨自的인 발달을 해 나간다. 그리하여 오로지 實用的인 觀點에서 改良이 되면 결국 對應說에 기초를 둔 것과 마찬가지 狀態에 있어서 完成되는 것이다.

以上 速記文字와 관련하여 劃線과 言語와의 관계를 英國쪽 또는 日本의 경우를 中心으로 考察하였거니와 우리나라의 경우 부끄러운 일이나 從來에 이 方向에 대한 연구가 全혀 없었으나 우리나라의 速記文字는 그 沿革을 더듬어 볼때 Pitman式이 아니면 Graham이 日本을 거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앞서 說明한 얘기들이 그대로 適用된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남들이 여러번의 試行錯誤를 거쳐 이룩해 놓은 열매를 가지고 利用했기 때문에 速記文字創案 發展에 있어서의 진통이 비교적 적었으며 省劃說이라든가 象徵說 또는 模寫說같은 것이 速記文字에 體系的으로 적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部分的으로는 상당한 比重으로 利用되고 있다고 본다. 가령 한글 풀어쓰기 형태의 文字派에 속하는 速記方式이 試圖된 바도 있는데 이것은 省劃說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速記方式은 그 形成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계보를 더듬어 볼 수 있는 資料가 없기 때문에 이 方面에 대한 硏究는 앞으로의 숙제라고 볼 수 있겠다.

第5節 基本文字와 略字

速記文字를 大別하면 單語와 連語를 個個의 音 또는 文字로 分析하여 表記하는 基本文字와 個個의 單語 또는 連語를 直接 表記하는 略字로 分類할 수 있다. 그런데 兩者中 어느 것에 重點을 두느냐 하는 것은 여러가지 단계가 있어 古代 速記方式은 略字中心의 形態로 實用化되었던 것 같다. 即 速記文字 그 自體는 表字說에 의거해서 만들어졌었으나 基本文字를 構成하는 劃線이 비교적 複雜했기 때문에 基本文字를 普通文字와 같이 적어서 實際로 얘기되는 言語表現을 따라 적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느 單位時間內에 行해지는 言語表現에 대해서 그 時間內에 쓸수 있는 筆記운동의 범위內에서 또 나중에 그것이 普通文字化가 될 수 있는 文字를 速記文字에 의해 表記하려고 했다.

가령 Tiro式에 있어서는 MCo라고 表記함으로써 Marcus Cicero를 뜻한다는 式의 형태가 主가 되었었다. 이 Tiro式을 增補整理한 Seneca案에 의하면

이와 같은 略字가 1만수천에 이르고 있다 한다.

이와같은 略字中心의 方法은 一應 그대로 近代語의 速記方式에 계승이 되었다. 그러나 그후 基本文字를 構成하는 劃線을 最大限 簡單化함으로써 略字에 의해서 보충하지 않으면 안되는 部分을 그만큼 적게하는 傾向이 나타났다. 이 傾向은 우수한 劃線體系의 發見과 表音說에 의한 速記文字의 완성과 一音一劃 또는 그 以下를 목표로 하는 基礎文字에 의해 한층 發展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 面에서 상당한 成功을 거둔 것이 1837年의 Pitman式이다. 이 Pitman式에 있어서는 1字音을 1劃의 速記文字로 하고 母音은 그 速記文字에 加點하는 것으로써 나타냈다. 또 複子音中 잘 使用되는 것이 大體로 1劃으로 되었었다. 더구나 그 後로 字音을 表示하는 速記文字의 1子音 1劃線化 母音表示 速記文字의 整理 또는 子音表示 速記文字의 點劃化에 의한 複子音 速記文字의 體系化등이 이루어져 基本文字만에 의한 表記도 그 劃線이 극히 간단하게 되었다.

물론 發表當時에 있어서도 若干의 接頭辭 接尾辭를 표시하는 略字 또는 若干의 單語를 表示하는 略字가 있었고 그후 基本語 頻出語에 대한 略字의 整備 連語略記의 一般化등이 企圖되고 있다. 그러나 略字는 基本文字를 補完하기 위한데 不過하고 그 構成도 아주 體系가 서서 결국 全體的으로 보면 略字中心이라기 보다는 基本文字 中心의 方式이 되었다.

日本의 경우를 보면 最初의 日語速記方式인 田鎖式은 이 Pitman式의 系統에 속하는 Graham式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基本文字中心으로 짜여진 것은 당연하나 發表當時의 田鎖式은 이 基本文字를 補充하는 略字조차 全혀 考案이 되지 않아 第1回 講習會 受講生中 速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음은 이러한 方式自體의 결함에 가장 큰 理由가 있었다. 그 후 이 田鎖式이 그대로 實用化가 된 것은 必要한 略字들이 어느정도 補完됨으로써 였고 그로 因해서 略字의 數는 늘어나게 마련인지라 앞서 英國에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基本文字를 구성하는 劃線을 되도록 간단히 함으로써 略字를 가지고 보완하지 않으면 안될 部分을 그만큼 적게하려는 傾向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그런 硏究의 결과 새로운 速記方式이 創案되고 또는 旣存 速記方式도 改良을 거치게 되어 日語의 速記方式도 日語 50音圖에 해당하는 各 速記文字 即 基本文字가 얼마만한 量의 劃線에 의해 表記되느냐 하는 觀點에서 複劃派, 單劃派, 折衷派, 新折衷派, 新單劃派등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複劃派라함은 子音을 表示하는 線劃에 母音을 表示하는 點劃을 더하여 基本文字가 이루어진 方式으로 Graham式을 본딴 田鎖式系統에서 볼 수 있고 單劃派는 單劃的 要素를 아, 이, 우, 에, 오(アイウエオ) 5列에 전부 적용하여 線劃의 長短, 濃淡, 方向등으로 區分하는 方法으로 Pitman式을 翻案한 武田式에 의해 最初로 試圖되어 中根式에 의해 최초로 實用化되고 大川式, 北村式, 山根式등 여러 方式에서 試圖되었다.

다음에 折衷派는 文字 그대로 單劃과 複劃의 折衷으로 Pitman式을 翻案한 「칸트랫트」式에 의해 최초로 시도되고 態崎式, 早稻田式, 靜香式, 加藤式, 米田式등이 이에 뒤따랐다.

그러나 線劃의 長短의 差나 濃淡의 差를 이용한다는 자체는 田鎖系 系統의 여러 案에 있어서도 長音이나 濁音의 表記法으로 利用되고 있었고 따라서 折衷派라든지 單劃派가 그러한 要素들을 다만 50音圖에 配定 基本文字에 轉用한 것에 지나지 않았더라면 別로 改良이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折衷派나 單劃派가 基本文字에 單劃的 要素를 많게 한 것은 複劃派에 있어서 母音을 表示하는데에 使用했던 點劃의 部分으로 새로이 1音節을 表現하고자 했다는 것. 即 같은 線量으로 從來의 두배의 音節을 表現하고자 하는 소위 同劃倍音의 傾向을 나타냈기 때문에 改良이 이루어졌고 여기에서 무엇을 點劃化할 것이냐에 대해 여러가지 硏究가 이루어져 各 方式의 特徵이 發揮되었다.

이러한 연구에서 나타난 것들이 疊音略字法(同音略法) 同行略字法(同行略法) 付帶音略字法, 尾音略字法(끝날 略法) 同列略字法등으로 불리워지는 여러가지 略法의 연구들이다.

이러한 略字法들이 연구된 까닭은 결국 同劃倍音의 效果를 위한 노력들이다.

가령 例를 들어 疊音略法(우리나라에서는 續音略法이라고 함)이라 할 때는 우리가 普通文字의 記錄時 같은 文字가 계속되면 "〃" 거듭點을 찍어 略하는 것처럼 같은 音의 文字가 계속되는 경우 거듭符號 또는 위치를 이용해서 이를 略하는 方法이라든가 또는 付帶音略字法처럼 特定文字를 筆記上 가장 간단한 點劃化를 한다든가 하는 여러가지 方法에 의해서 基本文字의 單劃化와 더불어 同劃倍音의 성과를 最大限으로 期하고자 한 것이다.

여하간 速記方式에 있어서 최초로 사용된 것은 複劃派였고 여기에서 同劃倍音의 목표를 向해 折衷派에서 다시 單劃派에로 進步를 한 셈으로 方式論的으로는 單劃派가 가장 進步的인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速記方式의 實用的 見地에서 본다면 複劃派가 반듯이 뒤졌다고만 할 수는 없다. 그것은 略字가 많기 때문에 기억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運筆이 부드럽고 쓰기만 한다면 비교적 縯文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에 比해 單劃的 要素가 많아지면 劃線을 構成하는 諸條件을 그만큼 많이 利用하는 것이 되어 速度가 빨라져서 흐트러지면 縯文하기 어렵다는 결함이 보인다. 그래서 速記方式에 대한 연구들이 單劃派를 指向하면서 一方 折衷派나 單劃派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複劃派로 되돌아간 方式들이 나온 것은 複劃派에 버릴 수 없는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複劃派中에서도 方式論的으로 改良을 하고자 하는 기운이 일어 基本文字에 있어서 單劃的 要素가 한층 많은 것이 나타나 複劃派의 利點을 살리면서 新折衷派 내지 新單劃派가 탄생했던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方法論들이 우리 한글速記에 있어서는 어떻게 適用이 되어왔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 이를 體系的으로 分析하기에는 너무나도 자료가 부족하다. 다만 基本文字의 構成에 있어서 첫째로 試圖한 것은 亦是 同劃倍音이었다. (例 基本文字 "가"로 "갸" "과" "까" "꺄" "놔"로 兼用하는 等)

그 다음으로 試圖된 것이 소위 變字로서 頻出度가 많은 基本文字를 頻出度가 극히 적은 他基本文字로써 轉用하거나 또는 全혀 다른 형태의 文字로 變形시켜 사용하는 方法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아"行과 "가"行으로, 逸波

式같은 경우는 "아"行에 있어서는 約 90% "가"行에 있어서는 約 70%가 變形을 이루고 있다. 한편 가장 合理的인 構成法을 썼다고 할 수 있는 議會式에 있어서는 "아"行은 애당초 變形을 이루고 있다.

基本文字의 경우 單劃으로서 가장 간단한 것은 姜駿遠式이라고 할 수 있으나 어느 方式을 막론하고 우리 言語文字의 복잡성에 의해 基本文字 自體로서는 逐語速記로서의 機能을 완수할 수 없으므로 變字와 略字가 얼마나 合理的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데 따라 速記文字로서의 優劣이라고 할까 成敗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또한 略字의 경우를 보면 助詞와 形容詞의 略法에 重點을 두고 있으며 頻出度가 많은 熟語의 略法 또는 終言(끝말)의 略法등이 根幹을 이루고 있다. 結論的으로 말하면 略字가 많으면 많을 수록 速度를 올릴 수 있고 그만큼 기록에 부담이 적지만 反面에 記憶해야 할 略字가 많을 수록 習得하기가 어렵고 錄文에 混亂이 와서 誤譯과 添字의 要因이 되고 있으므로 가장 理想的인 方式은 單劃이면서 基本文字와 最少限의 略字로 速記文字가 構成되는 것이다. 特히 言語速度가 일반적으로 빨라져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科學的인 言語의 頻出度分析과 合理的인 劃線配定으로 基本文字와 略字에 대한 改革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第 6 節 構成法과 運用法

速記文字는 要컨데 速記라는 目的達成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速記文字를 사용하면 어느 單位時間에 이루어진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을 나중에 일반 文字로 충분히 번역을 해 낼 수 있는 範圍內에서 그 時間內에 表記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速記文字가 때와 場所를 달리한 記錄과 判讀에 견딜 수 있는 範圍內에서 安定되어 있기 위해서는 速記文字의 形式인 劃線과 그 內容인 言語와의 結合이 必要한 筆記感覺과 視覺印象의 對立에 의해 항상 一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速記文字의 示差機能) 더구나 이러한 速記文字를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最大限 組織的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速記文字의 體系化) 그래서 數많은 速記文字는 一定

한 條件에 의해 규정되고 一定한 條件에 따라 使用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構成法과 運用法이라는 法則이다.

構成法이라 함은 基本文字와 略字에 대하여 그것이 여하한 構成을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法則이다. 即 그것이 어떠한 짜임새로 되어 있는가(짜임法) 그 速記文字가 同劃 또는 類劃의 다른 速記文字와 다른 特徵은 어떤 點인가(判別法) 어째서 그 劃線에 그러한 內容이 부여되어 있는가(읽는法)等에 관한 것이다.

가령 Pitman式의 基本文字「G」에 대해서 고찰하면 水平, 直線, 基本長, 濃線이라는 條件으로 되어 있다. 이와같은 劃線的條件을 具備한 速記文字로는 略字로서「give」가 있으나 이것은 그 自身으로서 言語를 形成하고 있는데 대해「G」는 母音을 동반해서 비로소 言語를 이룬다는 點에서 判別이 된다. 이「G」는「K」의 濃化이기 때문에 有聲化해서 읽는 것이다. 더구나 二音文字中에는「KI」처럼「K」의 머리에「I」를 表示하는 작은 갈고리를 이어 썼다는 점에 있어서「PI」「BI」「TI」「DI」등과 같은 構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와같은 二音文字의 構成에 관한 法則을 縮字法이라 한다. 이러한 點은 우리말 速記方式에 있어서도 어디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점만 다를 뿐 그대로 적용이 되는 法則이라 하겠다.

그러나 略字의 경우에는 이러한 要素가 基本文字의 경우보다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래서 一般的으로 가령「Can」의 略字는 頭音「K」로써 表記한다는 것과 같이 基本文字와의 관련에 의해 설명되고 같은 調聯이 다른 略字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이것이 即 略記法이라 하는 것이다.

이 略記法은 省劃法과 換置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前者는 全部를 基本文字로 썼을 경우의 一部를 省劃했다고도 볼 수 있는 형태의 것이고 後者는 全혀 다른 形態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省劃法은 普通文字에 있어서의「Abbreviation」이라든가「Contraction」에 해당하는 것이고 換置法은 보통 文字와 관계없이 定해져 있는 數學等의 記號에 해당하는 것이다.

省劃法의 첫째 方法은 言語를 表示하는데에 중요치 않은 音을 省略하는 것(略音)이고 어느 部分을 省略하느냐에 따라 母音省略法 子音省略法 付帶音

省略法등으로 區分된다.

Pitman式에 있어서 "exercise"가 「KsRss」 "Postman"이 「posMan」 "expect"가 「KsP」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다.

省劃法에 있어서 둘째 方法은 積極的으로 省劃하는 것으로서(略記) "different"가 「D」, "have"가 「V」, "knowledge"가 「NJ」, "minimum"이 「MM」, "manufacture"가 「MNFR」 등으로 적는 것이다.

다음으로 換置法이라 함은 古代速記方式에 있어서 활발히 利用되었던 個個의 略字(特定略字)로부터 起源되는 것으로 近代速記方式에 있어서는 점차 적어져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것도 特定的인 것에서 體系的인 것으로 바뀌고 있다. 即 特定的이면서도 서로 관련이 있는 것, 言語의 의미를 圖解的 또는 象徵的으로 表示하는 것, 普通文字를 가지고 代用하는 것, 普通文字 또는 其他를 媒介로 해서 관련짓는 것 등이 그것이다. Pitman式에 있어서도 "all and but he of on ought the who"등 頻度가 높은 짧은 短語에 대해서 特定略字가 使用되고 기타의 方法에 대해서도 實務者는 여러가지 종류를 자기 나름대로 사용하고 있는듯 하다.

이것은 우리말 速記에 있어서도 體系的으로 또는 實務者가 各各 자기 나름으로 考案해서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圖解的인 것이나 象徵的인 것으로 「上」「中」「下」의 경우 그 位置를 利用한다거나 普通文字를 가지고 代用한다거나 또는 쓰기에 까다로운 形容詞를 漢字의 訓音으로 表記하는 訓音轉記法등이 있는가 하면 「레일」을 表示하는 直線 둘을 나란히 그어 鐵道로, 組合을 「×」로, 동그라미를 「○」으로 表記하는 등은 圖解的 또는 象徵的인 方法의 하나로 어느 方式을 막론하고 많이 利用되고 있다. 또한 一般常識化되어 있는 熟語라든지 成句들은 대개 첫 「이니시얼」과 橫線에 의해 換置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言語의 速記方式에 있어서나 使用되고 있는 方法들이다.

運用法이란 構成法이 이미 形成되어 있는 基本文字 또는 略字에 대해 그 構成관계를 설명하는데 대해 個個의 基本文字 또는 略字에 대해 그 運用에 대해서 說明하는 것이 運用法이다. 따라서 運用法은 어떠한 運筆에 의해서

쓰는가(쓰는法) 어떻게 이어쓰는가(이어쓰기法) 어떻게 흐려쓰는가(흐려쓰기法)등에 대한 것이다.

가령 Pitman式의 基本文字에 대해서 고찰해 보면 水平, 直線, 基本長, 淡線인 「K」는 左에서 右로 가도록 되어 있고 右上行 正曲線基本長 淡線의 「L」은 경우에 따라서는 左下行으로 써도 편찮은 것으로 되어 있다. 即 쓰는法에 있어서는 順筆과 逆筆 두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K」를 二子音째 以下에 포함하고 있는 言語를 表記하는데에는 앞의 子音字의 끝에 그대로 계속해 적도록 되어 있다. 이와같이 音의 順理에 따라서 적는 것이 順記라는 이어쓰기法이다. 그러나 이어쓰기에는 順記外에 音의 順과는 逆으로 쓰는 逆記, 두音을 同時에 적는 象徵, 音의 順과는 관계없이 添加하는 加點등이 있다.

가령 「KI」는 「I」에 해당하는 작은 갈고리部分을 먼저 쓰고 나중에 「K」에 해당하는 線劃을 쓰게 되니까 「I」에 대해서는 逆記되는 결과가 된다. 또 「Kt」는 「K」에 해당하는 線劃을 半의 길이로 表記함으로써 나타내니까 「t」에 해당하는 部分은 半劃化에 의해서 象徵되는데 지나지 않고 同時에 「K」와 「t」가 써지는 것이다. 이것이 象徵이다. 象徵은 劃線을 구성하는 要素인 位置, 曲直, 長短, 方向, 濃淡 어느 것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이어쓰기이다.

또 母音은 子音字의 兩側의 指定位置에 點劃을 씀으로써 表示하고 「K」의 字頭下側에 小點을 加하면 「Ka」 上側에 小點을 加하면 「aK」가 되나 어느 경우에도 「K」를 먼저 쓰고 小點을 나중에 찍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加點이라 하여 音의 順序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形態만을 重視하는데에 特徵이 있다.

마지막으로 흐려쓰기인데 一般的인 것으로 共有, 融合, 搖筆이 있는데 가령 小圓의 「S」가 二線劃의 사이에서 써질 때에는 때에 따라 前線의 字尾와 後線의 字頭와를 小交叉하는 듯한 기분으로 부드럽게 楕圓化시키도록 되어 있다. 結果的으로 보면 「S」에 해당하는 小圓의 一部는 前字의 字尾의 部分 또는 後字의 字頭의 部分과 같은 劃線을 共有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共有를 小點과 線劃과의 사이에서 行하면 小點을 손에 적지않고 그 點을 찍어야할 위치에서 線劃을 쓰기 시작함으로써 表示할 수 있기 때문에

극히 편리하다.

또 「M」과 「S」에서 처럼 前字의 字尾와 後字의 字頭가 같은 方向이 되는 경우에는 全體를 한꺼번에 써도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融合이라는 흐려쓰기法이다. 이른바 草書化에 있어서 많이 利用되는 書法이다.

또 이런 경우 逆으로 區分을 명료히 하기 위해 특히 角度를 붙여 이음매를 두렷하게 쓰고자 하는 것이 搖筆이다.

우리나라 速記方式에 있어서도 以上의 諸法則들은 그대로 適用이 되고 있으나 그 이름은 各各 다르다. 例컨데 融合法은 波狀記法 搖筆은 縮結法이라고 해서 가령 波狀記法의 경우는 曲線과 逆曲線의 연결은 波狀형태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고 同方向의 直線연결은 두 直線의 연결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연결부분을 縮結로써 분명히 나타내는 縮結法을 쓰고 있으나 이 運用法에 있어서 理想的인 方向은 亦是 順筆 順記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또 이 運用法에 있어서는 이것을 여하히 사용하느냐에 관한 法則까지도 定해져 있는 경우도 볼 수 있다. 即 어떠한 경우에 그것을 쓰느냐(選擇法) 어떠한 連結의 경우에는 省略해도 좋은가(省略法) 어떤 말인 경우 어떻게 略하는가(略法) 등에 관한 것이 그것이다.

가령 Pitman式에 있어서는 「H」에 同音異劃字라는 形態로 4종류가 있다. 即上行의 「H」 下行의 「H」 小線의 「h」 加點의 「h」가 있는데 이의 選擇利用에 있어서는 上行의 「H」를 一般的으로 사용하고 下行의 H는 孤立(獨字)의 경우와 「K」 「G」의 앞에 사용하고 小線의 「h」는 「M」 「L」 「R」의 앞에 사용하고 小點의 「h」는 말의 中間에서 線劃 「H」의 쓰기에 不便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選擇法이다.

또 "tampt"와 같이 가볍게 發音되는 경우의 「P」는 省略해도 좋다고 定해져 있는 것이 省略法이고 "department"는 「D」를 交叉해서 表示한다는 書法이 略法에 관한 法則이다.

우리나라 速記方式의 경우에도 基本文字 또는 略變字에 있어서 選擇法들이 定해져 있는 것이 있다. 여러가지 方式에 대해 研究한 바는 없으나 筆者

가 배운 逸波式같은데는 「바」行의 경우 反對方向의 두 曲線을 運筆上의 편의에 의해 選擇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省略法 또는 略法에 있어서도 各速記方式에 있어서 무수히 이용되고 있다.

이 運用法에 있어서 규정되어 있는 選擇法, 省略法 또는 略法에 관한 法則은 構成法의 一部와 마찬가지로 縮字法 또는 略記法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縮字法 또는 略記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運用法으로서 규정되어 있는가 構成法으로서 規定되어 있는가는 各方式에 따라서 差異가 있다. 다만 兩者의 相違點은 前者가 모든 경우에 適用되는데 대해 後者는 特定音이나 言語에 대해서만 적용이 안된다는 點이다. 여기에 大體의 경향으로서는 基本音, 頻出複音, 基本語 頻出語의 部分이 애당초 構成法으로 規定되어 其他 一般複音, 一般語의 경우는 運用法에 의하여 그때 그때 만들어 내도록 되어 있다. 특히 實務者間에 오래 利用되고 있는 方式에는 構成法으로서 취급되는 部分이 많고 외우기 쉬운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方式들에서는 運用法으로서 취급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第3章 速 記 技 術

第1節 速記와 速記技術

速記技術은 요컨대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을 文字化하는 技術이다. 따라서 그것은 반드시 速記方式이라고 하는 것을 使用하지 않더라도 可能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가령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을 一言一句 그대로 그 자리에서 記憶해 버리고 나중에 그것을 一言一句 그대로 文字로 적어 낼 수 있을 정도의 速度로 서서히 생각해 내면서 文字化할 수 있다면 可能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實際問題로서는 한時間이나 두時間동안에 이루어지는 얘기를 한번 듣는 정도로써 一言一句 그대로 그 자리에서 記憶해 버린다는 것은 극히 困難한 作業이다.

그리하여 나중에 그 얘기를 記憶해 내기 위해서 무엇으로든가 적어 놓는 것이 편리하리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여기에서 速記文字라고 하는 것이 利用되도록 되었다.

따라서 速記文字는 그 初期에 있어서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에 應해서 表記하고 뒤에 그 表記된 速記文字를 보면서 그 基礎된 것을 記憶해 낼 수 있다면 足했던 것이다.

古代速記方式에 있어서는 오늘날 도리켜 보면 극히 不完全한 速記文字를 가지고 기록했으나 그런대로 速記라고 하는 作業을 遂行해 온 것은 速記文字가 이와같이 記憶을 되살리는 補助로써 使用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近代速記方式의 特徵은 速記文字 그 自體가 크게 改良되어 記憶에 대한 負擔이 점차 輕減되도록 되었다. 그리하여 이것을 더욱 進展시

킨 것이 速記文字를 가지고 音聲의 代行을 시키고자 한 方法이다.

即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의 速度에 應하여 速記文字가 그 자리에서 그 音聲의 모든 것을 적어 나갈 수가 있도록 하는 것을 理想으로 삼게 되었다.

이러한 方法은 1837年 Pitman式에 있어서 表音說에 基礎를 둔 速記文字가 大成함에 따라 한층 進步를 이루었다. 이에 의하면 速記文字를 보면서 自己의 記憶을 되살리는 대신 速記文字 그 自體를 읽는 것에 의하여 그 基礎가 된 것을 再現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狀態가 되면 速記文字 그 自體를 普通文字의 代用으로서 利用하는 것도 可能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一部에서는 速記文字를 가지고 普通文字의 代用으로 使用하자는 思考方式도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그후 速記文字의 表音說은 訂正되어 表語說이 여기에 대신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速記文字는 音聲을 再現하는 대신에 말에 대한 符號로서 使用하기에 이르렀다.

但 速記文字가 말에 대한 符號로서 使用하는데 그친다면 自己가 알 수 없는 單語는 速記文字化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實際에 있어서는 이것을 보충하는 形態에 있어서 音聲을 再現하기 위해서 一應 速記文字化해 둔다는 部分이 當然히 存在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같은 單語 또는 音聲의 再現이라는 立場에서 速記文字化하고 나중에 그것을 써놓은 그대로 返讀하는데는 그 수단으로서 速記文字를 使用하는 경우에 速記技術에 있어서의 速記方式 運用技術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와같은 速記方式 運用技術은 速記의 對象으로 하고 있는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이 一言一句 聽取되어 비로소 使用可能한 것이다.

普通의 聽衆이라는 것은 단지 말의 內容을 理解만 하면 충분한는지 모르지만 速記技術에 있어서는 一言一句 틀림없이 聽取하지 않으면 안된다.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이라는 것은 絶對로 誤解나 曲解가 있을 수 없도록 精巧하게 짜여져 있는 것은 아니다.

또는 絶對로 誤聽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明瞭하게 發音되는 것만도 아니다.

그래서 相當한 豫備知識과 同情的態度를 가지고 一言一句 理解하면서 들어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것이 聽取技術이라고 하는 부분이다.

거기에다가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의 意味를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더구나 말한 그대로 返讀할 수 있도록 表現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相當한 豫備知識과 同情的 態度를 가지고 一言一句 愼重하게 文字化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錄文技術이라고 하는 部分이다.

또 이러한 것들을 可能케 하기 위해서는 速記方式이라고 하는 手段을 使用하는 것이고 여기에 비로소 速記方式 運用技術이라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다.

即 速記技術 그 自體는 速記方式을 使用해서 速記하는 技術이니까 速記하기 위해서는 聽取技術, 錄文技術이 必要하고 全體的으로 보아서는 세가지 技術로부터 成立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다.

이러한 점들은 速記에 類似한 技術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珠算의 경우와 對比해 보면 한층 明確해 진다.

얼핏 보면 珠算에 있어서 算盤運用技術이 速記에 있어서 速記方式 運用技術에 매우 닮아 있다.

數字를 들으면서 加減乘除를 해 나가는 技術은 言語를 들으면서 적어 나가는 速記技術에 닮아 있는 것이다.

前者는 數의 計算에 있어서의 速度이고 後者에 있어서는 言語의 筆記에 있어서의 速度이다.

그러나 珠算에 있어서는 答만이 要求되는데 대해 速記에 있어서는 全過程의 文字化가 요구되고 있다.

珠算이 對象으로 하고 있는 것은 有限個의 基本에서 法則的으로 만들어지는 數字이고 算盤에 올릴 수 없는 數字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 速記의 경우에는 新造語, 外國語, 固有名詞, 特殊한 術語等을 包含하는 千態萬象의 言語들이다.

不明瞭한 發音때문에 聽取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簡單하게 錄文되

지 않는 말도 적지 않다.

모든 音을 發言者가 使用하고자 한 言語로 還元해서 聽取하고 發言者가 滿足하는 文字로 繕文되기 때문에 發言者와 같은 程度의 敎養을 가지고 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聽取技術과 繕文技術이 必要한 한에 있어서 速記의 경우에는 珠算에 있어서처럼 具體的인 것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速記技術 그 自體는 記憶을 위한 手段으로서 速記文字를 使用하는 대신에 速記를 위해 만들어진 特殊한 錄音機(口術錄音機)와 「타이프라이터」를 使用해도 可能하다.

即 一應 錄音해 두고 나중에 一言一句 그대로 「타이프」로 칠 수 있도록 再生產한다면 역시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은 文字化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錄音速記方式을 使用한 速記技術이다.

그러나 錄音機라고 하는 機械는 말을 그대로 記錄하는 機械이며 단지 音聲을 音聲으로서 物理的으로 再生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또 「타이프라이터」라는 機械는 文字를 적는 機械이고 普通은 文字를 文字로써 淨書하기 위해 使用되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兩者를 結合시켜 音聲을 文字化해서 記錄하는데에는 역시 聽取技術과 繕文技術이 必要하게 되는 것이다. 文字가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에 대해 細部에 이르기까지 單純한 形式으로 對應되지 않는 限 거기에는 機械만으로써는 解決이 되지 않는 複雜한 總合分析의 힘이 必要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錄音速記方式을 使用했을 때의 速記技術에 있어서도 全般的으로 세가지 技術로 成立되는데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實際로 速記活動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세가지의 順序는 使用하는 速記方式의 種類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速記文字라고 하는 것을 使用하는 記線速記方式과 印字速記方式(速記 타이프)에 있어서는 聽取한 것은 即席에서 계속 速記文字化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적은 그대로 返讀하면서 繕文하니까 聽取技術이 먼저이고 速記方式, 運用技術, 繕文技術이 여기에 따르게 마련이다.

이에 대해 速記文字라는 것을 使用하지 않는 錄音速記方式에 있어서는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을 于先 錄音機라는 機械에 의해 物理的으로 處理하고 이것을 聽取하면서 飜文해 나가는 것이니까 速記方式, 運用技術이 앞서고 聽取技術, 飜文技術이 뒤에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歷史的으로는 記線速記方式이 오랫동안 使用되어 왔었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現在까지 가장 많이 使用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先進國의 傾向도 역시 記線速記方式에 大部分 依存하고 있는 處地이다.

따라서 우리 말의 速記技術이라는 立場에서 보면 于先 記線速記方式의 경우에 대해서 考察하고 印字速記方式이라든가 錄音速記方式의 경우에는 이와의 關聯下에서 考察하면 되는 것이다.

第 2 節 聽取와 理解

聽取라고 하는 것은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을 理解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活動이고 「말한다」는데 대해서 「듣는」쪽이다.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이 音韻을 形式으로 하고 意義를 內容으로 하는 言語의 連續이라고 생각했을 경우 發言者는 그 音韻의 表現으로서 音聲을 發하는 것이고 그 發言한 音聲은 音波로써 空中에 傳해져 가지고 그것이 聽取者의 귀에 到達하면 들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聽取者는 意識的으로 活動하여 習得되어 있는 言語에 비추어 가지고 그 들려온 音聲을 判斷하고 그와같은 音聲으로 된 音韻에 의한 言語의 意義를 把握한다.

이와같이 해서 알게 된 言語의 意義에 의하여 單語에서 連語로 連語에서 한 文節로 점차로 커다란 單位의 意義가 限定되어 全體의 意味를 理解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日常의 言語生活에 있어서의 聽取라 할 수 있다.

따라서 聽取技術이라고 하는 것은 廣義로 解釋한다면 日常의 言語生活에 있어서도 必要한 것이며 꼭 速記技術에 있어서만이 비로소 새로이 習得을 必要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日常의 言語生活에 있어서는 같은 言語를 使用한다 하더라도 各各 그 使用하는 語彙가 다르고 普通 이야기를 듣는데 있어서는 그 中에 자기가 알 수 없는 말이 한 둘 반드시 存在하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常의 言語生活이 별로 不便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一言一句 個個의 言語를 理解하는 것이 目的이 아니기 때문이다.

알 수 없는 言語가 있어도 全體의 意味를 理解하는데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지나쳐 버리고 自己 나름으로 理解되었을 때에도 그대로 지나쳐 버린다.

또 全體의 意味를 理解할 수 없을 때에는 反問하는 것에 의해서 確認할 수도 있다.

即 日常의 言語生活에 있어서는 全體로서의 意味를 全體로써 把握하고 相對方이 말 하고자 한 意味를 어떻게든 생각할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速記技術의 一部로서의 聽取技術의 경우에는 全體로서의 意味를 把握하는 同時에 이를 構成하고 있는 一言一句 모든 것을 言語로써 把握하지 않으면 안된다.

비록 發音이 不明瞭하더라도, 使用하는 語彙가 가지각색이라 하더라도 그 發音이 理性에 의해 行해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억지로 曲解하는 일이 없이 同情的 態度를 가지고 들어 주지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聽取技術에 관하여 第一 問題로 되는 것은 自己가 알 수 없는 言語는 正確하게 들을 수 없다는 점이다.

特히 外來語라든지 地名, 人名의 경우 이것을 無理하게 發音만을 들어 理解하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도 들리고 저렇게도 들리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제멋대로 自己가 알고 있는 말로 받아들이고 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時事問題라든지 新語에 대하여 끊임없이 注意해 둘 것, 各 專門分野의 術語에 대하여 一應 涉獵해 둘 것, 固有名詞에 관하여 널리 調査해 둘 것 등이 必要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도 알 수 없는 言語에 부닥쳤을 경우 무언가 짐작할 수 있도록 語源이

라든가 造語法에 대하여도 充分한 硏究를 해 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이들 豊富한 語彙가 理解될 수 있는 힘을 維持하고 充分한 經驗을 살려서 注意力을 集中하고 虛心坦懷 冷靜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듣는 것이 要求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自己가 잘 알고 있는 말의 경우에도 반드시 明瞭하게 들었다고는 장담 할 수 없다.

그것은 發言者가 發音을 함에 있어서 그 努力을 節約하기 위해서 반드시 明瞭한 發音만을 한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 비슷한 發音을 가지고 있는 말인 경우에는 無心코 들어 버리면 이것으로도 저것으로도 들리고 마는 것이다.

英語의 速記技術에 있어서 조차도 같은 音으로 들리는 말 所謂 similar words의 聽取法이 問題가 되어있다.

가령 imperil(위태롭게 하다)와 imperial(帝國의), Parcel(小包) Partial(一部分의)等은 같은 音으로 들린다.

이들은 品詞가 다르기때문에 文法的인 關係에 의해 어느 것으로든지 分別할 수가 있겠지마는 그 中에는 品詞가 같은 것도 찾을 수 있다.

ingenious(교묘한)과 ingenuous(率直한), cessation(中止)와 secession(脫退) fiscal(國庫)과 Physical(物理的인) decease(死亡)와 disease(病)等의 경우가 이것이다.

거기다가 모든 發音者가 標準의 發音을 알고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가령 「엑센트」를 조금만 달리하면 decent(우아한)와 dissent(異議를 제기하다) debtor(借主)와 deter(斷念시키다)等은 같은 말이 되고 만다.

revel(浪費하다)와 reveal(나타내다), defy(蔑視한다)와 deify(崇拜하다)等은 品詞까지도 같다.

全體의 意味를 알아 듣기만 하면 되는 一般聽衆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좋은 것일지 모르나 速記를 하는데 있어서는 特殊한 聽取技術이 要求되는 것이다.

이러한 Similar words의 特徵은 文字로 적게 된다면 確實히 區別되고 또 發言者自身은 正確하게 말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그 意圖 그대로 正確하게 들어두자 할때에는 과연 어느것인지 그 判斷에 當惑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의 對策으로서 能傳音이라든지 發音의 호림等에 대해서 익숙해 놓는것, 發音이 잘못 되기 쉬운 말이라든지 誤聽하기 쉬운 말에 대해서 記憶해 두는 것. 그 다음에 類音類義한 말에 대해서 意義라든지 用法을 充分히 공부하여 그 어느 쪽을 듣든지간에 다른 말을 聯想해서 選擇할 것 等이 要求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이와같은 것을 基礎로 發言者의 表情이라든지 그 場所의 雰圍氣等도 參考로 하여 前後의 意味나 文法的 關係를 理解하고 發言者의 意圖하는 말을 正確하게 聽取區別하지 않으면 안된다.

때로는 明瞭하게 區別되는 音을 發言者의 發音버릇으로서 區別하지 않고 듣고 때로는 機械로써도 區別할 수 없는 音을 말의 一部로서 듣는 것에 의하여 區別하는 것도 必要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聽取技術 그 自體는 우리 말의 速記技術에 있어서도 當然히 問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말에 있어서도 發言上의 不明瞭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類音類義 또는 類音異義에 의한 誤聽은 許多히 많다. 우리말의 形成過程上 50% 以上을 차지하고 있는 漢字語가 主因으로서 同音異意는 너무나 많고 또 다른 곳에서도 지적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한글 專用을 採擇하고 있는 우리 議會內의 記錄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는 別意義가 없으므로 類音類義, 類音異義에 대해서 몇가지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Ⅰ) 類音類義

상이(相異) 하물(荷物) 장애(障碍) 개발(開發)
상위(相違) 화물(貨物) 장해(障害) 계발(啓發)
의사뇌염(擬似腦炎)
유사뇌염(類似腦炎)

(Ⅱ) 類音異義

가중(加重) 가제(假題) 증수(增收) 무리(無理)
과중(過重) 과제(課題) 징수(徵收) 물의(物議)

3분의 1을($\frac{1}{3}$을)　　이의(異議)

3분의 2를($\frac{2}{3}$를)　　의의(意義)

以上 얼핏 생각나는 몇가지만을 例로 들었지만 엄격히 따지면 大部分 聽取者의 常識에 의해 分別할 수 있는 것이지만 個中에는 앞뒤 文章의 연결로서도 전혀 區別할 수 없는 것이 많다. 특히 數字의 경우에는 決코 誤聽을 해서는 안될 것이면서도 가장 誤聽하기 쉬워서 速記士들이 가장 골탕을 먹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甚한 것이 1과 2의 구별이다.

이러한 聽取上의 混同에 대해서 比較言語學的으로 分析을 한다거나 統計를 잡아보는 等의 作業은 감히 筆者의 能力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거니와 言語學에 門外漢인 筆者로서도 看取할 수 있는 것은 우리말의 경우 「ㅏ」와 「ㅓ」 「ㅣ」와 「ㅢ」 「ㅐ」와 「ㅔ」 等이 가장 많이 혼동이 되고 또 連音法則에 의해 앞의 子音받침을 뒤 母音이 이어받는 경우 (例 : "이를 위해서"와 "일을 위해서")아주 區別하기 힘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速記士는 過重을 加重으로 들었다 해도 前後文章으로 보아 「過重」이 合當한가 「加重」이 合當한가를 判斷해서 誤聽의 可能性을 항상 念頭에 두고 일을 해야 한다.

第 3 節　速記方式의 運用

記線速記方式을 使用한 速記方式에 있어서는 聽取한 것을 계속하여 速記文字에 의해 記錄했다가 나중에 그 速記文字를 飜讀함으로 해서 聽取한 것을 再現시키는 技術이다.

即 어떤 單位時間에 行하여진 言語表現에 對하여 나중에 普通文字로 飜文하기 위해 必要한 充分한 速記文字를 想起하여(速記文字의 想起) 이를 實際의 記錄運動에 連結하여 記錄하지 않으면 안된다. (速記文字의 記錄) 여기에 一應 規定되어 있는 個個의 速記文字를 여하히 運用하여 實際의 言語表現에 應해 나가느냐 하는 問題가 發生하는 것이다.

이 경우 近代速記方式의 速記文字는 表音的인 基本文字와 表語的인 略字에 의해 成立되고 構成法과 運用法에 의하여 體系化되어 있다.

그리하여 基本音, 頻出複音, 基本語, 頻出語의 部分이 애당초 그것을 나타내는 速記文字로써 만들어져 있고 기타의 一般複音, 一般語의 경우에는 運用法에 의하여 그때 그때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다.

또 熟練되면 一般複音, 一般語의 경우라 하더라도 짜여진 速記文字가 頻出複音이나 頻出語의 경우에 準하여 使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言語的 觀點에서 본다면 크게는 連語에서부터 작게는 單音에 이르기 까지 크고 작고 가지가지의 單位要素를 나타내는 速記文字가 準備되어 있으며 이것들의 使用方法이 熟練이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聽取한 言語를 速記文字化 하는 경우 그 言語를 表現하는 速記文字가 이미 정해진 速記文字로 準備되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使用하고 準備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보다 작은 單位의 要素로 分析하여 각 單位를 表現하는 速記文字를 使用 그 言語를 表現하는 速記文字를 꾸미도록 되어 있다.

이와같이 하여 거의 無限이라고 말할 수 있는 言語에 即應하여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一般的인 言語가 一般的인 形態로 계속되는 경우에는 거의 機械的으로 계속하여 必要한 速記文字를 머리속에 떠 올리면서 記錄할수 있기 때문에 극히 容易하다.

그러나 이에 反하여 特殊한 述語라든지 固有名詞, 또는 外來語라든지 古語等의 경우 뒤에 誤譯이 없도록 더구나 빨리 쓸 수있도록 그때 그때 만들어 내기 때문에 거기에는 特別한 意識的 活動이 必要한 것이다.

여기에서 이야기의 內容이 未知의 分野면 未知의 分野인 수록 또는 發言者의 日常의 生活이 特殊하면 特殊한수록 그 速記文字化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 위에 이와같은 경우에는 聽取 그 自體도 迅速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한층 그 速記文字化가 더디게 마련이다.

머리에 떠오른 速記文字는 所定의 單位群으로 整理되어 한 손으로 적어나가게 마련이다.

그것은 머리속에 쓰고자 하는 形態가 떠오르고 손은 여기에 基礎하여 運動하는 것이며 이는 普通文字를 쓰는 경우와 類似하다.

그러나 普通文字인 경우라면 그 筆記運動과 그 表現하는 言語와의 사이에 一定한 「리듬」을 取하는 傾向이 있는데 反하여 速記文字의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써야 할 것이 要求되기 때문에 一部를 극히 빨리 記錄하므로 해서 그것 만으로써는 절대로 말의 速度에 따를 수 없는 部分의 補充을 하는 形態로 運用이 되고 있다.

即 速記文字의 筆記運動은 그 線의 表現하는 音이나 言語와의 사이에 一定한 「리듬」을 取하는 일 없이 그 線 自身의 速度에 있어 筆記되는 것이 되고 言語의 速度가 빠르면 입속에서 復唱할 餘裕도 없다.

여기에 단순한 筆耕과는 다른 獨特한 心理狀態가 連續되는 것이다. 그래서 言語의 速度가 빠르면 빠른만큼 또는 言語의 速度가 고르지 않으면 않을수록 速記文字의 筆記運動이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또 速記文字 그 自體는 대체로 演說體에 基礎를 두고 만들어지고 演說體를 中心으로 熟練되어 있기 때문에 그 文體가 달라짐에 따라 그만큼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普通이다.

이 경우 使用되는 速記文字는 有限個의 條件에 있어 規定된 劃線을 形式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對하여 實際의 筆記運動에 의하여 써지는 線條는 筆記道具(鉛筆, 「펜」 또는 이에 準하는 것들)의 被筆記道具(종이, 또는 이에 準하는 것)에 接하는 部分(말하자면 點)의 移動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며 여기에는 平面運動과 立體運動이 있고 前者에 의하여 劃線의 方向, 形體 長短 運速의 諸性質이 表現되고 後者에 의하여 位置, 斷續, 濃淡, 止流라고 하는 諸性質이 합쳐져서 表現된다.

따라서 個個의 速記文字가 갖는 劃線의 性質은 有限個이지만 實際로 쓰여지는 線條에는 그 有限個의 性質위에 線條로써 必要한 諸性質이 보태어지는 것이다.

예컨대 濃淡의 差라든가 長短의 差를 利用하지 않는 速記文字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實際에 있어서 쓰여지는 速記文字에는 濃淡이라든가 長短이 나타

나게 마련이며 그 위에 實際로 쓰여지는 速記文字는 어떤 速度性을 갖기 때문에 速記文字로서의 形態가 흐트러진다(草化). 때로는 그 이음매가 不明瞭해지고 (融合) 또는 速記文字로서는 不必要한 線이 보태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 대신 나중에 反讀하기 쉽도록 各 速記文字에 必要한 特徵의 一部가 特히 誇張되는 경우도 있다. 即 劃線에 약간의 性質이 보태어져서 若干의 性質이 變更된 것이 線條가 되는 것이다.

쓰여진 線條는 그대로의 形態로써 半永久的으로 남고 뒤에 이를 返讀함으로써 聽取한 것을 再現하는 것이며 그 경우 쓰여진 速記文字에 있어서 個個의 劃線은 극히 애매한 形態로 되어 있어 그 自體만으로서는 무슨 速記文字인지 알수없는 동시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읽을 수 있는 形態로 되어 있는 것이다.

또 速記方式에 있어서는 有效한 劃線을 最大限 利用하기 때문에 같은 劃線에 다른 內容을 賦與한 速記文字 即 同劃異音의 速記文字가 극히 많다.

따라서 普通文字가 草書體로 쓰여진 경우 읽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읽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速記文字를 읽는것은 거기에 쓰여진 個個의 線條의 性質을 꼼꼼하게 分析하여 읽어 내는것은 아니며 個個의 線條의 性質이 어떻든 前後의 關係를 考慮하면서 速記文字의 單位인 한 整理된 線(單群)을 읽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自己가 習得하고 있는 速記方式의 速記文字에 비추어 그 整理된 線을 構成하고 있는 線條가 어떠한 速記文字의 表現인가 하는 것을 判斷해 나가는 것이므로 速記文字의 경우는 썼을때의 記憶을 되 살려내는 手段으로서 存在하고 그 速記文字를 썼을 때의 생각을 그 速記文字를 봄으로 해서 記憶해 내는 形態를 取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하히 高速度로 쓰고 여하히 흐트러진 形態로 되어 있는 速記文字라 하더라도 自己가 쓴 것에 對하여 自己가 읽는 것이고 쓸때에 이미 뒤에 읽을 수 있도록 考慮하면서 쓰는것이며 自己에게는 어떠한 글씨부가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읽을 수 없을 듯 할 때에는 普通文字로 表示해 가면서 쓰기조차 하는 것이다. 따라서 他人에게는 도저히 읽힐 수 없는 흐트러

진 速記文字라 하더라도 熟練이 되면 쓴 본인만은 어찌하든 읽어지는 것이며 썼을때 보다도 짧은 시간에 거침없이 읽혀지는 것이 普通이고 그리하여 일단 읽혀지는 것을 다음 段階인 綴文으로 옮기는 것이다.

以上은 記線速記方式에 있어서 論어본 것이며 똑같은 것이 印字速記方式을 使用했을 경우의 速記技術에 있어서도 適用 될 수 있는 것이다.

印字速記方式도 速記文字의 體系는 記線速記方式의 경우와 비슷하며 使用하는 速記文字의 形式인 劃線이 다를 뿐인 것이다.

亦是 나중에 普通文字로 풀어쓰기 위해서 必要한 充分한 速記文字를 머리에 떠 올리는 것이며 이것을 筆記하는 대신 Key를 누르는 것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얘기의 內容이 未知의 것이라든가 發言者의 日常의 言語生活이 特殊하다든가 하면 그만큼 速記文字化가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이다.

但 印字速記方式의 경우는 劃線으로서의 印形이 最初부터 有限個이며 그것을 그대로 찍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찍는것만 틀리지 않는다면 記線速記方式의 경우와 같이 劃線에 若干의 性質이 보태져서 若干의 性質이 變更되어 線條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찍힌 速記文字를 읽는 경우에 있어서도 단순히 自己가 習得하고 있는 速記方式의 速記文字에 비추어 나가면 그대로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얘기의 速度가 너무 빠르다든가 빨랐다 느렸다 한다든가 文體가 演說體 以外이면 Key를 누름에 있어서 「리듬」을 無視한 心理狀態가 連續하여 잘못 누를 可能性도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自己가 찍은 것을 自己가 읽는한 熟練되면 별로 支障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요컨대 速記技術에 있어서 速記方式의 運用이라는 觀點에서 본다면 記錄速記方式도 印字速記方式과 마찬가지 立場을 取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速記方式을 使用하건 速記方式 運用技術에 熟達됨에는 相當한 期間과 努力을 要한다는 點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 定評있는 速記方式을 習得하고 그 運用技術을 熟達한 다음에는 速記技術 그 自體의 優劣은 오로지 聽

取技術과 飜文技術의 優劣에 의하여 決定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그 聽取技術과 飜文技術이 重要한 役割을 擔當한다는 點은 錄音速記方式에서도 같다고 볼 수 있다.

錄音速記方式을 使用할 때의 速記技術은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을 錄音機라고 하는 機械에 錄取하는 것으로 始作된다. 그 뒤는 錄取技術과 飜文技術의 如何에 달려 있는 것 뿐이다.

여기에서 錄音速記方式을 利用한 速記技術에 있어서의 第一問題는 明瞭한 錄音이라는 點이다.

이 경우 錄音機 그 自體가 最良상태로 整備되어 있을 것, 發言者의 입과 「마이크로폰」이 適當한 거리를 가지고 있을 것等 錄音機의 操作에 있어서 音量 기타의 調節이 適當할 것等이 必要한 것이다.

實際로는 그 위에 發言者의 音聲이 「아나운서」같이 「마이크로폰」에 맞을 것, 發言 그 自體가 個個의 發音 特히 子音의 發音이 明瞭할 것, 또 發言에 있어서 甚한 遲速強弱이 없이 대체로 一定해 있을 것, 發言者 以外의 發言 기타의 雜音이 없을 것 等等이 要求되는 것이다.

錄音速記方式이 聽衆을 向해서 이야기하거나 發言者가 多數인 경우의 速記方式으로서는 適當치 않고 口術速記와 같이 發言者가 錄音이나 文字化의 뜻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適當하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理由때문이다.

그래서 歐美측에서는 錄音速記方式을 口述速記 以外에 利用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文字化하기 쉽도록 發言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繼續해서 明瞭하게 復唱하여 錄音하는 方法(스테노 마스크 利用) 記線速記方式 또는 印字速記方式으로 일단 速記文字化한 것을 口述하는 것에 의하여 錄音하는 方法(復演) 等이 行해지고 있다.

또 錄音機의 再生에 의한 飜文은 아무리 斷續이라든가 反復이 可能하다 하더라도 高速度의 「타이프 라이터」를 利用하지 않는다면 實用性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普通文字로 받아 쓰고자 할 때에는 長時間에 걸친 「리듬」을 無視한 筆記運動에 의하여 비로소 能率이 올라가는 法이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그 疲勞에 견디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錄音速記方式을 使用한 速記技術의 利點의 하나는 원래는 한번밖에 들을 수 없는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을 몇번이라도 再生可能하다는 點에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實際에 있어서는 錄音機가 모든 音波를 그대로 再生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直接錄音의 再生에 의한 聽取쪽이 直接聽取보다도 한층 어려운 법이다.

「펜트」가 맞지 않는 寫眞의 細部가 아무리 보아도 알 수 없는 것처럼 한번 들어서 聽取 될 수 없는 音聲은 아무리 여러차례 들어도 聽取할 수 없는 것이 普通이다.

또 錄音速記方式을 使用했을때의 速記技術에 있어서는 速記方式, 運用技術 그 自體가 비교적 容易한 法이다.

그러나 거기에 附帶하는 技術로서 錄音機修理法이라든가 整備法이 熟達해 있을 것, 「타이프 라이터」로 귀로 들으면서 그대로 칠 수 있는 技術을 습득 熟練되어 있을 것 等 相當한 期間과 努力을 要하는 것이다.

이러한 點들을 綜合해서 볼 때에 記線速記方式 또는 印字速記方式을 使用했을 때의 速記技術에도 各各 有利한 點이 보이는 것이다. 여기에 三者共存하는 根據가 存在한다.

第4節 文字化와 飜文

飜文이라 함은 速記文字를 使用해서 速記技術에 의해 速記文字化된 것을 普通文字化하는 活動을 말하며 錄音速記方式을 使用했을 경우의 速記技術에 있어서는 再生의 聽取에 의한 普通文字化 活動을 말한다. 다만 速記文字를 使用했을 때의 速記技術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聽取된 것이 速記文字化된 것이니까 飜文이라는 것은 聽取된 것에 기초를 두고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速記技術 全體로써 보면 飜文이라는 것은 聽取된 것을 普通文字에 의해 정확히 表記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또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의 文字化라고 하는 點에서 보면 飜文은 그 最終段階의 活動에 해당된다.

이 경우 단순히 文字를 쓴다는 것 뿐이라면 日常의 言語生活에 있어서도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日常의 言語生活에 있어서는 이미 文字化된 것을 複寫하는 경우 그대로 또는 그 範圍內에서 적어가는 것이 보통이다. 또 자기의 생각을 文章化하기 위해서 文字를 쓰는 경우에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의 言語를 自己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의 文字로써 써나가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대해 速記技術에 있어서는 文字化라고 하는 것을 意圖하지 않은채 進行되는 말을 文字化하는 것이 된다.

더구나 文字라고 하는 것은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의 細部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거기에 대응해서 表記될 수 있도록 精巧하게 꾸며져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에 對해 그 의미를 歪曲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말한대로 읽을 수 있도록 表現하는 特殊한 飜文技術이 必要하게 된다.

그런데 흔히 飜文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同音異義語의 分別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는 英語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practice(實行)과 practise(實行하다) fought(싸웠다)와 fort(堡壘) dissent(反對)와 dessent(降下) coin(화폐)와 coign(모퉁이)等 적지아니 많다. 그러나 이러한 意義用法의 區別이 明確한 것은 이미 그 意義用法을 알고 있는 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같은 예기가 우리말에 있어서도 國漢文混用의 경우 適用이 되는 것이다. 例컨데 「借主」와 「車主」 「技術」과 「奇術」 「私事」와 「私師」等 無數한 同音異義語가 있다. 그러나 大部分의 경우 當事者의 常識에 의해서 區別使用이 가능하며 다만 앞뒤 文章으로 보아서 어느쪽을 擇해도 뜻이 通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例컨데 「歷史的 事實이 證明하는」 할 때 "史實"로 할 것이냐 "事實"로 할 것이냐는 飜文하는 當事者의 判斷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飜文에 있어서 둘째로 문제되는 것은 一應 올바로 聽取가 되었다고 前提하더라도 그 音에 따라 記錄한 速記文字를 普通文字로 飜文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文字를 表記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가령 英語의 경우라면

Brown과 Browne, Spencer와 Spenser를 가지고 어느 쪽을 表記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確認하지 않으면 안되고 特히 固有名詞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양복동」은 「楊福童」인지 「梁福童」인지 確認하기 전에는 알길이 없는 것이다. 地名에 있어서 「廣州」와 「光州」는 똑같은 發音이요 앞뒤 文章으로도 區分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고 特殊分野에 있어서 專門用語의 경우 自己 나름대로의 常識에 基準하여 飜文하고 보면 웃지 못할 喜劇을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생소한 用語인 경우에는 정확히 調査確認하여 飜文을 해야 할 것이다. 또 引用文이나 法律의 條文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같은 用語를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原文과 대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飜文에는 各種 參考圖書의 具備 發言者의 協力等이 要求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 飜文에 있어서 세째의 문제는 읽기 쉽게 하기 위하여 文法에 맞게 띄어쓰고 句讀點을 찍고 單文을 나누어 적을 필요가 있다.

쓰고자 하기만 하면 어떤 사투리를 쓰거나 「에~」라든지 「음~」하는 뜻이 없는 發音조차도 그대로 文字化할 수 있으나 그러한 表音主義는 사실상 無意味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意識的인 것이거나 發言者의 特色이라 할 수 있는 一般的인 사투리를 全部 標準語로 고쳐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런가 하면 흔히 말끝을 흐리는 發言者가 많은데 飜文에 있어서는 이를 完成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 이와같이 해서 全體의 意味는 파악하기 쉽도록 飜文(文字化)할 것이 要求되고 있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近代速記技術에 있어서는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과 文字에 의한 言語表現과의 根本的 相異에 由來하는 修正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英語의 速記技術에서 editing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包括되는 것이 이것이다. 그 對象으로서는 發言者가 無意識中에 나타내는 文法上의 誤謬, 또는 文體上의 不統一等을 들고 있으며 이것들은 聽衆에게 눈치채이지 않은채로 지나쳐버린 것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文字化하기에는 곤난한 것, 修正을 해도 發言者가 눈치채지 않고 그대로 滿足할 수 있는 경우, 또는 修正하지 않으면 오히려 速記技術의 優秀性이 의심받을 듯한 경우等은 적당

히 修正을 하는 편이 發言者에 대해서 그 친절을 베푸는 결과가 된다.

즉더 具體的으로 말하면 用語라든지 말의 表現法 自體가 문제가 되지 않는 限 쓸데없는 말의 除去, 잘못된 發言의 訂正, 文法上 誤謬의 訂正, 文體上의 統一等을 들 수 있으며 固有名詞나 日時 또는 數字의 錯覺에 의한 錯誤나 引用文이 原文과 틀렸을 경우에는 그 原文을 對照하여 바로 잡는 것은 물론 發言上 너무나 條理가 없어 애매한 表現을 했을 경우 몇마디 補充시켜서 意味를 完結시켜 주는것 等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일의 一部는 능숙한 速記士이고 發言이 느렸을 경우에는 이미 速記를 하면서 修正을 해 가는 경우도 흔히 있는 것이다.

飜文技術上 또 한가지 문제는 大部分의 速記文字들이 一劃一音이 아니고 一劃多音表示이기 때문에 飜文과정에 있어서 어느 것을 택해도 論理上 前後矛盾이 없는 경우가 있으나 그 中 어느 하나를 택하는 경우 發言者의 意圖에 全혀 反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第二節 聽取技術에서 말한 類音類義라든지 類音異義에서 일어나는 誤謬와 비슷한 것이 一劃多音表示라는 速記文字 自體의 「핸디캡」에 의해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飜文에 있어서는 항상 記錄된 速記文字를 단순한 音의 記錄으로서 파악하지 말고 言語의 記錄으로서 파악함으로써 있을 수 있는 誤謬를 最少限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第5節 結 語

以上 速記技術에 대해서 速記가 이루어지는 根源인 言語 聽取서 부터 그 手段인 速記方式의 運用과 結果인 飜文에 이르기까지의 문제들을 대충 훑어보았으나 1837年 現代速記의 始祖라고 할 수 있는 「핏트맨」式의 創案發表以來 135年이란 세월이 지나는 동안 數 100가지에 이르는 各種言語에 따른 速記法들이 地球上에 存在하고 있으나 聽取에서 부터 飜文에 이르기까지 許多한 문젯점들이 尙存하고 있어 誤聽도 誤譯도 없는 완벽한 速記術이란 없다고 斷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注目해야 할 것은 速記術 創案初期에 있어서의 表音主義에서 表語主義로 옮겨져 갔고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近來에 이르러서

는 소위 editing이라는 이름의 修文主義가 橫行되고 있으니 이는 사람의 言語表現은 意思傳達이 그 本來의 目的이며 速記라는 것은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에 대한 文字化된 意思傳達의 媒介로서 存在價値가 있는 以上 發言者의 無意識的인 誤謬를 修正하여 올바른 意思傳達을 꾀한다는 面에서 修文主義가 成立할 수 있는 根據가 충분히 있다. 그러나 그 限界는 極히 모호하여 자칫 잘 못하면 지나친 主觀이 介入하여 發言者의 意圖를 歪曲할 염려가 있으므로 矯角殺牛의 愚를 犯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根據있는 引用文이나 數字 또는 固有名詞의 錯誤, 強調의 뜻을 지니지 않은 不必要한 重複語, 또는 「에~」「에또」와 같은 뜻이 없는 接續音等의 省略, 意味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한 말의 先後交替, 發音이나 文法上의 分明한 誤謬等은 어느정도 記錄者의 裁量에 의해 修文이 可能하다고 보고 論理上 애매한 發言이나 發言者의 錯覺인듯 싶은 發言은 물론 그 責任은 어디까지나 發言者에게 있으나 速記士가 音이 아닌 말의 記錄者라는 점에서 최소한 發言當事者에게 물어 確認하여 修文할 義務가 있다고 본다.

第二編　速記의 實務的考察

第 1 章　速記價値論
第 2 章　各國議會速記錄의 作成과 刊行에 對하여
第 3 章　Computer 에 依한 記錄管理
第 4 章　現代社會와 速記
第 5 章　速記 그 進化와 將來性
第 6 章　새로운 可能性을 向한 空想
第 7 章　誤字, 脫字, 添字의 槪念과 問題點

第二編　速記의 實務的考察

第一章　速記 價値論

오늘날 韓國의 速記界는 速記敎習의 規模, 形態, 그것을 뒷받침하는 社會의 速記에의 關心, 認識, 速記의 價値와 需要構造 等 各分野에 있어서 새로운 意識이 必要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韓國의 速記界는 1909年 朴如日氏에 依해 우리말 速記法式이 創案發表된 以後 63年이 되는바 우리도 이제 大轉換期를 맞이할 때가 아닌가 하는 어떤 強迫觀念에 쫓기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第1節　現代에 있어서의 速記의 價値의 領域

速記의 問題를 論함에는 먼저 速記의 價値의 追求가 必要하게 된다. 價値觀의 올바른 認識없이 正常的인 論議의 發展을 期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우기 現代와 같이 速記를 둘러싸고 있는 環境이 科學技術의 進步發達에 따라 크게 흔들리고 있는 時點에 있어서는 더욱 올바른 價値觀이 要求된다 할 것이다.

價値에는 絶對的인 價値와 相對的인 價値가 있다. 絶對的인 價値는 速記記號 및 그의 機能의 客觀的인 分析에 의해 定해지고 相對的인 價値는 速記의 全領域을 對象으로 한 需要와 供給의 關係라고 할 수 있다.

다만 本稿에서는 速記 및 速記行爲에 대한 價値分析을 다음 세가지 領域에서 取扱해 보고자 한다.

① 速記記號體系 自體가 갖는 價値(記號로서의 價値)

② 速記記號가 使用됨으로써 생기는 價値(記號運用의 效用價値)

③ 速記記號를 運用하는 人間의 價値(人間이 記號를 運用하는 것의 價値)

第 2 節　速記記號體系 自體가 갖는 價値

먼저 速記記號를 文字등과 같이 記號로서 取扱하여 構造的인 分析을 함으로써 社會에 存在하는 記號로서의 速記記號의 價値를 文字와의 對比를 통해 追究해 보자.

速記記號, 特히 最近의 그것은 말을 받아쓰는 手段으로서의 機能追究가 優先하고 있는 結果 極度로 簡略化되어 그 簡略化의 單位가 <語>에서 <句>까지, 나아가서는 <文>까지도 對象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와같이 極度로 簡略化된 速記記號를 使用하기 위해서는 그 必要한 言語의 知識이 高度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前提되고 있다.

또한 이 前提때문에 速記記號는 文字등과는 다른 <特殊한> 記號로 되어 있어서 汎用性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 評價가 잘못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速記記號의 記號的側面을 強調한 評價로서 이 評價만을 가지고 速記記號 全體評價로 하려는데는 首肯이 가지 않는다.

速記記號體系는 어느 速記法式을 莫論하고 基本文字(素音記號)와 略記法(省略法포함)으로 大別된다. 애당초 이 記號體系는 發言의 記錄을 目的으로 한데서 略記法이 硏究되어 왔고 또 그 目的達成을 위한 <手段의 效率化>를 期해 온 것은 이것 또한 當然한 추세로서 이 點에 있어서는 可能한 限 簡略하게 速記될 수 있는 記號를 否定할 理由는 없다.

그러나 同時에 잊어서는 안될 것은 速記記號體系中에는 文字와 같은 機能 및 特性을 갖는 部分이 存在하여 어구나 言語를 記錄하는데 必要한 모든 音에 對應한 記號群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文字는 말할 것도 없이 言語를 視覺的으로 表現하는 記號인데 이것이 Communication 및 情報의 Stock手段으로서 存在하기때문에 共有度(읽우기쉬운) 再現度 (읽기쉽고 쓰기쉬운) 等이 要求된다.

即 누구든지 읽을 수가 있어서 같은 rule에 의해 기록할 수 있고 뒷날 언제든지 틀림없이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速記記號 體系中 略記法의 部分에 있어서는 記號를 運用하는 사람의 知識의 程度에 따라 달리 運用되는 수

도 있으며 恣意運用部分을 否定할 수 없지만 基本文字(素音記號)의 部分은 前記 條件을 거의 完全히 達하고 있다고 하겠다.

더구나 速記記號 自體의 簡略性向때문에 習得度(익히는데 必要한 學習時間)와 書記度(쓰는데 必要한 에네르기 및 時間)에 있어서는 旣存文字 記號보다 훨씬 뛰어나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發音을 手段에서보다도 보다 效率的으로 速記한다는 點에서 본다면 基本文字部分은 略記法을 터득해 가기 위해서 必要한 1段階에 不過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들은 速記記號에 依하지 않고 記錄하는 것을 前提로 해서 그 記錄을 行爲의 效率化라고 하는 觀點에서 본다면 機能的으로 文字體系로서 容認되는 範圍의 速記記號라 할지라도 現存의 文字記號보다 構造的으로 優秀한 價値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社會에 널리 速記의 價値와 效用을 認識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點의 價値認識이 먼저 速記界 스스로에서 正確하게 알려져야 할 必要가 있다 하겠다.

第3節 速記記號가 使用됨으로써 생기는 價値

文字가 반드시 「빨리 써야한다」라는 行動을 前提로 創案되지 않았음에 對하여 速記記號는 言語를 「빨리 받아쓴다」는 것을 前提로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에 速記記號의 目的性이 있고 동시에 前節에서 考察한 價値를 낳게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考察하려는 價値는 前節의 그것을 動的側面으로 보고자 하는데 있다.

速記記號가 使用됨으로써 생기는 價値는 亦是 速記時間의 短縮이라는데 있다.

人間이 行하는 言語活動을 思考言語活動, 發聲言語活動, 文字言語活動으로 大別한다면 思考言語活動이 單位時間當 가장 많은 言語를 驅使한다. 다음이 發聲言語活動이고 가장 적은 것이 文字言語活動이다.

한편 人類의 知慧發達에 貢獻하기 위해서는 思考言語活動이 活潑하지 않

으면 안된다. 적어도 그것은 文字言語活動을 通해서 記錄(情報 Stock)되어 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要求되는 것이 文字言語活動의 高度化인바 現實的으로는 文字言語活動의 非迅速性이 思考의 記錄을 阻害하고 있다.

速記記號는 이러한 要求를 完全하게 充足하는 것은 아니지만 思考活動을 一般文字記號보다 훨씬 完全하게 記錄할 수 있음은 아무도 否定할 사람은 없다.

思考나 發言을 <記錄한다>라고 하는데에 관한 限 거기에 要求되는 時間의 經濟性에 있어서 또는 內容의 濃度에 있어서 速記記號를 運用함으로써 얻어지는 價値는 매우 크다.

第4節 速記記號를 運用하는 人間의 價値

速記記號는 人間이 操作함으로써 特히 人間이 말하는 言語나 思考를 對象으로 하고 있는데서부터 人間이 速記記號를 運用하는 그 價値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一般的으로 <速記한다>라고 말하여지는 行動은 素材收集行爲와 再生行爲로서 나눌 수가 있다.

素材收集行爲란 速記記號로써 <말>을 받아쓰는 것을 말하고 再生行爲는 速記記號를 한글로 飜文하는 것을 말한다.

素材收集行爲(狹義의 <速記한다>)에 있어서 그것을 人間이 行함으로써의 價値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再生行爲에 있어서의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어 考察해 보자.

速記하는 過程에 있어서 人間이 介在한다는 價値는 이미 意圖된 Communication이 行하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의 理解없이는 發生되지 않는다.

即 速記하는 것을 必要로 하는 發言은 보통 意圖的인 發言으로서 「알린다 가르친다 즐겁게 해준다」등의 意圖(目的)를 가진 Communication으로 行하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決코 音(소리)은 아니다. Communication이면은 그것은 成立을 日

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成立狀況을 正確히 把握해 두는 것이 素材收集活動中 커다란 位置를 占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速記記號를 使用해서 素材收集行爲를 하는 사람도 聽衆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 最少限 要求된다.

더구나 그는 단순한 群衆의 한 사람이 아니라 發言者의 意圖가 그 使用된 <말>을 通해서 어떻게 表現되고 있는가? 그것이 듣는 쪽에 어떻게 받아 들여지고 있는가? 라는 兩面을 포함한 聽衆이 아니면 안된다.

이런 條件을 具備한 聽衆이면서 速記하는 사람이기 위해서는 素材收集의 手段으로서의 速記記號의 運用에 熟達해야 할 것은 勿論이지만 거기에 첨가해서 그러한 狀況을 正確히 把握할 수 있는 힘이 必要해진다.

速記하는 過程은 어디까지나 <素材>의 收集이므로 素材의 重要한 하나인 發言은 充實히 收集되어져야 한다.

特히 再生行爲(飜文)는 이 收集된 素材를 分析해서 再生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素材收集의 段階에서 加工行爲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發言의 收集을 完全히 行하는 것은 速記하는 段階에 있어서의 重要한 要件의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서 素材收集을 人間이 行하는 價値로서는 너무나 貧弱하다. 人間이 그것을 하는 意義는 音聲素材의 收集과 同時에 그 Communication이 行하여진 狀況, 發言者의 表現의 補助手段, 傾聽者의 狀況等 目的으로서의 Communication의 達成에 必要한 모든 것을 素材로서 可能한 限 完全하게 收集하는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音聲言語의 不充分한 곳을 補助하는 手段으로 참으로 重要한 것으로서 Communication의 素材收集活動의 段階에서 이것을 省略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再生行爲에 있어서의 人間의 存在價値인데 이것은 오늘날 發言과 速記의 差異에서 오는 修文의 문제를 中心으로해서 그 意義가 認定되고 있다.

그렇지만 前述의 Communication과의 關聯에 있어서 速記의 再生行爲를 볼때 오늘날까지의 그것은 Communication의 手段의 하나로서 使用된<말>만을 再生하는데 不過하다고 말할 수 있다.

더구나 그것은 發言者의 眞心의 意圖와는 관계없이 發言者가 表出한 <말>만을 充實히 再生해 왔다.

勿論 이것이 아니면 안될 때도 있지만 Communication의 仲介者라고 하는 觀點에서는 오히려 發言者의 意圖를 充實히 再生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참으로 充實한 再生이란 發言者가 무엇을 말했는가 라는 것과 동시에 發言者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는가를 表現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人間이 介在한다는 意義가 發生되는 것이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性格上 瞬間的으로 發하고 말의 選擇의 決斷을 瞬間的으로 해야 하기때문에 반드시 最適한 表現으로 驅使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Communication의 成立을 前提로 한 記錄이라고 한다면 再生行爲에 있어 이러한 不備를 可能한 限 補充한다는 것은 當然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거기에는 發言者가 處해 있는 立場, 發言者가 使用한 言語, Communication의 目的, 內容, 傾聽者의 狀況等 모든 素材를 收集하여 그것들을 總合分析해서 發言者가 眞實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것이고 거기에 最適의 表現은 이것이다 라는 考察의 位置에 있는 것을 再生行爲의 前提로 하고싶다.

이와같이 본다면 速記記號의 特性을 最大限으로 살려가면서 社會에서 活躍하는 人間의 典型的 하나의 像으로서 「貴下를 代身해서 貴下가 하고싶은 말을 正確하게 表現하는 表現 Consultant(相談役)」의 image가 탄생된다. 高度로 機械化된 社會에서는 人間이 아니면 不可能한 것을 하는 것이 人間의 價値를 높이는 것이 된다.

本能, 習慣, 知性등의 人間性의 깊은 理解에 位置한 <表現 Consultant> 야말로 職業的으로 速記技能을 最高度로 發揮해 나가는 王道임에 틀림없다.

第5節 主觀의 客觀化

前述한 素材收集行爲와 再生行爲의 Process에 있어서는 現速記界의 taboo로 되어있는 速記士의 觀察(主觀)등도 重要한 素材로서 取扱되게

된다.

여기에서 <表現 Consultant>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當然 <主觀의 價値>가 問題化된다.

오늘날 그 <主觀>이 높이 社會的價値를 가지고 있는 것은 醫療世界의 例를 들 수 있다.

醫師는 患者를 對象으로 問診, 診察, 檢査등으로 얻은 情報를 기초로 診斷을 내리고 治療行爲를 행하고 있다. 問診, 診察, 檢査등은 診斷을 내리는데 必要한 情報의 收集活動이며 이것들을 總合 分析해서 診斷을 내리는 Process는 素材의 再生行爲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醫師가 이러한 主觀的情報處理를 中心으로 人間의 生命을 맡고 있으면서도 어째서 社會的으로 높은 評價를 받고 있는 것일까? 醫師가 높은 評價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社會가 誤診의 危險도 包含해서 醫師의 全人格에 대해 높은 信頼를 주고 있다는 것이 된다.

우리들이 醫師에 대해서 그러한 信頼를 갖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診斷하는 것보다도 훨씬 높은 確率로 正當한 診斷을 내릴 可能性이 거기에 있기때문이다.

그래서 그 可能性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醫學의 領域에 포함된 諸科學이라는 點이다.

科學의 힘을 動員한 <主觀>이기때문에 主觀의 客觀化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言語는 人間에 있어 基本的인 重要한 道具였기 때문에 人間과 言語에 관한 硏究는 哲學, 心理學, 言語學, 國語學, 文學등에서 상당히 높은 水準에 達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오늘날에는 Communication論, 情報理論등의 硏究가 擴大一路에 있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速記士>에서 <表現 Consultant>로 主觀의 客觀化에 依한 보다 높은 價値의 確立에로 速記界는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하겠다.

第6節 補　　章

科學技術이 急「템포」로 發達함에 따라 人間社會의 모든 價値는 새로운 觀點에서의 再認識이 要請되게 되었다.

朴如日先生이후 착착 그 地步를 構築해 온 速記技能도 그 例外가 될 수는 없는데도 現實의 速記界는 아직도 이러한 趨向에 눈감으려 한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發展을 위해서는 이 試鍊을 딛고 넘을 覺悟가 있어야겠고 새로운 「비전」과 信念을 가지고 速記百年大計를 세워가야 하지 않을까.

第2章 各國議會 速記錄의 作成과 刊行에 대하여

Preparation and Publication
of the Parliamentary Debates

註 : 아일랜드國會 下院事務總長 「P. 오콘넬」氏는 1970年 2月 25日 <議會速記錄의 作成과 刊行> (**Preparation and Publication of the Parliamentary Debates**)이라고 題한 第1回 報告書를 國際議會聯盟 各國議會 事務總長會 會員國에 發送했는바 이는 同年 4月 모나코 各國議會 事務總長會議에 審議議案으로 提出하기 위한 것이었다.

本稿는 前記 「모나코」會議에서 審議된 結果 및 各國으로 부터의 書信에 依한 訂正을 通해 再作成된 <第2回報告書案>(1970年 9月 1일), 또한 本案이 審議採擇된 同年 10月 2日 「헤그」會議의 <議事錄>등을 기초로 重要한 情報部分을 壓縮 整理한 것이다.

第1節 序 文

世界 各國의 議會에서는 大體 어떠한 過程을 거쳐서 速記錄(韓國 國會에서는 會議錄으로 通稱)을 作成하며 印刷 發行하고 있는가——이러한 물음에 答하기 爲하여 各國 議會事務總長들이 1968年 西獨의 首都 「본」에서 會議를 開催하여 意見交換과 實情을 討議하기로 決定하였다.

이 質問書는 43個 同事務總長會議 會員國에 送付되어 아래와 같은 22個國으로부터 回答을 받은 것을 收錄한 것이다.

○ 下院 및 上院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白耳義, 캐나다, 체코스로바키아, 佛蘭西, 印度, 아일랜드, 伊太利, 日本, 和蘭, 美國

○ 下院

英國

○ 上院

세일론

○ 聯邦議會

유고스라비아

○ 單院制議會

덴마크, 핀랜드, 이스라엘, 韓國, 룩셈부르크, 네팔, 아랍共

○ 其他會議體

歐州會議

第 2 節 本會議 速記錄의 發行

(1) 本會議의 記錄의 形態

「오콘넬」(아일랜드 下院事務總長) report에서는 各國 本會議의 記錄의 形態를 各其 그 性格에 따라 「速報版」「速記錄」(韓國은 會議錄으로 通稱) 「合本(裝幀本)」의 셋으로 分類해서 各國議會가 이 中 어느 것을 作成하고 있는가를 (別表 1.98p)와 같이 하나의 表로서 集約해 놓고 있으나, 이것을 各國別로 分類하지 않고 形態別로 再分類하면 大略 다음과 같이 된다.

(a) 速報版

速報版을 定義하기는 어려우나 會議의 記錄의 形態에서 보면 印刷版은 아니고 謄寫版으로 發刊하고 있느냐로 區分할 수 있으며 또 作成 速度의 遲速이라는 點으로 보아서 「상당히 빨리 되는 會議의 記錄」이라는 定義로 볼 수도 있다.

「오콘넬」 report에서는 이 後者쪽의 「會議中 또는 散會後 即時 發刊되는 會議의 記錄」이란 뜻으로 「速報版」이란 用語를 使用하고 있다.

「速報版」으로 發刊하고 있는 나라는 다음의 10個國이다. (※印은 要約版·其他는 逐語速記錄)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스로바키아, 핀랜드, ※佛蘭西, 이스라엘, 伊太利, ※네팔, ※아랍共, 유고스라비아

印度에서는 謄寫版의 速記錄을 翌日 配付(校正畢의 印刷版은 數週間後)하고 있으므로 實際는 速記版을 發刊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佛蘭西에서는 2種類의 速報版을 내고 있다. 하나는 開會後 約 30分 經過하여서 發刊되는 假要約(Compte rendu sommaire)인데 演說을 極히 簡單히 要

約한 것과 議決事項을 內容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開會後 한時間 經過後 發刊되는 要約版(Compte rendu analytique)으로서 逐語速記錄(Compte rendu integral)의 3分之 1의 分量이며 演說을 主로 要約한 것이다.

또한 이런 速報版은 主로 議員, 行政機關, 新聞, 其他의 報道機關에의 迅速한 情報의 提供을 目的으로 作成되고 있다.

(b) 速記錄(韓國은 會議錄으로 通稱)

所謂「本會議速記錄」의 發行形態는 그 나라에 따라 差異가 있으므로 이것을 簡單히 一括 分類하기는 困難하나 日本의 速記錄作成의 現況을 살펴 볼 때에 興味로운 것은「假版」과「決定版」의 發行이다.

이것은 最初에 假版을 謄寫版이나 校正版의 形式으로 迅速히 發行해 놓고 다음에 暫時 期間을 두고 必要한 訂正을 畢한 然後에 決定版을 發行하는 形式이다「〔別表 1〕」에 依하면 明確히 이러한 形式에 依해서 速記錄을 作成하고 있는 나라는 回答을 보내온 22個國 1會議(歐州會議)中 겨우 4個國 1會議(歐州會議)(註 1)에 不過하나 速報版(逐語謄寫印刷)과「速記錄」을 發行하는 나라 3個國(註 2)「速記錄」과「合本」을 發行하고 있는 나라 11個國(註 3)「速報版 (逐語謄寫印刷)」과「合本」을 發行하고 있는 나라 1個國(註 4)으로 總計 19個國 1會議가「假版」과「決定版」의 形式을 取하고 있는 것이 된다.

나머지「오스트리아」, 印度, 日本의 3個國은 前述한바와 같이「速報版」이라고도 看做되는 謄寫印刷版을「速記錄」發行前에 내고 있으며 또「오스트리아」는 要約이지마는「速報版」을 내고 있으므로 이러한 나라들을 除外하면 結局「假版」이라는 所謂 One Cushion을 두지 않고 바로「決定版」을 發行하는 形式을 取하고 있는 나라는 日本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註 1) 덴마크, 핀랜드, 伊太利, 韓國, 歐州會議
(註 2) 캐나다, 체코스로바키아, 유고스라비아
(註 3) 오스트레일리아, 白耳義, 세일론, 佛蘭西,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팔, 네델란드, 아랍共, 英國, 美國
(註 4) 이스라엘

(c) 合本(裝幀本)

合本을 發行하고있는 나라는 다음의 17個國이다. (※印은 週間速記錄도 또 別度로 發行함을 表示함. 그러나 美國의 境遇는 by weekly)

※ 오스트레일리아, 白耳義, 캐나다, 세일론, 핀란드, 佛蘭西, 아일랜드,
※ 이스라엘, 伊太利, 韓國, 룩셈부르크, 네팔, 和蘭, 아랍共, ※ 英國,
※ 美國, 유고스라비아, 歐州會議

이 밖에 「덴마크」에서는 週間速記錄의 形態로 合本을 發行하고 있다.

(2) 本會議 速記錄의 公證的性格「署名」

一般的으로 議員訂正을 畢하고 印刷된「決定版」은 「唯一한 公的記錄」(the authentic version)으로 되나 그 發言이나 行爲에 關해서 速記錄을「法的으로 絶對的인 것」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法廷에서의 速記錄의 證據力이나 說得力은 어느 程度 認定되고 있다. 訂正이 끝난 速記錄에 正式으로 署名을 하고 있는 나라는 다음의 8個國에 不過하다. (괄호안은 署名者)

또 署名을 한 速記錄은 議會의 記錄保管所에 收藏하여 이것으로 速記錄의 有效性을 正式으로 確認하는 手續으로 하고 있다.

체코스로바키아(聯邦議會議長・職員)
핀랜드(事務總長)
佛蘭西(議長・※書記官 2名)
伊太利上院(記錄部長)
日本(議長 或은 그 代理者, 事務總長)
韓國(議長 或은 그 代理者, 事務總長)
네팔(事務總長)
아랍共(國民議會에서 承認을 받은 後 議長・事務總長)
(※ 印은 two secretaries)

(3) 著作權

一般的으로 著作權에 依해 保護되어 있는 것을 使用하는 境遇에는 그 所有權者의 許可를 받고 때에 따라서는 使用料를 支拂하지 않으면 안되나 議會의 速記錄은 그 自體 議會活動에 對해서 周知시킨다는 目的이 있기 때문에 大

部分의 나라에서는 保護의 對象이 되어 있지 않다.

(오스트리아, 白耳義, 캐나다, 세일론, 덴마크, 핀랜드, 佛蘭西, 伊太利, 日本, 韓國, 룩셈부르크, 和蘭, 美國, 歐州會議)

速記錄의 著作權을 議會(체코스로바키아, 印度下院, 네팔, 아랍共, 유고스라비아)에 歸屬시키든가 政府의 1機關(오스트레일리아, 印度上院, ※아일랜드, 이스라엘, ※英國)에 歸屬시키고 있는 나라도 있으나 이러한 나라들에서도 新聞이나 其他 報道機關의 速記錄 使用이나 個人的으로 速記錄의 適正한 拔萃는 自由로운 것으로 되어 있다 (※ 印은 印刷局用度廳)

(4) 印　刷

速記錄의 印刷는 大部分의 나라(네팔은 議會事務局에서 謄寫印刷)가 國營의 印刷工場에서 하고 있으나 6個國 1會議(체코스로바키아, ※덴마크, 아일랜드, 伊太利, 韓國, 유고스라비아, 歐州會議)에서는 民營의 印刷會社가 請負로 印刷를 하고 있다. (※ 印은 議事堂內에 印刷工場이 있음)

(5) 發行部數

本會議 速記錄은 3個國(韓國, 네팔, 아랍共)을 除外한 모든 나라에서 市販되고 있으나 이 中 收支의 均衡을 이루고 있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1個國뿐이다.

第2次大戰後의 速記錄의 發行部數의 推移를 「增減없음, 增, 減」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印은 無料配付의 增)

增減없음=8個國 1議會(오스트리아, 白耳義, 세일론, 체코스로바키아, 핀랜드, 印度上院, 伊太利, 룩셈부르크, 和蘭)

增=7個國 1議會(오스트레일리아, ※ 캐나다, 덴마크, 印度下院, 아일랜드, 韓國, ※ 美國, 유고스라비아)

減=3個國(佛蘭西, 日本, 英國)

速記錄은 宣傳如何에 따라 많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一般의 關心도 審議中의 案件 如何에 따라 左右되는 것으로서 發行部數를 늘리는 特別한 方法을 講究하고 있는 나라는 한나라도 없다.

또한 「룩셈부르크」에서는 選擧權을 가진 모든 戶主에게 要約版을 無料로 配付하고 있으나 이것은 이 나라의 全新聞의 發行部數를 合計한 것 보다 많

다 한다.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나라는 한나라 뿐이지만 이보다 더 큰 나라에서도 도저히 實現 不可能한 일일 것이다.

(6) 配付狀況

議員이 速記錄을 1部씩 無料配付 받는 것은 期待해서 좋은 일이나 回答國은 大部分이 그러하다.

또 兩院制를 採擇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他院의 議員과 政府 各機關이나 圖書館에도 無料配付를 하고 있다.

나라에 따라서는 한 議員이 速記錄을 1人當 2部以上 配付받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內譯은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各議員은 35部까지의 範圍內에서는 個人 또는 團體를 指定해서 無料送付의 惠澤까지 받을 수 있다.

「日刊速記錄」은 市販되지 않고 있으나 上述한 35部中 10部까지는 日刊速記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캐나다——下院議員은 16部 長官. 上院議員은 25部까지

韓國——各議員 2部

美國——下院議員 68部, 上院議員 100部, 또 希望하면 特定有權者에게 直接郵送도 可能하게 되어 있다.

(7) 本會議 速記錄의 抜萃部分 印刷

다음의 各國에서는 議員의 必要에 따라 演說部分의 抜萃部分印刷(reprints of extracts)를 「팜프렛」形式으로 곧 入手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議員은 自身의 演說 內至 質問 部分의 抜萃部分印刷는 60部까지 無料

白耳義, 英國——實費

伊太利(上院)——印刷費는 上院에서 負擔하고 議員은 紙代, 表紙代만을 負擔한다.

캐나다, 이스라엘, 伊太利, (下院) 美國에서는 抜萃部分 印刷는 契約印刷業者로 부터 購入할 수 있게 되어 있음

第 3 節　言　　語

公用語로서 2個以上의 言語를 使用하고 있는 나라들의 速記錄 作成狀況은 우리나라의 境遇는 該當되지 않으므로 다음에 그러한 나라들을 列擧하는데 그치겠다.

議院의 會議에 있어서 公用語로서 2個以上의 言語를 使用하고 있는 나라는 다음의 10個國 1會議이다.

(1) 白耳義 (2)캐나다 (3)세일론 (4) 체코스로바키아 (5)핀랜드 (6) 印度 (7)이스라엘 (8) 아일랜드 (9) 룩셈부르크 (10)유고스라비아 (11) 歐州會議

(1) 佛語, 蘭語

(2) 英語, 佛語

(3) 세일론語, 타밀語, 英語

(4) 체코語, 스로바키아語

(5) 핀랜드語, 스웨덴語

(6) 힌두語, 英語, 地方語 (앗쌈語, 벵갈語, 等 計 14)

(7) 헤브류語·아랍語

(8) 英語, 아일랜드語

(9) 佛語, 룩센부르크語

(10) 세루보, 크로찬語, 스로비안語, 마케도니아語의 스라브語, 小數民族語(알바니아語, 항가리語)

(11) 英語, 佛語

第 4 節　本會議 速記錄의 內容

(1) 速記錄이란 무엇이냐?

通常의 速記錄, 即 우리나라의 「會議錄」이라고 불리는 것에 對해서 「리포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定義를 내리고 있다.

本會議 速記錄은 各國 共히 議員의 發言 全部의 逐語記錄 및 議院에서 決定된 一切의 事項 記錄을 內容으로 하고 있다. 逐語記錄에 對해서는 議員

의 協力으로 또는 協力 없이도 弄談이나 反復發言은 削除하고 文法的으로 文章을 整理하여 明確한 錯誤를 訂正한다는 意味로서의 編輯은 可能하나 任意로 挿入하거나 削除해서 結果的으로 發言의 趣旨에 變更을 가져오는 짓은 一切 不許한다.

(2) 不正規發言

議員은 他人의 發言을 靜肅히 들어 줄 義務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議員의 發言中의 不正規發言은 原則的으로는 禁止되어 있으나 實際上으로는 보아 넘겨준다. 대수롭지 않은 不正規發言은 通常的으로 記錄되지 않으나 會議에 어떤 影響을 미치는 境遇나 發言者의 承諾이 있을 때의 不正規發言은 記錄된다.

英國에서는 不正規發言도 모두 記錄하게 되어 있다. 그 理由는 不正規發言이란 그것이 記錄이 되어 있지 않으면 消滅의 徵候가 있는 會議의 ※ 狀況(atmoshere of the debate)이란 것의 描寫가 加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印「討論」이라고 飜譯되는 수가 많으나 우리 나라의 討論과는 多少 差異가 있으며 오히려 會議에 있어서의 發言을 意味함)

(3) 非發言事項의 處理

速記錄이란 本來 議院에서 發言된 言語의 逐語記錄을 뜻하는 것이므로 發言안된 것은 速記錄에 揭載않는다.

이와같이 明確하게 規定하고 있는 나라는 12個國 1會議(오스트리아, 白耳義, 체코스로바키아, 덴마크, 핀랜드, 佛蘭西, 印度,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和蘭, 英國, 유고스라비아, 歐州會議)이다.

特히 이 規則에는 例外가 있어 대단히 特殊한 것 專門的인 것은 速記錄에 揭載하게 되어 있다.

아래의 몇몇 나라들은 個個의 條件에 따라서 非發言事項을 速記錄에 揭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佛蘭西——委員會의 報告者(reporter of a Committee)는 自己가 本會議에 있어서 發言權을 抛棄한 境遇에 限해서 速記錄의 附錄에 自己의 演說原稿를 揭載할 수 있다.

「아일랜드」, 英國——書面答辯을 求하는 質問이 提出된다. 그리고 口頭에 依한 質問에 對한 答辯이 統計表를 內包한다든지 몹씨 長文의 境遇에는 朗讀을 省略하고 速記錄에 揭載한 때도 있다.

和蘭——議員은 統計的 性格의 것이 揭載가 可能하다.

以下의 나라들에 있어서는 이 非發言事項에 關한 規則은 過히 嚴格하지않고 本會議에서 行해지지 않았던 演說의 原稿나 聲明書를 揭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揭載許可를 希望하는 議員은 非發言事項을 于先 反對黨의 黨首 또 境遇에 따라서는 關係長官의 順으로 될 때도 있으나 그 어느 한쪽에 提出한다.

同意를 얻으면 議長은 그의 許可를 하나 揭載의 實行에 關한 最終 決定權은 留保시킨다.

萬若 揭載에 異議를 提起하는 議員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으면 許可는 안된다.

「캐나다」——下院에서는 全院一致 上院에서는 過半數의 同意를 얻으면 議員은 누구나 本會議에서의 演說中 非發言事項에 言及이 없이도 關聯事項을 記錄에 揭載할 수가 있다. 長文의 것은 通常 그 날의 速記錄의 附錄에 揭載된다.

「세일론」——議員은 누구나 自己의 發言中에 言及된 聲明書(a statement)를 提出해서 速記錄의 附錄에 揭載할 수 있다.

그러나 議院의 同意는 必要하다.

「이스라엘」——豫算案 審議等 特別한 境遇에 限해서 議員은 自己의 發言中에 그 趣旨를 說明하고 揭載事項을 提出할 수가 있다.

伊太利(下院)——議長의 許可를 得하면 議員은 圖表, 統計資料를 速記錄에 揭載할 수 있다.

伊太利(上院)——發言者가 朗讀을 省略할 뜻을 밝히고 許可를 得한 境遇에는 議長은 그 非發言部分의 速記錄의 追加揭載를 許可할 수 있다.

韓國, 日本——時間의 制約으로 發言을 끝마치지 못한 境遇 그 殘餘部分을 議長이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範圍內에서 會議錄에 揭載할 수 있다.

그러나 議院이 特히 議決을 한 境遇에는 揭載할 수 없다. 또 議長의 許可를 得하면 議員은 自己의 演說의 參考로서 簡單한 文書를 會議錄에 揭載할 수가 있다.

「네팔」——非發言事項은 境遇에 따라 速記錄에 揭載된다.

「아랍」共——重要案件의 審議中에 議員이 演說 못한 境遇에는 審議中에 그 演說에 關해 言及하였던 것을 條件으로 議決에 依해 速記錄 揭載가 可能하다.

美國——非發言事項의 速記錄 揭載를 가장 自由로이 許容하고 있는 나라다.

下院議員은 議院의 許可를 得하여 自己의 發言을 速記錄의 附錄에서 얼마든지 訂正하든가 敷衍하든가 할 수 있고 또 그때 進行中의 會議에 無關係한 內容의 것도 挿入할 수 있다.

上院議員은 聲明書의 形式으로서는 非發言事項을 速記錄에 挿入할 수 있다. 兩院 共히 許可는 通常 全院一致의 同意에 依한다.

(4) 發言事項의 削除

○ 議長이 議院에서 行한 發言의 全部 또는 一部를 速記錄에서 削除하도록 命令할 수 있는 權限을 갖지 않은 나라는 8個國(오스트리아, 캐나다, 세일론, 덴마크, 핀랜드, 아일랜드, 伊太利, 英國) (下記 ①項 參照)

○ 議長이 그 權限을 갖고 있는 나라는 11個國 1會議(오스트레일리아, 白耳義, 佛蘭西, 印度, 韓國, 日本, 룩셈부르크, 네팔, 和蘭, 아랍共, 유고스라비아, 歐州會議) (下記 ②項 參照)

○ 動議에 依한 나라 2個國 (아랍共, 美國) (下記 ③項 參照)

○ 其他 1個國(체코스로바키아)으로 되어 있다.

① 이 문제에 關해서 議長과 當該 議員間에 意見이 不一致(a dispute)된 때에는 議會는 어떠한 削除 案件도 討論을 거치지 않고 動議에 依해 決定한다.

② 議員의 動議에 依해 速記錄에서 말(words)을 削除할 수 있다.

③ 議會의 幹部會(the presidium of the assembly)가 速記錄에 揭載해서는 안된다는 事項에 對해서 決定한다.

議長이 이 削除權을 行使하는 것은 「許可없이 發言한 때, 發言時間이 終

了한 後, 또는 發言許可가 撤回된 後 發言한 때 議院의 品位를 損傷한만 한 말을 使用한 때」로 되어 있다.

一般的으로 議員의 發言의 全部 또는 一部를 削除해서 公表하지 않게 하는 것은 議院 自體가 決議하면 可能한 것이나 議院이 그러한 意思決定을 하는 것은 매우 異常한 짓이 될 것이고 또 一般的으로 認定되어 있는 議員의 發言의 自由의 原則에도 反하는 짓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있다.

秘密會議나 非常時의 檢閱로써 速記錄에 나오는 內容이 規制되어 나오는 일도 있을 것이다.

(5) 發言議員의 所屬政黨, 選擧區의 記載

發言 議員의 政黨關係에 對해서의 情報를 發言時 일일이 記載하고 있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이스라엘, 和蘭」의 3個國, 또 議員 發言의 처음에만 그 議員의 選擧區를 이름 다음에 記載하고 있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印度, 英國, 유고스라비아」의 4個國 뿐이다.

歐洲會議에서는 各發言者의 代表하고 있는 國名이 記載된다.

(6) 議員에 依한 速記 飜文原稿의 訂正

이미 「本會議의 記錄의 形態」에서 言及했듯이 速記錄을 여러가지 形態로 차례차례로 發行하고 있는 議會가 있으나 이러한 境遇 맨마지막에 印刷된 速記錄이 <唯一한 公的인 速記錄>이 된다. 따라서 議員이 自己의 發言을 訂正하고 싶을 때에는 그 最終決定版이 나오기 前의 速記錄(假版)의 段階에서 그 뜻을 申請하여 訂正을 마치는 것으로 된다. 通常 이 決定版이 나오기 前에는 訂正이 自由로운 나라가 많다.

또 議員이 訂正의 目的으로 돌아오는 「타이프」로 打字된 速記 飜文原稿를 檢討해서 印刷, 配付케하는 나라도 많다.

一般的으로 議員은 要求하면 訂正할 수 있으나 記錄의 正確度(faithfulness)나 信賴感(reliability)을 損傷한 變更을 加해서는 안되는 原則이 各國 共히 規則으로 定해져 있다. 內容의 變更 또는 새로운 事項의 挿入은 一切 許容되지 않는다. 速記錄의 正確度를 保證하고 信賴感을 損傷시키지 않게 하는 것은 速記錄을 擔當하고 있는 사람 (the authorities in charge of the report)의 責任으로 되어 있다.

「캐나다」, 日本, 美國의 3個國은 이 議員 訂正의 문제에 關해서 다음과 같은 特色을 나타내고 있다.

「캐나다」(下院)——實質的인 訂正이라고 判斷될 때에는 周知시키기 爲해서 本會議에서 訂正되지 않아서는 안되게 되어 있다.

日本——速記錄은 一個 種類밖에 發行않고 있으나 議員은 會議錄(速記錄은 이 안에 들어있음) 配付日의 翌日의 午後 5時까지면은 發言의 訂正을 要求할 수 있게 되어 있다. (衆議院規則 第203條, 參議院規則 第158條 第1項參照. 字句의 訂正을 要求할 수 있는 것이지 演說의 趣旨를 變更할 수는 없음) 會議錄의 訂正에 對해서 異議를 提起하는 사람이 있으면 議長은 討論을 거치지 않고 院議의 諮問을 얻어 決定하게 되어 있음(衆議院規則 第204條, 參議院規則 第158條 第2項參照)

美國——訂正事項은 主로 慣例에 依해서 處理되고 있다. 議員은 院의 許可를 得하면 發言部分의 訂正이나 敷衍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으므로 訂正을 爲해서 돌아오는 打字로 된 速記 錄文原稿를 自己의 좋을 때로 訂正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다.

어느 議員이 他議員의 發言을 變更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相對方 議員에게 通告하지 않으면 變更시킬 수 없는것으로 되어 있다. 單純한 通告뿐으로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의 與否는 明確하지 않다.

第 5 節 記錄의 方法

現在 世界 各國의 議會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方法으로 本會議에서의 發言을 記錄하고 速記錄을 發行하고 있을까——P. O' Connel「리포트」에서는 前述한바와 같은 22個國 1會議의 回答을 根據로해서 「速記型議會」와 「錄音型議會」로 大別하고 있다.

A. 速記型議會

(1) 定 義

速記型議會란 ①速記專用, ②速記及 錄音機併用 (主로 速記에 依하나 速記의 確認 또는 補助로서 錄音機를 使用한다)議會를 말한다.

全回答國中 ①에 屬하는 것이 11個國 1會議(註 1), ②에 屬하는 것이 11個國 2議會 1會議(註 2)로 되어 있고 現在 壓倒的 多數(18個國 1議會 1會議)가 速記型議會라는 것을 알 수 있다.

(註 1)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上院, 체코스로바키아, 佛蘭西, 이스라엘, 日本, 美國
(註 2) 오스트리아, 白耳義, 캐나다下院, 세일론, 印度, 아일랜드下院, 伊太利, 韓國, 룩셈부르크, 네팔, 和蘭, 아랍共, 英國, 歐州會議

以下는 速記型議會에 屬하는 나라 中에서 重要한 特色을 나타내는 것이다. (※印은 速記專用)

※「오스트레일리아」——「오스트레일리아」放送局은 下院 또는 上院의 會議를 每日 交代로 放送한다. 그 放送은 國會에서 錄音「테이프」에 收錄되어 記錄職員의 補助로서 使用될 때가 있다. 또 速記錄의 正確性을 議員들에게 納得(Satisfy)시키기 爲해 使用될 때도 있다.

「캐나다」下院——이 곳에서는 錄音 記錄方法이 徹底하게 研究 開發되어 있고 將來에는 錄音 記錄方式이 速記에 代置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 곳의 錄音 記錄方式에 依하면 네곳의 獨立된 「테이프」에 同時에 다음의 네가지의 內容이 錄音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① 英語, 또는 佛語에 依한 議場에서의 發言
② 同時通譯에 依한 飜譯
③ 發言者名, 그 밖에 「데이타」의 錄音
④ 時報의 自動錄音

錄音의 設備는 本會議場外에 8個委員會 會議室에 되어 있으며 어느 것이나 同時에 「모니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錄音機는 主로 佛語에 依한 發言을 記錄하기 爲해서 使用되고 있으나 그것은 佛語速記士가 不足하기 때문이다.

印度上院, 韓國, 歐洲會議— 疑問點을 「체크」한 따름의 目的으로서 錄音을 하고 있으나 通常은 記錄職員이 利用을 하지 않고 있다.

伊太利下院——記錄部에는 全體的인 錄音體制가 있으나 그것과는 別個로 各 速記士가 錄音機를 各自 가지고 自己 擔當速記 時間中 自由로이 錄音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英國——錄音機는 下院의 常任委員會에서 正規 (normally)로 使用되고 있다. 本會議場에는 午前中의 會議用으로 錄音機가 裝置되어 있어 主로 試驗과 經驗을 쌓는 뜻으로(by way of test and experience) 몇번 使用되었다. 앞으로 4年間 內外에 錄音記錄法(tape recording)으로 옮겨가는 計劃이 樹立되어 있다.

(2) 速記執務

速記錄의 發行은 通常 어느 나라에서도 緊急을 要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要求에 適應하기 爲해서 한사람 또는 몇사람의 速記士를 한 單位로 하는 組를 몇個組 編成해서 會議時間中 各組가 順序대로 會議場에 들어가 速記執務를 하게 되어 있다. 또 飜文, 編輯時間을 可及的 短縮하기 爲해서 한個組의 擔當 速記時間은 짧게 되어 있다. (〔別表 2〕 參照)

(3) 飜文方法

速記士 自身이 「타이프라이터」로 飜文하고 있는 나라는 4個國(세일론, 佛蘭西, 印度, 和蘭) 手筆飜文을 하고 있는 나라는 2個國(韓國, 日本)으로 다른 大多數의 나라에서는 速記士가 「타이피스트」에게 口述해서 速記 飜文原稿를 作成하고 있다.

「캐나다」下院의 飜文「타이피스트」는 自身이 「타이프」하지 않으면 안될 部分을 미리 會議場 傍聽席에서 들어 둘 수 있다는 利點이 있다.

(4) 機械速記(Steno type)

音聲記號를 「타이프」해서 速記를 해 나가는 方法을 Steno type 速記라고 하나 이것은 特別한 記錄의 方法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速記의 一方式이라고 생각되고 있다는 것은 留意해 두어도 좋을 것이다.

白耳義, 伊太利下院, 歐洲會議에서는 通常의 速記士와 함께 이 Steno type 速記士가 같이 速記執務를 하고 있다. 伊太利上院에서는 現在 Steno type 速記士만이 速記執務를 하고 있다. 이 方法에 依한 速記는 대단히 滿足할만한 것이라고 한다.

(5) 速記 飜文原稿의 編輯

速記士 自身이 自己의 速記 飜文原稿의 잘못을 訂正하거나 反復된 句節

을 削除하거나 하여서 大體的으로 印刷體制에 適合한 編輯作業(editorial work)을 하고 있는 나라는 다음의 12個國 1會議이나 速記 議文原稿가 速記士의 손을 떠나면 그것으로 그만이라는 것이 아니고 다시 編輯職員이라든가 檢閱職을 거쳐서 編輯 作業을 하게 되어 있다. 그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세일론, 印度, 아일랜드, 이스라엘,

※ 伊太利, 日本, 룩센부르크, 和蘭, 아랍共, 英國, 歐洲會議」

(※印 上院議員은 自己의 發言部分을 校閱할 目的으로〔for the purpose of revision〕速記 議文原稿의 副本을 받고 있다.)

다음의 6個國에서는 速記士에 依한 編輯作業은 過히 重要視하지 않고 主로 이 일은 編輯 校閱職에 依해서 다루어지고 있다.

「오스트리아, 白耳義(註1.2), 체코스로바키아, 佛蘭西(註 2), 韓國, 美國」

(註 1) 速記原稿는 兩院 共히 校閱을 爲해서 發言한 議員에게 돌려진다.

(註 2) 要約版(the short report comptrendu analytique)의 編輯은 主로 그 作成을 任務로 하는 記錄職員이 하고 있다.

「네팔」에서는 記錄部長(the editor of debates)이 速記 議文原稿의 編輯을 專擔하고 있다.

編輯이 끝난 速記 議文原稿를 部分的으로 會議中에도 계속해서 印刷所에 보내고 있는 것은 다음의 8個國 2議會이다.

「오스트리아, 캐나다, 세일론, 佛蘭西, 印度上院, 아일랜드, 伊太利下院, 韓國, 英國, 美國」

(※印 下院에서는 「콤퓨터」方式에 依한 連續傳送 自動植字印刷 (Continuous Computerised transmission for automatic Composition)의 可能性에 對해서 目下 研究中이라 한다)

白耳義, 佛蘭西의 要約版 및 歐州會議의 假版(the provisional report)도 會議中에 送稿를 하고 있다.

또 會議後 編輯이 끝난 議文原稿를 一括해서 印刷所에 送稿하고 있는 것은 다음의 7個國 2議會 1會議이다.

「오스트리아, 白耳義, 체코스로바키아, 印度下院, 이스라엘, 伊太利上院, 룩셈부르크, 아랍共, 歐州會議, ※日本」

(※印 數回에 나누어서 送稿하는 일도 있음)

記錄職員(the reporting or editing authority)이 印刷所로 부터 速記錄의 校正版을 받아서 校正을 하고 있는 나라는 다음의 7個國이다. 이 以外의 나라에서는 校正版을 印刷하지 않고 있다.

「오스트리아, 佛蘭西, 印度, 이스라엘, 伊太利, 韓國, 아랍共」

B. 錄音型議會

(1) 定 義

錄音型 議會란 ①錄音機 專用 ②錄音機와 速記併用(主로 錄音機에 依하나 錄音機의 補助로서 速記를 使用한다)議會를 말한다.

現在 錄音型議會에 屬하는 것은 「덴마크, 핀랜드, 아일랜드上院, 유고스라비아」의 3個國 1議會뿐이다. 「덴마크」는 1968年의 國會幹部會(the presidium of the folketinget)의 決議로서 此後 錄音機 專用으로 記錄할 것을 定하고 있다. 故障의 境遇에는 蓄電池用의 非常用 錄音機가 自動的으로 始動하게 되어 있다.

「핀랜드」나 「유고스라비아」에서는 不正規 發言이나 故障의 境遇를 考慮해서 錄音機의 補助로서 速記士를 活用하고 있다.

「아일랜드」上院에서는 最近(1971年부터) 錄音機를 使用해서 記錄을 하고 있었으나 速記는 錄音機의 補助手段으로 되어 있다.

(2) 錄音記錄의 作成狀況

(a) 덴 마 크

이미 記述한 바와 같이 이 나라의 國會는 錄音機 專用이지만 錄音記錄의 實情과 必要人員의 配置狀況에 對해서 錄音型 議會中에서 가장 詳細하게 記述을 하고 있다.

〔職員構成〕

記錄部長(revision officer)	1名
校閱職(reporter)	4名
錄音照會係(check-listener)	4名

타이피스트監督(supervisor)	1名
타이피스트	8名
技術者(technician)	1名
	計 19名

〔職務分擔〕

타이피스트= 如何한 種類의 編輯도 一切 하지 않고 錄音「테이프」에서 逐語的으로 「타이프」해 나간다.

타이피스트監督= 「타이프라이팅」의 業務가 쉬지 않고 繼續되게 하며 또 必要한 境遇에는 언제나 「타이피스트」가 緊急한 指示를 받을 수 있는 態勢를 갖추어 놓고 있다.

錄音照會係= 錄音「테이프」에 依해 作成된 「타이프」로 打字되어서 作成된 原稿가 逐語的으로 되어 있는지의 與否를 그 「테이프」를 들어보면서 照會한다.

이 때에 句讀點을 고친다든가 本文을 適宜하게 區分한다든가 引用文을 「첵크」한다든가 文法에 틀린 것이 있으면 訂正하는 것이 이 係의 任務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 業務에는 「타이프」 原稿의 實際的인 編輯은 一切 包含되지 않는다.

校閱職= 「타이프」原稿의 編輯校閱을 한다. 校閱職은 各自 1時間 交代로 議院의 會議를 聽取(monitor)한다. 議場에서는 7分 30秒 마다 錄音「테이프」를 갈아 끼우며 錄音이 끝난 「테이프」는 即時 「타이피스트」에게로 돌아간다. 校閱職은 錄音照會가 끝난 「타이프」原稿를 다시 意味가 通하게 言語形式을 調整하고 또 그 內容이 發言議員의 나타내려는 意思表示와 一致하도록 한다든지 해서 必要한 編輯校閱을 한다.

記錄部長= 記錄業務를 總括해서 監督한다.

한 記錄部長은 이 編輯이 끝난 原稿에 對해서 必要한 最終校閱을 하고 最後的으로 發行되기 前에 이 原稿를 嚴密히 檢討한다.

(b) 핀랜드, 유고스라비아

이 두나라의 業務處理 順序는 大略 「덴마크」의 境遇와 大同小異하다.

「핀랜드」에서도 7分 30秒 마다에 錄音「테이프」를 갈아 끼우며 錄音이 끝난「테이프」는 繕文「타이피스트」에게로 돌아간다. 「타이프」原稿는 編輯된 後 議員에게로 돌아간다. 議員은 自己의 演說部分을 確認(체크)도 하고 句讀點을 自身의 손으로 다시 한번 고치기도 하는 時間이 割愛되어 그것이 끝날때 까지 原稿는 印刷所에 돌려지지 않는다.

「유고스라비아」에서는 「테이프」는 5分마다에 갈아끼워서 繕文「타이피스트」에게로 돌아간다. 「타이프」原稿는 校閱 職員에 依해 編輯 校閱된다.

(c) 會議中 送稿

이러한 錄音型 議會의 繕文 原稿는 언제나 會議 進行中에 끊임 없이 印刷所에 보내진다.

(d) 캐나다下院

두드러진 特色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캐나다」下院이다. 여기는 委員會에서는 錄音機 專用이나 本會議에 있어서는 速記의 補助役으로서만이 錄音機를 使用하고 있으므로 「速記型 議會」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캐나다」下院에서는 繕文「타이피스트」를 募集해서 編輯能力을 갖게끔 特別訓練을 시키고 있다. 「캐나다」下院의 말에 依하면 이들 繕文「타이피스트」가 經驗을 쌓고 熟練되면 「타이프」原稿의 編輯 校閱은 大部分 或은 全然 必要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錄音 記錄法은 本會議 程度로는 緊急을 要하지 않는 委員會의 速記錄作成의 境遇에 보다 適合한 것이 될 것이다.

第6節 記 錄 職 員

A. 速記型 議會

(1) 採用 狀況

印度上院, 아랍共, 美國을 除外한 全回答國은 모두 「必要로하는 高速度의 速記能力을 保持하고 또한 職務에 相當한 一般的 敎育水準(the approp-

riate level of general education)에 達하고 있는 速記士를 職員으로 採用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記述하고 있다.

公募試驗에 依해서 速記士를 採用하고 있는 나라는 다음의 11個國 1議會이다. (試驗後에 面接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가 있다).

「白耳義, 세일론, 佛蘭西, 印度, 아일랜드, 이스라엘, 伊太利, 日本(衆議院) 韓國, 룩셈부르크, 和蘭, 아랍共」

議會 當局者와의 面接에 依해서 速記士를 採用하고 있는 나라는 다음의 6個國 1議會이다. 「必要한 境遇에는 技術試驗(tests of a practical nature)을 施行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스로바키아, ※日本(參議院), 英國, 美國

(※ 印 參議院速記者養成所 卒業生에 限함)

歐州會議의 速記士는 이 會議의 會員國의 議會 職員中에서 採用하고 있다.

資格要件——速記士로서의 資格要件은 當然히 豫期되는 바와 같이 훌륭한 速記能力을 保持하고 있는 것을 不可缺의 要件으로 하고 있으나 大部分의 나라가 거기에 또 「저나리스틱」한 經驗이 있기를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다.

敎育程度는 通常의 境遇 中等敎育 即 高等學校 卒業者 資格이 要求되고 있다. 이러한 卒業資格을 條件으로 해 두는 것으로서 廣範한 敎育을 받고 一般常識이 豊富한 志願者가 確保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팔」이나 印度에서는 「大學卒業者가 아니면 實務 經歷 10年이 된者」로 되어 있다. 要約版 作成에 從事하는 佛蘭西, 伊太利, 「룩셈부로크」의 職員은 大學卒業의 資格이 必要로 되어 있다.

男性·女性 記錄職員의 對比——記錄職員을 事實上 男性만으로 限定하고 있는 나라는 6個國(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세일론, 印度, 英國, 美國)이다.

佛蘭西下院의 境遇는 女性 記錄職員의 數는 實人員의 1割以內로 抑制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체코스로바키아, 네팔, 和蘭, 아랍共」의 5個國에서는

現在의 實情으로서는 男性 記錄職員이 女性 記錄職員보다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白耳義, 아일랜드, 이스라엘, 伊太利」의 4個國에서는 反對로 女性 記錄職員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다.

要約版 作成에 從事하고 있는 白耳義, 伊太利의 記錄職員은 主로 男性들이나 「룩셈부르크」의 境遇는 女性만으로 되어 있다.

(2) 昇 進

議會의 速記職의 地位에 있는 者 中에서 보다 큰 責任을 지는 높은 地位에의 昇進은 現在 「체코스로바키아」(昇進制度없음)를 除外한 各國에서 行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昇進의 基準으로 되는 것은 「經驗과 實績experience and merit」이라는 通常의 方法에 依한다.

(3) 特別手當

議會速記의 職務上 當然히 支給되는 給與 以外에 아무런 特別手當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다음의 9個國이다.

「오스트리아, 白耳義, 캐나다, 印度, 아일랜드, 이스라엘, 伊太利, 네팔, 美國」

超過 勤務手當을 支給하고 있는 나라는 다음의 6個國이다.

「세일론, 佛蘭西, 日本, 룩셈부르크, 英國, 유고스라비아」

또한 「체코스로바키아, 韓國, 아랍共」의 速記士에게도 위와 같은 特別手當이 支給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夕食, 輕食費가 支給되고 있다.

(4) 外部 速記士의 應援

다음의 9個國 1議會에서는 議會速記士만으로 充分하며 外部에서의 應援을 必要로 하지 않고 있다.

「白耳義, 캐나다下院, ※세일론, 佛蘭西, 印度, 日本, 韓國, 룩셈부르크, 아랍共, 美國」

(※印 兩院間에 相互 協力體制가 成立되어 있어서 兩院이 各其 會議를 調整함으로써 1院의 速記士를 他院에서도 活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業務의 輻輳時의 速記業務를 圓滑히 處理하기 爲해서 議會速記士가 外部의 速記士의 應援을 求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은 다음의 8個國 1議會이다.

(註 1, 2. 以外는 民間速記士)

「오스트라리아,(註 1) 오스트리아, 캐나다上院, 체코스로바키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伊太利(註 2) 네팔, 英國」

(註 1) 州議會速記士 (the state reporting personnel)에게 依頼

(註 2) 議會의 委員會 速記를 擔當하고 있는 請負速記士에게 助力을 求한다.

(5) 議文「타이피스트」

特別한 資格을 保持하고 있는 議文「타이피스트」가 速記士의 note에서 速記 議文原稿를 作成하게끔 되어 있는 나라는 다음의 12個國 2議會이다. 또한 議文「타이피스트」의 給與는 通常의 公務員「타이피스트」보다도 上位의 給與나 特別手給을 支給하게 되어 있다.

「오스트라리아, 오스트리아, 白耳義, 체코스로바키아, 캐나다, 佛蘭西上院 아일랜드, 이스라엘, 伊太利上院, 룩셈부르크, 네팔, 아람共, 英國, 美國」

白耳義, 伊太利下院, 歐州會議의 議文「타이피스트」는 會議가 있는 날만 雇傭되는 臨時職員이다.

다음의 5個國 1議會의 速記士에게는 議文「타이피스트」의 割當은 없고 自己들 自身들이 打字를 하거나 手筆로써 議文하고 있다.

「세일론, 佛蘭西下院, 印度, 韓國, 日本, 和蘭」

B. 錄音型 議會

錄音型 議會에 있어서의 記錄事務는 主로 音錄「테이프」의 議文 및 議文原稿의 編輯校閱로서 成立되어 있기 때문에 記錄職員의 數는 比較的 少數로서 充分하고 또 이러한 職員에 對해서는 高速度速記士의 採用이나 補充이라는 特別한 문제도 提起안되므로 求人이 보다 容易하게 되어 있다.

(註) 錄音型 議會의 記錄職員의 數가 比較的 少數로 充分한가 안한가는 疑問이다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이다.

速記型 議會의 典型이라할 수 있는 美國 聯邦議會에서는 下院 本會議 記錄「스텝」(委員會記錄「스텝」은 包含하지 않음)은 速記士 7名, 議文「타이피스트」7名, 書記 3名 計 17名. 上院에서도 首席 速記士 1名, 速記士 7名, 補助 速記士 1名, 議文「타이피스트」6名, 書記 2名 計 17名으로 되어있다. 한편 錄音型 議會의 典型이라할 수 있는「덴마크」國會의 本會議 記錄職員 構成은 이미 上述한바와 같이 美國보다 오히려 2名이 더 많은 19名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1) 校閱職(the editing personnel)

校閱職의 資格要件으로서 特히 ①議會에서 討議되는 문제에 對해서 廣範한 一般常識을 가지고 있을것 ②發言을 올바로 校閱하기 爲해서 「흠을 잘 잡는 銳利한 眼光(Critical flair)과 言語知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前提條件이 된다. ③大學卒業 또는 그와 同等의 敎育水準을 갖춘 者를 求하는 例가 많은 것을 들 수 있다.

(3) 謄文「타이피스트」

「덴마크」와 같이 錄音「테이프」에 依한「타이프라이타」로 打字된 原稿를 作成하는 것만의 職種이다. 이 職種에 要求되는 것은 速度와 正確性뿐이다. 打字된 原稿를 다시 多少 編輯하도록 要求되는 境遇 이 謄文「타이피스트」의 學歷은 보다 높은 것이 必然的으로 要求되게 된다. 謄文「타이피스트」의 給與는 大略 다음과 같다.

「덴마크」, 「유고스라비아」의 議會의 謄文「타이피스트」 職員은 議會外의 同職種의 사람보다 높은 給與를 支給받고 있지는 않으나 그러나 「덴마크」보다는 會議에 있어서의 業務의 性格上 勤務時間이 퍽 적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핀랜드」에서의 謄文「타이피스트」는 通常의 公務員「타이피스트」보다 上位의 給與를 支給받고 있다.

「아일랜드」上院도 「핀랜드」와 같으나 여기서는 特別手當을 支給하는 案이 提出되어 있다.

第 7 節 議會速記士의 養成狀況

(1) 調査의 目的

新規採用의 速記士는 一般的으로 一定의 見習期間을 거치고 있다고 보아도 잘못은 아니다. 이것은 그들이 正式任命(Permanent appointment)에 適格한 者임을 議會 當局者에게 納得시키기 爲한 것이다. 또 이 期間에 그들은 通常의 實地訓練("On the job" training)을 받으나 이것은 議會의 形式이나 慣行에 對해서 그들에게 익숙하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의 調査는 이러한 採用 初期의 速記士의 狀況과 特히 關係가 있는 것은

아니였다. 議會는 一般的으로 優秀한 高速度 速記士의 採用難이란 문제를 안고 있으나 그러면 이러한 議會가 ① 適性에 맞는 者를 正式으로 訓練해서 議會內部에서만 議會速記士로서 任命할 수 있는 資格水準에 到達하게 한다. 또는 ② 適性에 맞는 者를 正式으로 訓練해서 公開競爭의 議會速記士 採用試驗에 合格될만한 希望이 엿보이는 受驗者의 水準에 達하게 한다는 어느 쪽이든 速記士 養成計劃에 大體로 어느 程度까지 깊이 파고들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다는 것이 이번의 調査의 目的이었다.

(2) 養成計劃이 없는 나라

現在 養成計劃에 依해서 議會速記士를 採用하는 制度를 取하고 있지 아니한 나라는 11個國 (白耳義, 캐나다, 세일론 체코스로바키아, 印度, 아스라엘, 룩셈부르크, 네팔, 아랍共, 英國, 美國)이나 그 實情은 다음과 같다.

白耳義——「養成訓練코스」라고 正式으로 呼稱되는 것은 없으나 速記士를 臨時로 募集해서 그 勤務期間中에 適當한 訓練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白耳義와 大同小異하나 訓練後에 筆記試驗(an examination in written form)이 있다.

캐나다——數年前 素質이 있는 志願者에게 養成計劃에 參加시켜서 興味를 갖게 하려는 方式이 試圖되었으나 興味를 갖지 못하게 되어서 計劃은 廢棄되었다.

印度下院——委員會 速記士는 本會議 速記士하고는 本來 別個의 職員이나 議場에서 實質的인 訓練(a Course of practical training)을 받는다.

英國——養成 計劃의 最初의 試圖는 成功하지 못했다. 이런 種類의 計劃은 어느 것이나 養成費가 많이 所用된다.

委員會는 錄音에 依해서 記錄이 行해지고 있으나 現在까지 不滿點은 없다.

萬若에 이 錄音記錄에 不滿點이 있는 것이라면 將來 速記士 養成計劃의 導入이라는 것도 생각하게 될 것이다.

(3) 養成計劃이 있는 나라

다음에 記述하는 8個國에 있어서는 各己 將來 速記士가 되기에 알맞은 者

를 養成하는 計劃이 實施되고 있으며 그 指導에는 各 議會의 記錄職員이 擔當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練習生은 裁判所의 記錄職員의 比較的 下級者中에서 募集을 하나 養成期間은 各人의 速記能力이 不均衡하므로 一定하지 않다. 이 養成課程을 마친 練習生은 缺員이 되는대로 任命된다. 「議會速記士」의 採用試驗을 外部의 다른 志願者와 같이 치루는 것으로 되어 있다. 現職의 記錄擔當職員의 大多數가 이 養成課程 修了者이다.

오스트리아——이미 훌륭한 速記能力을 保持한 者를 訓練해서 그 中에서 議會速記士로서 相應한 者를 採用하는 養成課程이 過去에 組織되었던 일이 있다.

이 課程의 期間은 數個月이었으나 練習生은 그 때에 施行된 試驗(an examination)에 合格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現職의 議會速記士는 大槪가 그러한 課程을 거친 者들이다.

佛蘭西——兩院에는 速記課程(an official stenographic course)이 公式으로 設置되어 있다. 이 課程의 學生들은 大學의 科目도 同時에 공부하고 있으므로 嚴密히 速記 練習生이라는 것으로는 分類되어 있지 않다. 이 課程의 期間은 3年間으로서 受講하고 있는 大學生은 그 進涉狀況에 따라 經濟的 援助를 받고 大學의 科目의 공부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議會速記士에 缺員이 생긴 境遇 이들 學生은 다른 사람과 같이 議會速記士 採用試驗에 應試할 수 있다.

現在의 下院 速記士의 大多數는 이 課程을 거쳐 採用된 것이다. 그러나 上院 쪽은 現在까지의 境遇 이러한 課程을 通해서 採用된 速記士는 한사람도 없다.

아일랜드——速記를 할 수 있는 女職員中에서 速記 練習生을 募集하는 養成計劃이 있다. 養成訓練期間은 最低 1年이다. 資格이 있는 練習生(trainees who quality)은 要請이 있으면 兩院에서 速記를 하고 그 報酬는 料金制度에 依해서 支拂된다. 常勤의 速記士로서의 昇進은 缺員이 생기는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伊太利——議會 事務當局에 依해서 組織된 「速記課程」 (courseson ste nography)이 있다. 이 課程의 對象者는 「高卒로서 基礎的인 速記의 知識이 있는 者」로 되어 있다. 試驗에 合格된 者는 請負速記士(contract reporter)에 任命되어 委員會 速記士로 從事한다. 本會議 速記士로의 昇進은 公開 競爭試驗에 依한다. 現在 下院 本會議 速記士의 3分之 1, 上院의 境遇는 全員이 이 課程을 거쳐서 任命된 것이다.

日本——50年前에 各各 兩院에 速記士養成所가 附設되어 今日에 이르고 있다. 學生은 高等學校 卒業者中에서 試驗에 依해 募集되며 그 養成期間은 2年半으로 되어 있다. 授業科目으로서는 速記科目外에 國語, 英語, 法律, 經濟의 科目도 授業하고 있다. 養成所의 卒業生은 兩院의 記錄 擔當職員의 缺員에 充用되고 있으나 速記士로서 地方議會나 新聞社等 院外에 就職하는 者도 있다. 現在의 記錄 擔當職員中 約 90%가 이 制度에 依해서 採用되었다.

韓國——1951年 12月 國會內에 文敎部長官의 認可를 얻어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가 設立되어 學生은 高等學校 卒業以上의 者 中에서 公開試驗에 依해 募集되어오다가 1961年 5月 16日 軍事革命으로 國會가 解散됨에 따라 中斷되었다. 1963年 12月 17日 民政移讓後 1968年 3月부터 다시 國費로써 國會速記士養成所로 復活되어 入所資格은 亦是 高卒以上이며 養成期間은 1年으로서 授業科目은 速記科目外에 國語, 國史, 法制大意, 經濟大意 等을 授業하고 卒業 試驗에 合格된 者에게만 修了證을 授與하고 있다. 國會速記士의 缺員이 있을 때에는 民間 私設速記學院의 卒業生들과 같이 國會 速記士採用 公開試驗에 應試할 수 있다. 現職의 記錄 擔當職員의 大多數가 이 養成所出身이다.

第 8 節 速記錄의 索引

(1) 索 引

이 標題를 目的으로 하는 本會議 速記錄 (the report of the debates)이란 通常의 「速記錄」(別表 1. 參照)을 말하는 것이다.

本會議 速記錄의 索引을 速記錄의 合本裝幀版의 一部로서 發刊하고 있는 것은 다음의 10個國 2議會 1會議이다.

오스트레일리아, 白耳義(1) 캐나다上院 (1) 세일론, 아일랜드, 伊太利上院 韓國, 룩셈부르크, 네팔, 아랍共 (2) 美國 (1) 유고스라비아, 歐洲會議

(1) 議員은 索引만을 別册의 形式으로 入手할 수도 있다.

(2) 週間索引 및 隔週間 索引 (fortnightly)도 發刊되고 있다.

다음의 4個國 1議會에서는 速記錄의 合本도 發刊되고 있으나 索引은 그 안에 包含되지 않고 別册으로써 發刊되고 있으며 議員은 그것을 入手할 수 있게 되어 있다.

(1) 캐나다下院, (2) 佛蘭西, (2) 이스라엘, 和蘭, (3) 美國

(1) 索引의 範圍로 하는 期間은 따로 印刷되는 合本과 같다.

(2) 會期 1年分(a yearly session)을 包含한다.

(3) 隔週刊 索引(biweekly).

「핀랜드」에서의 速記錄의 合本(the bound reports)은 1會期分을 包括(cover a session)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索引은 이 合本의 最終卷에 收錄되어 있다.

다음의 5個國에서는 速記錄의 合本은 發刊되고 있지 않으나 索引은 別册의 形式으로 發行되고 있으며 議員은 그것을 入手할 수 있게 되어 있다.

(1) 오스트리아 (1) 체코스로바키아 (2) 덴마크 (3) 印度 (3) 日本

(1) 1議會期分(the period of a legislature)을 網羅한다.

(2) 여러가지 索引이나 調査事項을 速記錄의 決定版(the final print of the report)의 最終部分으로서 發行하고 있다.

또 「덴마크」 國會圖書館 司書(the librarian of the folketinget)는 會議中에 取扱된 모든 문제를 網羅하는 詳細한 索引을 作成하고 있다.

(3) 各會期마다 發行하고 있다.

伊太利의 下院에서는 索引은 一切 作成되고 있지 않다.

또한 記錄部內의 職員에 依해서 索引을 作成하고 있는 나라는 8個國 2議會(註 1)記錄部內의 職員은 아니나 議會職員에 依해서 作成하고 있는 나라

는 11個國 1議會(註 2)로 되어 있다.

(註 1)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上院, 세일론, 아일랜드, 伊太利上院, 韓國, 日本, 룩셈부르크, 네팔, 유고스라비아

(註 2) 오스트리아, 白耳義, 캐나다下院, 체코스로바키아, 덴마크, 핀랜드, 佛蘭西, 印度, 이스라엘, 和蘭, 아랍共, 美國

英國에서는 民間會社와 契約해서 索引을 作成하고 있다.

「덴마크, 아일랜드, 유고스라비아」의 索引擔當 職員에게는 特別手當(extra emoluments)이 支給되고 있다.

(2) 總 索 引

總 索引이란 「議會速記錄」(the parliamentary proceedings)의 一連의 索引을 一定期間에서 잘라 한묶음으로 해서 別冊으로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速記錄의 總 索引을 내고 있는 나라는 10個國 2議會로 되어 있으나 그 內譯 및 發行形態는 다음과 같다.

① 議會의 各會期(1年)마다 묶어서 내고 있다. (캐나다, 英國, 美國)

② 1議會期(the life of each parliament)를 範圍로 해서 내고 있다. (白耳義, 佛蘭西, 아일랜드下院, 伊太利上院, 아랍共)

③ 4年마다 내고 있다. (韓國, 유고스라비아)

④ 大體로 10年 마다에 編輯하고 있다. (핀랜드, 和蘭)

殘餘의 나라에서는 總 索引은 一切 發行되고 있지 않다.

第 9 節 委員會의 速記

다음의 9個國 2議會에서는 本會議 速記士가(必要한 境遇에는 民間速記士의 應援을 얻어서) 委員會 速記를 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上院, 세일론, 체코스로바키아, 印度上院, 아일랜드 이스라엘, 日本, 和蘭, 英國, 유고스라비아」

各國別 委員會速記의 樣態는 大體로 다음과 같다.

캐나다下院——이미 記述한 바와 같이 委員會의 會議는 錄音에 依해서 記錄되고 있다.

체코스로바키아, 和蘭——많은 委員會가 同時에 開會되는 境遇에는 錄音에 依한다.

이스라엘, 日本——委員會는 非公開이며 委員會 速記錄은 委員(Committee members)用으로만 提供된다. (日本에서는 衆, 參兩院의 委員會 會議錄은 議員, 國務大臣, 政府委員에게 配付되고 있으며 一般에게는 市販되고 있지 않다)

英國——法案을 審議하는 常任委員會에서는 錄音機가 正規的(regularly)으로 使用되고 있으나 全般的인 문제를 審議하는 特別委員會(select committees)의 速記는 主로 契約을 締結하고 있는 民間 速記事務所의 速記士에 依해서 記錄業務가 遂行되고 있다.

유고스라비아——本會議에서는 錄音機가 使用되고 있으나 委員會 會議의 記錄(notes of meetings of committees)에는 速記를 하고 있다.

伊太利下院——委員會 速記에는 請負速記士로써 充當하고 있으나 必要한 境遇에는 本會議 速記士가 應援한다.

印度下院——委員會 速記士가 委員會 速記를 擔當하고 있으나 必要한 境遇에는 本會議 速記士가 應援한다.

美國下院——專門的 速記職員이 委員會 速記를 擔當하고 있다.

美國上院——몇個의 民間 速記事務所와 契約을 해서 委員會의 速記를 하고 있다.

다음의 8個國 1會議에 있어서는 委員會의 逐語速記錄(word-for-word debates)은 發刊되고 있지 않으며 簡單한 議事錄(an abbreviated version of the proceedings)을 作成하고 있을 뿐이다.

오스트리아, 白耳義, 덴마크 (1) 핀랜드 (2) 佛蘭西, 룩센부르크, 네팔, 아랍共, 歐洲會議

(1) 委員會의 會議는 委員會 獨自의 必要에 依해서 錄音 또는 速記에 依해서 例外的으로 記錄할 때가 있다.

(2) 長官 發言時는 逐語速記錄을 要求할 때가 있으며 이때에는 議會의 速記 擔當職員이 擔當해서 執務를 하나 必要한 境遇에는 民間速記士의 應

授을 받는다.

第10節 結 論

이번 回의 質問事項은 實際上의 取扱事項을 主題로 해서 調査한 것으로서 理論上의 取扱事項에는 別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1) 速報版에 對해서

回答을 보내 온 議會中 大略 半數는 會議 進行中에 議事의 記錄을 내고 있는 形式을 取하고 있다. 이 記錄을 내고 있는 議會는 다시 또 會議中에 惹起된 여러가지의 狀況을 要約形式으로 내고 있는 議會와 訂正을 加하지 않는 逐語速記錄(a full unrevised report)의 形式으로 내고 있는 議會로서 大別할 수 있다.

이런 速報版의 役割로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點을 들 수 있다.

① 情報를 新聞이나 「라디오」等에 迅速히 提供한다.

② 本會議에서 惹起된 狀況을 情報로써 議員에게 即時 알린다.

③ 「캐나다」와 같이 2個의 言語에 依해서 速記錄을 印刷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 速報版은 「議場에서 使用된 言語」(floor language)를 다른 公用語에 確實히 飜譯하는데에 도움이 되며 2個의 言語에 依한 速記錄을 하룻밤 사이에 各各 時間內에 印刷될 수 있게 하는 役割이 있다.

速報版 發行은 便利하다 하는 意見에 反對하는 意見도 述懷되고 있다. 그것은 ①新聞, 「테레비」「라디오」等의 報道機關(the prees)은 말하자면 官製의 發表文書(an official "hand out")이다. 速報版에 依存할 것이 아니다. ②議員이 이 便利한 速報版을 入手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本會議 開議中에 議員의 出席率이 低下해지기 쉽다는 意見이다.

이 速報版이 萬一 新聞等의 報道機關만을 爲해서 發刊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作成은 價値있는 일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 理由는 報道關係의 代表者가 會議에 나와서 自己들 自身이 自由로이 記錄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議事에 對한 取材가 不充分하게 되는 憂慮는 全혀 없기 때문이다.

다음에 速報版의 發行에 依하여 議員의 本會議 出席率이 影響을 받아서 低下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떠한 證據가 거기에 있는지 未知數이나 影響을 받는다고 假定하더라도 그와 反對로 本會議 出席率이 좋은 議員은 議會活動을 하고 있다는 것이냐 하면 반드시 그렇다고 단은 할 수 없는 것이다. 會議 進行中의 發言이나 議事에 關한 最新의 情報(速報版)가 議員에게 있어서 有益한 것이라는 것. 特히 會議가 長時間에 亘하는 境遇라든가 아침과 저녁으로 나뉘어서 하게 되는 境遇 價値있는 것이라는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

(2) 錄音에 對해서

議會의 會議를 記錄하는 方法으로서 錄音機를 直接 速記代身, 또는 速記의 補助로서 使用하는 傾向이 增大해 오는 것은 대단히 興味있는 일이다. 有能한 高速度 速記士(competent high speed shorthand writers)를 確保하는 것은 지금에는 여러나라들에서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되고 있다. 그들은 過去에는 新聞 報道界에서 脚光을 받았다. 過去의 新聞報道는 議會나 公的機關(Public bodies)의 長時間의 議事錄을 新聞의 代表的인 記事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記錄하는 速記士의 技術이 要求되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世界의 움직임이나 特輯記事가 대단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新聞의 紙面은 貴重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의 新聞記者는 가령 速記의 技術이 要求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多少의 常識이 있으면 된다는 程度로 되고 있는 것이다.

錄音機의 利點——議會의 會議를 錄音機로 記錄하는 것으로서는 두말할 나위없이 다음과 같은 利點이 있다.

① 錄音記錄(the record)은 逐語로서 大體의 境遇 明瞭해서 論爭을 不許한다.

② 錄音記錄을 「테이프」와 照會하는 것은 必要하면 몇번이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③ 錄音에는 그때 그때의 議場의 狀況 (Conditions in the chamber)이 나타난다.

④ 各己 다른 여러 言語가 使用되어도 문제가 惹起되지 않는다.

⑤ 보다 經濟的이라는 意見도 있다. 「덴마크」가 主張하는 바에 依하면 議文原稿作成에 從事하는 職員의 給與를 約 40% 節減할 수 있었다고 하나 그러나 이 主張은 錄音記錄의 經驗을 가진 나라들에 依해 全面的으로 支持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⑥ 有能한 速記士를 獲得한다는 문제는 一切 없어진다. 이것은 上述한 中에서 가장 重要한 일(most important of all)이다.

錄音機의 缺點—— 그러나 優秀한 速記士와 比較해 보면 錄音機에는 다음과 같은 缺點이 보인다.

① 議場이 活潑한 空氣에 휩쌓여 있을 때에 일어나는 不正規發言(interruptions)이나 同時發言(Cross fire)을 錄音하기는 困難하다.

② 機械自體의 缺陷 또는 停電에 依해 突然 錄音不能인 때가 있다.

③ 錄音「테이프」로써 議文原稿를 作成하거나 그것을 校閱 編輯하는 技術水準은 最高 水準에 있는 速記士에게서 通常 볼 수 있는 專門的 水準에 까지 아직 未達하고 있다. 따라서 校閱도 速記士에 比하면 긴 時間이 걸리며 또 速記士가 느끼는 것 보다 더 困難한 것(troublesome)으로 되어 있다.

그 對策——이러한 여러 缺點을 解決하는 最良의 方法은 錄音機와 速記를 併用하는 것으로 되나 이 方法을 採用하고 있는 나라는 現在 漸次 增大해 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 不正規發言은 中速度 速記士(an average speed shorthand writer)로 하여금 執務케 하여 處理할 수가 있다. 또 錄音機 故障의 可能性에 對해서는 機械를 同時에 2臺를 使用하여 各各 그 電源을 달리해서 使用하고 錄音機의 補修와 分解檢査를 定規的으로하는 効果的 體制를 取하는 것으로서 故障의 發生을 最少限으로 防止할 수 있다.

다음에 議文 原稿作成의 문제인데 적어도 最初의 어느 期間까지는 錄音「테이프」에 依한 議文作業은 速記士의 口述에 依한 것보다 神經을 한層 더 疲勞케 한다는 것은 一般的으로 經驗에 依해 實證되고 있는 것 같다. 그 結果로서 議文原稿의 編輯을 議文「타이피스트」 自身이 하든 또는 다른 사람이 하든 그런 것에는 一切 關係없이 훌륭한 議文原稿를 作成하는 速度가 늦

어지고 있다. 이 點에 對해서는 「일에 對한 人間의 適性有無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述懷하는 것은 옳은 것이며 議文原稿의 作成速度가 늦다는 不滿의 소리에 對해서는 그 理由를 適性이 없기 때문이라고 說明할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萬一 擔當職員을 嚴格히 選拔(Select)하고 適正한 訓練을 시켜서 速記士와 同等한 經驗年數를 가지면 現在와 같이 「테이프」에 依한 議文 原稿作成이 速記에 依한 것 보다 엄청나게 큰 努力 內至 時間(a significantly greater amount of effort or time)을 要하게 된다는 것은 一切 없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補　　稿

P. O'Connel「리포트」의 「決定版」 發行直前에 西班牙의 到着으로 다음에 그 部分을 簡單히 補充하고 本稿를 一應 끝 맺을까 한다.

또한 英國에서는 上院이 參加(各國議會事務總長會)해 와있으나 이곳은 「下院과 같이 速記型 議會로 되어 있으며 錄音機는 速記의 補助와 確認을 爲해서 使用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 西班牙 國會(Cortes)

P. O'connel「리포트」中의 西班牙國會에 關한 事項은 大略 다음과 같다.

本會議의 記錄의 形態——「別表 1」中의 「速記錄」은 日刊으로서 會議後부터 發行까지 數週間을 要한다. 「速報版」 및 「合本」은 發行되고 있지 않다.

著作權——議會 速記錄은 著作權에 依한 保護의 對象으로 되어 있지 않다.

印　刷——速記錄은 民間 印刷會社에게 請負로 印刷하고 있다.

抜萃印刷——本會議 速記錄의 抜萃印刷는 入手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다. 即 發行되고 있지 않다.

情景描寫——白耳義, 佛蘭西, 「룩셈부르크」와 같이 速記錄에는 「拍手」(applause)나 不滿(displeasure)等의 말하자면 「會議의 情景」(physiognomy of debate)을 描寫하는 말(expressions)이 記載된다.

非發言事項의 處理——非發言 事項의 速記錄 揭載는 「오스트리아」 白耳義等 12個國 1會議만큼 嚴格하지는 않다.

發言 事項의 削除——議長은 議院에서 行한 發言의 全部 또는 一部를 速記錄에서 削除하도록 命할 權限을 갖고 있지 않다.

記錄의 方法——「速記型 議會」(錄音機 併用)에 屬한다.

執 務——「〔別表 2〕 各國 本會議速記士 執務一覽表」中의 「執務 速記士數」는 2名, 擔當 速記時間은 各 10分이다. 2名中 1名은 半의 5分間을 다른 한 사람의 補助的인 速記를 하고 後半의 5分間을 쓰고 있을 때에는 다음의 交代速記士가 補助的으로 速記를 해 주는 形式을 取하고 있다.

謄文方法——速記士 自身이 「타이프라이터」로 謄文하고 있다.

스테노타이프速記——通常의 速記士와 같이 「스테노타이프」 速記士도 쓰고 있다.

送 稿——編輯이 끝난 謄文原稿는 會議後 一括해서 印刷所에 送稿하고 있다. 校正版있음.

採用試驗——速記士의 採用은 公募試驗에 依한다.

男·女性 記錄職員의 比率——男性 記錄職員이 많음.

特別手當——없음.

外部速記士의 應援——外部로부터 應援을 求할 수 있다.

速記士養成計劃——없음.

索 引——速記錄의 合本은 發行되고 있지 않으나 索引은 別册의 形式으로 내고 있으며 議員은 그것을 入手할 수 있다. 또한 索引은 記錄部內의 職員에 依해 作成되고 있다.

委員會 速記——本會議 速記士가 하고 있다. 本會議速記보다 委員會速記가 보다 重要하고 速記 時間도 많이 되어 있다.

〔別表 1〕 **各國 本會議速記錄 發行形態 一覽表**

○印=逐語 △印=市販하지 않음 ※印=會議後發行까지 ( )=議員에의 無料配付數

國名	速報版	速記錄	※期間	合本發行
오스트레일리아		△日刊	翌日	週間速記錄合本 (1)
오스트리아	要約	日刊	1~3週間	
白耳義		要約	翌日	△合本 (1)
		逐語	1週間	
캐나다 下院	○謄寫版 Stenciled			合本 (1)
上院	○謄寫版 "Printed"	日刊	翌日	
세일론		日刊	翌日	合本 (有料)
체코스로바키아	○謄寫版(速記를 職文한 것으로서 確認한 것이 아님)	印刷版 (printed report)	數個月	
덴마크		假版	1~2日	週間速記錄 (假版)
		決定版	3~5個月	
핀랜드	○謄寫版	校正印刷	數週間	合本 (1)
		決定版	2~3個月	
佛蘭西 下院	〔假要約(謄寫版) 〔要約(速記錄의 約1/3)	逐語	翌日	△合本 (1)
上院	〔假要約(謄寫版) 〔要約(速記錄의 約1/3)			
印度 下院		〔謄寫版	翌日	
		〔日刊	10日	
上院		〔謄寫版	翌日	
		〔日刊	2~3個月	
아일랜드		日刊	2日	合本 (1)
이스라엘	○謄寫版			週間速記錄·合本 (1)
伊太利 下院		〔要約	翌日	△合本 (1)
		〔假版	翌日	
	假要約	決定版	10~15日	
上院		〔要約	翌日	合本 (1)
		〔逐語	1週間	
韓國		△假版	翌日	△合本 (有料)
		△決定版	2日	
日本		會議錄	1~2日	
룩셈부르크		要約	1週間	合本 (1)
		逐語	數週間	
네팔	要約	△日刊 (謄寫版)	3日	△合本(圖書館, 政府各部處)
和蘭		日刊	2~3日	△合本 (1)
아랍共	要約	△逐語	2日	△合本 (1)
英國		日刊	翌日	週間速記錄·合本 (1)
美國		日刊	翌日	바이, 위크리(2週間에 1回 索引付. 公用에 限함)

國名	速報版	速記錄	※期間	合本發行
				合本(下院議員 3) (上院議員 5)
유고스라비아	○謄寫版	日刊	5~8日	△合本(圖書館, 政府各部處)
歐洲會議	要約	逐語	6個月	合本

〔別表 2〕 **各國 本會議速記士 執務 一覽表**

國名	執務速記士의 數	擔當速記時間(分)	備考
오스트레일리아	* 1	10	* 記錄部長도 出席하여 不正規發言者의 確認 및 全般的인 監督의 일을 한다.
오스트리아	* 2	10 20	* 2人 1組이나 1人은 10分間 다른 1人은 20分間 速記하여 校閱한다.
白耳義	6 * 5 ** 60		* 速記士 2名. (佛語, 和蘭語) 校閱 1名 ** 要約版 〈short report〉 3名
캐나다 下院	* 2	** 10	* 英語, 佛語 各 1名
上院		10	** 「質問時間中」 및 各會議 終了前 30分間은 5分
세일론	* 6	5	* 英語, 세일론語, 다밀語, 各 1名. 다른 3名은 交代速記士 (스텐드 바이)
체코스르바키아	4	10	
佛蘭西 下院	* 2	3~15	* 1名은 3分(上院은 2分). 다른 1名은 15分 速記해서 校閱한다. 記錄部長은 會議終了 때까지 參席
上院		2~15	
印度 下院	* 2	10	* 英語, 힌두語 各 1名
上院	1		
아일랜드	1	10	
이스라엘	1	10	
伊太利 下院	* 2	3	* 2人 1組로 剛는 不正規發言을 速記한다.
上院	1	5	
韓國	2	* 10	* 本會議
		** 20	** 委員會
日本	2	* 10	* 原則
룩셈부르크	* 3	5	* 1人은 速記, 1人은 不正規發言, 1人은 交代
네팔	2	10	
和蘭	1	5	
아랍共	* 4	20	*1名은 速記士, 다른 3名은 助手
英國	* 2	** 10	* 1名은 不正規發言關係로 나가나 「質問時間中」은 2名이 速記한다.
			** 夜間의 一定時間부터 5分制로 된다.
美國 下院	1	5	
上院		10	

第3章 Computer에 依한 記錄管理

——記錄과 그 利用效率의 向上을 위하여——

第1節 文書管理의 機械化

1. 機械化의 必要性

人類의 文化는 사람의 經驗이나 생각을 口傳以外의 方法으로 傳達시키는 方法의 開發과 比例하여 發展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記錄을 남긴다>는 것은 原始時代부터 人間이 支拂한 努力의 所產이다.

세계 각지에서 發掘된 古代의 遺蹟에서는 그 當時의 生活, 風俗, 傳統, 信仰등을 象徵하는 여러가지 彫刻이나 그림이 發見되고 있다. 어떤 世代에 있어서도 記錄은 무엇인가 長期間의 保存이 可能한 物體위에 남겨지는 것으로서 아주 옛날에는 「돌」「陶器」등에 좀 내려와서는 「종이」같은 것이 그 對象物體로서 選擇되었다.

여기에서 이와같은 「物體」와 記錄과의 關係를 注意해 보면 物體의 表面에 物理的 또는 化學的인 어떤 變化를 加함으로써 記錄의 形態가 이루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例컨대 洞窟의 壁面의 돌에 징을 가지고 흠을 낸다고 하는 物理的 變化를 加하여 그 흠의 形態를 더듬어 보면 사슴의 모양으로 判讀된다는 것이다.

現代에 있어서 感光乳劑被膜에 글자나 그림의 映像을 投影 化學的變化를 시킴으로써 映像을 固定시키는 것도 그 一例니까 옛부터 人間이 記錄하는 方式은 手段에 있어 進步가 있었지만 實態에 있어서는 別로 變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와같은 記錄을 保有시키기 위한 物體를 記錄의 媒介體라고 부르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長期保存될 수 있는 物體로서 表面이 物理的, 化學的 處理가 可能하고 그 處理結果(돌에 흠이나 感光乳劑의 化學變化의 結果)가 時間의 經過로서 消滅되지 않는다는 保證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物質로 構成되었건 어디에서 求한 것이건 記錄의 媒介

體로서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記錄의 媒介體를 찾았어도 여기에 다가 어떤 記錄을 한다는 것은 媒介體에 物理的 또는 化學的 處理를 한다고 하는 一種의 作業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 作業에는 努力이 들어야 되고 또 同時에 熟練度가 따르게 된다.

여기에서 이제까지의 얘기를 정리해 보면 어떤 記錄을 남기고자 하는 人間의 意志가 發生한다. 이것이 出發點이니까 이것을 zero 段階라고 하면 그 다음

第1段階——記錄을 長期保存해 줄 媒介體를 選定한다. 그 媒介體는 第2段階 以後의 作業으로 部分的으로 物理, 化學的 變化를 일으키기가 쉬워야 하고 그 變化의 結果가 永續的으로 固定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 그 媒介體 自體가 싼값으로 수시로 구할 수 있어야 한다.

第2段階——어떤 手段을 利用하여 媒介體위에 物理, 化學的 變化를 시킨다. 즉 記錄하고자 하는 媒介體의 1部分을 變化시켜서 變化된 部分과 變化되지 않은 殘存部分이 明白하게 識別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記錄作業이다.

第3段階——作業에는 勞力이 따르는데 記錄해야 할 內容이 量이 많든지 媒介體 自體가 巨大한 경우에는 그 勞動力도 많이 들게 된다. 人間은 勞動力을 要하는 作業에 當하면 반드시 勞動力을 最少限으로 줄이고자 한다. 여기에서 人間은 作業手段을 改良해서 勞動力을 줄이든지 또는 그 作業自體의 熟練으로 作業을 좀 더 수월하게 하고자 努力한다. 즉 作業에 對해서 한쪽으로는 道具等을 利用하여 勞動力을 節減하고 다른 쪽으로는 그 技能을 몸에 배게 해서 作業이 재빨리 되도록 作業手段의 改良을 한다.

最終段階——記錄을 判讀하는 일이다. 이것이 뜻밖에도 從來 考慮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 事項이다. 記錄을 남기는 作業에 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이 意外로 이 最終段階를 잊는 例가 많다. 記錄을 남긴다는 것은 記錄自體로서 意味가 있는 것이 아니라 記錄한 이상 이것이 그 다음날 읽혀져야만 意味가 있는 것이다. 이 原稿를 原稿紙에 쓰는 것도 이原稿가 印刷돼서 많은 讀者에게 읽혀질 것을 意識하고 있는 것이다. 記錄이 判讀되려면 記錄媒介體가 取扱이 쉽고 判讀手段이 簡單하고 記錄된 文字나 映像이 明確하게 읽혀지는

것이 소망스러운 것이다.

原始時代에는 石板이나 石壁에 징으로 文字나 그림을 彫刻한 것이니까 그 勞動力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으리라 상상된다. 現代에도 돌에 새겨서 記錄을 남기는 作業은 石工의 業界에 現存하고 있으나 보통 사람이 종이에 「펜」으로 쓰는 것처럼 쉽게 碑石에 새길 수는 없다.

古代에서 現代로 옮겨오면서 記錄 媒介體의 選定이나 記錄手段의 改良에 눈부신 發展이 있었으나 媒介體의 變遷에는 그 社會의 產業 工業技術에 依支하고 있다. 李氏朝鮮때의 製紙技術을 가지고 그때와 같은 產業基盤으로서 記錄用紙를 現代社會에 供給한다면 新聞用紙나 中小企業等의 消費하는 傳票類의 用紙需要에도 미치치 못할 것이다. 또 記錄手段의 改良은 그 社會의 民度나 技術水準에 依하여 그 成果가 左右된다. 社會自體가 毛筆에 依한 記錄方法밖에 普及되어 있지 않은 社會에다가 보지 못하던 typriter를 가져 간다면 그 社會의 눈으로는 한갖 「신기한 기계」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며 萬若 보급시킨다면 그 社會의 一大 文化革命을 일으킬 覺悟가 必要할 것이다.

解放以後 우리나라의 社會近代化 產業技術의 發展으로 우리는 記錄媒介體로서 종이를 비롯해서 사진film, 錄音 錄畵用 magnatic tape, 感光紙, 電子計算機用 magnatic tape等 廣範圍하게 利用하게 되었고 記錄의 手段에 關하여는 人間의 勞力을 그냥 利用하는 速記技術의 確立等 人間의 技能向上을 中心으로한 作業方式의 改良과 그밖에 毛筆에서 鉛筆「펜」「볼펜」等 記錄用具가 多樣해 졌다. 그러나 이와같은 筆記技術이나 筆記道具의 改良은 記錄作業의 入口에 대한 部分的인 改良에 不過하다.

記錄을 남긴다는 것을 앞에서 본대로 「記錄하고 싶다」는 사람의 意思決定에서 最終段階인 「記錄해 놓은 것을 判讀한다」고 하는데 까지 總體的으로 볼때 人間이 「쓰는 技能」을 얻어 싼값으로 大量 쉽게 購得되는 用紙와 筆記道具를 利用하는 것 만으로 일이 다 됐다고 볼 것인가?

요즘 記錄作業(그 중에도 特히 會計事務的 記錄作業)에 Computer나 micro 사진기술등의 高度의 技術이나 機械가 導入되고 또 그 需要가 커지는 것은 原始的인 記錄을 남긴다는 것만이 아니고 이것을 活用해서 計算하고 수시로

參考하여 來日을 위한 生活設計에, 意思決定에, 戰略 戰術의 立案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近代社會의 記錄은 古代 帝王의 墳墓에 그 偉業을 칭송하기 위하여 記錄해 둔다고 하는 것과 같이 固定的 靜的인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客觀的 事實, 어떤 主張, 勸告, 答辯, 論證等을 내일의 社會를 위한다는 確實한 目的을 가진 것이요, "記錄을 남긴다"는 것보다 "記錄을 活用"하기 위하여 機械力이나 高度의 記錄利用技術이 發生 그 結果에 있어서 Computer에 依한 記錄方式 magnatic tape나 magnatic desk等의 媒介體도 利用하게끔 된 것이다.

記錄과 Computer의 關係를 다만 機械的인 構造上으로 連結시켜서는 큰 意義가 없다. 어디까지나 「記錄의 活用」이라는 目的 意識이 中心이 되어 왜 Computer의 能力이 必要하게 되는가 하는 물음에 答辯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2. 各種의 記錄媒介體

近代人이 記錄道具로서 Computer를 또 媒介體로서 各種의 magnatic 記憶機材를 利用하기에 이른 過程을 다시 한번 歷史的으로 考察해 보자.

어떤 時代든지 記錄하는 것이 普及된 社會에서는 記錄媒介體가 한 種類밖에 없는 일은 없다. 우리나라에도 高句麗 雙楹塚의 벽화를 그릴 當時 종이가 있기는 있었다고 해도 貴重品으로서 重要文書等을 作成하는데에만 利用되었고 「傳票」等은 종이로 쓰지 못했고 「木片」이나 「새끼마디」등을 利用했을 것이다. 이것이 高麗時代에 내려오면 幅넓은 많은 素材가 使用되고 있다. 종이도 두루마리나 매거나 접거나 그 用途에 便利하도록 使用했음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物質的으로 豊富하게 되면 記錄媒介體도 多種多樣하게 되지만 注意할 것은 記錄한다는 것에서 부터 記錄活用의 目的에 따라 媒介體가 變化한다는 것이다. 모든 衆生에게 부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모이기 쉬운 장소에 큰 建物을 세우고 큰 壁畵나 經文을 큰 글씨로 써넣는다. 어떤 記錄 內容의 發生順序가 바뀔까 염려가 되면 두루마리로 또는 책을 매든지 한다.

文字나 그림을 그리는 것 自體는 오로지 人間의 技能向上을 爲한 訓練에 依存하여 發展하고 記錄된 內容의 活用 目的에 符合시키는 媒介體가 改良되어 variety가 있게 됐다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現代에도 古代부터 傳해온 石材라는 記錄媒介體도 石碑나 墓標로서 남아있고 佛敎나 儒敎의 어떤 經典은 木簡으로도 現存되어 있는 것이다. 즉 記錄할 目的이 發生하면 무엇을 媒介體로 고르는가가 그 다음 문제로 되며 최후로 그 媒介體에 어떻게 記錄을 하는가가 檢討되고 거기에 適合한 記錄作業 方式이 確立되어 다시 一種의 技能으로서 이것이 訓練되고 普及된다고 생각하면 大過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現代社會의 記錄媒介體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물론 그 主軸은 종이이다. 종이는 生產의 歷史도 오래이고 生產量도 많고 그 위에 適當한 크기로 잘라 쓰면 가벼워 휴대하기 便利하고 求하기도 아주 쉬우니까 記錄媒介體로서 아주 適當한 것이다. 또 종이 위에 글씨나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開發된 道具도 多樣하고 購得이 容易하다. 따라서 人間이 스스로의 發想을 自身의 손으로 원고지나 편전지에 옮기든지 혹은 他人의 얘기를 速記하든지 하는 用紙와 筆記具는 아주 重要한 存在인 것이다.

또 原稿에 基하여 文選 植字의 工程을 거쳐서 印刷가 되면 記錄은 단순히 一個人이 「써놨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共同의 知的 財產으로서 社會全體에 文化的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나 이것도 종이 위에 印刷한다는 作業의 所產으로서 個人이 하나의 記錄을 남기는데 대하여 大量의 記錄文書를 한꺼번에 만들어 낸다는 點이 다를 뿐 記錄의 形式的 實態에는 變함이 없다.

그러면 거꾸로 종이 위에 記錄을 남긴다는 目的이 무엇인가 살펴보자. 間接的으로는 여러가지 用途와 目的이 있겠으나 直接目的은 어디까지나 人間이 直接 눈으로 읽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近年에 重大한 問題가 생겨 났다. 그것은 記錄을 읽는 人間自體와 그 읽는 目的 및 환경의 多樣化에 있다. 李氏朝鮮時代에는 글을 읽는다는 것은 兩班의 象徵이였고 글씨를 쓴다는 것도 特技에 屬했다. 解放後 지금까지 文盲退治에 努力해와서 이제 극소수의 老年層을 除外하고는 거의 文盲이 없어진 셈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現代에는 유치원에서 大學院學生까지 大統領以下 모든 國民이 每日 每日 어떤 形態든 종이 위에 記錄된 文字를 읽고 있으며 옛날에는 책상앞에서 正坐하고 바른 姿勢로 책을 읽어야 하던 것이 지금은 通勤車속에서 침대에서 作業場에서 事務室에서 심지어는 便所속에 까지 文章을 읽는 環境은 擴大됐고 이런 것을 읽는 人間의 目的은 政治 또는 經營을 위한 意思決定때문에, 學術研究, 技術習得, 趣味, 娛樂等 擴大一路에 있으며 記錄의 量도 점점 膨張돼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果然 文字나 圖形을 종이 위에 印刷하는 것만으로 目的을 達할 수있는가 하는 反省을 하게 된다. 그래서 原始的인 記錄은 종이 위에 筆記함으로써 出發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第2次的 加工을 加하여 印刷物로 되고 다시 사진 기술을 應用하여 「마이크로 필림」에 收錄할수가 있고 또는 電子工學과의 結合에 依하여 映像으로 記錄을 「부라운」管을 通하여 放映시키는 것 같은 技術이 開發됐다.

즉 micro寫眞技術은 記錄을 保存하고 있는 종이의 크기 무게에서의 解放을 하고자 한 成果요, 電子工學技術에 由來하는 記錄映像의 放映은 山積된 資料中 즉 必要한 것만 高速度로 拔萃參考하고자 하는 努力이 나타난 것이다.

이와같이 생각해 보면 現代의 社會에서 記錄媒介體를 어디까지나 종이에 固定시켜 생각할 수는 없다. 사진film, 錄音用 magnatic tape는 물론 現實의 企業 官公署에서 發生하는 日常의 記錄을 「콤퓨터」에 記錄하여 magnatic tape를 記錄媒介體로 하는 例도 신기성을 잃어 가고 있다.

3. 記錄媒介體의 轉換

앞에서 說明없이 原始記錄이니 記錄의 2次的加工이니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을 좀 음미해 볼가 한다.

여기에서 「原始」라고 하는 것은 어떤 處理가 加해지지 않은 發生된 그대로의 記錄의 形態라고 하는 意味이다. 例컨대 電話內容의 要點을 「메모」했다든지 議會의 審議나 法廷에 있어서의 證言을 速記한 原本같은 것이 原始記錄이다.

原始記錄이 그 自體가 어떤 意味를 갖는 경우도 많겠지만 大部分의 경우

에는 原始記錄은 어떤 형태로든지 永久保存用으로 再編되는 편이 一般的일 것이다. 例를들자면 速記原本은 반드시 飜文되어 대개 印刷原稿로서 印刷工程에 돌리게 된다.

이와같이 原始記錄이 다른 形態의 記錄으로 바뀌는 것을 記錄의 媒介體가 轉換됐다고 한다. 쉽게 얘기하면 同一內容의 記錄이 다른 記錄媒介體 위에 「베껴진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생각하면 世上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事務的인 業務의 殆半은 媒介體를 轉換한다. 즉 베끼는 複寫物의 堆積이라고 볼 수도 있다.

지금 企業業務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제 電話로 注文을 받았다고 치자. 대개의 경우 電話로 注文을 하는 쪽이건 받는 쪽이건 어떤 記錄媒介體를 가지고 있다. 注文者는 注文傳票를, 注文받는 者는 「메모」를 가지고 있다. 發注者가 注文內容을 읽어 주면 注文 받는 者는 그것을 「메모」한다. 거기에 벌써 「베낀다」는 作業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後 注文받은 者는 「메모」한 內容을 納品書나 計算書나 각각 그 企業特有의 方法으로 그 내용이 複寫되는 것이다. 다만 그냥 베끼는 것과는 달리 數量 單價等을 계산 檢討해 보고 또는 體制를 좋게 하기 위하여 「타이프라이터」를 쓴다든가 하는 技巧는 加味된다. 이와같이 記錄의 內容을 整備한다든지 받은 內容을 서로가 計算해 본다든지 하는 記錄內容을 加工하는 것을 넓은 의미에서 「處理한다」고 한다.

앞에서 速記原本은 原始記錄의 一種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飜文하는 것은 一種의 「處理」이고 媒介體轉換이다. 그뿐이 아니고 整理된 原稿에 標題를 부치든지 句讀點을 찍는다든지 漢字나 英文을 校正한다든지 하는 것도 一種의 「處理」이며 다시 이 原稿를 가지고 文選 植字하는 것도 處理이고 그 結果 印刷組版이 되면 그것은 媒介體轉換이다. 鉛版을 떠서 用紙에 印刷 잉크로 찍는 工程도 「處理」이요 印刷物이 完成된다면 媒介體가 轉換된 것이다.

從來의 記錄業務라고 하면 여기에서 끝이 나고 이 다음은 읽을 차례라고 버려 두어도 되겠으나 現代에는 쓰는 것과 읽는것 사이가 그렇게 단순한 關係로 끝낼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現代의 읽는 方法 즉 記錄의 利用者와 그 目的 環境의 多樣化가 쓰는 쪽에도 영향을 주

고 있다는 것이다.

例로 速記를 든다면, 地方議會가 다시 생긴 경우 地方議會에서 이루어진 速記錄이 그대로 杜門不出의 資料로서 書庫의 한 空間만 메꾸고 있어서는 말도 안되는 얘기다. 國會의 會議記錄이 官報에 실리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國會議員을 비롯해서 新聞報道關係者, 各種의 專門研究人士, 評論家, 政治에 關心있는 모든 一般大衆의 눈이 읽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新聞記者가 國會의 速記錄을 읽고 이것을 要約하여 記事化한다면 이것은 「處理」이요 그 後 여러 工程을 거쳐서 이것이 新聞紙上에 揭載가 되면 「記錄媒介體가 轉換됐다」고 말하게 된다.

어떤 議員이 自己의 關心있는 速記錄을 찾아보기 위하여 國會圖書館에 가서 어떠한 索引을 利用, 願하는 速記錄을 찾았다면 이것은 훌륭한 情報抽出이라고 할 수 있는 「處理」이며 이것을 micro film에 담았다면 速記錄은 「媒介體轉換」된 것이다.

여기까지 原始記錄에서 그 利用者에 이르기까지 連鎖的過程을 살펴보자. 모든 連鎖는 「處理」와 「媒介體轉換」이라고 하는 cycle로 이어 지고 있고, 그 이어지는 線은 單線的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判明된다. 즉 國會速記錄 하나를 가지고 보아도 그 原本은 하나뿐이지만 議文處理에서 印刷物에 媒介體轉換된 뒤에는 國內 各界層뿐이 아니고 世界各國의 mass-com에 까지 要約處理된다든지 引用處理되면서 新聞紙 micro film等 여러가지 記錄媒介體에 轉換될 수 있다는 可能性을 가지고 있다.

또 記錄은 空間的으로만 퍼지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過去의 記錄에서 關心있는 部分을 추려낸다는 情報抽出處理도 存在하는 것이니까, 記錄은 過去에서 未來로 時間的으로 擴散될 可能性도 있고, 過去에 만들어진 記錄媒介體에서 現在에 存在하는 媒介體에로 轉換되는 수도 있는 것이다.

卑近한 例를들면 過去에 만들어진 戶籍原簿에서 最近 만들어진 電氣複寫用紙에 記錄이 媒介體轉換이 되어 그때 그때 要求者에게 配布되고 있는 것은 서울의 各區廳에 가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일이다.

이와같은 것은 지극히 基本的인 記錄의 傳達方法으로서 過去부터 누구나

意識하고 있다든가 그렇지 않다든가와는 別途로 어느 程度 常識的인 얘기이다. 그러나 이 方面에 專門的 知識을 가지고 文章을 쓰니까 處理니 媒介體轉換이니 좀 色다른 單語가 튀여 나온 것이 아니냐고 하면 그뿐이요, 그리고 記錄을 「하는」 立場, 速記를 「하는」立場의 人間이 왜 印刷에서 읽는 사람의 일까지 걱정할 必要가 있느냐고 해 버리면 그뿐인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부터 조금씩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제까지는 例컨대 序論인 것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문제를 提起하겠다. 이제까지 處理니 媒介體轉換이니 했지만 그것은 누가 어느 程度의 速度로 어떻게 正確하게 어느 程度의 豫算範圍內에서 이루어지면 社會 一般의 要請에 副應되겠는가? 즉 記錄을 管理한다고 하는 社會的 要求의 分析부터 始作하자.

4. 새로운 記錄技術

예로부터 紙筆墨이라는 말이 있다. 記錄은 傳統的으로 종이라고 하는 媒介體위에 되어 왔다. 그러나 종이는 그와같이 언제나 決定的인 記錄媒介體의 王座에 君臨해 있을 것인가. 記錄媒介體로서의 종이는 그처럼 完全無缺한 것인가. 그 答은 「아니다」인 것이다.

記錄媒介體의 選定은 「記錄한다」는 것보다 記錄한 것을 나중에 어떻게 「利用하느냐」에 따라 決定되는 것이고 選定된 媒介體가 있다면 거기에 記錄하는 手段이 開發되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說明한 바와 같다.

종이에 글씨를 쓴다고 해도 一定한 넓이의 종이에 쓸 수 있는 글자의 수는 制限이 있다.

지금 16절지 원고지에 지금까지 原稿를 썼는데 勿論 그보다 좁은 넓이에 더 많은 글씨를 쓸 수도 있으나 原稿로서 印刷業者에게 넘기는데에는 이만한 크기가 妥當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46매의 원고용지를 썼다면 이것을 쌓아 놓으면 약 5mm가 된다. 이것 以上 계속 쓰면 더 많은 量의 原稿뭉치가 되고 종이 自體의 體積도 그와 比例할 것이며 重量도 늘어갈 것이다. 즉 종이에 글씨를 쓰는데에는 종이라고 하는 媒介體의 體積과 重量, 다시 그 費用까지 計算에 넣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종이에 쓴 것

을 읽는다면 또 같은 類의 配慮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通勤車속에서 읽는 程度의 印刷物은 新聞이나 週刊誌정도의 活字가 좋다고 할 것이다.

대개 넓이 한 單位에 넣을 수 있는 글자수를 記錄密度라고 하는데 이것을 大幅的으로 높이려면 글자를 적게해야 하고 너무 無理하게 작은 글자를 쓰거나 보거나 하려면 擴大鏡이 必要하리라. 그렇게 하면 같은 길이의 文章을 記錄하는데 消費되는 종이의 量과 費用도 節減이 되고 부피도 적어져 保管에도 便利할 것이다.

여기에서 原始記錄은 普通종이에 普通크기의 글자를 써서 만들지만 永久保存用의 記錄媒介體는 micro film을 利用, 保管이나 運搬에 便利하게 하고자하는 생각이 案出되어 現在 各種分野에서 實際 利用되고 있다. 말하자면 종이에 손으로 쓴 記錄을 打字等 適當한 處理를 해서 다시 사진기술상의 處理를 해 가지고 사진「필림」위에 媒介體轉換을 하는 것이다.

現在 實用化되고 있는 것은 micro film에 書類를 20分의 1정도로 縮少 撮影하여 읽을 때에는 이것을 20倍 程度 擴大해서 micro film reader에 投影하는 것이 대개의 경우이다.

記錄密度를 높여 媒介體를 節約함으로써 무엇이 利益이 되는가? 이것은 잘 알려진 것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記錄媒介體의 物理的 크기를 주리는 것만이 目的은 아니다. 물론 몇「트럭」분의 記錄을「케비닛」 한개에 넣을 수 있다는 魅力도 있기는 하지만……

첫째 必要한 記錄을 빨리 찾을 수 있다.「마이크로 핏슈」에 個個의 索引을 부쳐 cabinet file에서 간단하게 찾는다.

둘째 記錄事項의 一部修正이 簡單하고도 廉價로 된다.

六法全書의 一部를 修正한다고 하자. 綴해진 册을 풀어서 한「페이지」만 修正할 수는 없다.「마이크로 핏슈」라면 修正을 要하는 한장만을 고쳐 撮影해서「화일」에 바꾸어 끼우면 된다. 費用이 아주 적게든다. 이런 點에서 종이에 씌워진 記錄과 比較하여 記錄의 利用效率이 飛躍的으로 向上되는 것이다.

美國의 NASA가 管理하고 있는 尨大한 技術文獻을 管理함에 있어 文獻一切가「마이크로 핏슈」되어 있어 NASA 內外의 資料要求者에 對하여 要求資

料의 索出 複寫 및 發送까지를 단 한사람의 女性이 하고 있는 事實이 있다. 人件費의 節減이 어느 程度인지는 모른다. 종이에 씌여진 記錄을 구태여 사진「필림」化하는 것은 媒介體의 부피를 줄이고자 함만은 아니다. 記錄의 利用 效率을 높이고 記錄管理의 業務를 簡素化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記錄을 그냥 micro film으로 찍어 두기만 하면 일이 다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말하자면 「마이크로」寫眞은 運搬 保管 直接判讀(micro reader를 使用) 또는 종이에 複寫하는 것等 便利한 點이 많으나 必要한 記錄을 索出하는데 萬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여기에서 「마이크로 핏슈」로는 葉書 크기의 필림위에 사람이 直接읽을 수 있는 索引票가 비늘처럼 찍혀 있어 求하고자 하는 記錄이 第몇 「케비닛」의 몇째칸에 들었는가 하는 索出에 充分한 能力이 있다고는 할 수없다. 여기에서 Computer에 依한 micro film의 管理라고 하는 問題가 나오고 近年에 各種 System이 開發되어 왔다.

例를 들면 記錄을 作成함과 함께 그 記錄에 標題를 부치고 索出 key word를 부친다. 例컨대 71年 7月 16日 美國의 「닉슨」大統領은 「테레비젼」, 「라디오」放送을 通해서 安保擔當 特別補佐官 「헨리·키신저」와 周恩來의 3日間 北京秘密會談에서 自身이 72年 5月以前에 中共을 訪問할 것을 合意했다고 發表했다. 이것을 記錄 file을 한다고 해 보자 먼저 이 記事에 題目을 부치지 않으면 안된다. 「닉슨中共訪問 合意」라고 부치자 여기에 對하여 key word는 이 記事中에 나오는 重要語로서 나중에 記錄內容을 찾기 便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말을 「픽업」해서 後日의 索出에 供하는 것이다. 이 記事를 읽고 「픽업」 될 수 있는 것은 「닉슨中共訪問」 「키신저·周恩來秘密會談」 「美中共解氷」等일 것이다.

記錄自體를 종이 위에서 「마이크로」사진기술을 利用 「마이크로 핏슈」로 媒介轉換한다는 點은 앞의 說明과 같으나 그와 同時에 記錄의 整理番號가 주어지고 이것이 「마이크로 핏슈」에 부처짐과 함께 Computer에도 記憶시키고 Computer에는 다시 一定한 樣式으로 記錄의 題目과 key word가 入力된다.

Computer는 magnatic tape라고 하는 大量記錄媒介體에 이것을 옮겨 둔다. magnatic tape의 記錄密度는 1인치(약 2.5㎝)當 약 800字니까 종이위의 文

字나 「마이크로」사진과 比較가 안된다. 이렇게 되면 準備가 끝난 것인데 後日 資料의 要求者가 「닉슨」美大統領의 中共訪問에 關한 資料가 보고 싶다는 要求가 있으면 題目의 如何를 不拘하고 71年 7月 16日字의 報道內容은 물론 key word에 美中共首腦會談이라는 말이 들어 있는 記錄이면 전부 그 「마이크로 필름」의 整理番號가 Computer에서 報告된다. 人間은 Computer가 指定한 位置에서 문제의 記錄을 「마이크로필름」를 찾음으로써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이 方式은 몇개의 企業이나 官廳에서 實施 相當한 成果를 올리고 있다. 萬若質問者의 目的에 따라서 「헨리·키신저」氏의 外交活動에 對하여 찾아 보고 싶다고 하면 Computer는 그 條件을 key word와 比較 對照하여 條件이 맞는 것으로서 71年 7月 16日字 報道等을 그 記事가 담겨져 있는 「마이크로 필름」의 整理番號를 答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엣날의 생각으로는 꿈같이 신기하고 便利한 에기로 생각되겠지만 이것으로 에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먼저 key word를 決定할 時點 例컨대 71年 7月 16日 現在에 있어서 後日 多分히 重要한 件이 되리라고 믿고 뽑은 key word도 몇年 또는 몇個月 지난뒤에는 重要하지 않게 됐다든지 아주 重要한 key word에 그 當時에 注意力이 미치지 못했다든지 할 수 있는 염려가 있다. 말하자면 71年 7月 現在「헨리·키신저」가 이름없는 下級補佐官이였다든지 하면 「키·워드」에 뽑히지 않았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72年 突然히 美大統領選擧에 候補로 나온다든가 하게 되면 世界의 耳目은 그의 履歷이나 過去의 言動을 알고자 힘쓸 것이다. 그래서 Computer에 問議해도 前例의 71年 7月의 記事에서는 發見이 안된다. 왜냐하면 그 當時에 記錄을 만들때 그의 이름은 key word에 뽑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未來의 必要性까지 豫見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說明한 Computer에 依한 「마이크로」 사진의 索出 system도 「記錄의 活用」이라는 面에서 完璧한 方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걸음 더 나아가서 記錄活用의 技術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人間의 記錄活用의 要求에 마추어 答辯해 주는 「機械的判斷力을 갖인」 Computer 및 그것을 應用하는 技術이 아니면 안된다. 여기에서 앞의

얘기를 다시 한번 되풀이 해 보자.

종이에 쓴 記錄은 그 量이 많아지면 運搬 保管에 不便하고 費用도 높아진다. micro寫眞技術은 이것을 解決하는데 一役을 擔當했지만 micro寫眞技術의 缺點인 記錄管理의 面의 必要에서 Computer의 能力을 活用하게 된다.

그런데 Computer라 해도 機械에 不過하다. 未來를 豫見해서 記憶을 調整하는 能力等을 期待하는 것이 無理인 것이다. 그렇다면다시 한번 原始記錄으로 되돌아가 「記錄한다」고 하는 첫번 出發點에서 그 記錄이 終局的 段階에 어떻게 活用되는가를 考慮에 넣어 이제까지 開發된 印刷 micro寫眞, Computer 技術等의 機能을 어떻게 利用할 것인가를 念頭에 두고 쓰지 않으면 안되지 않을까.

記錄은 記錄해 버리고 나서는 「모르겠다」하는 式이라면 近代社會에서 意味를 잃을는지 모른다. 活用함으로써 記錄은 그 社會의 知識財產이 되는 것이다. 記錄하는 出發點에서 이것을 意識하고 내 自身이 記錄한 것이 어떻게 社會에 活用되는가를 생각하여 다시한번 記錄을 남긴다는 媒介體와 그 媒介體에 記錄하는 手段을 檢討하여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되지 않을까.

第 2 節　記錄作成과 能率

1. 記錄業務 System

흔히 能率的으로 일을 한다든가 能率的 또는 非能率的이라는 말이 씌어 진다. 그러면 「能率」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키고 있는 것이냐 많은 學者들이 그 定義를 내리고 있지만 여기에서 能率이라는 單語의 一般的 定義의 說明은 省略하고 이것을 論하는 範圍를 記錄을 가지고 「쓰는 것」「읽는 것」 「찾는 것」에 局限해 보기로 하자.

여기에서 먼저 한가지 注意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A에 能率的」이면 「B에도 能率的」이냐? 때에 따라서는 문제가 된다. 記錄하는 業務를 前述한 바와 같이 「쓰는」「읽는」「찾는」 體系를 보면 全體를 能率있게 하는 문제와 그 中에 한가지 業務 例컨대 「쓰는 것」만을 생각해서 이것을 能率的으로 한다는 것과의 사이에는 矛盾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다.

例컨대 「쓰는 것」만으로 문제를 限定하여 能率을 論하고 그 成果만을 가

지고 곧 記錄業務 全體의 能率化를 論할 수 없는 點이 있는 것이다. 이 點을 注意하지 않으면 以下의 論議가 「記錄業務」라고 하는 體系의 論議지만 이 體系를 構成하는 個個의 單位業務에 限定된 論議로서 全體를 判斷하지 못할 危險이 있다.

記錄業務에 Computer를 導入하여 어느 程度 全體의 能率化를 期함에 있어서는 能率化의 對象이 되는 記錄業務 全體系를 相對로 論하여 이 業務體系에 屬하는 個個의 單位業務의 能率向上은 그 範疇內의 調和點을 限度로 할 수 밖에 없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自然言語를 記錄하는 作業의 形態를 살펴보면 그것은 어떤 類의 「處理」와 「媒介體轉換」의 連續였다. 그러니까 記錄業務 全體系를 能率的으로 움직이려면 그 過程에 重複이 있다든지 어떤 部分에 業務의 停滯가 생기든지 또는 이 停滯를 解消하기 위하여 無理가 加해져서는 안된다.

이와같이 業務過程의 重複, 部分的停滯, 無理한 突擊的 作業의 連續 이 세가지를 除去하는 것이 能率化의 第一步인 것이다.

그러면 現在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國家 自治團體 公·私企業에서 實際로 이루어 지고 있는 記錄業務의 體系는 어떤 實情인가를 살펴보자.

대개의 業務體系를 檢討할 때 그 目的이 어디에 있는가? 즉 窮極에 있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를 出發點으로 하여 여기에 必要한 個個의 單位業務는 무엇무엇이며 이 業務를 遂行함에 必要한 作業(處理)의 內容은? 그 資料(이 경우에는 記錄媒介體)는? 하는 式으로 살펴 나가는 것이 論議를 圓滑히 進行시키는 方法일 것이다.

그렇다면 記錄業務의 窮極的 産出物은 무엇이겠는가? 누구의 어떠한 參考要求에도 隨時로 빨리 應할 수 있는 file인 것이다.

앞에서 紹介된 「마이크로 릿슈 시스템」도 그와 같은 file의 一形態일 뿐이다. 즉 앞에 얘기한 file의 一種으로서 代表的인 記錄 file을 만들어 두면 隨時로 누구든지 利用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file을 만들기 위하여 무엇이 必要하냐 그것은 file을 構成하는 個個의 記錄媒介體의 整備한 것이다. 圖書館을 지어도 藏書가 없으면

圖書館은 한個의 建造物일 뿐 다른 뜻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實情은 어떤가 micro film化되는 書類나 册은 많지만 아직 整理된 file system이나 더욱이나 거기에 電子計算機를 利用하는 例는 極히 드물다. 이 方面에 좀 앞선 日本의 경우를 보면 政府나 地方自治團體等 大規模의 곳에서는 잘 되어 있지 않으며 中小規模의 企業內의 圖書館이나 資料室에서 더 잘 運營되고 整備되고 있는 곳이 많다. 이것은 어느 程度 首肯이가는 것이다. 政府라면 「누구의 어떠한 參考要求」라는 幅이 너무 넓어서 「어떠한 問議에도 應하겠다」는 提示를 하기가 어려우며 또 그러한 便利한 file system의 設計가 困難하다고 하는 어려운 點이 있다.

어떤 化學工業會社의 特許資料센타 같은 것은 化學工業에 關한 內外의 特許情報만을 file로 하면 된다고 하는 範圍가 미리 確定되어 있으니까 file의 構成도 지극히 優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file을 構成하는 記錄媒介體는 micro film이나 「마이크로 핏슈」가 主가 되고 그 索出에는 Computer가 쓰인다고 하는 程度의 것이 「잘된」「시스템」의 大部分이다. 이렇게 되면 file을 構成하는 記錄媒介體를 完成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핏슈」等을 만든다고 해도 말하자면 종이위에 文字나 圖形을 그려서 그것을 촬영하는 것이니까 一種의 打字 또는 印刷를 한다고 하는 手段을 講究하지 않으면 안된다. 印刷 또는 打字라고 하는 前段階에는 校閱이 있고原稿를 쓰는 作業이 있다.

우리의 產業中 印刷業은 대부분 中小零細企業의 集團이다. 外見上 크게 보이는 것도 下請體系化된 中小企業의 集團인 것이다.

印刷에는 活字를 하나하나 뽑아내는 文選, 組版이 따르고 假印刷해서 校正을 한다고 하는 一連의 作業이 따라야 한다.

原稿가 完成된 後에 印刷가 되기까지 「펀세트」로 活字를 하나 하나 집어내는 方法에서 外國의 發展된 方法으로서 「키·보드」操作에 의한 종이「테프」에 구멍을 뚫어 自動寫眞植字機를 움직이는 方法 같은 종이「테프」로 自動活字鑄造機를 움직이는 方法等 여러가지가 있으나 「他人이 쓴 文章을 한 글자씩 마추어 나간다」고 하는 作業에는 變함이 없다. 그저 그 作業을 앉은채 하느냐

서서 하느냐 어느 쪽이 좀더 빠르냐 하는 勞動力의 差異가 있을뿐 形式的으로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假印刷해서 校正하는 一連의 作業은 原稿를 만든 者와 印刷體系와의 對話인 것이다. 그 對話의 媒介體가 假印刷物이요, 處理手段은 校正者側에서 보면 잘못된 部分을 바로 잡도록 指示하는 것이며 印刷體系에서는 틀린 活字의 整理交替를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產出物側에서 이것을 만드는데에 必要한 것이라는 逆으로 보면 印刷에 必要한 것은 原稿인 것이다.

原稿의 이루어지는 過程을 보면 原稿를 쓰는 것이 著作活動인 경우와 쓰는 者의 意志와 無關係하게 存在하는 것을 그대로 적는 速記나 觀察記錄等이 있다. 그러나 다 人間의 中樞神經活動인 至極히 人間的인 움직임에는 變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머리에서 그냥 直接 原稿가 나오는 例는 거의 없고 그 前段階에 「메모」나 速記나 혹은 自然觀察上의 「데이타」等 어떤 草稿나 素材가 存在하는 것이 常例이며 이 資料는 「本人만이 理解할 수 있다」는 原則이 있다.

그러니까 이 記錄業務의 出發點 「人間의 中樞神經에서 原稿에의 過程」만은 機械로 代置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제까지 說明해온 過程을 發生順으로 보면 人間의 精神活動에서 出發해서 草稿, 原稿, 假印刷物, 印刷物 다음에 最後에 file特有의 記錄媒介體(「마이크로」사진이나 기타 媒介體)로 情報가 차례로 媒介體에 轉換해 가고 그 轉換할때 마다 쓰는 作業 文選 植字作業 印刷作業 校正撮影(또는 이것에 相當한 作業)이 되어 나간다.

이 過程에 前述한 重複, 部分的停滯, 그 停滯를 解消하기 위한 無理가 있느냐… 있어도 많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까지 왜 그것을 許容했는가?

그 解答은 從來 記錄業務를 體系的으로 보지 않고 그 出發點인 發想에서 脫稿까지의 「쓰는」일만을 가지고 狹意의 記錄의 能率化를 期해 왔기 때문인 것이다. 즉 部分과 全體와는 서로 서로 能率化에 矛盾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system의 大局에서 보면 어떤 部分의 能率을 期한다는 作業이 全體의 能率化에 支障을 招來할 수도 있다는 點에 注意를 喚起하고 싶다.

2. 「시스템」의 能率向上

本節 1에서 記錄業務를 「쓰는 것」「읽는 것」「찾는 것」의 세 單位業務로 나눈바 있다. 「쓰는 것」은 人間의 發想 또는 觀察 聽取에서 시작하여 脫稿할때까지의 過程 「읽는 것」은 남의 쓴 原稿를 읽고 文選 植字해서 印刷物의 完成까지 「찾는 것」은 이것을 隨時 必要에 應하여 索出可能한 形式으로 「화일」化해 두고 要求에 應하여 原本을 찾어 내는 것을 가르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全體 記錄業務體系를 構成하는 個個의 單位的 作業만을 가지고 서로 該 部分의 能率向上만을 爲한다면 餘他部分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몇가지 例를 들어 보자.

먼저 「쓰는 것」이다. 우리가 한글專用을 主張하고 政府施策으로 施行되고는 있지만 이 原稿를 비롯하여 많은 書籍과 定期刊行物이 漢字를 混用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면 왜 漢字使用이 根絶되지 않는가 漢字는 적어도 2乃至3,000字의 쓰는法 읽는法 使用法을 暗記해 두어야 한다는 缺點이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漢字使用이 根絶 안되는 것은 한글專用이 읽을때 誤解가 생기고, 더디고(물론 어느程度 習慣에 依한 것이지만)하기 때문이다.

都心地에 다녀보면 「주정차금지」라는 표지판이 흔히 눈에 띈다.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치기 일수나 알아보면 「駐停車禁止」라는 표지인 것이다. 이와같은 理由로 어떤 意思를 傳達하는데 漢字의 排除는 現段階로는 쓰는 作業에는 有利하나 意味의 不疎通이라는 장애를 수반하기 쉽다. 또 찾는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몇가지 例를 들어 보면

「사주」라는 한글 표기가 私鑄, 砂洲, 使嗾, 四柱等을 包含하게 된다. 萬若 Computer로 情報索出을 하는 경우 key word를 한글로 入力하는 경우 엉뚱한 分野까지 索出되는 것이다.

또 「읽는 것」만을 注目하게 되면 高名하신분도 글씨가 읽을 수 없을 程度의 분이 있다. 亂筆이니 惡筆이니 定評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能率化의 第一步는 標準化나 文選作業의 能率化를 위하여 원고 쓰는 能率의 低下를 不拘하고 正字로 쓰도록 強要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아마도 二重作業이 되어도 한글打字나 공관타자로 다시 打字해야만 될 것

이다.

「찾는 것」의 作業中心도 큰 문제이다. 본래 찾는다는 것은 극히 機械的인 作業인 것이다. 흔히 책상서랍에 넣어둔 物件을 찾는데 이서랍 저서랍 뒤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은 知的이라 할 수 없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많은 能率學者의 말과 같이 物品을 保管했다가 찾아내는 物品管理의 第一步는 管理對象 하나에 한군데씩의 空間을 賦與하고 거기에 名札을 부치는 것이다. 記錄이라고 해서 그 例外는 아니다. Computer에 「데이타」를 記憶시킴에는 「프로그래머」가 미리 그「데이타」를 收容하기에 足한 「스페이스」를 Computer에 命하여 記憶裝置內에 確保시킨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名稱(대개 로—마字 9字 以內로 賦與한다)을 주어 「프로그램」上에서 그 名稱만을 指定하면 Computer는 自動的으로 그 名稱이 붙어있는 「스페이스」(記憶裝置內)의 「데이타」를 格納시키든지 거기에서 읽어 내든지 한다.

그러니까 記錄을 Computer로 管理할려면 그 記錄의 標題라든가 著者名 記錄內容의 要約 또는 全文을 Computer의 記憶裝置에 되도록 많이 記憶시켜두고 要求가 있으면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例컨대 前例의 「사주」에 關한 記錄을 記憶된 大量의 標題中에서 찾아내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이와같은 檢索方式을 「標題檢索法」이라 한다).

電子計算機는 많은 標題中에서 한글로 「사주」라고 되어 있는 標題만을 뽑아 그 記錄이 第몇號 「캐비넬」 몇째칸 몇번째file 몇번의 「마이크로 핏슈」에 記錄되어 있는다는 것을 自動的으로 人間에게 回答해 준다.

이것으로 얘기가 끝나면 간단한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出發인 것이다. 말하자면 많은 標題中에 「사수」라고 하는 單語나 「산주」라고 하는 것은 뽑지 않지만 key word에 「사주」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 뽑게 되니까 지금 "私鑄" 즉 貨幣의 僞造에 關한 것을 보려고 하는데 全혀 無關한 점치는 "四柱"나 地理얘기인 "砂洲"가 뽑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現代의 情報索出 「시스템」은 이런 바보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對策을 講究하고는 있지만 그런 일이 全無하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여기에서 索出 즉 機械的으로 「찾는 것」 爲主라면 「코—드」番號를 가지고

찾는 것이 第一便利하고 確實한 것이다. 이런 方向으로 나가면 住民登錄番號와 같이 모든 森羅萬象에 어떤 番號를 붙여쓰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간에 一切 電話番號簿같은 辭典을 쓰지 않으면 안되게 될 것이다.

또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드라도 用語나 文字의 標準化라고 해서 너무 無理하게 標準化할려면 같은 「電子計算機」의 標題도 (1)「콤퓨터」(2)「콤퓨타」(3)「컴퓨터」(4)「컴퓨타」라고 하는 네가지 表記가 可能한 것이다. 이것이 「다 같은 것이다」고 하는 索出處理方法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복잡하고 무엇인가 하나로 統一할려면 本來「쓴다」고 하는 個性的인 作業에 큰 負擔이 加해지는 것이다.

이와같이 하나의 記錄業務속에 있지만 이것을 構成하는 個個의 單位業務가 그 單位業務에 能率向上만을 目標로 하면 여러가지 矛盾이 生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어떻게 調和시키 가느냐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對話를 通한 妥協과 같이 記錄業務「시스템」全體의 見地에서 個個業務의 能率向上을 調停하여 全過程을 通한 能率의 向上을 檢討하지 않으면 안된다.

本論에서는 速記를 中心으로 記錄을「쓰는」立場을 主軸으로 展開해야할 必要上 以下 記錄業務「시스템」全體의 能率을 考慮 그 基盤에서「그러면 쓰는側의 能率向上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를 살펴 나가자.

다시 反復하지만 速記하여 飜文하는, 原稿를 完成시키는 一貫된 業務도 다시「읽는 것」「찾는 것」의 業務와 有機的關係를 가짐으로써 記錄業務의 一環으로 되는 以上 獨自的인 能率向上은 許容되지 않는 同時에 關聯業務側에도 할말은 하고 要求할 것은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나아가서는「쓰는側」의 能率向上이 되는 것이다.

3. 能率的인 書記機械의 條件

自己가 發想한 뜻이나 他人이 얘기한 發言內容을 文字化하는 데에는 肉體의 一部를 움직여 무엇인가 記錄媒介體위에 표식을 남긴 必要가 생긴다. 이것은 반드시 人間의 努力에 依하여야만 한다.

速記原本은 他人의 發言을 Catch하여 一言一句 빠짐없이 時時刻刻 發言

되고는 곧 사라져 버리는 發言者의 말을 그 순간에 적어 두는 自己만이 아는 草稿와 같은 것이다. 그後 自己가 이것을 읽고 빠짐없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한글 또는 國漢文混用으로 飜文하여 이것이 原稿로서 다음 業務와 關聯을 맺어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現實은 速記한 것을 飜文하는데 文字를「쓴다」고 하면「펜」이나 鉛筆等 筆記具를 利用하여 종이위에 쓰는 것이 常識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종이위에 쓰는 것만이「쓰는 것」이고 종이위에 남기는 것만이 記錄이나 그 固定觀念 自體가 틀린 것이다.

太古적에는 돌이나 粘土위에 글씨를 썼다. 즉 그 社會에서 第一 入手하기 쉽고 記錄이 本質的으로 便利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記錄媒介體로 될 수 있다. Computer magnatic tape도 그것이 記錄의 用途로서 便利하면 記錄의 媒介體로서 使用하면 안될 理由가 없다.

이제 速記士가「飜文」이라는 作業을 行함에「글씨를 쓴다」고 하는 努力을 하는 以上 그 努力을 단순히 종이위에 글씨를 나타내는 것 以外에 活用이 된다면 그래서 그것이 記錄業務 全體의「시스템」에 貢獻하는 것이라면 구태여 從來의 筆記具나 종이에 無理하게 얽매일 必要는 없다고 본다.

이 문제는 漢字를 混用하여 쓰는 것이니까 이제까지 論議에 對象이 되는 것이지 20 乃至 30種類의 文字면 모든 文章을 다 쓸 수 있는 歐美 各民族의 경우에는 옛날에 解決된 문제인 것이다. 우리도 한글專用을 하게 되면 곧 解決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周知의 事實인 것이다.

西歐에서 速記原文은 手筆 즉 손으로 쓰든가 機械速記인 速記打字가 있는 것도 잘 알려진 事實이나 飜文에「타이프라이타」를 使用한다는 것도 常識에 屬한다. 하기 때문에 歐美의 速記士가 飜文할때「타이핑」이라는 勞力을 할때 그 努力을「타이프」用紙에 印字하는 것 以外에도 活用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타이프라이타」에 종이「테프」착공機械를 付着시켜「타이프라이타」의「키」를 한번 누를 때마다 打字된 文字의 電信符號를 自動的으로 종이「테프」위에 착공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飜文 結果 打字된 原稿가 完成되면 이것에 對應하는 電信符

號에 依한 文章도 完成되어 이것을 使用하면 「테레타이프」 回線을 通하에 文章을 遠隔地에 보낼 수도 있는 것이다. 美國의 新聞記者等이 記事原稿를 「포타블」의 착공「타이프라이타」로 쳐서 出張地의 電話를 利用 「테레폰갓프라」라고 하는 機械를 使用하여 記事內容을 電信符號로 本社에 보낸다. 本人은 自身이 「타이핑」한 打字原稿가 있으니까 어떤 記事를 써 보냈는가는 뒤에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電信符號가 간단하게 얻어진다면 이것을 Computer에 入力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Computer는 電氣通信機의 原理를 多分히 應用한 電子機器니까 전신기와 마찬가지로 人間이 淨書하기 위하여 「타이핑」한 文字와 同一한 符號를 그 記憶裝置에 格納해 버린다. 그 后에는 이것을 自動的으로 處理한 뿐인 것이다.

그러면 外國에서는 速記士나 新聞記者의 「타이핑」한 原稿와 同一文章을 종이「테프」를 媒介體로 하여 Computer에 넣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즉 Computer의 制御下에 이 文字들의 集合인 文章을 編輯하여 行末의 「하이프네이션」處理를 行하여 自動活字鑄造機를 自動的으로 움직여 作業을 시킨다. 앞에 說明한 記錄事務 全 體系中의 "原稿를 읽고 文選을 하는" 過程을 自動的으로 해치워 버리는 것이다. 人間은 機械가 行한 文選結果를 校正 틀린 것을 바로 잡으면 그 다음에는 狹意의 印刷工程만 거치면 되는 것이다.

Computer가 하는 일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記憶裝置에 記憶돼 있는 原稿의 全文은 C O M이라는 機械를 使用하면 途中에 사람의 손을 전혀 介入하지 않고 完全自動的으로 micro film에 複寫해 버린다.

다시 文章에 標題 기타 必要한 處理가 事前에 加해지면 이것을 使用하여 情報索出이 可能하게 된다.

歐美의 各種議會나 裁判所에서 速記錄文이 되면 그「카피」가 종이 위에 나타나는 時點에 곧 Computer의 制禦下에 文章 그것 自體가 入力되어 印刷記錄 file作成 情報索出이 自動的으로 可能하게 되는 것이다.

漢字를 混用하면 왜 이것이 안되는 것일까? 그것은 한글打字와 한글 漢字混用의 孔版打字와 比較해 보면 곧 首肯이 갈 것이다. 20~30字 정도의 글

자면 무엇이든지 다 기록할 수 있는 英文이나 한글에 比하여 數千個의 字母가 必要한 것이니까 이것을 찾아 찍는데에는 오랜 訓練과 熟鍊이 必要하여 孔版打字手라는 特殊技能人의 集團이 생겨 났다.

여기에 著述家, 速記士, 新聞記者等의 종이에 글씨를 쓰는 人間의 集團과 이것을 읽고 글씨를 주는(文選이나 孔版打字) 나쁘게 얘기하면 「길드」的인 두개의 무리를 構成하여 그 사이에 斷絶이 되어 있다. 實로 不幸한 일이다.

그래도 우리의 實情은 文選工이나 植字工을 求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니 多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웃 日本만해도 勞動力 不足에 情報「러쉬」가 겹들여 增大하는 需要와 低下하는 勞動力供給으로 어려운 形便에 있는것 같다. 그래서 日本글은 漢字와 「가나」를 섞어 쓰지 않으면 볼수 없는 程度이기 때문에 또 勞動力의 節約을 위하여 漢字와 日本「가나」를 섞어 쓰는 「타이프라이타」를 開發했다. 이것은 漢字건반착공기로 「漢字데레타이프」라고 하는데 이 機械는 普通종이에 普通文字로 찍히지는 않고 다만 착공종이 「테프」에 글짜의 符號만이 찍힌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打字되었는가 校正을 볼려면 그 종이「테프」를 「漢字印刷 번역機」에 걸어서 文字符號를 눈으로 볼 수 있는 文字로 바꾸어 읽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가나 타이프」를 가지고 主로 傳票等을 끊는데 쓰는 것 같다. 이와같이 日本에서의 努力을 參考해 보면 우리는 한글專用을 速히 實現시킴으로써 文字生活의 機械化를 이루어야 겠다.

여기에 한가지 敷衍해 둘것은 누구든지 배우기 쉬운 것이라야 한다. 한글打字면 약 1개월 孔版이면 六個月 걸리는데 職業人이 되기 위한 特殊技能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文章을 쓰기위한 機械는 단순히 文字를 맞추어 나가는 機械가 아니고 人間의 內面에 한발 들여 놓은 道具인 以上 참으로 人間을 爲한 配慮가 된 것이 아니면 實用化하기 어렵다고 믿어진다.

第 3 節 우리의 現況과 展望

앞에서 文書管理의 機械化의 必然性과 記錄業務의 能率에 關하여 살펴보았다. 이것으로써 記錄의 管理를 機械化하여 人力을 줄이고 能率을 向上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고 이 方法은 더욱 開發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文字生活이 公文書等을 除外한 大部分이 漢字混用이기 때문에 美國을 비롯한 西歐諸國에서 쓰고 있는 記錄 機械化方案이 採用될 餘地가 적다. 만약 앞으로 한글을 전용한다면 20餘字의 「알파벳」과 「아라비아」 숫자 10자만 가지면 모든 文字生活을 할 수 있는 그네들의 體制와 한글 24字와 「아라비아」숫자 10字만으로 모든 文字生活이 可能해지는 우리 體制가 그 글자수에 있어서 비등하기 때문에 그 發展된 모든 體制를 消化하기 쉬운 터전이 마련되며 우수한 한글을 土台로 우수한 文字生活의 機械化를 達成할 수 있을 것이다.

本論에서는 한글전용을 論하는 계제가 아니고 情報處理「시스템」의 方法論에서 出發하여 우리말을 一種의 文字符號로 處理하여 媒介體위에 쓰고 읽어내는 各種過程을 「시스템」工學에 立脚하여 人間의 作業中에 機械에 轉嫁可能한 部分을 檢討한데에 不過하다. 하기때문에 한글전용의 利點이나 國語學的 說明은 略하고 우리의 文字 生活과 漢字混用이라는 面에서 많이 닮은 日本의 경우를 살펴보는 것도 意味가 있을 것이다. 日本에서도 漢字의 使用을 廢止하고 자기들의 「가나」 文字만 가지고 文字生活을 하자는 強力한 主張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가나」文字「타이프」의 從事者가 約 五萬인데 比하여 漢字混用「타이프」 從事者가 30萬이라고 한다. 이것으로서도 6 : 1이라는 比率로 漢字混用이 되고 있다는 反證이 아니겠는가. 물론 우리의 現實은 「타이프」하면 한글 打字가 머리에 떠오르고 漢字混用인 孔版打字는 例外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는 漢字廢止가 더 쉬운 與件위에 安着돼 가지고 成長해 가고 있다는 反證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日本의 경우는 漢字「테레타이프」의 開發을 위하여 많은 努力을 傾注하고 있다. 冲電氣製品은 한個의 「키」에 4종류의 글자가 刻印돼 있고 그 中에 하나를 발로 밟는 「페달」로 指定하는 方式 또 新興製作所製品은 「키」 하나에 12字가 刻印돼 있고 그 中의 하나를 또 다른 「키」로 指定하는 方式을 써가면서 수千字를 가지야만 可能한 日本文을 가지고 漢字混用 「테레타이프」를 보다 性能좋게 改良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結論은 첫째로 손의 感覺으로 찾고 눈

으로 確認한다는 것이다. 한글타자같으면 눈으로 確認할 것 없이 손의 感覺으로 찍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 機械로 入力 可能한 文字種類를 訓練에 依하여 暗記하여 한 字씩 뽑아서 文章을 만드는 것이다. 즉 빈도에 依한 配置가 어렵고 어떤 基準으로 配列된 것을 人間의 길들임으로써 「카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日本에서 使用되고 있는 모든 文字가 다 入力 可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세째로 그러니까 「키」위에 文字가 文章構成에 充分치 못한 것을 가지고 無理하게 日本文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다시한번 되풀이하면 從來 「記錄하는 일」 「保管하는 일」 「찾는 일」 「읽는 일」 서로 別個의 業務로서 獨立해 있고 서로 他의 存在를 意識하면서도 서로 서로 具體的으로 協助한 機會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쓰는 이는 쓰는 것으로 끝나고 찾는 이는 찾는 것으로 끝나고 읽는 이는 읽는 것으로 끝낼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옛 우리 祖上이 남겨준 貴重한 文獻도 民族의 文化遺産도 햇빛을 못보고 倉庫속에서 좀벌레의 먹이가 돼버릴 公算이 큰 것이다. 하기 때문에 記錄利用者側에서 「찾는일」을 機械化해서 保存資料를 高度로 또 多目的利用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져 쓰는, 保管하는, 읽는 이들이 거기에 刺戟되어 機械化의 물결을 타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쓰고 保管하고 읽는 各 作業은 體系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Computer를 使用하여 記錄事務를 「시스템」으로 整頓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從來 狹義의 記錄業務라 稱했던 「쓰는」 業務는 종이위에 쓰이는 것이 아니다. Computer의 記錄媒介體에 記錄하는 것인데 magnatic tape에 무엇이라고 記錄되어 있는지 읽을 수 없으니까 Computer에 入力할때 그 內容을 「모니타」 用紙에 「타이핑」하는 것은 必要할 것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從的인 存在에 不過하다.

保管하는 事務도 또 變貌한다. 書類는 micro film化하여 數萬分의 一이 될 것이나 이것을 다시 「마그네틱 테프」에 收容하여 다시 數千分의 一로 壓縮된다. 圖書館이라고 하면 索引「카드」 利用者案內等 모두가 「마그네틱 디스크」나 「마그네틱 드럼」에 收容될 것이다.

읽는쪽도 CRT「디스프레」로 읽는 方法 個人的「화일」에 收錄할 必要資料의

「카피」도 또는 印刷 出版物로써 널리 讀者에게 提供되는 것도 機械의 利用에 依하여 效率的으로 될 것이다.

記錄業務가 Computer와 손을 잡은것은 벌써 되지 않는다. 짧은期間에 눈부신 發展을 하고 있다. 우리말로 우리가 우리의 記錄業務를 機械化해야지 누가 해줄 리가 있는가? 이글이 먼 將來를 向한 基本設計下에 지금 우리에게 지워진 責任을 誠實히 遂行할 수 있는 案內가 되면 多幸이겠다.

第4章 現代社會와 速記

INTERSTENO 會長

E. COUSIN

우리들이 從事하는 速記領域에 있어 조금 注意깊게 본 觀察者를 놀라게 하는 事實은 모든 先進諸國에서 일어나고 있는 問題들이 共通的이고 또 同時 發生的이라는 事實이다. 지금 美國, 日本, 歐羅巴 諸國에서는 各 分野의 技術이 高度化되고 있고 科學은 日益 그 領域을 擴張하고 있고 不可思議한 電氣通信手段이 開發되고 實業界 內部에서 새로운 自己變革이 遂行되고 있는 現時點에서 速記에의 熱烈한 信奉者들은 다음과 같은 疑心을 품기 시작하고 있다.

即 이 職業은 이제 老衰되어버린게 아닌가 또는 이 職業의 계속 命脈維持에는 어떠한 形態의 鬪爭行爲를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는가. 그런데 或者는 그러한 形態의 鬪爭方式이 이미 時流에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약간의 두려움마저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이와같은 pessimism은 이 以外의 理由로도 많은 사람의 마음을 動搖시키고 있는 現狀이다.

果然 問題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速記 그 自體를 防衛〉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速記에 從事하는 사람들의 地位保全〉을 위한 것인가 換言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權利의 擁護라고 하는 散文的인 主題에 問題를 還元시키려는 것인가.

우리들이 從事하는 速記는 特別히 速記 그 自體에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手段 即 그 本來의 뛰어난 效能이 充分히 그 價値回復을 通해 具現되어진다면 모든 사람에게의 「서비스」를 위해 實로 有用한 하나의 〈道具性〉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同意의 道具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typewriter 등의 記錄器機는 어떠한 形態로든 高度로 改良되었다고 하더라도 手筆書法을 凌駕할 수는 없다.

따라서 速記는 速記士가 必要에 依해서 그 符號의 一部를 改良했다면 이는 곧 改良使用될 수 있는 性質의 것이다.

그러므로 速記라고 하는 記號文字를 가지고 있는 것에 依해서만 速記士는 現代社會의 進步「리듬」에 스스로를 符合시켜갈 수가 있다.

오늘날 高度化된 科學技術發展에 따라 人間은 누구나 귀찮고 싫은 作業으로부터 解放되고 싶어하고 生產性이 크게 上揚되면 거기에 現代社會에 比較해 대단히 伸縮性있는 社會가 出現될 것이다. 이는 日益 進步되고 있는 科學이 우리들에게 豫告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不可逆的인 進步의 過程에 있어서 機械는 人間으로 부터 資料를 賦與받고 指令하게 된다. 機械는 人間의 服從을 強要하게 된다.

거기에 따라 人間은 새로운 秩序世界의 核心에서 그 무엇과도 代置할 수 없는 〈손〉과 〈頭腦〉를 가지고 그 君臨이 繼續될 것이다. 이 〈손〉과 〈頭腦〉야 말로 速記의 二大要素인 것이다.

그러나 凡庸한 頭腦는 이 職業에 있어 救濟策이 없다. 各種 統計가 一致하여 提示하고 있는 바에 依하면 平凡人의 數가 非凡한 「에리트」보다 훨씬 數가 많다. 速記의 경우에도 이 事實이 어쩔 수 없는 事實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問題는 速記의 有用性, 將來性의 判定者란 사람들이 그것이 어쩔 수 없는 事實이란 立場에서 判定을 내리고 있다는데 있다. 그러한 安易한 態度가 이 分野에 重大한 損害를 주고 있는 것이다.

速記 그것은 지금 硬化症에 걸려 있다. 지금 곧 治療가 必要하다. 速記敎師들은 速記의 有用性, 將來性에 대해서 아무런 確信도 없이 아무런 「비젼」도 세우지 않고 사람들에게 速記를 가르치고 있다. 그들은 速記의 特性을 自己自身의 經驗에서 만들어진 慣習에 依해 判定하고 있는 것에 不過하다. 職業團體에 屬하는 사람들, 速記敎科書의 著者들, 敎授團 이 모든 사람들이 自身의 생각을 고쳐 참으로 確固한 目的意識을 가지고 〈생각하는 速記〉를 가르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날 問題가 되는 點은 明白히 現在 또는 將來의 速記가 그 必要(需要) 形態에 어떻게 適應할 것인가 여기에 있다. 現代社會의 要請에 副應해서 速

記 그 作業 樣態를 變化시킬 必要가 있다. 만일 이것만 成功된다면 速記는 놀랍게도 從來보다 훨씬 커다란 〈存在價値〉를 갖게 되고 새로운 使命을 獲得하게 될 것이다. 이 境地에 이르게 되면 速記의 餘命을 占치지 안해도 되고 많은 分野「저나리즘」, 政治, 學術, 文化 등등에 速記가 必要不可缺하게 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要求되는 速記士의 資質은 全範圍의 人間的特質(聰明性, 敏活性, 忍耐性, 誠實性 등)과 特殊한 知的形成力이 絶對的으로 要求된다는 點을 銘心할 必要가 있다.

第5章 速記의 進化와 將來性

—INTERSTENO 第27回베른大會報告書에서—

註 : 本稿는 1967年7月에 開催되었던 INTERSTENO(國際 速記, 타이프라이팅, 秘書聯盟) 第27回베른大會(스위스)의 公式報告書에서 當時의 討議主題 第1部「近代的事務處理의 技術」第2部「速記의 進化와 將來性」第3部「速記에의 푸로그램敎育應用」中 第2部「速記의 進化와 將來性」에 대하여 展開된 講演內容을 紹介하는 것이다.

第1節 速記의 社會的 機能(알채 망쓰·伊)

1. 速記의 將來性에 對한 不安感

"1st die stenografie dazu verurteilt zu verschwinden?" (速記는 果然 滅할 運命에 있는 것일까?)

"werden die tonaufnahme-geräte, die imheutigen geschäftsleben immer mehr bedeutung erlangen die kurzschrift nicht allmählich verdrängen?" (現在의 活動에 있어서 점점 重要한 位置를 차지해 가는 tape recorder가 서서히 速記의 分野까지 擔當해 가지는 아니할까?)

INTERSTENO의 熱誠的인 事務總長 「라씨느」敎授가 全世界의 速記人들에게 發表한 論文은 上記의 疑問文으로 부터 始作되어 있다. 이것은 速記의 將來性에 對한 「하므렛트」的 疑問點으로서 數年前부터 점점 커져가는 그 疑問과 國內 國際間의 速記者會合에서 늘 話題에 오르고 있는 不安을 잘 表現하고 있다.

1967年 2月 南獨逸新聞에 揭載되었던 「速記者의 抗議」라는 題目의 記事中에서 「速記의 終末은 始作되는가?」라고 한 句節이 눈에 띄었었다.

그것은 「뮨헨 가벨스벨거」式 速記者中央協會(獨逸聯邦共和國의 最大最古의 協會)가 速記의 終末이 始作될 것 같다는 豫言을 한 것으로서 많은 문제를 提起케 하였다.

나는 硏究上으로나 敎育上 또는 「저너리즘」活動上 늘 速記를 愛用해온 한

사람으로서 보잘 것 없으나마 이러한 講演을 하고 싶어진 것은 「유럽」의 大新聞들에 揭載된 求人廣告를 通觀해 본 結果에서이다.

(原註 : 「유럽」의 大新聞이라 함은 英國의 The Times, 西瑞의 Neue Zürcher Zeitung, 佛蘭西의 Le Monde, 伊太利의 Corriere della Serd, 西獨의 Frankfurter Allgemeine, 和蘭의 Handelsblad等을 指稱함)

2. 專門職業人에 있어서 速記는 不可缺한 것인가?

求人廣告는 점점 新聞中에서 큰 space를 占해갈 뿐만 아니라 몇萬部 몇10萬部의 新聞에 揭載되어 나간다. 「유럽」의 日刊紙에 있어서는 私企業의 求人廣告만 아니라 國營企業, 政府各省, 地方自治體, 大學, 政治, 軍事, 經濟, 文化 모든 領域에 걸쳐 있고 國際機關의 求人廣告까지도 揭載한다. 그것들을 보면 工場이나 「오피스」의 機械化, 「오토메이숀」化에도 不拘하고 새로운 일에 熟達된 人間의 需要가 增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케이팅」이나 「프로그래밍」같은 高度의 創造性을 要하는 企劃專門家라든지 또는 「디자이너」 PR專門家等 大卒以上의 課程을 畢했거나 아니면 廣範圍한 經驗으로 부터 얻은 知識 即 商業 法律 技術的인 用語를 數個國語에 亘해서 能通한 者를 求하는가 하면 優秀한 速記者, 行政事務管理者, 經濟 政治 社會의 各學士, 財政 및 法律문제를 다루는 統計專門家等을 求하고 있다. 또한 出版社에 있어서는 飜譯家, 解說者, 「리포터」, 各分野의 「인터뷰어」等 幅넓은 敎養과 大衆性을 갖는 編輯者를 求하고 있다.

求人廣告의 種類를 以上과 같이 列擧하자면 限이 없다. 그러나 現代의 모든 새로운 일에는 速記의 知識이 業績向上의 觀點에서 必要不可缺한 것으로서 높이 評價되어 있는 것만은 確實하다.

「유럽」 어느國家나 또는 다른 地域의 모든 國家에 있어서 速記者는 不足되고 있다. 國際機關은 나날이 그 數가 늘고 아울러 會議가 漸增함으로써 速記者들의 活躍可能性도 比例하여 漸高趨勢에 있음은 明確하다.

이와같이 速記의 需要가 오히려 增加되어 가고 있는 此際에 速記의 將來에 對하여 크게 不安을 가지는 것은 무슨 理由일까?

3. 速記者의 資質向上이 今後의 急務

速記에 對한 不安의 最大原因은 tape recorder의 威脅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機械라는 것은 언제 어떠한 경우에도 人間의 頭腦로써 考案驅使되고 있는 速記에는 決코 致命打를 加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例로서 「데이웰트」紙에 揭載된 「홀스타인」洲議會의 首席速記士 意見을 引用하고자 한다.

「速記者는 다른 것으로써 代身할 수 없는 存在이다. 錄音機의 發達에도 不拘하고 有能한 速記者가 더욱 더 活潑하게 그리고 切實하게 要求되고 있는데 그것은 如何한 機械裝置라 하더라도 人間의 神秘스러운 頭腦에는 비길 바가 못되기 때문이다. 歐洲에 있어서 他地域 國家들의 擧皆의 議會들이 速記를 使用함으로써 試驗的으로 導入하였던 錄音裝置가 廢止되어버린 事實이 그것을 證明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생각에도 速記의 將來性에 對한 威脅은 오직 機械技術의 進步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고 大部分이 速記者 自身의 個人的資質의 缺乏에서 오는 것이라고 判斷된다.

一般的으로 travet 即 單純한 速記「타이피스트」資格만으로는 勞動市場에서 需要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 「오피스」에서 電子機器를 使用하는 것이 當然之事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歐洲, 其他 많은 國家에서는 벌써부터 「옥스포드」나 「소르본느」出身의 秘書를 求하고 있다. 그 秘書들은 管理나 組織이라는 職責을 爲해서, 또는 商業通信이라든지 高度의 對外技術을 爲해서 數個國語를 驅使하면서 일을 해 내는 有能한 速記者들인 것이다.

지난 4月(67年) 「선데이 타임스」紙에는 Patricia Rowan, For teenage job-hunters(10代 求職者의 이모저모)라는 題目으로 다음과 같은 記事가 揭載되었었다.

『商業關係의 分野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求하기 爲하여 速記를 習得한 젊은이들을 거의 必要로 하지 않게 되었다. 大部分의 會社에서는 dictaphone(口述再生機)의 使用으로 因해서 速記者가 거의 不必要하게 되었고 「시티」(譯者註 : 런던의 舊市街로써 金融 商業의 中心)의 大會社들에서도 速記「타이피스트」의 需要가 過去 5年間 半減하였다. 그래서 高卒程度의 學歷을 가진 젊은 女性들은 다른 일자리를 求하는 것이 좋게 되었다』 이것이 「런던」에

있어서의 商業分野에 對한 意見인 것이다.

4. 人間能力을 높이는 方向으로 速記技術을 지켜라

그러나 經濟界에서는 事務職員의 資格에 對해서 多樣한 要求를 하고 있다. 어느 것이든 大卒程度以上의 豊富한 敎養과 專門的이고도 幅넓은 經驗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點에서 普遍的으로 一致된 要求를 하고 있다는 것을 各 新聞은 傳하고 있다.

國際競爭이라는 環境속에서 以上과 같은 豊富한 敎養과 經驗을 갖춤으로써 萬一 雇用者側으로 부터 速記의 그 特殊한 機能에 起用되는 모든 것을 認定받게만 된다면 速記의 將來性에 對하여 「피리어드」를 찍을 必要는 없게 되고 速記가 그 價値를 喪失케 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急速하게 發展하는 威脅的인 科學技術로 부터 速記를 지키기 爲해서 速記者들은 適切한 宣傳活動(視聽覺的手段이라든지 또는 會議나 競技大會等을 通해서)을 準備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宣傳活動은 速記敎育의 不可避性을 理解시키기 爲한 世論으로써 各己 政府와 議會에 壓力을 加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人間의 能力을 높이고 社會의 機能을 強化하는 「速記」技術을 保存하는데에 全力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5. 지금이야말로 速記敎育의 高度化가 必要하다.

速記敎育이 單純하게 學校에서의 어떤 技術이나 經濟敎育等을 爲한 手段에 不過한 것은 아니다. 速記敎育은 곧 敎養을 意味하고 敎養은 努力과 恒久性을 意味하며 또한 人間에게 最高의 知性을 賦與한다.

그렇기 때문에 政府의 通譯官이나 外交官硏修所 또는 大學의 專門敎育課程에 速記敎育이 반드시 採擇되어야 할 必要性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스위스」의 「크린케」敎授에 依한 훌륭한 展望(65年 파리大會에서의 講演 "知性과 速記")에서나 또는 「루마니아」에서의 「프라크」敎授의 報告에서 다같이 一致된 指摘을 하고 있다.

「프라크」敎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① 語學敎育에 速記를 應用하기 爲해서는 大卒程度 以上의 敎養을 가지고

數個國語에 精通한 最上의 資質을 갖춘 敎授를 必要로 한다. 이러한 目的을 爲해서 큰 大學에 4年制에 못지않는 修學期間을 가진 速記學部 facolta di stenografia를 부설할 수 있는 制度가 必要하다.

② 文學, 語學 및 外國文學, 經濟, 政治, 社會의 各學部에서는 速記를 必須로 하고 他學部에서는 學生들에게 負擔이 가지 않도록 選擇科目으로 하여 速記를 科目속에 導入하도록 한다.

③ 速記 및 事務管理技術에 關한 科學的 調査研究와 基礎的인 大學敎育으로서의 速記에 對한 科學的知識이 速記敎師에게는 必要하다. 그것은 「敎師는 언제나 研究者이다. jeder lehrer ein forscher」라는 意見에 對한 回答이기도 한 것이다. (63年 루라하大會의 報告)

萬一 速記가 그 自體의 命脈을 維持하려면은 새로운 方法論과 現代的이며 合理的 組織에 依한 높은 「레벨」의 敎育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것은 單純하게 敎育의 形式을 變更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아니되며 그 努力 如何에 따라서 速記의 發展度가 決定되는 것이라고 본다.

現在나 未來의 敎育에 있어서 必要한 것은 20世紀의 技術을 驅使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고 낡은 型의 敎育을 받지 않을 수 있는 敎師의 「에리뜨」精神이라고 「선데이 타임스」紙는 英國의 敎育문제에 關한 辛辣한 社說속에서 말하고 있다.

6. 速記를 알고 있음으로써의 利益

速記가 現代文明의 攻擊속에서 더욱 發展되기를 바랄진대는 速記를 政治家, 經濟人, 學者, 學生, 研究者, 科學者, 그 밖에 人間特有의 思考力을 所有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精神的 財産으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 「헬싱키」의 「토라」敎授는 「위스 파든」大會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핀랜드의 과시키뉘 大統領은 學生時代부터 速記를 體得하여 一生동안 使用해 왔다.』

이것은 「토라」 敎授가 速記의 利益에 關하여 代表的으로 例示한 것이지만 오늘날 政府官僚나 政治家, 研究所의 敎授나 管理職, 「오피스」의 上司나 責任을 가진 職員, 大學生, 特派員, 文筆家등이 速記로부터 어느만큼의 利益

을 받고 있는가를 考察하여 본다면 速記의 存在가 그렇게 不必要하게 되어 가는 것은 아니다.

他人의 意見을 記憶(그렇게 正確하지도 않은)으로서 「메모」했을 때에 그에 對한 區區한 解釋이 얼마나 많은 蹉跌을 가져 오는가?

오늘날과 같이 會議와 討論의 時代 距離空間이 없어진 世界에 있어서 速記는 如何한 有能한 技術로도 代替될 수 없는 能力임을 認識하지 않으면 안된다.

速記에는 果然 將來性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勿論 있다고 對答하겠다. 많은 國家에서 諸般計劃의 企劃 및 가지가지의 敎育을 爲한 組織이 試圖되고 있다. 그것을 爲한 計劃의 chief 또는 敎育學者, 心理學者, 科學調査專門家들을 爲한 text에 有能한 編輯者가 求해지고 있다. 그들에게는 速記의 知識이 有力한 助手가 될 것이다.

7. 活潑한 國際的 活動을

그러나 오늘날 速記者의 計劃的養成이 行하여지고 있는 것일까? 速記가 그 命脈을 維持하는데에는 大卒以上의 높은 才能을 가진 有能한 速記者를 養成하는 機關을 늘리는 일이 重要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過去와 現在의 人間歷史를 表現하고 이어왔던 速記가 未來의 歷史도 또한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빅톨 유고」가 豫言한 것처럼 速記는 20世紀의 普遍的인 筆記法이 될 것이 틀림이 없다.

現在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價値와 責任이 隨伴된 速記者의 地位에 對해서 靑年들에게 說明하고 速記를 熱心히 배우도록 刺戟을 주고 激勵하는 일이다. 眞實하게 INTERSTENO가 實踐되고 있는 그와같은 國內 國際間의 速記者들의 活潑한 活動을 靑年들에게 알려주는 일이다.

이러한 事實을 認識하고 오늘 이 「베른」땅에 모인 靑年들은 優秀할뿐 아니라 훌륭한 敎授諸氏의 熱誠的인 後繼者일 것이다. 여러분들은 宇宙까지도 征服한 冷酷하고 驚異에 充滿해 있는 이 世界에 빛과 生命을 賦與하는 횃불을 높이 든 것이다.

8. 모든 人間의 知的財產으로서

마지막으로 全世界의 速記者에 對한 「베른 아필」中의 말을 引用함으로써 나의 講演을 끝맺고자 한다.

「速記는 單純하게 現在의 生活 或은 職業上의 貴重한 한 手段에 그치지 않고 知的이고 高度의 學術的인 하나의 財產이라고 하는 認識을 全世界 人類가 普遍的으로 가져주기를 바란다」

나의 이 짧은 研究報告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提起되고 모든 非現實的인 豫測이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希望한다.

第 2 節 今後에 있어서의 速記의 發達(헬므트 페넬 · 獨)

1966年 10月 우리들은 「타벨스」에서 「科學技術革新時代에 있어서의 速記」라는 「테마」로써 「심포지움」을 行하였다. 이 會合에는 다른 會員國에서도 數名의 參加者가 있었다.

이 「심포지움」의 經過에 對해서는 우리들의 專門雜誌 Theorie und Praxis (理論과 實踐)에 詳細하게 報告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再次 그 當時 重要하게 取扱되었던 見解에 對해서 言及하는 것을 容恕해 주기 바란다.

1. 速記의 세가지 領域

科學技術의 發達이 速記의 세가지 重要한 使用領域을 어떻게 規定지었느냐, 또는 今後 어떻게 規定지을 것인가가 檢討되었는데 「오피스」에 있어서의 口述用文字 diktatschrift로서의 速記의 領域, 議會나 「저너리즘」에 있어서의 「스피치」用 文字, redeschrift로서의 速記의 領域에 對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明白하게 되었다. 即 錄音機는 速記의 強力한 競爭相對가 되어 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速記의 地位는 確保되고 있고 今後에도 그 地位는 繼續 保持될 것이다.

그런 一方 速記의 本來的 使用形態였던 個人的 「메모」用文字 persönliche notizschrift로서의 速記는 機械技術과 競合하는 일 없이 오히려 科學技術의 發達과 더불어 그 重要度는 높아져 갈 것 等이 明白하여졌다.

2. 速記로써 時間과 勞力을 節約

社會的 情報는 그칠 사이 없이 急「템포」로 增加되고 있고 向後 7年 乃至 10年사이에 그 增加率이 2倍에 達하리라는 推定이 되고 있다. 그것은 同時에

個人이 吸收하는 知識도 着實하게 增大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意味한다.

그렇기 때문에 修學年限이나 訓練期間이 점점 延長되고 있지마는 많은 職業人에 있어서는 學生時代나 그러한 訓練期間에 배운 知識만으로는 不充分하게 되고 職業生活 全期間을 通해서 工夫하지 않으면 안되는 事態가 되었다. 또한 肉體勞動에서 精神勞動으로 比重이 옮겨지고 있다.

以上의 경우에는 必然的으로 個人에 있어서 筆記量의 增加를 隨伴하게 되는데 速記는 重要한 時間과 勞力을 節約하는데에 貢獻하게 된다. 그것은 敎師나 學生, 醫師, 技術者, 法律家, 新聞記者, 文筆家는 勿論 管理職, 被雇傭者에 있어서도 똑같이 適用된다.

速記에 依해서 그들은 普通文字의 3,4倍의 速度로써 自己나 他人의 생각하는 것, 들은 것을 記錄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기 爲하여서는 우선 모든 사람이 速記를 習得하는 過程이 前提되는 것인데 遺憾스럽게도 現在는 速記를 배우고자하는 傾向이 後退되고 있다.

3. 習得하기 쉬운 合理的 體系를

거기에는 速記自體에도 責任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理由는 「메모」用文字로서 使用할 경우 大端히 많은 記法을 記憶해야 할뿐 아니라 熟達되어서 아무 支障없이 使用할 수 있기까지에는 相當한 時間과 精力을 必要로 하기 때문이다. 速記文字를 普通文字처럼 疲勞없이 習慣的으로 使用할 수만 있게 된다면 精神勞動者들에게는 더욱 合理的으로 責任을 完遂할 수 있는 좋은 手段이 될 것이 틀림없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前述한바와 같이 從前에 比해서 보다 많은 分野의 知識을 吸收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速記를 배우는데에 그처럼 많은 時間과 勞力을 消費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메모」用의 速記文字는 精神勞動이나 其他 必要로하는 일에 合理化된 補助手段으로서 簡單하고 合理的인 것이 아니면 안된다.

「메모」用 文字로서의 速記가 널리 普及되려면은 速記專門家들이 우선 簡易하게 習得할 수 있는 速記의 體系를 作成 整理하는 일이 重要하다.

우리들 獨逸民主共和國에서는 멘치음 獨逸統一式速記(1924年) die deut

sche einheitskurschrift의 簡略化에 着手했다. 우리들은 速記가 速記 그 自體를 爲해서가 아니라 個人 및 社會를 爲해서 科學技術의 革命時代에 對應한 地位를 占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들의 目標는 獨逸統一式速記의 初步段階 即「메모」用 또는 通信用文字 verkehrsschrift를 週2時間으로서 半年間 約30時間에 걸쳐 習得하면은 使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메모」用으로서 重用되어야 할 速記

「메모」用 文字로서의 速記는 다른 競爭者가 있을 수 없다. 技術的筆記裝置가 아무리 小型이고 가볍다 하더라도 그것을 取扱하는데에는 時間이 걸리고 故障이 나기 쉬운데 比해서 速記는 한장의 종이와 한個의「볼펜」이나 萬年筆이면 足하다.

事前에 完全한 原稿를 作成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自筆의 速記文字初稿를「타이프」로써 整理 作成하면은 더욱 合理的이고 容易한 作業方法이 된다.

「메모」用文字로서의 速記는「오피스」에서도 그 技術을 充實하게 利用함으로써 더욱 큰 意義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이 會議에서는 우선 速記의 適用領域의 技術的 發展過程에서 생길 수 있는 變化에 對해서 注意를 기우리지 않으면 안된다.

第 3 節 速記의 役割에 關한 若干의 見解 (1)

(Sava Vujic · 유고)

1. 技術革新時代의 速記

速記術은 言語를 記錄하기 爲한 記號의 改良에 있어서도 一大飛躍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人間은 言語의 速度에 記錄의 速度를 合致시키려고 옛부터 많은 努力을 支拂해 오다가 오늘날에는 近代的速記術 或은 音響裝置를 完成시켰다.

人間이 그 歷史의 發展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과 演說을 簡單하게 記錄할 수 있는 方法을 꾸준히 探究해 온 結果 言語自體를 分析하고 要素를 索出하여 거기에 對應할 수 있는 記號를 作成하는 것이 必要不可缺하다는 것을 認

識하기에 이른 것은 널리 알려진 事實이다.

나는 近代的速記術의 改善을 爲하여 많은 努力이 支拂되어야 함은 勿論 此際에 個個의 言語에 對해서 보다 더 革新的인 記號로써 表示하기 爲한 合理的 方式이 發見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한다.

이와같은 作業은 現社會와 같이 人間이 가장 重大한 要素로 되어 있는 時代일 수록 더욱 繼續 講究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共同組織體인 INTERSTENO는 從來以上으로 言語領域에 對한 技術革新에 對해서 注意를 게을리 해서는 안되게 되었다.

2. 技術革新으로써 速記者의 勞力을 節約

cybernetics automation 電氣的 音響裝置는 口述言語를 가령 鐵과 같이 加工할 수 있는 物質에 依해서 音聲言語로 吸收하거나 文章語로 變化시킴으로써 소위 音聲裝置의 複雜한 機構는 이미 解決이 되었다.

이와같이 電氣反應에 依해서 口述言語를 文章語로 變化시키는 process는 言語領域에 對한 科學技術의 成果로서 그 意義는 革命的인 것이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結論이 나올 수가 있다.

即 速記術은 우선 記錄速度의 上昇과 더불어 記號의 精密度와 習得의 簡便性을 目標로 方向을 바꾸어서 發展되어야 할 것이다. 그 發展은 自動式機械와 競爭하기 爲해서 뿐만 아니라 機械가 無力하게 될 경우보다 큰 効果를 發揮하는 技術로써 機械에 代替하기 爲한 것이다. 한편 速記者는 그것이 合理的인 限 보다 큰 効果를 隨伴할 수 있는 技術的 手段을 利用해야 한다. 要는 時間과 勞力을 節約하기 爲하여 모든 手段을 導入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다시금 나는 以上과 같은 旣存事實에 비추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한다. 結局 同一目的에 奉仕하는 速記術과 口述錄音機는 共히 時間과 勞力을 節約하기 爲한 手段인 것이며 많은 것을 記錄하기 爲한 것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言語로써 表現하지 않으면 안되는 現時點에 있어서는 그것이 다같이 重要한 役割을 擔當해 가리라는 것이다.

3. 機械에 關한 monologue

ein monolog an die maschine 口述錄音機는 口述하고자 하는 사람이 論

理的 흐름을 타거나 專門的인 雄辯에 依해서 그의 思想을 言語로써 表現할 수 있는 能力만 가지고 있다면은 準備없이도 整然하게 口述하고 完全한 記錄을 作成하는 일이 絶對 可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와같은 일은 遺憾스럽게도 不可能에 가까운 것이다. 오히려 口述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後에 速記로써 原稿를 作成하여 다시한번 訂正하고 文章을 整理할 것을 希望한다.

그렇다고 해서 討論을 어떠한 機械로써 採錄하는 일이 無益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text를 裝置에 吹込하고 그것을 다시 機械的으로 複寫하려고 하면 text가 點檢後에 또한번 「타이피스트」에 依해서 反譯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번거로움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text가 速記者에 依해서 바로 筆記될 경우 문제는 全혀 달라진다.

特히 速記者가 他人의 口述言語의 記錄者일 뿐만 아니라 解讀者라는 點을 念頭에 두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速記術이 單純한 職業手段에만 限하지 않는다는 것을 考慮하면 速記界幹部들의 廣範하고도 多面的인 養成을 必要로 함은 自明한 理致이다. 速記가 未來에 文字化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날 자주 言及이 되고 있지마는 그렇게 될지 안될지는 우리들이 그 문제에 어떻게 對處해 가느냐에 달려 있다.

人間才智의 偉大한 發明으로서의 速記術은 世代에서 世代에 思想을 傳達케하는 外에 가지가지의 큰 役割을 擔當해 왔다. 有名하고 有能한 人士들의 演說이 速記에 依해서 記錄되어 왔고 同時에 速記는 近代 「유럽」議會主義에 있어서 無視될 수 없는 重要한 要素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유럽」의 全議會에 있어서 相當히 高度의 敎育을 받은 速記者集團이 尙今 움직이고 있고 또한 錄音「시스템」이 速記者들을 國民議會로 부터 축출하지 못한 事實만으로도 證明이 된다.

그 좋은 例가 가장 精密한 機械裝置를 生產하기로 널리 알려진 日本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日本의 議會에서는 300名以上의 速記者가 從事하고 있다.

또한 「유고」議會의 例를 든다면 「벨그라드」連邦國民議會에서는 모든 會議를 錄音에 記錄한다. 그러나 이 方式은 演說形式의 경우에만 效果가 있을

문이고 對話일 경우에는 即時 速記者의 助力이 要求된다. 即 對話形式의 討論이나 重要한 意見交換을 行할 경우 速記者는 不可缺한 存在로 되어 있다. 錄音裝置等의 技術的手段은 速記者의 健康管理, 健康保護의 役割을 하는데에 不過하다.

多年間 速記에 從事하면은 人體의 어느 部分인가가 重要한 機能의 움직임을 抑制하는 수가 있고 感覺器官에 危害를 가져올 수가 있다.

따라서 他技術的手段은 速記者의 作業量을 輕減해 주고 補完하는데에 지나지 않는다.

4. 對話時代의 速記의 役割

速記가 未來에 文字化될 것이라는 假說을 承認하려면 우리들은 또한 우리들이 살고 있는 時代의 性格描寫에도 配慮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世界가 漸次 技術的世界로 變化됨에 따라 人間關係도 점점 技術的關係가 될 것이고 또한 現代人은 더욱 더 技術的存在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作業의 方法, 手法 및 手段을 通해서 어떻게 하면 自身의 位置를 保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점점 打算的, 合理的 或은 妥協的이 되고 結局은 非合理的, 非妥協的, 또는 自發的인 것이 없어져 가고 있다.

한편 우리들의 時代는 折衝의 時代, 對話하는 時代인 것이다. 人間은 文字에 依하는 것보다도 口頭에 依하는 편이 보다 잘 協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事實이다. 口頭에 依한 協議는 더욱 記錄해 놓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같은 對話協議는 그것이 自由로울 수록 速記者에 依하는 편이 보다 잘 記錄될 수가 있는 것이다.

例를 하나 引用하면 國聯의 演壇에서는 錄音裝置에 依해서 各國代表의 演說을 正確하게 採錄한다. 그러나 「그라스포로」會談에서는 速記者가 記錄하였다. (譯者註 : 그라스포로會談이란 中東戰爭의 處理等 美, 蘇間의 懸案문제 解決을 爲하여 67年 6月 美國의 「그라스포로」大學에서 「존슨」과 「코시킨」兩首腦가 行한 會談을 말한다)

우리들이 恒常 他人의 意見을 尊重해가는 時代에 살고 있는 限 速記者의 役割에 있어서 점점 큰 意義를 가지게 될 것이다.

5. 速記야말로 現代人의 文學

이 名譽스러운 會議가 以上의 事實을 注目하고 適切한 決議를 行하는 것은 極히 重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爲해서 容恕한다면은 한가지 提案을 하고 싶다. 그것은 INTERSTENO가 言語 및 文字의 傳達分野에 對한 速記의 現代的 役割을 硏究하기 爲해서 別個의 委員會를 設立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旣定事實로 看做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即 技術의 侵入에 依해서 速記가 死滅한다고 하는 理論은 文明人이 어떤 다른 表象文字(symbolischen schriften)를 使用하여 演說(reden) 發言(worten) 思想(gedamken) 意見(ideen) 提案(vorschlägen)等을 빠짐없이 直接記錄하고 그것을 通해서 個個의 狀況을 決定할 수 있는 行爲가 不可能한 以上 支持할 수가 없다. 速記文字는 우리들의 思想傳達을 爲하여 必要한 文字이며 우리들 現代人의 文字로서 보다 elegant한, 또는 實用的인 存在라는 事實을 알아야 할 것이다.

「유고스라비아」의 國內團體는 以上의 問題點 究明에 對하여 協力할 用意가 있다는 것을 表明하여 둔다.

第 4 節 速記의 役割에 關한 若干의 見解 (2)

(Unto Räty · 핀랜드)

1. 議事速記者의 將來性

「핀랜드」에서는 「메모」用文字(notizschrift) 通信用文字(verkehrsschrift) 및 議事錄用의 文字(verhandlungsschrift)라고 하는 3區分은 合目的的이라고하는 見解를 가지고 있다. 速記는 이 3領域에서 利用되고 있다.

議事速記者는 今後에도 需要가 있을 것이다. 가령 年次大會라든지 其他 諸會議 및 討論會等의 많은 會合이 開催되고 있고 거기에서는 迅速하게 信賴할 수 있는 議事錄이 作成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같은 作業은 經驗이

豊富한 速記者에 依해서 能熟하게 處理된다. 그러나 몇몇 會議에서는 벌써 速記가 아닌 錄音裝置에 依해서 記錄되고 있다.

우리나라(핀랜드)에서는 이와같이 重要한 會議나 討論 其他 많은 경우에 速記者를 要請하고 있지마는 누구나 議事速記者로서 最善을 다하고 生計를 維持하려는 希望을 갖지는 않는다. 그것은 報酬도 적거니와 일할 機會도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이다.

一般的으로 젊은 學習者들이 興味를 갖는다면 速記는 確實히 愉快한 筆技가 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速記의 能力을 向上시키려고 努力할 것이고 同時에 興味있는 사람은 副業的으로 議事速記者가 될 수 있다.

2. 速記者는 언제나 必要

그렇기 때문에 「핀랜드」國會에서는 慣例的으로 速記와 錄音「시스템」을 併用하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 錄音「시스템」은 2人의 速記者中 1人의 代用으로서 採用되고 있고 이 方式은 實効를 거두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議會가 낡은 體制로 거슬러 올라감을 暗示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다만 雇用者인 議會가 낡은 體制에서 그러했듯이 많은 速記者를 雇用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에서 起因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錄音「테프」의 編輯員이 別途로 있어야겠다고 생각한적은 없다. 설혹 議會가 錄音「테프」의 編輯要員을 採用했다손 치더라도 結果는 速記만큼 좋은 方向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證據로서의 試圖는 「스톡크호름」(스웨덴)에서 行해지고 있다.

人員을 配置할 경우 錄音「시스템」이 採用되었다 하더라도 速記者는 언제나 重要한 位置를 占하는 것은 變함이 없다. 機械技術로 因하여 需要가 적어졌다고 생각되더라도 그만큼 速記者는 恒常 充分한 數를 確保해 놓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아무리 錄音「시스템」이 發達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音聲記錄에 不過하는 것이지 文章記錄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 우선 技量을 높이는 일이 重要하다.

「푸로」速記者의 養成은 이미 行해지고 있다. 또한 「헬싱키」에서 새로운 秘書學校의 初級「코스」가 最近 始作되었는데 그 敎科目에는 速記와 「타이

프」가 重要한 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오피스」에 가지가지의 錄音裝置가 充當되고 있는데도 不拘하고 有能한 秘書는 速記를 할 줄 알아야 한다.

「메모」用 文字로서의 速記는 重要한 役割을 擔當하고 있다. 그러므로 速記를 習得한다는 것은 確實히 有益한 일이다. 그러나 初步「코스」를 終了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訓練을 쌓아서 最少 200單語 乃至 250單語 速度에 達하지 않으면 實際로 實務에 當할 수 없음은 經驗에 비추어 明白하게 되었다. 그러한 訓練을 쌓아놓지 않으면 初步「코스」에서 배운 그것마저도 잊어버리고 말게 된다. 따라서 速記術의 完全한 習得은 不可能하게 된다.

우리들은 學習者가 적더라도 實務上 必要한 程度의 速記는 할 수 있도록 養成할 것을 希望한다. 如何間에 가장 熱誠的인 사람만이 技量을 높일 수 있고 議事速記者도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速記者는 技量을 높이는 일이 가장 重要하다.

第 5 節 速記의 役割에 關한 若干의 見解 (3)

(Andrea Innocenzi · 伊)

1. 速記普遍化의 努力을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速記普遍化문제에 對해서는 速記의 expert 研究者 및 專門外의 研究者等 모두가 共感하리라고 믿는다. 即 이 技術은 오직 職業的分野에서만 使用되는 것이 아니고 文化領域, 보다 넓은 有益한 모든 領域에 널리 普遍化되어 使用되기를 希望한다는 그 事實이다.

學生, 研究者, 政府의 行政官, 或은 企業經營者로서 速記를 習得하고 使用하기를 바라지 않는 者는 없을 것이다. 또한 著述家나 速記의 支持者로서 速記가 普通程度 以上 또는 보다 높은 敎養人에 依해서 使用될 수 있기를 바라지 않는 者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바라는 것만으로서는 되지 않는다. 그 意志가 꾸준하게 자리를 잡고 現實의 것이 될 수 있도록 努力하는 일이 가장 重要한 것이다.

2. 速記專門家에게 要請되는 課題

여기에서 速記者의 문제에 關해서 意見을 말하기 前에 나는 速記의 創案

者와 速記術을 各己 母國語에 導入한 분들에 對한 感謝와 아울러 한가지 提議를 하고자 한다.

이 速記技術은 勿論 그것을 業으로 삼는 者에게는 有益한 就業의 手段이 되는 것이지마는 同時에 學生이나 研究者에 있어서도 有用한 補助手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兩分野, 職業的으로 使用하기 爲하여 研究되고 있는 速記와 文化的 方面, 換言하면 敎養있는 사람들이 使用하는 文字로서의 速記와를 對比 分析하여 그 本質的 相違點을 究明하고 그 兩分野가 하나로 調和를 이루도록 할 수 없는 것인가?

即「푸르」速記者間에는 正確한 速記文字를 習得하려면 相當한 時間이 걸리는 것이 當然之事로 여기는데에 反하여 學生이나 研究者들은 對照的으로 時間이 너무 所要된다 해서 배우기를 머뭇거리게 됨으로써「速記처럼 빠르고 또한 印刷活字처럼 明瞭하다」는 이 두가지의 特徵을 兼備한 合成文字(scritturasintetica)를 研究 完成할 수는 없는 것일까? 하는 提議를 한다.

結論的으로 速記는 學生, 研究者, 企業經營者 및 一般敎養人들의 必要에 副應할 수 있도록 改良되고 빠르고 明瞭하다는 두가지의 價値를 하나로 構成創案함으로써 그 使用範圍가 職業的 分野로부터 文化的領域에까지 넓게 利用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時間이 걸리고, 어렵고, 틀리기 쉬운 筆記體 普通文字를 速記로써 代替할 可能性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萬人의 念願이라고 나는 믿고 여기에 문제를 提起하는 바이다.

第 6 節 速記의 役割에 關한 若干의 見解 (4)

(Giuseppe Aliprandi · 伊)

1. 速記의「危機의 時代」

지금까지 行해진 諸報告에서 機械의 發達과 速記의 關係가 展望되었다. 確實히 錄音機나「텍타폰」의 使用은 速記「서비스」를 危殆롭게 하고 있다. 그래서 現在에는 會議나 集會의 講演에 速記者가 參與하는 일이 적어져 가고 있다. 또한 一般的으로「테레타이프」가「저너리즘」의 速記者 能力을 低

下시키고 있다.

이러한 「危機의 時代」는 文明史에 있어서 新發明이 出現할 때마다 언제나 부딛치게 되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印刷術의 分野에서는 1455年 「구텐벨크」가 活版印刷術을 發明했을 때에도 寫字生이나 「코피스트」에게 一大危機가 왔었다. 그래서 그들은 自己들의 作業分野가 活字의 「스피드」와 低廉한 價格에 依해서 代替되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러나 그들의 作業分野는 빼앗아 가지 못하였다.

또한 「타이프라이타」의 發明도 「오피스」에서 寫字生을 解雇할 段階까지는 가지 않았다. 危機는 그런데에 있지 않고 男性의 「코피스트」가 점점 女性「타이피스트」로써 代替되어 가는 일이었다. 이와같이 해서 女性「타이피스트」와 女性通信員, 女性會計員等의 新職業이 생긴 것이다.

速記의 分野에 있어서도 機械의 到來가 速記術의 排除를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2. 人間이 機械를 統制

「알제 만쓰」 女史가 言及한바와 같이 講演面에서는 速記者가 減少된다 하더라도 迅速한 筆記라고 하는 不可缺의 要請에 依해서 늘 速記者의 必要性은 認識되고 있다.

「메모」를 하고 報告書의 草稿를 作成하여 上司에게 協力하지 않으면 안될 때에 「오피스」에서는 恒常 速記가 使用된다. 그것은 簡單한 「타이프라이타」를 使用하는 것과 같은 機械的 手段이 아니고 「知的協力」의 性質을 갖는 것이다.

前述한바 있는 印刷分野에서는 「歷史의 反復理論」이라는 것이 「G. B. 브이고」氏 (나포리에 있는 哲學者)에 依해서 主唱되었다. 그는 「一般的으로 생기는 歷史上의 事件은 새로운 要請이나 새다른 必要性에 依해서 一定한 變化에 對應하는 變貌가 늘 反復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타이프라이타」等의 機械가 아무리 優秀하더라도 速記는 단연코 存續될 것이다. 機械에는 보다 遠大한 文化, 迅速한 判斷力, 適應性 있는 能力이 要求되지마는 萬若 거기에 人間의 知的參加가 없으면 機械는 人間에게 아무것

도 보탬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第 7 節 總　　評 (第2部會 座長 Henry Fleury)

1. 速記의 獨特한 役割을 注目해야!

速記의 進化와 將來性에 關한 지금까지의 여러가지 報告에서 同僚 諸氏들은 相當히 樂觀的 見解를 表明하고 있으나 問題點을 더욱 明白히 하기 爲해서 速記의 3領域에서 부터 考察하고자 한다.

그것은 個人的筆記法으로서의 速記, 「오피스」에 있어서의 速記, 迅速함이 要求되고 利用條件이 恒常 一定하게 되어 있는 新聞速記, 그리고 그와 關係가 깊은 議事速記 이 3領域이다.

報告者 諸氏는 모두가 個人的筆記法으로서 다른 것으로 代替할 수 없는 速記의 役割에 對하여 確信을 表明하고 있다. 人生은 짧다. 時間의 흐름에 따라 獲得된 모든 知的 結實은 人生을 豊富하게 하는 源泉이 된다. 그래서 이 모든 意見은 받아 들여져야 될 것이다.

「오피스」에서의 錄音機와 速記의 利用에 있어서 錄音機는 秘書의 일을 廢止하게 까지에는 안가더라도 經營者들은 錄音機의 德澤으로 秘書의 業務豫定表에 拘碍됨이 없이 任意로 口述錄音하고 그것을 또다시 再生할 수 있도록 保證되고 있다.

그러나 經營者와 秘書가 共히 速記의 知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錄音裝置의 役割을 速記가 擔當하게 된다는 事實을 留意해야 한다. 現在로서는 그것이 드문 例이지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記錄의 調査나 正確한 情報蒐集에 消費되는 時間의 損失을 免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이프라이타」로써 直接 記錄하고자 해도 일에 쫓기는 때에는 不便하기 짝이 없다.

2. 速記의 有用性 實例

迅速하다는 點에서 速記의 有用性을 느끼는 것은 議事速記이다. 가령 國際司法裁判所에서는 數名의 辯護人에 依해서 普通 2, 3時間 激熱한 應答이 交換된다. 그래서 그것을 數日間에 걸쳐 緻文할 必要가 생긴 경우에는 錄音機의 利用이 考慮된다 하더라도 그 逐語記錄이 迅速하게 發行될 수는 없는

것이다.

國聯總會의 各分科會에 있어서는 2倍의 「서비스」를 하기 爲해서 逐語記錄이 會議(午前中에 1, 2時間으로 終了되는 수가 많다) 終了後 1時間內에 作成되어 發送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確認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速記者없이는 不可能한 作業過程임이 잘 認識되고 있다. 外國語(速記者自身의 國語가 아닌 것)의 경우에는 그만큼 따르지는 않지마는 速記者는 自身들의 「노트」를 補完하기 爲하여 「테프」로써 再確認하도록 義務가 지워져 있고 繕文原稿는 會議終了後 3時間內에 提出된다.

美國의 法廷에서는 大端히 愼重한 證人訊問이 行해지고 있다. 그러한 法廷에서의 難聽言語(mot inaudible)率이 速記者를 使用한 경우보다 錄音機를 使用한 경우가 훨씬 높다고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錄音裝置의 故障으로 因한 것이 아님에도 不拘하고 그 程度는 더욱 增加되고 있다.

3. 危機를 가져오는 것은 速記者 自身

速記의 將來를 威脅하는 것은 「만쓰」女史도 言及한바와 같이 速記者가 先入感으로써 拋棄하는 것과 같은(laisseraller)態度를 表示하기 때문에 世上이 速記者의 存在를 等閑視하는 것이 事實이다. 또한 錯誤된 認識을 가진 優秀한 靑年들이 「速記의 時代는 지나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代表的인 例로서 佛蘭西議會가 그 記錄을 爲하여 大學에서 學位準備를 하고 있는 學生들을 募集하고 奬學金까지 주게끔 된 것이다.

4. 그러나 將來性은 有望

어쨌든 個人段階에 있어서의 速記의 利用은 다른 것에 비길 수 없을만큼 有用性을 發揮한다. 即 「오피스」에서 速記가 有能한 사람들에 依해서 利用될 때나 或은 講演記錄을 急히 作成할 必要가 있을 때에 速記의 役割은 必然的으로 그 價値를 發揮한다.

速記에 將來性이 없다고 하는 斷定은 있을 수 없다. 그 將來는 오히려 밝고 有望(prometteur)한 것이다.

第6章 새로운 可能性을 向한 空想

言語란 社會的 客觀構造이며 一定한 種類의 記號組織이며, 秩序잡힌 音韻記號의 體系이고 一定한 人間社會에서 생각과 느낌을 傳達하는 手段이다.

이와 같은 言語를 또 生活의 한 手段으로 하는데는 時空的으로 그의 制限性이 있고 이를 記錄, 傳達하는 手段으로 다시 一定한 形態의 記號를 約束한다 이것이 文字이다. 速記는 이 같은 文字中 特殊한 使命을 賦與받은 特殊文字이다.

그런데 言語란 歷史의 흐름과 함께 無限히 生動的이고 創造的이며, 人間의 生活을 通해 複雜하고 多樣한 關係를 形成한다. 이렇듯 必然的으로 生成變遷되는 多義的인 言語를 一義的인 記號로써 대치하려는 努力은 애당초 失敗하게 되어 있는 試圖일는지 모른다. 速記文字도 여기에서 例外일 수는 없다.

이와같은 言語現象을 단순한 機械的인 構造로만 觀察한 것이 아니라 보다 根本的인 言語의 關係構造에서 理解하고 言語의 包括性을 뒷받침함으로써 加速化하는 言語에 機先을 制할 수 있는 解決의 실마리를 爲하여 어쩌면 速記人의 洞察과 自我發見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왔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空想은 創造的 想像과 함께 過去의 經驗을 再組織하는 것이지만 그 結果와 現實이 符合하지 않아도 좋다. 過去의 經驗을 再組織하는 過程에서 創造的 想像과 現實과의 對照를 이루어 우리가 無意識中에 犯하기 쉬운 過誤를 訂正하게 되는 契機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期待에서 空想의 意義를 느끼는 바이다. 그런 意味에서 空想은 단순히 現實의 欲求不滿을 解消하려는 代償(Overcompensation)임과 동시에 새로운 期待에의 趨動(Drive)이 될 수 있다고 믿어 지나친 合理化는 아닐 것이다.

많은 境遇 위대한 發明이나 創作은 空想에서 비롯된 創造的 想像의 產物임을 우리는 是認한다. 골목길의 만화가게에서 웃기던 달나라 旅行이 오늘의 現實로 變한 것도 그리 오래전 일은 아니다.

이제 速記의 當面한 問題意識을 간단히 究明함에 있어 미처 實驗的 硏究를 하지 못한 탓으로 필자의 體驗에 根據하여 몇가지 質問을 提起한다. ㉮ 速記를 한 後 飜文을 하기 前의 時間의 長短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주어진 狀況(Situation)——演說場所 演士의 「제스추어」 音聲이나 「패턴」等——飜文의 能率에는 어떠한 關係가 있는가? ㉰ 速記後 즉시 읽고(一讀 혹은 그 以上) 飜文을 시작한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一般的으로(內容의 難易의 區別없이) 어떠한 때에 飜文이 잘 되는가?(이 문제는 內容과 表記의 正確度等 많은 問題別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以上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其實 速記文字 그 自體의 機能外에 상당히 많은 다른 要因을 우리는 活用하여 飜文을 해 왔다는 事實을 首肯할 것이다. 즉 質問 ㉮의 경우 忘却曲線의 原理가 適用되고 있음을 示唆하고 있고 ㉯의 경우 실제로 他人이 作成한 速記文을 飜文할 때(엄격한 규격에 依하여 가장 정확히 表記했을지라도) 事實은 記憶의 要素들이 다분히 作用하였음을 暗示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演說當時의 모든 狀況들—形, 位置, 內容, 音—等이 한데 얽혀 調和를 일으키고 이것이 速記文字를 媒介物(어느 것을 媒介物이라 하든지간에)로 하여 飜文에 寄與하고 있음을 볼 때 이와같은 原理를 學習을 通하여 活用할 수 있음을 暗示하는 것이다.

그리고 質問 ㉰의 경우는 忘却曲線의 原理外에 學習의 效果와 時間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를 暗示하는 질문으로서 學習方法의 重要함을 再認識케 하는 것이다. ㉱의 경우 強한 印象으로 回生되는 것이 飜文이 잘 됨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記憶心像의 問題로서 訓鍊(學習)에 따라 人爲的으로 可能함을 體驗하는 바 있다.

이상 간단한 「힌트」에서 다른 側面에서의 速記術向上의 「아이디어」 開發의 餘地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 또한 思考와 推理의 訓練을 쌓을때 보다 큰 結果를 期待할 수 있으리라고 展望한다.

이제 필자의 空想을 하나만 들어 볼까 한다. 그러기 전에 우리 人間은 不完全한 旣存의 知識의 基礎위에서 人間에게 주어진 무궁무진한 潛在能力을

消極的 有限性에 固着시켜 버리는 일이 종종 있음에 注意를 돌려줄 것을 바란다.

1초를 십분 활용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우리들이 「레코드」의 音盤대신 종이를, 그리고 앞에서 들은 모든 原理와 想像力을 동원하여 動力으로 삼고 運筆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야말로 人間 機械論的 空想이다.

우리가 當面한 問題는 듣고 받아 쓰는 경우이고 하나의 입을 통하여 무진장한 언어를 구사하는데서 精神作用을 힘 입는 點과 하나의 손으로 받아 쓰는데는 亦是 精神作用이라는 共通點이 있는 反面 또 하나의 손은 不可用資源(?)으로 放置해 두고 있는 것이다. 理解를 돕기 위하여 간단한 例를 들겠다. TAT나 「로르샤하」와 같은 心理檢査를 보자. 똑 같은 주어진 상황(Situation)에 對하여 풍부하고 各異한 心像을 投射하는 것이 흥미롭다. 즉 간단한 線과 點과 位置等을 上述한 想像의 方法을 결들여 엮어 調和를 이루며 內容을 賦與해 보자는 것이다.

다시 例를 들면 고바우 만화 1회분을 해설을 제거한 후 각자가 자기의 想像으로 內容을 賦與하는 훈련을 하고 다음에는 逆으로 一定한 內容을 몇개의 線과 點과 位置等에 想像力을 동원하여 內容을 賦與하는 훈련을 해 보자. 이것이 可能한 경우 보다 많은 내용의 언어를 무더기로 함축해 버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분間의 演說內容을 도매값으로 처리할 수도 있음을 假定해보자. 이러한 多義的이고 高次的인 硏究와 훈련이 이루어지면 「레코드」의 音盤을 代身하여 몇장의 종이를 들고 想像力과 運筆이 그 위를 여유 만만하게 지나갈 때 正確과 迅速을 위해 또 하나의 豫備資本인 左手는 側面支援의 妙技를 發揮할 수도 있으리라는 未完成空想에 半이라도 首肯해 주는 同志가 있다면 이는 創造的 假說의 기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結論的으로 機械的 手段에만 依存할 때 우리는 여전히 需要面에서 特殊的이고 可動과 操作面에서 制限性을 不免할 것이라는 생각이고 모든 學問이 그렇듯이 한마리의 산토끼를 目的하여 山에 포위진을 치는 심정에서 言語學에 對한 哲學的 考察의 터 위에 言語心理現象과 보다 폭 넓고 깊은 次元의 硏究가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記錄의 受苦에서 萬歲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第7章 誤字, 脫字, 添字의 槪念과 問題點

速記란 線의 曲, 直 그리고 點과 位置를 利用한 符號體系로서 一般文字體系와의 關係에서 科學的이고 合理的인 聯關性을 지닌 學問이며 高速度下에서는 言語速度와 一致하지 않으면 안되는 빠른 筆記能力을 갖추어야 하는 技術이다.

學問은 原理와 理論에 대한 頭腦의 知識을, 技術은 修練에 대한 技能의 尺度를 測定하는 「테스트」의 段階로, 試驗이란 關門이 人間 生存競爭의 成敗를 가름하고 高下階級 또한 區別지어지는 것이 우리 社會의 現實이다. 이같이 人間이 生存競爭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以上 人類文明의 發達의 利器로 조그마한 一部分을 차지한 速記도 여기에 例外가 될 수는 없다.

速記文字의 正確性에 대한 技能 및 多樣한 言語의 理解力等의 評價 이것이 곧 速記의 優劣을 가름하는 正確度測定의 百分率로 나타나고 이것을 評價하는 手段으로서의 用語를 誤字, 脫字, 添字等으로 간추려 볼 수 있다.

正確度란 「總記錄 字數와 總誤字에 대한 百分率」이라고 速記槪觀에서 풀이되고 있다. 여기서 總記錄 字數란 制限된 時間內에 朗讀된 글자(音字)數를 말하고 總誤字란 誤譯에 의한 誤字, 脫字 및 添字의 總合算을 말한다.

그러면 誤字 및 脫字, 添字에 대한 하나 하나를 例文을 들어 記述해 본다.

1. 誤 字

國語辭典에 의하면 「잘못쓴 글자로」 풀이 되고 있다.

이 경우는 速記原文의 記錄時

첫째 바르게 듣고 바르게 飜文이 된 경우라 할지라도 한글 表記의 잘못으로 記錄劃線의 加減 받침 表記의 잘못 등에 基因한 것으로 이는 세심한 注意力의 缺如現狀이다.

둘째 바르게 듣고 바르게 記錄되었으나 誤譯에 의해 表音된 原文과 飜譯文의 錯誤現狀으로 이는 速記文字의 合用 또는 兼用에 의한 原因과 一劃 一

音을 原則으로 하나 略字 또는 略法等으로 잘못 飜文된 데에서 오는 현상, 또는 바르게 들었으나 速記原文記錄의 잘못 즉 誤記에 의한 현상 등을 들 수있다.

세째 誤聽 즉 잘못들은 경우로 發音의 부정확이나 聽取力의 不足 또는 言語 理解力의 不足等에서 빚어지는 현상으로 부득이한 경우도 있다.

誤字에 대한 例 誤字表示 ×

區分	原文	飜譯文	誤字數	備考
첫째	① 물체가 조금씩 움직이고 ②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빚어 냈다.	물체기 조금씩 움지이고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비저 냈다.	2 자 2 자	획수의 부족및 받침 맞춤법
둘째	① 증언을 기피하고 ② 이와같은 절차에 의한	증언을 희피하고 이와같은 절차에 론한	1 자 1 자	오역 오기
세째	국민의 의혹과	국민의 의육과	1 자	오청

2. 脫 字

國語辭典에서는 「따져 없어진 글자」로 풀이되고 있으나 〈速記 概觀〉에서는 좀더 具體的인 說明을 加해 脫字란 「記錄하지 못하였거나 飜文하지 못하여 빠진 글자」라고 풀이되고 있다.

이 경우는 速記原文의 記錄時

첫째 速記能力이 朗讀速度에 미치지 못해 原文의 기록에 漏落을 빚게되는 현상으로 速記技術硏磨의 不足과 適性에도 관계가 된다.

둘째 記錄能力은 미치고 있으나 速記原文의 飜文이 되지 않는 현상으로 이는 速記學 習得過程에는 文字의 不正確을 들 수 있고 또 速記文字의 表記의 劃線, 方向等의 誤記에서 오는 飜文의 不可能等을 들 수 있다.

세째 誤聽에 의한 경우를 들 수 있다.

脫字에 대한 例　　脫字 表示 ×

區分	原文	飜譯文	脫字數	備考
첫째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행정 기구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 ××××××××××× …있지 않느냐? ×	12자	기록 능력 미달
둘째	이러한 생각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 ×××××××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6 자	오역 또는 오기
세째	제시 하라 하는 것이고	제시 하라 는 것이고 ×	1 자	오청

3. 添　字

〈速記概觀〉에 의하면 「記錄上의 錯誤나 誤聽으로 因하여 飜文할 때 添加된 글자」로 풀이되고 있다.

이 경우는 速記原文의 記錄時

첫째 不正確한 記錄이나 正確한 記錄이 됐다 하더라도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를 분간치 못해 고의적으로 둘을 다 記錄하는 경우와

둘째 誤譯에 의한 경우로 一劃 一音의 原文을 2音 以上의 略字 또는 略法으로 飜文의 角度가 달라지는 때에 오는 현상이다.

添字에 대한 例　　添字 表示 △

區分	原文	飜譯文	添字數	誤字의 환산	備考
첫째	① 육성시키기 위해서	육성시키기 위하여 해서 △△	2 字	$\frac{2}{3}$字	고의
	②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그리고 이러한 그러한 조치는 △△△	3 字	1 字	〃
둘째	이러한 말을 하고	이러한 말씀을 하고 △	1 字	$\frac{1}{3}$字	오역
세째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렇게 까지는 할수 없고 △△	2 字	$\frac{2}{3}$字	오청

세째 역시 오청에 의한 경우이다.

이상 再強調하거니와 迅速과 正確은 速記의 生命이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實務面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 될지도 모르나 試驗이란 段階에서 글자 한자 한자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誤字, 脫字, 添字等의 發生要因 및 先例로 되어 있는 正確度 測定方法 즉 總誤字 換算 要領을 제시하였으나 이를을 「체크」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은 석연치 않은 문젯점들도 제기해 볼 수 있다.

첫째, 「오늘 가도 좋읍니다」로 된 原文을 「오늘 안가도 좋습니다」로 飜譯文이 됐을 때의 경우 現在는 添字 一字로 換算하고 있으나 正反對의 뜻을 가진 번역문이 됐기 때문에 이는 법칙에 의해 「안」은 없는 글자가 1字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勿論 添字 1字로 그리고 「오늘」 以上 「가도 좋습니다」는 誤字 6字로 해야 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는가 하면

둘째, 현재 添字 3字를 誤字 1字로 換算하고 있으나 添字에 대한 더 가혹한 규정으로 添字 2字를 誤字 1字로 換算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세째 亦是 添字에 대한 規定으로 「…하기 위해서」를 「…하기 위하여서」로 誤譯했을 때 現在는 誤譯으로 간주 誤字 1字로 「체크」하고 있으나 原文 5字에 飜譯文이 6字이므로 이는 添字 1字에 誤字 1字로 「체크」되어야 한다는 說과

네째 數詞 또는 外來語의 경우

「3295」는 「삼천이백구십오」로 原文과 記錄된 글자數는 4字가 되나 發音된 音字는 7音字이고, 「AID」는 「에이·아이·디이」로 記錄된 글자數는 3字이나 發音된 字音數는 6音字로서 물론 朗讀文이나 飜譯文은 4字 또는 3字로 같이 「체크」하면 되고 發音된 音字數는 묵시해 버릴 수도 있는 문제이나 연구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다.

다섯째 4字熟語의 경우 「東問西答」을 「西答東問」으로 바꾸어 表記했을 때 뜻은 勿論 語感 그리고 事實에 어긋나는 표현이 됐을 때의 문제와 「乾燥無味」를 「無味乾燥」로 바꾸어 表記했을 때 뜻이 바뀌지 않고 흔히 바꾸어 쓸 수 있고 문장 전체에 아무런 뜻이 바뀌거나 문젯점이 발견되지 않을 때

誤字의 「체크」방법 범위 등에 대한 것도 논의될 만한 문제가 아닌가 본다.

이상 현행 採點規定에 석연치 않은 문젯점 몇가지를 생각나는 대로 열거해 보았으나 이것이 연구과제로 채택된다면 보다 많은 결점에 대한 문젯점이 대두되리라 믿는 바이다.

끝으로 물론 국회속기과 그리고 速記士養成所 或은 私設學院 기타의 곳에서도 論議可能한 문제이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大韓速記協會에서 우선 論議되고 규정되어질 문제가 아닌가 보며 이에 대한 연구와 檢討가 되어지기를 의람되나마 당부해 두고자 한다.

第三編 外國速記概況

第1章 英 國
第2章 白耳義
第3章 瑞 西
第4章 土耳其
第5章 日 本
第6章 덴마크
第7章 美 國
第8章 INTERSTENO
第9章 U N

第三編 外國速記概況

第1章 英 國

英國은 現代議會制度를 가장 먼저 確立한 나라로서 모든 制度 하나하나가 만들어지기 까지에는 오랜 歷史的 經驗을 쌓아 왔다.

英國에 있어서 「핸서어드·스탭」(Hansard Staff)을 살피는 것이 바로 英國議會의 速記活用을 살피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 理由는 오늘날 까지 英國議會의 速記錄은 「핸서어드」速記士에 의하여 作成되고 있는 까닭이다.

이들은 公認速記士로서 英國議會의 本會議 및 公法案委員會에 있어서 進行되는 發言을 聽取 可能한 것은 모두 記錄하게 되어 있다.

英國議會의 速記錄作成 即 速記士에 의한 速記錄發刊은 約 150年의 歷史的 背景을 가지고 있으며 이 議會速記分野는 獨逸이나 日本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先進國의 制度나 文物을 받아들여 採擇한 것이 아니고 英國國民의 政治參與 乃至 議會制度確立에 대한 民權鬪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民間에서 自然發生的으로 擧論되고 研究되어 議會로 밀고 들어오게 된 것이다.

「핸서어드」는 곧 「오피시얼·리포트」(official report)速記錄公報의 代名詞로서 이것을 一般人들은 議會速記錄으로 알고 있으며 이 名稱의 由來는 1803年에 始作되어 1889年에 議會의 速記錄刊行이 文書局에 引繼되기까지 私企業의 形態로 이 速記錄을 發刊販賣하여 온 「핸서어드」家(Hansard family)에서 따온 名稱인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핸서어드·스탭」이란 「핸서어드」速記士 即 國會速記士를 指稱하며 이들 「핸서어드·스탭」은 현재 公務員의 身分을 가지고 「오피

시얼·리포트」를 作成하고 있다. 그리고 「핸서어드·멤버」라는 것은 「핸서어드」協會의 諸會員을 가리킨다.

「핸서어드」協會는 1944年 「코맨더·킹·홀」에 의하여 創始된 것으로 各分野別로 議會制度와 諸法律에 관한 모든 參考文獻을 硏究하고 網羅하는 權威있는 學術團體이며 그 構成은 「핸서어드」速記士들과 100名이 넘는 議員들 그리고 議會制度를 硏究하는 많은 學者들로 構成되어 있고 「파리멘타리·어페어스」(Parliamentary Affairs)라는 雜誌를 이 協會에서 發刊하고 있다. 또 한가지 이 「핸서어드·스텝」들은 우리나라의 國會速記士들과는 달리 國會出入記者들과 歷史的으로 紐帶를 가지고 있는바 그들은 最初에 議會의 記錄報道라는 點에서 같은 言論人의 使命을 가지고 記者와 함께 議會와 鬪爭하여 온 經歷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1771年 當時 下院은 院에서 行해진 討論에 對해서 秘密 保障을 완강히 主張해 왔다. 이 까닭은 當時만 하더라도 國民의 代表가 모인 代議機關의 王權奪取를 위한 鬪爭時期였으므로 그 討議의 內容이 君主에게 漏泄이 될 것을 싫어하던 習性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以後로 100年동안 王權보다는 議會의 權限이 擴大되고 集約되어지자 討議內容의 公開를 要求하는 國民들의 輿論이 沸騰하게 되었다. 여기에 便乘하여 「존·윌크스」等 言論界에서는 감연히 實名으로 議會記事를 報道하고 나섰다. 또한 이로 因하여 이에 同調한 「런던」市長 및 參事會員 1名이 投獄되기까지 하였으나 議會는 世論에 눌려 新聞側의 勝利를 認定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議會의 門이 開放되고 議會出入記者들은 記者席에서 議員들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取材를 하게 되었다. 이들의 取材活動은 지금의 出入記者들과는 性格이 달라 各議員의 發言內容을 忠實하게 速記術을 利用하여 그대로 써서 發表하는 사람들이었다. 바로 最近의 「핸서어드·스텝」들의 業務와 비슷하며 우리나라의 國會速記士들이 꾸미는 會議錄과 類似한 方式이었다.

1803年에 「윌리엄·코베트」는 新聞에서 報道되는 議會의 記事를 獨立시켜 「포리티컬 레지스터」紙를 議會議事 專擔新聞으로 出發시켰다. 議事內容에 대한 註를 달고 새로이 編輯하여 議會發言을 全載하여 發刊한 것이 곧 「핸서

어드」의 始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코베트」는 이 새로운 「타잎」의 議會報告를 8年에 걸려 刊行하여 全國으로부터 好評을 받고 確固한 地位를 차지하였다. 그 後 그 自身의 權利를 印刷人이었던 「토마스·카푼」에게 讓渡하였다. 「토마스·카푼」은 當時 下院議事錄(速記錄이 아니다)의 印刷者인 「루크·핸서어드」의 아들이었다. 以後 그와 그의 子孫에 의하여 約 80年間에 걸쳐 이 「리포트」가 刊行되었다.

1813年 上下 兩院은 公務員으로서 速記士를 任命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은 決議를 採擇하였다. 『議會의 「바」(Bar)나 또는 委員會에 있어서 必要할 경우 證據로서의 記錄을 作成하는 速記士 1名을 任命할 수 있다』

이로 因하여 任命된 사람은 「거니」速記法式을 創案한 「윌리엄·브러디·거니」였으나 議會自體에서 公認速記士를 採用하여 實際로 討議의 內容을 全部 記錄한 會議錄을 作成하게 된 것은 이로부터 100年後의 일이다.

1831年부터 議會에있어서 記者席에는 有能한 速記士出身 議會出入記者들로 꽉 차게 되어 當時에 「핸서어드」紙는 記者席에 速記士를 派遣하지 않고 各新聞의 議會記事를 編輯하여 定期的으로 月 2回 刊行하였으므로 누구나 價値있는 것이라고 認定은 하였으나 內容이 新聞의 複寫版같아 사람들로부터 興味를 잃음으로써 1850年代 中葉에는 破產의 徵候가 엿보였다. 이에 議會에서는 議會報道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特別委員會를 構成하여 1878年에는 議會文書局豫算에서 補助金을 줄 것을 決議하고 新聞의 記事를 補充키 위해서 會議에 出席하여 記錄하는 速記士를 雇用할 것을 「핸서어드」紙에 勸告하였다.

이로서 「핸서어드」速記士 第1號가 登場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 委員會는 「핸서어드」外에 「스테이트·오피시얼·리포트」(官公報告書)를 따로 만들지 않을 것을 決定한 것이다.

그러나 1890年 「T·C·핸서어드」는 그의 權利를 政府補助下에 運營하는 「핸서어드」印刷協會에 讓渡하였으나 記錄 및 編輯能力의 不足과 文書局에서 오는 速記士의 給料를 「콘트랙터」(請負人)가 가로채는 等의 原因으로 破產하게 되고 1892年에는 「핸서어드」라고 하는 名稱은 表題에서 사라지고 「오소라이즈드·에디션」이라는 名稱으로 바뀌어 「타임스」紙의 速記士들에 의

하여 꾸며졌다.

이것도 內容의 不充實로 文書局에 의하여 契約이 取消되고 「윌워르」의 印刷會社에 引繼되었는데 여기에서의 「리포트」作成業務는 6名의 速記士가 擔當하여 하루 15分交代로 5回정도 速記하고 縣文은 손으로 筆記하거나 「타이프라이터」로 打字하여 4~5週間마다 印刷되어 나왔다. 그러나 原稿는 發言者에게 보내져서 內容의 어떠한 訂正도 發言者에 의하여 行하여지게 되고 編輯者들은 編輯의 未熟으로 一般으로부터 蔑視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자 이 「오피시얼·리포트」는 一般 모든 사람이 거의 利用하지 않게 되었으면서도 이의 發刊에는 莫大한 費用을 消費하였다.

이러한 「리포트」의 不健全性에 대해서 1892年 議會는 또다시 委員會를 召集하고 이에 대한 打開策을 討議하여 1907年에 이 委員會에서는 「速記錄은 政府가 作成하여야 할 것」이라는 決定이 내려졌고 政府는 이 勸告를 받아들여 當時의 財務相 「허브·하우스」氏에 의하여 具體案이 提示되었다.

即『下院에 公務員의 身分을 가진 10人의 速記士와 한 사람의 長을 둘 것
討議가 行해진 다음날 午後 4時까지 速記錄이 配付될 것
訂正은 內容의 문제에 限定할 것』

이와같은 案이 提案되어 議會의 承認을 받았다.

한편 新聞界의 傾向은 過去와 같은 報道方法을 止揚하고 議會의 일에 대해서 길게 報道하지 않고 간략하게 整理하여 表現하는 描寫的 記述方法을 擇하게 되었다. 이러한 「스켓치」風의 報道로 因하여 議會로서도 이 報道의 方法과 「맷치」해야 한다고 「허브·하우스」氏는 主張하면서도 그 亦是 이런 方法은 議員들이 滿足해 하지 않는다는 것을 認定하였다. 아직까지는 「후론트벤치」의 議員을 除外한 議員의 發言은 3分之 1밖에 記錄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허브·하우스」氏는 以後 곧『口述한 全文을 받아쓰면서 이에 더하여 無用한 말을 削除하고 明瞭하게 整理한 「리포트」를 作成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1915年 議會에서는 Press Association Agency의 議院出入記者인 「제임스·돗쇼우」氏에게 새로이 「오피시얼·리포트」」의 陣容을 構成한 것을 要請하는 重大한 決定을 내렸다. 그는 이 要請을 받아들여 「오피시얼·리포트」를

正確하고 公平한 姿勢로 確立시켰다. 即 그는 速記士의 定員을 12名으로 增員하고 「타이피스트」 5名을 새로 採用함으로써 現在와 같은 「핸서어드·스탭」의 「레벨」에 到達하게끔 發展시킨 것이다.

1943年 11月 24日 當時 「에디터」인 「코놀류스」는 「오소라이즈드·에디션」 即 「오피시얼·리포트」로 名稱이 바뀐지 約 40年만에 第395號의 맨 첫 「페이지」의 「議事」라고 하는 자리밑에 적은 字로 「핸서어드」라고 집어 넣음으로써 「핸서어드」의 名稱이 復活되게 되었다.

지금까지 「핸서어드·리포트」의 歷史的 過程을 살폈거니와 最近에 「핸서어드·리포트」에 대하여 살펴보면 現在 「핸서어드·리포트」에는 두 가지가 있다. 會議時에 每日 公刊되는 「데일리 리포트」(Daily Report)와 1週日分을 綜合 編輯한 「위크리 핸서어드」(Weekly Hansard)가 있다. 勿論 一字一句 빠지지 않고 正確히 記錄된 速記錄임에는 差異가 없는 것이다.

이들 「핸서어드·리포트」를 作成하는 速記士들은 下院에 18名이 있으며 이外에 「에디터」(editor) 2名 「어시스턴트 에디터」 1名 「서브 에디터」 1名 合計 22名과 6名의 「타이피스트」가 있는데 이 「에디터」들도 모두 速記士出身이며 또 모든 速記士들은 最低 40歲以上되는 사람들이고 「타이피스트」는 말을 들으며 每分 80 乃至 100單語를 打字할 수 있는 能力者들이다.

이들 「핸서어드·스탭」들은 모두 「웨스트민스터」 宮廷管理長官廳 下에 있으며 議院內에서는 印刷 및 討議委員會(the publications and debates committee)의 監督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핸서어드·스탭」의 業務過程은 速記士가 會議室에서 15分間씩 交代하여 記錄하고 이것을 한時間정도 飜讀하면 「타이피스트」가 打字하게 되고 打字한 原稿를 10分間 校閱하는 것이다.

速記業務에 있어서 特異한 點은 交代方法으로서 첫번 記錄하는 者가 正速記士(duty reporter)가 되고 다음차례의 速記士는 副速記士(check reporter)가 되어 正速記士는 發言內容을 記錄하고 副速記士는 같이 速記하면서 議員의 姓名이나 잘 알 수 없는 文字를 「텍크」하여 正速記士에게 알려주는 役割을한다. 그後 交代時間이 되면 副速記士가 正速記士가 되며 먼저의 正速記

士는 退場하고 第3의 速記士가 副速記士가 되어 補助活動을 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이렇게 하여 原文을 記錄한 「핸서어드」速記士는 翻讀할때 一般速記士와 달리 文法이나 말의 意味, 文脈에 대해서 마음을 쓴다. 그는 機械的으로 自身의 「노트」에 씌 있는 것 그대로를 읽어나가는 것 外에는 議員이 發言한 것外의 發言事項에 대해서도 表現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發言가운데 들어난 明白한 「미스테익」(mistake)은 신중한 注意力을 가지고 訂正할 權限을 가지고 있다.

이들 速記錄의 正確性에 대하여 1949年 2月 17日 「크리프든·브라운」議長은 『「핸서어드」는 特히 正確無比한 것이다. 그들이 틀린다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좋다. 그들은 단순히 速記할 뿐만 아니라 議員의 姓名을 알아야 하고 議事節次나 案件處理등에 있어 알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速記能力이 뛰어나더라도 누구나 「핸서어드」速記士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서 나는 마음으로 부터 이들 速記士들에게 讚辭를 보낸다』고 發言하여 이들의 能力을 認定하고 勞苦를 致賀하고 있다.

實로 「핸서어드」速記士가 重大하게 誤聽을 한 것이란 거의 없다. 다만 「타이프」過程에서 誤聽이나 綴字를 잘못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도 印刷가 끝나는 過程에서 거의 發見되어 진다.

그러므로 「핸서어드」速記士의 權威는 下院의 內外를 不問하고 높이 評價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모든 「리포터」(reporter)中에서도 가장 重責을 맡아 激務를 치루고 있다는 것은 議員들이나 모든 記者들이 認定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議會의 公式的인 눈」으로서의 議長의 重要性에 그 다음가는 「議會의 公式的인 귀」(the official ear of the House)라고 指稱되어 議員들로부터 尊敬을 받고 있다.

이들 速記士들이 業務의 輻輳와 그 記錄의 重要性 그리고 어려움으로 因하여 겪은 實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어떤 速記士는 事務室밖 「데임스」江으로 速記「노트」를 내던져 燒文을 回避한 일도 있으며 「하리·아샨단」이라는 速記士는 臨終直前까지 完了하지 못한 業務를 그의 아우인 「프리데릭」에게

再口述 繕文케하여 任務를 完遂한 일도 있다. 이 「아샨단」의 義務에 대한 忠實性은 感謝의 마음으로서 사람들에게 想起되고 이 이야기는 아직도 記者席에서 생생하게 傳하여 지고 있다.

이러한 「핸서어드」 速記士들의 人員은 아직도 業務에 比較하여 不足하나 增員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缺員조차 補充이 어려워지고 있다.

원래 2次大戰前에는 下院의 新聞記者들 中에서 缺員을 補充하였다. 그들은 議會에서 오랫동안 取材活動을 하는 동안에 議事節次를 全部 理解하게 되고 議事報道에 익숙하게 되므로 「오피시얼·리포트·스탭」이 될 素材로서 適當하다고 認定받았기 때문이며 더구나 이 中에서도 더욱 信賴度와 熟練度가 높은 老練한 사람들을 任命하기 위하여 40歲以上되는 速記士를 採用하는 方法을 썼던 것이다. 그러나 戰後에 있어서 議會記者들은 取材能力과 速記能力이 一致하지 않을뿐 더러 「핸서어드」速記士의 業務에 比較하여 記者들의 業務樣相이 달라지게 되어 議會記者들로 「핸서어드」 速記士의 增員 乃至 缺員을 補充한다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그리하여 議會에서는 速記士의 養成制度가 論議되었으나 아직은 實施되지 않고 있다.

「핸서어드」速記士들의 意見은 『優秀한 速記士는 눈치가 빠르고, 行動이 敏捷하고, 國語와 사람들의 理論을 잘 理解하고, 發言 內容을 어그러뜨림이 없이 繕文하고 또 調整하는데 있어 自由로이 用語를 驅使하고 高速度의 速記를 할 수 있는 職業的 能力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핸서어드」의 速記士들은 速記力만을 重視하지 않으며 繕文에 있어서 批判的 判斷을 加할 수 있는 能力者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핸서어드·스탭」은 激務로 因한 人員의 增加와 缺員補充이 時急함을 느끼면서도 上述한 諸能力을 갖추어야 「핸서어드」의 權威를 維持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핸서어드」速記士를 採用함에 있어서 愼重을 기하고 있다.

第2章 白耳義

여기에 記述한 「白耳義의 速記敎育」은 「日本의 速記」誌에 寄稿한 「유젠·크산」氏의 記事를 그대로 轉載한다.

나는 白耳義의 速記敎育을 말하기 前에 내가 發起人이 되어 設立한 速記者 及 秘書의 「유니온」 C.B.S.S.C의 25年의 事情을 말해 주고자 한다.

設立當初 우리들 「유니온」의 構成, 「멤버」는 거의가 不完全한 狀態에 있는 各種團體의 代表者들이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戰後에 바로 速記敎育을 再開할 수 있었다는데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當然하다고 할 수 있겠다.

終戰直後의 우리 速記界는 아주 貧血狀態로 議會事務局에서도 速記士를 찾기에 무척 애를 썼다. 어느 上院議員이 「겨우 찾던 것(速記士)을 찾아냈다!」라고 말 했다는 얘기는 當時 우리들이 埋沒되어 있던 凋落相을 바로 表現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優秀한 速記士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社會의 需要에 應하기에는 너무나 少數였다.

그러나 過去의 感傷은 그만두자.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現在는 滿足할만하고 將來는 더욱 約束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 白耳義의 敎育制度

速記敎育에 대한 얘기의 前提로 먼저 白耳義의 敎育制度 全般의 特徵을 얘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敎育制度는 憲法上의 權利 即 「敎育自由」의 權利에 由來하고 있다. 때문에 몇가지 長點과 短點을 同時에 갖고 있는데 長點으로서는 各學校間의 自由競爭에 의해 끊임없는 向上이 圖謀되고 對抗에 의해 積極的인 敎育意慾이 涵養되고 있다는 點 등이며 短點으로서는 누구든지 敎育에 參加할 수 있기 때문에 곱추같은 者들이 體育을 가르치고 〔ʒ〕를 〔z〕로, 〔ʃ〕를 〔s〕로 이와같이 發音이 不正確한 者가 雄辯術을 가르치는 것도 可能케 하는 等의 모순이 있다.

물째 우리 白耳義는 두種類의 國語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이는 당연히 敎育活動의 統一에 「마이너스」를 가져온다. 佛語(와론方言)를 쓰는 國民은 佛蘭西에서 만들어진 「메소오드」를 主로 採用하고 우리들 「후라만」語(和蘭語方言) 國民은 和蘭式의 것을 즐거한다. 그러나 이것이 統一的으로 確立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和蘭式에는 佛蘭西式도 많이 섞여있는 實情이다.

(註) 1963年 8月에 言語境界가 設定되었는데 比率은 「후라만」語 55.4%(北部의 후란돌地方 約 5백26만名) 佛語 32.7%(南部 와로니에 地方 約 3백10만名) 獨語 0.6%(東部) 併用 11.3%로 「후라만」人의 勢力이 늘어나고 있다.

세째로 몇가지의 敎育形態가 共存하고 있다.

① 國, 道, 市, 洞, 村立의 이른바 公立學校

② 敎會附屬學校

③ 私立學校. 특히 國家의 認可를 받고 補助金(敎員의 俸給이나 經常費에 充當)을 交付받을 때에는 「認可學校」라고 한다.

④ 學生의 事情에 應해서 「푸로그램」을 짜서 適當한 時間에 공부하는 個人敎授「시스템」 또는 通信敎育方法도 있어서 상당한 成果를 거두고 있다.

以上이 우리 白耳義의 敎育制度 槪要이다.

나. 過去의 速記敎育

그러면 白耳義의 速記가 어떻게 普及되어 왔는가 그 背景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우리나라에 普及되어 있는 速記法式은 「에메·파리」(Aim éParis)式 70%, 「쁘레보·듀로네」(prèvost-delaunay)式 15%, 「듀푸로와에」(duployèet)式 및 「그루푸」(groote)式 10%, 其他로 되어 있다.

(註) 「에메·파리」式 「듀푸로와에」式等 佛語 諸方式은 「가벨스버거」式等의 草書派(Cursive)와 區別해서 幾何線派(géometrique)라고 일컬어진다.

議會에서의 速記는 1847年부터 시작되었으나 速記가 우리나라에 普及되기 始作한 것은 今世紀에 들어와서 부터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民間人에게 맡겨져 있었다. 「偉大한 小說家는 死後에도 계속 사람들을 感化시키는 것이다」라는 「괴테」의 말이 眞實이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에서 지난날 速記分野에 있어서 한 時代를 劃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 影響을 미치

고 있는 몇 先人들의 이름을 列記할 수 있다.

即 「J·메스만」(1897年에 l'institut national de stènographie를 創立, 에메·파리式), 「O·가레」(에메·파리式), 「A·드·바엘드마크」(듀푸로와에式), 「G·로크너」(쁘레보·듀로네式)의 諸氏이다.

이들 開拓者中에서도 「J·메스만」은 그 時代의 가장 熱烈한 啓蒙家였다. 그는 많은 學校에서 그의 法式을 가르치고 成功했다. 國家가 이 分野에 손을 대게된 것은 그 훨씬 뒤의 일이다. 國立의 諸學校에서 速記를 授業科目에 넣은 날짜는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 1910年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곧 速記敎育은 經驗主義에 支配되어 敎師 各自가 되는대로 自己나름의 方法을 取했기 때문에 素質이 있는 學生의 「에네르기」도 그 때문에 헛되히 消費하게 되어 速記敎育者의 情熱은 消散하여 「速記敎育界는 바야흐로 憲法없는 國家다」(E·크샨著 速記의 歷史中)라고까지 말해 왔다. 兩次大戰에 끼였던 時期는 또 「아마추어리즘」과 商業主義때문에 資格免狀(diplôme)의 無秩序化를 가져온 때도 있었다. 그 無定見한 濫發은 速記自體의 값어치를 떨어뜨렸다. 使用者側에서도 곧 이 免狀의 無價値한 것에 눈치를 채게되어 부득이 速記者代身 機械錄音을 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1946年 내가 速記敎師大會의 司會를 맡았을 때에 다음과 같은 警告를 한 일을 지금도 記憶하고 있다. 「앞으로 10年 또는 15年사이에 速記를 아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여러분이 願한다면 아무쪼록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십시오」라고……우리들의 苦悶은 결국 「베터런」速記敎師의 殆不足이라는 點이었다. 國家에서는 그에 대한 措置로서 多少나마 速記를 알고 있다 하면 一般敎科의 敎師라도 在職한채로 速記敎師로 돌렸으나 速記는 大部分의 學校가 選擇科目이었기 때문에 配當된 授業時間은 極히 적었고 여기에서 쉽게 想像될 수 있는바와 같이 所期의 成果를 거둘 수는 없었다.

다. 오늘날의 速記敎育

速記의 現在는 많은 中學校, 實業學校, 定時制 商業科의 正規科目으로 들어가 있다. 實業學校에서는 과거에 選擇科目이었던 速記가 지금은 必須科目(大槪 1週 2時間)으로 되어 있다.

速記教師의 採用은 適性檢査에 의해서 施行되고 있다. 그것은 教師의 水準을 向上시키는 데에는 賢明한 措置였으나 志願者가 너무나 적었다. 그래서 우리 「유니온」(協會)은 速記教師養成을 위한 標準「코오스」試案을 作成하여 提唱하였다. 이 試案은 곧 「익셀」郡(「부뤗셀」近郊) 當局者의 贊同을 1次로 얻어 後援을 받았다(1945年 5月 25日) 그「프로그램」의 概要는 다음과 같다.

① 어느 한 法式에 對하여 깊이 연구할 것
② 普及 宣傳方法의 比較研究
③ 速記의 歷史와 進步의 研究
④ 他法式의 研究
⑤ 選擇한 法式에 대하여 批判的으로 研究할 것
⑥ 教師 及 專門家用의 技術
⑦ 速記教育方法論
⑧ 商業通信
⑨ 商業文 商法 及 實務
⑩ 心理學一般(選擇科目)

거기에다 受講者는 速記에 대하여 選擇한 題目으로 「리포트」를 作成하고 最後로 速記實技(分速 100 word=180씨러블)의 關門을 거쳐 速記教師의 資格免狀이 授與된다. 養成「코오스」의 年限은 2年 法式은 不問이다. 受講資格은 高等中學(12歲~18歲)에서 商學을 배운 學生 或은 國民學校의 人文科學教師로서 21歲以上의 者로 되어 있다.

이러한 試案이 12年이 지난 1957年 10月 11日 勅令에 依하여 速記教師 資格에 關한 特別法으로 制定되었다. 그때부터 우리의 試案이 公認되어 우리들이 特別法에 의한 資格試驗 受驗者의 가장 有力한 供給源이 된 셈이다. 實際 우리들의 教育은 커다란 成果를 올려 少數의 例外를 除하고는 大部分의 受講者가 資格試驗에 「패스」하고 있다.

特別法에 의한 資格試驗은 우리들이 생각한 것과 거의 같은 것으로서 受驗者는 다음 法式中에서 하나를 選擇하게 되어 있다. 「에메·파리」式 또는 그 派生的法式 「쁘레보·듀로네」式, 「듀푸로와에」式 및 「그루브」式, 우리들

은 標準「코오스」의 講義要目을 編成해 놓고 있는데 그 中에서도 速記教育方法論은 가장 잘 整備되어 있어 이미 몇個 國家의 同志들이 이를 採用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速記教育의 概要를 客觀的으로 傳했다고 생각한다.

라. 來日을 위하여

우리들은 白耳義速記教育의 唯一한 權威者라고 主唱한다든지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들이 言語, 思想, 法式을 不問하고 各方面의 同僚들과 같이 有益한 活動을 해온 것만은 누구에게도 異論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들의 活動은 앞으로도 끊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速記의 將來에 대해서 疑視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現在의 우리들에게는 團結만이 速記의 永續性을 保障할 것이다』라고….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義務가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參與가 必要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目的은 速記教師의 要求하는 物質的 利益을 保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職業的 價値回復을 期하는데에도 目的이 있다. 과거에는 速記「크라스」도 모자라고 教師도 모자라는 狀態였으나 이제는 그것들이 해결되었다. 이제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제부터 經濟機構에 끼어들어가는 젊은 學生들의 일이다.

마. 結　言

우리나라의 젊은 速記者의 實力은 E.E.C의 同僚들과 훌륭히 어깨를 겨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아서 우리가 그들에게 外國의 同僚들과 交流를 권장하는 중요한 理由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速記를 보다 깊이 연마할 必要를 느끼고 速記者가 決코 孤獨한 職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거기다가 速記法의 根本이 綴字法과 一般教養에 있다고 할때 外國語의 공부가 오늘날의 緊急課題라는 것을 認識해 주었으면 싶어서이다.

第3章　瑞　　西

이 글은「日本의 速記」誌에 揭載한「안리・다소」의 寄稿內容을 轉載한 것

이다.

——ASSAP(瑞西「에메·파리」速記協會)의 歷史——

本誌(「르·스테노그라프」)創刊의 해 1845年當時 即 19世紀末은 「라·베루·에포크」(太平時代)라고 보통 일컬어져 왔다. 그것은 이러한 時代였다.

사람들은 太平盛代를 謳歌하며 誇張된 書簡體의 詩가 流行하고 밑도 끝도 없는 文體가 판리고 파고드는 줄거리의 小說이 愛好되었다. 商業通信文까지도 그러한 誇張된 빙빙도는 語套의 趣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 饒舌體 全盛時代에 이어 나타난 것이 筆記技術 即 우리들이 從事하고 있는 分野 速記의 研究家들이었다.

歐羅巴에서는 古代에서부터 「티로」式 速記가 쓰여져왔다. 「시세로」가 그의 解放奴隷書生 「티로」에게 紀元前 63年頃 考案 使用시킨 「라틴」語의 速記法이며 그 紀元은 「희랍」에서 찾을 수 있다. 뒤에 「세네카」에 의해 改良되어 主로 宗教關係에서 使用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不完全한 것이었다.

歐羅巴諸國에 참으로 近代的인 速記法이 나타난 것은 19世紀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19世紀가 되어 佛語關係에서는 세가지의 方式이 일어났다. 即 「듀푸로와에」, 「쁘레보·듀로네」, 「에메·파리」이다. 「에메·파리」式의 創案者 「에메·파리」(Aimè Paris)는 1798年에 西部佛蘭西의 「캄펠」에서 태어났다. 그는 「에폴·포리테크닉」(理工科大學)에 入學할 꿈을 품고 공부를 계속했으나 中途에서 方針을 變更 辯護士가 되기 위해 「코레쥬」(人文系大學)에 入學 卒業後 辯護士가 되었다.

그러나 寡婦나 孤兒들이나 지키게 된 辯護士職을 그는 곧 그만두게 되었다. 그는 그가 辯護를 해서 無罪가 된 窃盜가 辯護士「파리」에게 答禮人事次 찾아온 그 자리에서 恩人「파리」의 모자를 훔쳐갔다. 이 일은 그로부터 辯護士라는 職業에 대한 情熱을 앗아갔다.

그때 우연히 그는 速記에 關心을 갖고 처음에 「테일러」式 이어서 「푸레페안」系의 「코난」式을 배우기 始作했다. 거기서 辯護士服을 벗어버린 後 그는 드디어 「쿠리에후란세」(佛蘭西通信社) 또 다음으로 「콘스티튜쇼낼」社의 速記者로서 入社를 했다.

그의 速記에 의한 收入은 점점 그가 自力으로 完成시킨 速記方式의 宣傳普及에 投入이 되어갔다. (그가 소위 「에메·파리」式을 完成한 것은 1822年 그의 나이 25歲때라고 傳해지고 있다)

1827年 그의 速記에의 情熱은 그를 瑞西의 「로잔느」及 「쥬네브」에 向하게 하였다. 瑞西 各地에서 그는 講演會를 열었다. 그의 講演에 感銘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그의 速記法을 배울 것을 希望했다. 그들은 瑞西의 佛語地方에 그것을 導入시키기 위해 研究會를 만들었다.

나는 여기에서 瑞西速記協會(I'Union Stènographique Suisse)에 대한 얘기를 記述해 두고자 한다. 이 團體는 1883年에 「듀프로와에」式 關係者에 의해서 組織이 되었다. 따라서 87年까지는 瑞西速記協會의 會員이 使用하는 速記法式은 모두 「듀프로와에」式이었다. 87年 7月7日 이날을 期하여 協會는 各速記方式의 比較研究의 결과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 「에메·파리」式을 協會가 스스로 普及宣傳에 힘쓸만한 速記法式으로 選定할 것을 결정했다. 그것은 가장 單純, 가장 明快, 가장 容易, 가장 論理的이라는데 理由가 있었다.

우리들 「에메·파리」式 速記者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사람 「오귀스트·두이에=웨버」(1858~1908)도 처음에는 「듀프로와에」 式이었으나 그와 그의 同僚들은 途中에서 同式을 버리고 「에메·파리」式으로 옮겼다. 그는 可能한 모든 機會를 놓치지 않고 「에메·파리」式의 眞價를 사람들에게 알리기에 努力을 했다. 『萬人이 받아들일 수 있는 唯一한 速記法 그것이 바로 「에메·파리」式이다』라고 그는 썼다.

「쥬네브」에서 몇사람 有志의 손으로 雜誌 「에코·스테노그라픽」의 發行이 企劃된 것도 「에메·파리」式의 眞價를 世上에 널리 特히 佛語地方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雜誌의 第1號는 1894年 1月에 나왔다. (우리들은 그날로 부터 헤어서 75年째의 今年 이와같은 記念號를 내고 있다)

雜誌의 初代編輯長은 누구였는지 유감스럽게도 그 記念할만한 創刊號를 잃은 오늘날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 企劃者 創業者가 「쥬네브」사람들이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1894年 5月29日 瑞西速記協會는 「로잔느」에서 會合을 얻고 「에코·스테노그라픽」을 協會의 公式機關紙로 할 것을 決定했다.

1934年에 이르러 全國의 「에메·파리」式 速記者가 集結하여 「瑞西 에메·파리速記協會」가 發足되었다. 그와 同時에 機關紙로 綠色 「마크」의 「에코·스테노그래픽」에서 灰青色의 「마크」인 「르·스테노그라프」로 名稱을 變更 오늘날에 이르렀다.

速記는 知識人 責任있는 職業人의 ABC가 된다. 速記는 그들에게 있어 極히 可用價値가 높은 補助的 筆記法 ——文字로 代置되지는 않을는지——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75年째를 맞은 「르·스테노그라프」는 지금까지도 그랬던 바와같이 가까운 將來에 提起될 諸問題에 關心을 계속갖고 또 그로써 速記에 關心을 품은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읽혀질 것이다.

歐羅巴의 心臟部에 位置한 瑞西는 特히 저 有名한 赤十字(本部가 「쥬네브」에 있다)의 存在 及 敎育機關의 數가 많은 것으로 世界에서도 확실히 有力한 國家로 있어 왔다.

各各의 地方마다 네가지의 言語가 公用語로서 認定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速記敎育은 그 搖籃期에 佛蘭西 及 獨逸의 速記 各流派의 영향을 받았다.

네가지의 言語란 即 獨語(全人口의 70%) 佛語(19%) 伊語(10%) 「레트·로망」語(1%) (世俗「라틴」語에서 派生하여 伊語와 쉬인 「로망」語系의 말)이나 各地, 各市, 邑, 面마다 各各 無數한 方言이 쓰여지고 있다.

——各言語區에의 速記의 移入狀況——

○ 獨逸語區·伊太利語區

1854年頃 獨語區에 먼저 「가벨스버거」式 이어서 「슈톨째」式이 紹介되었다. 兩法式 共히 普通文字에 準하는 書法(「로마」字筆記體에 準하는 斜線을 使用)의 草書派이다. 1897年 「슈톨째」式과 「슈라이」式이 合體했다. 當時에서 오늘날까지 獨語區에서 行해지고 있는 것은 이 「슈톨째—슈라이」式이다. 瑞西 「슈톨째—슈라이」 速記協會는 同 速記法式을 瑞西 最南部의 「테시노」州(伊語區)에 普及시키기 위해서 獨語速記를 伊語로 應用해 볼 것을 생각했

다. 그러나 極히 興味있는 것은 「슈돌째=슈라이」式 伊語速記學校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伊語區에 있어서 安定된 地位를 잡기에 成功을 거두지 못했다.

○ 佛蘭西語區

「에메·파리」가 瑞西에서 最初의 速記講習會를 開催한 것은 1830年頃의 일이다. 그로부터 40年쯤 지난 1870年頃 「에메·파리」式보다 大衆的인 佛語速記法인 「아메·듀푸로와에」式의 流行의 물결에 영향을 받아 多數의 速記者가 同法式의 敎師가 되었다. 여기에 대하여 「에메·파리」式의 速記者들은 1887年以來 스스로의 法式의 熱烈한 擁護者 卓越한 布敎者가 되어 「에메·파리」式 速記發展에 盡力했다.

그들은 그 眞摯한 活動을 通해서 速記者뿐만 아니라 敎授者 거기의 行政當局의 信賴를 獲得하기에 足한 組織力을 發揮했다.

1934年이 되어 再編된 瑞西 「에메·파리」 速記協會(ASSAP)는 「듀프로와에」式의 速記學校關係를 除外한 瑞西의 佛語速記關係者(大部分)「에메·파리」式의 사람들)의 大多數를 ASSAP밑에 糾合하는데 成功했다.

1941年 「말셀·라씨누」氏(「인터스테노」事務總長, 「에메·파리」式 速記敎授는 「슈돌째—슈라이」 速記協會의 同僚들에게 示唆되어 速記敎育과 實務에 關한 極히 活動的인 機關을 設立했다. 그것이 세가지 方式(「에메·파리」, 「듀프로와에」, 「슈돌째—슈라이」)의 指導者들을 모두어 만든 瑞西速記評議會이다.

이 機關에 의한 사람들의 協助와 協力이 過去에 있어서 3方式間에 存在하던 軋轢을 解消시키는데 成功했다.

第4章 土耳其

다음에 揭載한 글은 「이히산·에넬」이 「日本의 速記」雜誌에 寄稿한 內容을 譯載한 것이다.

623年間에 이르는 「오스만」帝國의 「슬단」制가 廢止되고 土耳其에 共和制

가 宣言된 것은 1923年 10月의 일이다.

共和國 發足과 同時에 初代大統領에 就任한 「무스타파·게발·파샤」는 近代國家建設을 向해 모든 方面에 걸쳐 舊制度의 改革에 着手했다. 그 當時에 斷行된 여러가지 重要한 改革中에서 政治와 宗教의 分離等과 함께 特記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1928年의 文字改革이다.

帝國時代의 言語(「오스만」語)에 代身하여 採用된 共和國語의 特徵은 우선 語彙가 현저히 바뀐 것(佛語等의 유럽語를 많이 借用하고 死語를 復活시킨다든지 새로운 複合語를 만든다든지 했다)과 同年의 文字改革에 의하여 「아라비아」文字 대신 新「라틴」字母가 採用된 일이다. 共和國 國語의 定着試驗 特히 後者의 文字改革은 완전히 成功하였다.

이 文字改革과 거의 같은 時期에 「이스탄불」사람 「아브람·베나로이야」는 土耳其에 近代的 速記法式을 導入하고자 「쁘레보·듀로네」式(佛語速記法)의 諧法則을 따오면서 「듀푸로와에」式을 土耳其語에 適用하고자 試圖했다. 帝國時代의 土耳其에는 國內에서 速記를 必要로 하는 社會的 條件이 具備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 또는 「아라비아」文字가 말하자면 有效한 速記文字였다는 것 等 때문에 이 「베나로이야」의 試圖 以前에 土耳其에 近代的 速記法式이 일어날 條件은 없었다. 「베나로이야」의 企圖는 成功을 거두어 42年까지의 10有餘年間에 그의 速記法式은 土耳其國民議會 事務局에서 採用되고 또 國立의 各商業高等學校에서도 그 速記法式을 가르치도록 되었다.

「듀푸로와에」式이 導入된 當初 土耳其語의 「라틴」字母表記의 形態에 맞추어서 速記符號의 쓰는 原則이 다음과 같이 定해졌다.

① 發音〈an, en, in, In〉은 母音符號를 진하게 쓴다(濃淡法).

② 말의 처음 音節中의 連音〈ar, er, ir, Ir〉은 母音符號를 擴大해서 表示한다.

③ 語尾의 連音〈ar, er, ir, Ir〉은 그 말의 符號의 末尾를 擴大해서 表示한다.

여기에다 42年에 速記教授者委員會는 다음과 같은 原則을 添加했다.

④ 語頭의 母音은 省略할 수 가있다. 語尾의 母音도 같다(母音短縮法).

처음에는 土耳其語 獨特의 音이나 말에 맞추어 歐美의 速記法에 없는 特殊한 速記符號가 몇인가 使用되어 왔으나 배우기가 困難했기 때문에 4原則에 의거하여 점차 改良이 加해져서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다.

42年의 改良時 「핏트맨」式(英語速記法)의 速記符號가 얼마간 採用되어 55年까지의 사이에 점차 「핏트맨」式의 比重이 늘어나는 端緖를 만들었다. 또 最近에 와서는 새로이 「그레그」式(美語速記法)의 採用이 檢討되어 現在 몇군데 書記官養成所에서 實驗的으로 「핏트맨」式을 主로 한 在來式方法에 添加해서 「그레그」式이 敎授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兩方式에 대한 學生의 進度 敎育上의 문젯點 等의 科學的인 比較檢討가 계속되고 있다.

「그레그」式의 長點은 在來의 土耳其語速記法에 比해서 半草書體이기 때문에 符號를 連續해서 쓸 수가 있어 「스피드」에 便乘할 수 있다는 點에 있다.

(註) 土耳其語=狹義의 土耳其語는 土耳其共和國의 言語를 말하지만 廣義의 土耳其語(투르크語라함)는 쏘련, 이란, 이락, 아프가니스탄, 불가리아, 루마니아, 희랍, 유고, 키프로스, 씨리아, 레바논, 이집트, 中國(新疆省)에 居住하는 土耳其人 乃至 土耳其系 住民間에 使用되어 土耳其語人口는 土耳其共和國內의 2,400萬人(人口의 約 88%)外에 各地域에서 4,600萬人以上으로 推定되고 있다.

土耳其語는 「우랄 알타이」語族에 屬하여 日語, 蒙古語, 항가리語, 핀랜드語를 비롯 韓國語도 同系統의 言語로써 그 特徵으로서는

① 母音調和가 嚴密하고 整然하다.

② 自己가 經驗한 過去와 自己가 經驗하지 않은 過去를 別種의 動詞語尾로 區別하고 있다.

③ 進行을 表하는 動詞語尾가 있다.

④ 語彙의 大部分을 外來語가 차지하고 있다. 從來에는 아랍語, 페루샤語, 最近에는 佛語가 많다. 等等을 들 수 있다.

그리고 土耳其國內의 言語分布는 土耳其語 88.3%, 쿠르語 7.8%以上, 아랍語 1.3%, 희랍語 0.4%, 其他(알메니아, 헤브라이, 라즈等) 2.2%以下라고 한다.

第5章 日 本

가. 日本速記의 發展過程

1972年으로써 日本速記發表 90週年이 된다. 1882年에 田鎖綱紀에 依해서 當時의 時事新報에 「傍聽記錄法」이라는 論文을 發表하고 이어 同年 10月 28日부터 第1回 速記講習會를 開催한 것이 日本速記의 最初이며 따라서 日本速記界에서는 每年 10月 28日을 速記發表記念日로 定하여 記念行事를 하고 있다.

日本速記의 發展過程을 大體로 5期로 區分하여 그 時代別 特色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第1期는

明治初年(1868年)부터 明治 23年(1890年) 帝國議會 成立과 同時에 速記가 採擇될 때까지의 期間이다. 이 期間동안에 日本에 歐羅巴 等의 速記가 紹介되어 日本速記가 研究되기 始作하여 田鎖綱紀의 速記講習會가 열렸으며 速記實務者가 社會에 나오기 始作하였다. 그러므로 이 期間을 日本速記의 成立期라고 할 수 있다.

② 第2期는

第1回 帝國議會에서 記錄을 始作한 때로부터 明治末年(1911年)까지의 期間이다.

이 期間동안에 日本速記는 帝國議會를 中心으로 하여 基盤을 鞏固히 하고 地方議會로의 進出로 次次 幅이 넓어지고 또한 새로운 利用分野로 新聞社의 電話速記가 始作되었으며 따라서 速記士의 數도 漸次로 늘어났다. 速記法式도 從來의 田鎖綱紀式 以外에 두서너가지가 考案 發表되었으며 速記實務가 순조로이 發展한 時期이다.

③ 第3期는

大正時代(1912年~1925年)인데 이時期는 速記가 敎育面으로 發展한 時代이다.

貴族院 衆議院 兩院에 各各 速記士의 養成機關이 생김으로써 速記敎育이 一層 活潑하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法式이 發展됨에 따라 速記의 一般에

대한 普及이 積極的으로 行해졌다.

한편 速記料金의 協定問題를 發端으로 日本速記協會가 생겼으며 이로써 日本速記界의 統一이 이루어진 時期라고 할 수 있다.

④ 第4期는

昭和初年부터 2次大戰까지(1926年~1945年)를 잡아본 時期이다. 이 期間 동안에 日本速記界는 裁判記錄과 速記士法으로써 活路를 開拓하려고 했으나 成功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一般新聞이나 雜誌系統에서 座談會가 盛行하여 速記의 커다란 需要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中等學校를 中心으로 普及을 始作했으며 通信敎育도 始作되었다.

日本速記協會에서도 技術試驗을 施行하여 技術水準의 向上에 努力하고 한편으로는 速記의 科學的 硏究도 행하여 졌다. 이期間을 通하여 보면 速記界가 內部의 整理에 努力한 時期라고 볼 수 있다.

⑤ 第5期는

世界第二次大戰 末期부터 今日까지(1945年~1968年)의 期間이다. 이 期間에 日本速記界가 美國文化의 影響을 받아 크게 飛躍하게 되었다.

大望하던 裁判記錄도 速「타이프」라는 機械速記를 採用하게 되어 實務를 하게 되었으며 그外에 速記敎育의 擴大라든지 速記法式의 普及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어느 時期보다도 많은 速記士가 活躍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速記關係에 機械가 積極的으로 活用된 것이 이 時期의 커다란 特色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日本速記文化 興隆의 時代라고 말할 수 있다.

나. 日本速記의 法式構成

以上과 같은 過程을 걸어온 日本速記는 그 種類에 있어서 現在 70餘 法式이 있다.

이를 流派別로 나누어보면 正圓派는 幾何學的인 線을 利用한 것으로써 最初로 實用化한 것이 田鎖式이 Pitman系의 Graham式을 基礎로 하였는 바 그後 改正增補되어 왔다. 現在 널리 使用되고 있는 早稻田式, 衆議院式, 參議院式, 熊崎式, 中根式等이 그것이다.

斜線派는 「로마」字의 筆記體를 整理하여 左下右上의 斜線劃을 基礎로 하였다. 田鎭系의 若林系列에 依하여 一部 利用되어 毛利式에 이르러 全面的으로 採用되었다.

毛利式이 基礎로 한 것은 Faulmann式(獨語)이다. 現在 實用化하는 것은 毛利式뿐이다.

楕圓派는 正圓派와 斜線派를 折衷한 것으로서 이 派에 屬하는 것으로는 宅間式 酒井式等이 있는바 이는 Gregg式(英)을 基礎로 하였다. 또한 正圓派의 系統에 屬하는 側에서도 積極的으로 使用하려 하여 田鎭系의 森山式 中根系의 口字式等이 現在 이를 使用하고 있다.

다. 日本速記界의 現況

① 概 觀

日本 全體의 速記人口를 보면 旣成速記士가 大略 5千餘名으로 推算되며 全國 各種 敎育機關에서 速記를 習得中인 者는 約 2萬餘名에 達하고 있다.

1967年度에 日本速記協會에서 實施한 第3回 檢定試驗의 志願者數는 3,403名이었고 이 中에 合格者數는 1,258名에 達하였는데 이는 日本速記界의 急激한 發展相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日本速記界는 速記의 社會的 評價의 向上을 圖謀하기 爲한 文化團體인 社團法人 日本速記協會와 速記人의 地位向上과 福利增進을 圖謀하기 爲한 各地方의 速記士會와 이를 聯合한 全國速記士團體聯合會의 二元的인 速記團體의 組織을 中心으로 活動하고 있다.

② 速記利用分野

專屬速記士를 두고 있는 機關으로서는 衆議院事務局, 參議院事務局, 東京地方裁判所等에 各各 150餘名씩의 速記士가 있고 民間機關으로는 共同通信의 本社와 全國 各地의 支社 支局을 包含하여 總計 150餘名 其他 官廳에 있어서는 各地方裁判所, 高等裁判所, 都, 道, 府, 縣, 市議會等 地方議會와 民間에 있어서는 朝日, 每日, 讀賣를 爲始한 各新聞社 放送局等에 많은 專屬速記士가 活躍하고 있으며 自由速記士로서는 速記事務所를 두고 있는 것이 普通이다.

速記事務所中에는 株式會社도 있으며 專屬印刷所를 가지고 있는데도 있다. 그 需要의 筆頭는 雜誌關係와 各種團體의 總會等을 擔當하고 있으며 特히 醫學專門速記事務所라는 것이 있어서 速記의 專門化를 期하고 있다.

速記事務所의 代表的인 會社를 보면 共立速記印刷株式會社, 東京速記株式會社, 澤速記株式會社, 「아다고」速記株式會社等이 있는데 이들 會社는 各各 20名內外의 速記士를 雇用하여 速記 依賴가 오면 全體人員이 動員되어 10分乃至 20分交代로 速記錄을 作成하고 協定된 速記料金을 받고 있다.

共立速記印刷株式會社의 境遇는 直接 孔版印刷施設까지 設備하여 需要者의 要請에 따라 速記錄을 印刷 納品하고 있다.

以上은 職業速記의 分野이나 實地 速記의 習得者가 모두 職業速記士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速記라는 길이 다른 職業보다도 日常生活에 여러가지로 活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日本에 있어서도 歐美式 執務法의 採用으로 一般官廳이나 實業界에 있어서의 事務的 利用이 盛行하고 있다. 그것은 書類나 往復文書의 口述速記이며 「타이피스트」를 兼한 文書作成事務가 넓어진 것이다.

秘書가 되면 電話나 傳言 或은 應接 交涉等의 「메모」에도 活用되고있다.

③ 速記敎育現況

專屬速記士養成機關을 가지고 있는 機關은 衆議院, 參議院과 裁判所가 있다. 現在 參議院에서는 速記士의 公募를 하고 있지 않으나 衆議院에서는 一般公募의 길이 터있어 衆議院의 速記士는 養成所 出身만이 아니다.

最高裁判所 書記官硏修所의 速記硏修生은 卒業後 모두 裁判所速記官으로 採用되어 現在 裁判所速記官은 모두 硏修所의 卒業生만으로 構成되어 있다. 그것은 裁判速記의 執務法이 速記打字의 使用을 前提로 하고있기 때문이다.

民間速記學校로는 速記를 專門으로 하고 있는 곳이 東京에는 早稻田速記學校와 中根速記學校, 大阪에 山根速記學校, 神戶에 神戶速記學校, 弘田에 川村速記學校等이 있다. 이들은 本科 1年과 硏究科 1年의 課程을 두고 있다.

이 中에 中根速記法式은 中根速記協會를 組織하여 全國에 支部를 두고 있으며 特히 一般學生에의 普及에 努力하고 있으며 文部省後援으로 全國高等

學校 中根式速記競技大會를 열고 있다. 또한 早稻田速記法式에서는 早稻田速記普及協會에서 「早稻田速記講座」를 刊行하여 通信敎育에 確固한 基盤을 가지고 있다.

最近에는 早稻田速記 「라디오」 講座에 依해서 「라디오」 放送도 活用하고 있으며 早稻田速記의 通信講義 受講志願者가 年間 100萬에 達하고 이 中에 4~50萬名이 繼續 受講하고 있다.

東京都內 9個 出版社에서 速記獨習書가 18種이 나왔는데 이들 獨習書가 67年度에 4萬5千卷이 팔렸다.

其他 普及에 努力하고 있는 速記法式은 다음과 같다.

田鎭 76年式, 山根式, 石村式, 熊崎式, 牧式, 米田式等이 있으며 이들 中에는 成人學校의 科目인 秘書養成課程에서 敎授하고 있는 것도 있으며 또 短期講習會나 私塾도 많다. 또 一般敎育中에는 高等學校 商業科에 2個年間 每週 2時間의 選擇科目으로 速記가 採擇되고 있으며 中學校의 選擇科目中에서도 速記를 採擇하고 있는 學校가 많다.

④ 全國速記士 人員數 및 就業分布(資料未備로 1965. 2. 4 現在)

ㄱ. 全國速記士 人員數

手筆速記士	3,500餘名
法院從事 打字速記士	600餘名
計	4,100餘名

(註) 國會速記者採 用基準合格者와 同等以上의 速記技能을 가진者는 國會速記士를 包含하여 全體의 約 20%~30%의 程度로 推定됨

ㄴ. 速記法式別就業比率(全國 70餘種)

衆 議 院 式	14.9%
參 議 院 式	14.0%
速記打字式(裁判所)	18.0%
早 稻 田 式	19.4%
中 根 式	14.6%
熊 崎 式	4.8%

田	鎖 式	3.1%
佃	式	2.4%
山	根 式	1.4%
日	速 研 式	0.4%
其	他(60餘種)	7.0%

ㄷ. 職業別 就業分布

議會關係(國會와 地方議會)	1,106名
裁判所關係	617名
新聞通信社·放送關係	857名
速記會社·事務所關係	218名
速記學校 敎授關係	41名
一般會社·其他	576名
計	3,415名

라. 日本速記協會의 實態

① 沿革 및 槪觀

日本速記協會는 國民의 書記能力을 增進하고 記錄事務의 能率化를 期하기 爲하여 速記의 普及發達과 그 利用分野의 開發에 힘쓰며 速記技能者의 技術水準 및 社會的 評價의 向上에 供하는 諸事業을 行하여 日本의 文化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1920年 5月에 結成되었다.

1882年 田鎖網紀에 依하여 日本速記가 最初로 發表된 以來 1920年 日本速記協會가 結成되기 까지의 速記團體의 興亡을 보면 다음과 같다.

1889年 11月 速記者懇談會結成 1892年 7月 解散

1894年 10月 速記同志會結成 1903年 解散

1907年 9月 日本速記會結成 1912年 4月 活動停止

1918年 5月 中央速記會結成

1919年 4月 東京速記協會結成

1920年 5月 中央速記會와 東京速記會가 合併하여 日本速記協會結成

1918年에 結成된 中央速記會는 衆議院의 少壯速記士가 中心이 되어 結成

하였으며 1919年에 結成된 東京速記協會는 貴族院의 有志速記士가 中心이 되어 結成하였던바 1920年 兩團體가 合併하여 現在의 日本速記協會가 結成된 것이다.

當時 日本速記協會가 結成된 動機는 料金協定이 重要目的이었다. 當時의 速記料金은 한時間當 3圓이었는데 當時의 物價水準에 比하여 싼 價格이었는데도 速記士끼리 競合하는 者가 있어 이것을 解決하기 爲하여 1920年 4月 東京速記協會 主催로 全國速記士大會를 開催하였다. 그 當時 國會兩院과 新聞通信社 其他 一般速記士等 30餘名이 모여 料金協定에 關하여 討議한 結果 全體速記士가 一致團結하여 速記界의 共同目的을 爲하여 活動하는 것이 必要하다는 結論을 내려 結成한 것이 即 日本速記協會인 것이다.

現在의 日本速記協會는 純粹한 文化團體로 되어 있으나 設立當時의 出發目的은 速記士의 地位向上 共同利益의 增進 待遇改善等으로 되어 있어 同業者 組合같은 形態였다.

日本速記協會의 創立當時의 設立目的을 보면 技術研究 및 奬勵, 速記料金에 關한 協定, 業務 및 人事의 紹介, 雜誌發刊 功勞者의 表彰, 其他 必要한 事項으로 되어 있다.

1920年 30餘名으로 結成된 日本速記協會는 2次大戰以後에 急激히 擴張된 速記需要로 말미암아 會員의 增加와 事業의 擴大를 이룩하게 되어 1965年 10月 純粹한 文化團體로서의 社團法人으로 設立變更하게 되었다.

現在의 社團法人 日本速記協會의 會員은 1,300餘名에 達하고 있으며 全國 26個 重要都市에 支部를 設置하여 運營하고 있다.

② 1968年度 日本速記協會 事業計劃

ㄱ. 速記에 關한 調査研究

◇ 速記敎育에 關한 實態調査

全國 高等學校와 速記敎育機關等의 速記敎育 또는 그 普及處의 實態調査를 行하여 今後 速記敎育 普及向上을 爲한 指針의 資料로 整備한다.

◇ 速記活用에 關한 實態調査

速記士의 實態調査 및 速記技術의 廣範한 活動分野의 開發을 爲한 資料를 準備한다.

◇ 海外의 速記事情 調査를 適切히 行한다.

ㄴ. 速記相談事務의 實施

速記學習 또는 利用에 對한 相談에 있어 前年度에 繼續해서 適切한 助言指導를 行하여 더욱 相談事務에 萬全을 期한다.

ㄷ. 研修會, 講習會, 講演會, 紀念行事等의 開催

全國 議事記錄 事務研修會를 前年度와 같이 都, 道, 府, 縣, 市 및 町, 村議會를 包含하여 記錄事務 從事者의 參加를 要請 記錄事務 從事者의 知識 技能의 向上을 期한다.

講習會, 講演會, 記念行事等을 必要에 依해서 行한다.

ㄹ. 月刊誌等의 刊行

月刊誌「日本의 速記」를 年 12回 編纂發行하며「會議錄用字例」「速記技能檢定受驗의 要領」또한「檢定試驗受驗의 案內」其他 速記關係 圖書의 出版을 한다.

ㅁ. 技能檢定의 實施

文部省 後援에 依하여 全國 主要 8個 都市 以上에서 2回의 速記技能檢定을 實施한다.

ㅂ. 競技會 및 奬勵試驗等의 實施

速記技能水準의 向上과 速記의 普及을 期하기 爲하여 競技會 또는 低速度를 中心으로한 奬勵試驗을 實施한다.

ㅅ. 表 彰

速記功勞者 競技會入賞者 또는 速記技能檢定 各級에 있어 成績이 優秀한 者에 表彰을 行한다.

③ 速記技能 檢定試驗

日本速記協會의 最大事業의 하나인 速記技能 檢定試驗에 있어 任意團體當時에 實施한 例를 概括해 보면 1925年에 速記技術 試驗要綱을 制定하여 檢定試驗과 奬勵試驗으로 區分하여 實施하였다.

檢定試驗에 있어서는

A級—(10分間 3,200字 繕文時間 13倍)

B級—(10分間 2,900字 繕文時間 12倍)

C級—(10分間 2,600字 繕文時間 10倍)等의 等級을 가지고 實施해오다가 1965年 社團法人으로 發足한 以後부터는 文部省의 後援을 얻어 速記技能檢定試驗을 全國 主要 8個都市 以上에서 實施함으로써 檢定試驗의 權威를 確固히 함과 同時에 全國的 體制整備를 確立하게 된 것이다.

第6章 덴마크

가. 速記界의 움직임

「덴마크」에 있어서의 速記界의 活動은 그 以前에도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事實上 1849年에 시작된다. 이 해에 「덴마크」 國民은 絶對君主 「프레데릭」 7世에게 모든 階級의 代表者들로 構成되는 大會議의 召集을 要求했다. 國王은 그 要求에 應해서 絶對主權을 國王으로부터 人民을 代表하는 代表議員들 손에 넘기기 위한 憲法制定委員會를 組織했다.

이 立憲議會에 있어서의 發言을 詳細하게 記錄하기 위한 一群의 速記士團을 構成할 것이 決定되어 「다비트·테서」(1819年生)라는 青年에게 그 使命이 委囑되었다. 그는 獨逸 「바바리아」州 首都 「뮌헨」에 갔다. 「뮌헨」에서는 P. S. Gabelsberger(1789—1849)란 사람이 自己가 考案한 速記方式을 數年前부터 實記에 힘쓰고 있었다. Gabelsberger가 發表한 速記方式의 敎本이 最初 1834年에 發行되었고 後에 1843年에는 보다 程度가 높은 사람을 위한 第2部가 發行되었다. 「테서」가 1848年 「뮌헨」의 「가벨스베르가」를 찾아 갔을 때 그가 最後의 弟子가 되었다. 「가벨스베르가」는 1849年 1月 死亡했기 때문이다.

「테서」는 立憲議會에서 훌륭히 일할 수 있는 速記士가 되어가지고 「덴마크」에 돌아와 自國의 많은 青年들에게 速記를 가르치는 한편 그가 배운 獨逸語速記方式을 「덴마크」語速記方式으로 自國化하는데 온 힘을 기우렸다.

이후 數 10年間 그는 「덴마크」速記界의 指導者로 君臨하였고 그 동안에 組織된 「덴마크」 議會에 있어서의 議事를 速記할 速記士를 養成하였다. 「데서」가 가지고 들어온 「가벨스베르가」方式은 40年 以上을 通해 「덴마크」에서 「헤게머니」를 掌握했다.

그래서 中間에 몇가지의 적은 變更은 있었지만 「슈돌제·원레」方式(이 方式은 「가벨스베르가」方式에 基礎를 두고 있었지만 몇가지의 長點이 있었다)이란 새로운 獨逸速記方式을 輸入한 「A·보름스」란 「가벨스베르가」方式의 젊은 速記士에 依한 對抗方式이 나타난 1893年까지에도 依然한 君臨이 維持되고 있었다.

그 當時의 速記需要處는 議會를 비롯 逐語速記를 必要로 하는 몇몇 會議에 制限되어 있었지만 今世紀에 들어와서는 口述等의 商業文을 速記하는 것에까지 무대가 넓어졌고 實業界에서는 速記士를 採用하는 것이 하나의 常識으로까지 發展되었을 뿐만 아니라 tape나 record를 使用함에 따라서 速記士에 對한 挑戰의 段階에까지 發達했다.

今世紀 初 30年間 위의 두 速記方式間에 눈에 띈 競合關係는 없었고 오히려 1931年에 들어와 兩法式間의 指導者들이 두 方式을 하나로 統一할 것에 合意(1931年 統一式) 함으로써 結實을 맺었다. 이 方式 이름이 말하는대로 이 新方式은 어느쪽 方式의 敎師에 있어서도 從來의 方式과 똑같이 교수할 수 있는 方式이었다.

그러나 이 新方式이 出現했을 때 많은 「보름스」式 信奉者와 한 사람의 「가벨스베르가」式 敎師는 新方式을 反對, 統一式인 改良方式의 形態에 不滿足의 뜻을 나타내어 이 統一式에 對抗하는 다른 新方式을 만들었다. 따라서 「덴마크」에는 1931年 以來 오늘날까지 다음 세가지의 速記方式이 存在하고 있다.

① 〈非統一式〉이라고 불리우는 新方式
② 改良되지 않은 「보름스」式
③ 改良되지 않은 「가벨스베르가」式

나. 速記의 用途

速記는 公·私立을 不問 主로 商業學校에서 敎授된다. 推算한 바에 依하면 每年 5千名에서 1萬名(대부분 女性)의 學生이 卒業과 동시 實務에 就業한다. 이는 專門速記士라기 보다도 「비지네스」로 速記를 利用하는 경향이 많다.

議會에 있어서는 最近에 tape recorder 때문에 약간 困境을 받고 있으나 亦是 機械보다 사람이 優秀하다는 것을 再認識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이 나라의 速記 特殊需要處는 醫師秘書라는 것이 있다. 醫師秘書는 年間 400名 정도 特別速記敎育을 받아 各病院에서 근무하게 하고 있다.

다. 速記團體

「덴마크」에는 法式別로 다음 세速記團體가 있다.

① Stenografisk Selskab—前記速記法式①의 速記團體

② Dansk Stenografisk Forening—前記 速記法式 ②의 速記團體

③ Dansk Gabelsberger Selskab—前記 速記法式 ③의 速記團體

(註) P.S. Gabelsberger(1789~1849)—獨逸語 草書派速記의 「가벨스베르가」式 創案者「바바리아」國의 首相秘書官 在職時 速記研究. 1817年 GB式創案. 34年 最初의 著書發刊. 그의 速記文字는 普通文字의 草書體에 準據하기 때문에 빠르고 反文이 쉬운 長點이 있는 대신 標準的書法이 確立되지 않은 관계로 배우기 어려운 短點을 가지고 있다.

GB式은 「덴마크」를 위시해서 오스트리아, 항가리, 스위스, 러시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랜드, 폴랜드, 화란, 벨기, 세르비아, 루마니아 等 여러나라에 普及되었다.

第7章 美 國

「죠셉·J·스윈」씨는 1911年 11月 26日生으로 61歲가 된 美國下院 速記士이다. 速記方式은 「피트맨」系의 手筆式으로서 1965年 以前까지는 美國上院에서 勤務하고 있었다.

그가 最近에 傳하는 美上院速記士의 勤務狀況을 훑어보면 上院의 本會議(The Sessions of the Senate)는 通常 正午 12時에 開會되며 午後 6時에 散

會된다.

上院 本會議速記士는 全員 8名으로서 그중 2名은 速記監督官이며 나머지 6名이 10分 交代로 速記에 임하고 있다. 즉 1번 타자가 正午 12時부터 始作했다면 다음 12時 10分에 交代하고 12時 20分까지 速記를 함으로써 다음 사람과 交代가 된다. 그러므로 그 10分間은 本會議場에서 速記를 하고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速記를 마친 速記士는 약 45m 떨어져 있는 速記士事務室에 돌아와 「텍타폰」에 방금 써가지고 나온 速記原文을 全部 吹入하게 되면 待期하고 있는 다섯사람의 「트랜스 그라이버」가 순서에 따라 竊文에 착수함으로써 速記士가 그 速記原文을 취입하는 것이 끝남과 동시에 그 速記原稿는 文字로서 완전히 번역되어 나오게 된다. 그러면 速記士는 번문되어 나온 速記原稿를 자기 速記原文과 대조하는 作業에 들어가는데 이 때에 삽입 또는 削除해야 할 文句, 修文을 해야할 點, 물론 이때는 그 內容을 變更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最終的으로 그 速記原稿는 美國上院 規則에 適合한 것인가 이러한 것을 點檢하게 된다. 現在 美國 兩院의 本會議에서는 「스테노 타이프」 速記士는 쓰고 있지 않으며, 단지 委員會의 速記에서만 쓰이고 있다. 上院 本會議의 速記業務量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本會議速記士가 委員會速記에 임한 일은 한번도 없다. 그러나 보통 上院 本會議速記士(Official reporters of debates)는 현직에 오기 전에 위원회 속기에 종사한 사람이 大部分이다. 또한 下院 本會議速記士는 上院과는 달리 5分 交代制로서 이는 秩序整然한 上院에 비해서 下院은 活氣에 넘치고, 比較的 動的인 議事進行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보아진다.

여기에서 하나 特記할 것은 上院速記士 그랜트·E. 페리(Grant E. Perry)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사람은 「그레그」式 速記士로서 Gregg diamond medal과 全美速記士協會 優秀速記士證 保持者인 바 자신이 上院速記士로서 美聯邦議會 上院本會議錄(Congressional record of Senate) 작성에 분망한 가운데에서도 速記士의 未來像을 그리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即 Perry씨가 全美國速記士協會(NSRA)의 機關紙 the national shorthand report 19

69年 1月號에 寄稿한 「音聲識別專門家로서의 速記士(the reporter as discriminator)라는 論文을 中心으로 해서 그의 速記職再評價論을 알아 보기로 하자.

—「어쩐지 마음이 딱 갈아 앉아 있다. 이런 때에 速記士의 將來를 생각하면 重壓을 느낀다. 堤防의 쥐구멍을 손으로 막고 惡戰苦鬪하고 있는 和蘭少年의 모습이 눈앞에 떠 오른다. 少年의 한 손은 錄音器에 또 한손은 速記의 原文에 刻一刻 怒濤와 같이 흘러 나올려고 하는 사람의 肉聲을 必死的으로 制禦하려는 이 瞬間의 速記士의 손은 和蘭 少年의 손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도 現實的이기에 웃을 수도 없다」—

上院 速記士 Perry氏는 現代 科學技術의 進步를 正面에서 받아 들이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이런 科學技術을 하나의 巨石으로 친다면 그 巨石 앞에 세워져서 壓迫感을 갖는 것은 速記士만이 當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Computer 속에 雜多한 法律條文을 집어 넣고 必要할 때에 必要한 條文을 골 빼낼수 있도록 하는 Programing이 現在 進行中에 있지만 그런 式으로 해서 裁判關係 事務가 Computerize 된다면 速記士는 勿論 辯護士도 裁判官도 必要없게 된다는 理由가 된다. 自動車의 缺陷의 모든 것을 電子工學的으로 찾는 自動車 缺陷檢査所는 지금 벌써 實用段階에 들어가 있으며, 人間의 疾患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한 方式으로 診斷되는 時代가 멀지 않아 곧 온다고 하고 있는 이때다.

Perry氏는 速記士라고 하는 職業이 갖는 不安定性을 肯定하고 있다. 그것은 速記라고 하는 職業에 만이 갖는 特有한 現象이 아니기 때문이다. 現代는 많은 職業이 不安定狀態에 있다. 特히 傳統的으로 누구나 認定하고 있는 專門職種에 그것이 더 甚하다.

우리들 速記職業을 包含해서 모든 專門職種은 이제 再評價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 職業의 存在가 眞實로 正當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一應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오늘날까지 우리들은 「스피드」를 速記의 가장 重要한 武器로 생각해 왔다. 우리들 速記士로서의 適, 不適을 決定하는 唯一한 方法으로서 「스피드·테스트」를 實施하고 있는 實情이다. 科學技術이 이와같이 進步해 오고 있는 이 時點에서 速記를 「스피드」를 基準으로 해서 速記士와 一般人과 區別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速記士에게는 「스피드」 外에 여러가지 特出한 點이 있는바 「스피드」에만 重點을 두어 오늘날까지 오랫동안 해 내려 왔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速記士에 있어서 「스피드」만이 重要視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Perry氏가 생각하고 있는 速記士의 長點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速記士는 雜多한 音聲의 高度의 識別者(discriminator)이며 또한 決定者(Concluder)라고 한다.

發言者가 무엇인가 確實히 發音하지 않거나 또는 發音을 빼먹는 境遇에도 速記士는 곧 그 事實을 分析 識別하고 決定을 하여 完全한 文章으로 엮는 頭腦의 所持者라는 것이다.

換言하면 速記士는 「피나는 訓練과 經驗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銳敏한 聽覺과 頭腦를 가진 者로서 聽診器를 使用하는 醫師와 같이 雜多한 音聲을 判斷하고 事前에 文字를 잘 配列해 가는 言語 專門家이기도 하다」라고 Perry氏는 말하고 있다.

Perry氏는 音聲의 高度한 識別者라고 하는 觀點에서 速記士를 再評價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主張한다.

따라서 時代가 發展함에 따라서 速記士의 그 方面의 能力은 점점 重要視되리라고 보고 그 理由를 다음 세가지로 들고 있다.

① 現代人은 예전 사람보다도 冗長한 速辯에다가 不明瞭, 不正確한 話術의 경향이다.

② 사람들은 一般的으로 熱心히 듣는 傾向에 있지 않다. (勿論 速記士와 精神科醫는 除外)

③ 言語의 驅使가 대단히 專門的이어서 相互 意思疏通이 점점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1. 美國議會에서의 速記士處遇

가. 英語 速記方式의 起源

소리에 依據한 現代 速記方式은 Timothy Bright가 單語에 對한 그의 記號를 創案한 1558년부터 시작되었다. 그후 1837年까지 즉 Issac Pitman이 새로운 速記方式을 創案했을 무렵까지 많은 速記方式이 發表된바 있다. 斜線과 點의 位置를 달리 하는 것으로서 幾何學的 線을 使用하는 關係上 이 速記는 熟達해 지기까지는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一旦 熟達만 되면 받아쓰는 것이 매우 빠르게 된다. 1888년 J. R. Gregg는 實務 速記方式을 發表한바 있다. 그는 線의 길이를 달리함으로써 또 曲線과 自然線 等을 利用하여 速記를 더욱 빠르게 向上시켰다.

Pitman과 Gregg 方式은 오늘날 널리 使用되고 있다. 이 두가지 이외에 다른 速記方式 即 A. B. C速記 또는 速記打字等도 오늘날 여러 事務室에서 使用되고 있다. 美國에 있어서는 많은 高等學校, 大學, 職業學校 等에서 그들의 학생들에게 速記訓練을 特殊計劃에 依據해서 實施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學校에 있어서는 速記는 完全히 必須科目으로 採擇되고 있다. 많은 公共機關이나 個人會社에 있어서도 速記技術은 秘書들에게 必須要件으로 되어 있다. 實際的인 必要性과 또 學校에 있어서의 速記訓練의 結果로 書記는 勿論이지만 많은 高級職員들도 그들의 日課를 遂行하는데 있어서 흔히 速記를 利用하고 있다. 따라서 美國에 있어서는 速記를 專門的이라고 考慮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사람에 있어서 能力의 限度內에서 할 수 있는 일로써 考慮되고 있다. 그러나 議會速記士에 關한 限 그것은 專門職으로서 完全히 認定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韓國에 있어서의 速記士들은 美國에 있어서의 速記士들 보다도 더 專門的인 것으로 認定되어야 할 것이다.

나. 美國議會에 있어서의 速記士制度의 採擇

美國議會 特히 下院에 있어서는 速記士를 公式職員으로서 採用한 것은 꽉

오래된 일이다. 本會議速記士와 委員會速記士들에 關한 規則을 1874年에 採擇한 바 있다. 下院의 規則 第34條에는 다음과 같은 規定이 있다.「下院速記士의 任免과 그들의 職務遂行에 關한 것은 議長이 決定한다」

1966年 7月 1日 美國公法 第86—568에 依하여 上院의 速記士 및 關係 職員들의 身分에 對해서 처음으로 規定한 것이 있다.

「上院의 決議에 依해서 現在 또는 앞으로 議會速記士로 任命되는 速記士에 對해서는 年間 18,328弗을 支給한다. 이것은 1960年 7月 1日부터 有效하다. 上記 速記士는 議會速記士 또는 복제사等으로 任命될 수 있다」

兩院의 速記士들은 議會의 進化에 큰 役割을 해 왔다. 議會는 이 速記士에 依해서 그 會議의 記錄을 每日 保全하는 體制를 確立시킬 수 있었다.

議會에 速記士를 두게 됨에 따라서 議會記錄의 修正은 議會의 特權問題가 되게 되었다. 兩院의 速記士가 公式的으로 採用되기 以前까지는 正式職員으로써 速記士가 採用된 일은 없다. 그들은 臨時職員이나 또는 議會와 契約을 맺고 있는 私設專門速記團體의 職員들이었다.

다. 本會議速記士 및 委員會速記士

本會議速記士 및 委員會速記士는 專門的인 速記士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所管事項에 依해서 分類될 수 있다.

本會議速記士들은 各各 어느 公開會議를 記錄하고 報告하는 責任을 지고 있다. 上院에 關한 一般法 第4章 第126—2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上院事務處에 있는 速記士는 上院의 公式的인 速記士로서 指名된다」

委員會 速記士는 各委員長의 要請에 따라 査問會 또는 秘密會議를 包含하는 各委員會의 議事를 報告한다. 下院의 境遇에는 各委員會의 委員會速記士가 採用되고 있다. 下院委員會는 또한 必要에 따라 商業速記團體에 雇用되어 있는 速記士를 臨時的으로 利用할 수도 있다. 그러나 上院에 있어서는 모든 委員會는 商業速記團體에 所屬되어 있는 速記士를 利用한다. 上院委員會 會議를 가지려고 할때 그리고 그 委員長이 報告書作成이 必要하다고 생각할 때 委員長은 商業速記團體에 會議場所와 時間을 正確하게 通告한다. 契約에 規定되어 있는 日字까지 이 速記團體는 原本 1部와 寫本 2部를 委員

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1946年에 議會再組織法 第134條(a)및 上院관계 一般法 第4章 第190條(b)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小委員會를 포함하는 上院의 각 常任委員會는 會議中 또는 休會中에 그리고 散會中에 査問會 또는 會議를 召集해서 活動할 수 있도록 許用되고 있다. 그리고 必要에 따라서 證人을 出席시키고 또 관계 文書 圖書 그리고 記錄등을 作成하도록 許容되고 있다. 그 經費는 議會期間中 10,000弗을 超過해서는 안된다. 각 委員會는 그들의 所管에 속하는 事項에 대하여 調査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記錄을 報告해야 하는데 각 100字當 25「센트」를 超過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速記補助를 活用할 수 있다. 이러한 委員會의 所要經費는 委員長의 要請에 의해서 上院豫算으로 부터 支給된다. 이러한 경우 그 經費의 算出基準은 上院의 規則 및 行政委員會에 規定되어 있는 基準에 따라 算出하고 기타 관계法에 관한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上記 特記한 바와 같이 1956年 6月 27日字의 法에 의하여 賦與된 權限에 따라 1967年 8月 30日 上院規則 및 行政委員會는 1967年 8月 1日附로 效力을 發生하는 改正規則을 承認한바 있다.

그 內容은 上院委員會 또는 小委員會에서 作成되는 速記錄의 寫本을 作成하는 費用을 上院의 豫算에서 支拂하여 商業速記團體에 引渡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上院委員會의 速記錄作成에 所要되는 經費算出規定은 별첨 1에 表示되어 있다.

라. 速記士의 數

A. 上院

① 本會議速記士——上院 本會議에서 일한 公式的으로 任命된 速記士의 數는 모두 9名이다. 이밖에 速記士를 補助하기 위해서 2名의 書記와 6名의 專門的인 整書要員을 두고 있다. (上院관계 一般法 第4條 第126—1條 參照)

速記課長 1名, 速記士 7名, 補助速記士 1名, 書記 2名, 整書要員 6名 計 17名

또 上院 事務總長은 契約에 의하여 또는 기타 어떠한 方法에 의해서 必要한 경우 臨時速記士 또는 整書要員을 採用하도록 承認되고 있다. 거기에

必要한 經費는 議會豫算에서 나간다. (上院關係 一般法 제4條 제126條 b참조)

② 委員會 速記士——상술한 바와 같이 上院에서는 委員會速記士가 採用되지 않고 있다. 각 常任委員會 特別委員會 合同委員會는 商業速記團體에 要請하여 速記士의 支援을 받도록 承認되고 있다.

B. 下院

① 本會議速記士——下院의 本會議速記士 數는 모두 7名이다. 2名의 서기와 7名의 정서요원도 採用된다.

速記士 7名, 書記 1名, 補助書記 1名, 整書要員 7名, 計 16名(議會職員錄 382p 참조)

② 委員會速記士——下院의 職員으로서 正式으로 採用되어 있는 委員會速記士 數는 모두 8名이다. 이밖에 1名의 서기와 8名의 정서요원이 採用되고 있다.

委員會速記士 8名, 書記 1名, 整書要員 8名, 計 17名(議會職員錄382p 참조)

各 下院委員會 및 小委員會도 또한 必要에 따라 商業速記團體의 速記士를 利用할 수 있다.

마. 速記士의 資格

上院에 있어서 上院 事務總長은 速記士를 採用하도록 권한을 委任받고 있다. 下院에 있어서는 下院速記士의 任免은 議長에게 그 권한이 있다. 그러나 上下院간의 速記士의 資格을 規定한 規則이나 또는 法은 찾아볼 수 없다. 一般的으로 그들은 상당히 오랜동안의 速記經歷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과의 面談을 통해서 그동안 議會에 就職하기 前에 이미 10년 이상의 速記經驗을 가진 것이 發見되고 있다.

바. 速記士의 處遇

速記士는 美國議會에 있어서 高額 給與者의 하나로서 알려져 있다. 速記士의 給與는 一般的으로 오랜 經歷을 가지고 있는 書記職이나 秘書職의 給與보다 높고 고급 專門職에 있는 자들의 給與額과 거의 비슷하다. 그들은

上院 어느 事務室에 있는 行政補佐官들보다도 더 많은 報酬를 받고 있다. 이에 관한 內譯의 理解를 돕기위해서 上院에 있는 要職者의 俸給額을 다음에 表示하였다. (上院 事務總長의 報告書에서 上院要職者들의 俸給額 1969年 7月 1日~1969年 12月31日 半年分)

事務總長	$ 17, 629[50]	書記長	$ 16, 315[50]
議事官	16, 315[50]	補助議事官	13, 797[00]
立法書記	14, 125[50]	議事錄官	14, 125[50]
多數黨補佐官	14, 454[50]	財政書記補佐官	10, 140[00]
管理官	10, 731[00]	圖書館長	10, 621[00]
速記課長	16, 315[50]	**本會議速記士**	**15. 658[50]**
補助速記士	8, 869[50]	整書要員	7, 884[00]
與黨院內總務室長	16, 315[50]	野黨院內總務室長	16, 315[50]
與黨院內總務室長補佐官	13, 359[00]	警衛長 및 守衛長	17, 629[50]
警衛長行政補佐官	13, 578[00]	郵遞局長	11, 935[00]
航空委員會專門委員	14, 673[00]	農林委員會行政室長	10, 621[50]
農林委員會專門委員	15, 658[50]	豫算委員會行政室長	15, 658[50]
豫算委員會專門委員	14, 235[00]	陸軍委員會專門委員	15, 658[00]
通貨委員會專門委員	14, 016[00]	外交委員會專門委員	15, 658[50]
公共事業委員會專門委員	15, 668[50]		

사. 速記士團體 및 勞組關係

美國內에는 大韓速記協會와 같은 速記士團體가 없다. 現在까지 速記士를 위한 勞動組合은 美國內에서 아직 組織되지 않고 있다.

2. 美國의 速記實務 現況

(註) 이 原稿는 美國下院 本會議速記士 「조셉·J·스윈」氏와의 問答式 書信內容을 그대로 紹介한 것이다.

가. 「맥퍼슨」氏의 講演

問 : 美國에서도 英國과 같은 Hansard가 있는가?

答： Hansard 같은 것은 없지만 1960年에 全美國速記士大會가 「코로라도」州 「덴바」市에서 開催되었는데 이 大會에서 聯邦議會 上院主席速記士(chief reporter) 「그리거·맥퍼슨」氏가 〈上院速記의 實情에 대해서〉란 主題로 講演을 行한 자리에서 速記業務에 대해 多角的으로 槪說하고 있다.

나. 上院과 下院의 相違

問：速記士가 본 上·下院의 相違는?

答：내가 下院에 오기前 上院本會議速記 5年의 經歷이 있기 때문에 그 相違를 잘 알고 있다. 먼저 討議時間 制限問題가 있는데 上院에서는 制限을 두지 않으나 下院에서는 嚴格하게 制限되고 있다. 上院議員數 100名에 대해 下院議員數 435名이란 點을 감안할 때 만일 討議時間을 制限하지 않는다면 議事는 停滯되고 말 것이다.

다. 發言의 訂正

問：議員이 自己發言을 訂正하고자 할때 어떤 節次가 必要한가?

答：上院議員은 自己發言을 院의 許可없이도 訂正할수 있지만 下院議員은 自己發言을 訂正(revise)하거나 追加(extend)하고자 할때에는 먼저 院의 滿場一致 同意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 대개 그 同意는 例外없이 許可되고 있다.

라. 速記士의 任用

問：貴下가 上院速記士가 되고자 決心한 것은 1960年 4月, 47歲때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答：「캘리포니아」北部地方을 管轄하는 合衆國 地方裁判所 主席速記士로서 일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當時 7名의 速記士가 있었는데 나는 每日 나를 포함해서 各速記士를 法廷에 配置하고 裁判所의 記錄事務가 圓滑히 行하여질 수 있도록 監督하는 일을 했다.

問：聯邦議會 速記士는 어떻게 해서 任用되는가?

答：上·下院 速記士任用에 速記實技試驗은 行하여지지 않는다. 다만 各院의 主席速記士가 缺員이 생겼을 경우 志願者를 選定해서 任命權者에게 推薦한다. 이 主席速記士의 推薦은 上院에서는 任命權者인 事務總長(the sec-

retary of the Senate)이 반드시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고 下院에서는 옛날에는 上院의 경우와 같았으나 現在는 任命權者인 議長이 下院議員으로 부터의 推薦도 받아들여지도록 되어 있다.

마. 勤務狀況

問 : 下院速記士들은 1週 며칠 速記하게 되며 通常 開會時間과 散會時間은?

答 : 1週 5日 정도 通常 速記業務를 하고있는 셈이다. 本會議는 正午 12時에 開會되며 午後 6時내지 7時까지 계속된다. 때로는 밤 늦도록 할때도 있다.

問 : 本會議速記士의 勤務狀況에 대해서

答 : 대체적으로 下院議員은 上院議員보다 散發的인 發言傾向이 많으며 發言速度도 빠른 實情이다. 이러한 理由에서 速記士 交代는 上院이 10分制 下院이 5分制로 하고 있다.

問 : 이 경우 단 한사람만이 速記하는가?

答 : 各發當時間中 速記士는 單獨으로 速記한다.

問 : 交代를 위해서 대기중인 速記士가 自己 바로 앞 速記士의 部分을 速記하는 경우는 없는가?

答 : 대기중의 速記士가 때로 議事堂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目擊하는 때가 있다. 이런때는 現在 速記하고 있는 速記士를 도움기 위해 대기중의 速記士가 速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

問 : 交代는 어떻게 하여 이루어지는가?

答 : 이는 速記士 獨特의 信號로 行하여진다. 앞사람이 한 sentence의 마지막까지 쓰고 다음사람이 새로 시작되는 sentence부터 쓴다.

問 : 下院 本會議速記士는 現在 몇名 있는가?

答 : 7名이다. 各速記士는 議事堂에서 5分間 速記한 것을 30分 以內에 謄文, 그 謄文原稿를 휴대하고 다시 議事堂에 돌아와 다음 5分間을 쓰기 위해 대기한다.

問 : 언제나 謄文原稿가 30分以內에 되는가?

答：98% 可能하다. 缺勤者만 없다면 7名이어서 35分마다 速記하게 된다. 議事堂과 事務室간을 왕복하는데 5分 걸린다. 速記士는 다음 出番까지 30分의 時間이 있다. 이 사이에 錄文原稿의 檢閱(proof-read)까지 끝내고 그 錄文原稿를 손에 들고 議場에 되돌아가는 것이 可能하다.

問：잘 들리지 않을때는 어떻게 하는가?

答：아주 중요한 문제다. 우리들은 可能한 限 發言하고 있는 議員에게 接近하여 速記한다. 그래도 分明치 않을 때는 직접 發言議員에게 묻거나 30分後 가지고 온 錄文原稿를 그 發言議員에게 參照시켜 訂正 加筆케 한다.

바. 錄音機問題

問：보다 正確한 會議錄을 作成키 위해서 錄音機를 使用하는가?

答：우리들은 어떠한 種類의 錄音機도 本會議場에서는 使用하지 않는다. 그 理由는 tape를 들어서 dictaphone에 錄譯, 「타이피스트」用으로 吹入한다고 하는것은 能率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들이 議場에서 錄音機를 使用한다면 速記錄文原稿를 發言議員에게 돌리는 時間이 늦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錄音機의 必要性을 한번도 느끼지 못했다.

사. 編輯監督

問：「맥퍼슨」氏의 講演에 依하면 上院에는 6名의 現場速記士(active note-takers), 2名의 編輯監督(editorial supervisors), typist, clerk, assistant가 8名, 計 16名의 本會議錄 作成要員이 있다고 하는데 이중 編輯監督의 業務에 대해서?

答：前述한대로 下院에서는 速記錄文原稿를 다음 出番까지 完成해서 議場에 가지고 가게 되어있는데 上院의 경우는 그 過程이 多少 相異하다. 即 速記錄文原稿는 現在 主席速記士(chief reporter)라고 불리우는 編輯監督의 desk 위에 놓이게 된다. 이 原稿를 하나 하나 Check하는 것이 編輯監督이 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發言內容의 語法을 完璧한 英語로 손질하는 것으로서 한때 이 會議錄이 美 中高等學校 敎科書에 英語의 模範文으로서 採擇될 정도로 完璧한 것이다.

問：編輯監督은 現場速記士 出身인가?

答 : 그렇다. 記錄 staff의 先任者가 擔當하고 있다.

問 : 現在 下院에는 그런 編輯監督制度가 없는가?

答 : 下院에는 없다. 그러나 7名의 本會議速記士中 1名이 check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速記士보다 餘分의 手當을 받는 것은 아니다. 現 下院本會議 記錄 staff 人員構成은 速記士 7名, 飜譯 typist 7名, clerk 3名, 計 17名으로 되어 있다.

아. 速記士 補助員

問 : 現在 速記士以外의 記錄 staff, 即 typist, clerk, assistant의 勤務狀況에 대해서?

答 : 上·下院에는 typist가 있어서 速記士가 吹入한 dictaphone을 再生해서 速記飜文原稿를 作成하고 있다.

上院에는 transcriber라고 불리우는 typist 6人이 있어 이들은 吹入이 끝난 dictaphone의 belt를 再生飜文한다. 即 1人의 transcriber가 하나의 belt type를 끝내면 그 飜文原稿를 所定의 場所에 갖다놓고 다음 belt에 着手한다. 이렇게 해서 完了된 飜文原文은 애당초 吹入한 速記士에게 돌려진다.

下院 本會議速記士에게는 各各 專屬 transcriber가 붙어있다. 下院에는 이외에 3人의 clerk가 있다. 이들은 發言者名單을 作成한다든지 發言中 引用된 書類나 册을 준비한다든지 訂正을 위해 發言議員에게 돌려진 飜文原稿를 찾아온다든지 등등 速記士의 補助役割을 하고 있다.

자. 速記士의 補充

問 : 現 pitman이나 Gregg등 手筆 專門速記士가 차츰 減少傾向이라고 듣고 있는데 앞으로 이 補充策은 무엇인가?

答 : 지금까지는 큰 問題가 없었지만 將來는 結局 機械速記士가 任命되어 나가리라고 보고 있다.

차. 參考書籍

問 : 速記士 事務室에 備置된 書籍類는?

答 : ① 웹스터辭典 ② 專門用語의 表記와 定義 ③ 有名引用句辭典 ④ 地理辭典 ⑤ 世界傳記辭典 ⑥ 世界年鑑 ⑦ 聖書 ⑧ 註解 美合衆國憲法 ⑨ 美合

衆國法令總覽 ⑩ 下院議事規則 ⑪ UN憲章 ⑫ 聯邦議會人名錄 ⑬ 全國郵便局所在地一覽 ⑭ 聯邦議會 會議錄様式例 ⑮ 政府印刷局 style book

카. 給 與

問 : 速記士가 받는 대우는 어떠한가?

答 : 議員의 年俸이 4萬2千弗인데 대하여 速記士의 年俸은 다음과 같다.

職 名	人 員	年 俸
主席速記士	1	$ 29,651
速記士	7	28,457
補助速記士	1	18,905
書記	2	13,134
타이피스트	6	12,139

(1970. 3. 1 現在)

타. 退職年金制度

問 : 速記士의 退職年金制度에 대해서

答 : 退職者는 一時金이 아니라 每年 受取한다. 이는 退職者의 年金, 在職年數 및 在職中 最高年收였던 3個의 年俸平均額에 依하여 決定되는바 일반적으로 30年間 在職했다면 年俸의 70%를 每年 받게 된다. 만일 在職中 速記士가 死亡했다면 그 配偶者가 多小 修正된 年金을 받는다.

파. 委員會速記士

問 : 聯邦議會 常任委員會速記士의 勤務狀況, 任用制度, 給與, 地位등에 대해서

答 : 上院의 委員會에는 公務員速記士(official reporters)는 없고 民間速記士(free lance reporters)에게 請負로 맡기게 된다.

下院에는 7名의 公務員速記士가 있지만 그 任用制度, 地位, 給與등은 下院 本會議速記士와 같다.

第8章 INTERSTENO

(國際速記·타이프라이팅 및 秘書聯盟)

速記人의 國際的組織이 胎動한 것은 1887年으로서 「티모디·브라이트」(近

代速記方式의 始祖) 300年祭 및 「핏트맨」(19世紀英國人, 핏트맨式創案者)50年祭를 紀念하여 「런던」에서 第1回 國際速記會議를 開催하여 國際速記委員會를 組織, 그뒤 이 委員會가 1931年에 萬國速記者聯盟으로 改編되었다가 1955年에는 다시 國際速記·打字·秘書聯盟(INTERSTENO)으로 改編되었는바 여기에 이르러서는 그 性格이 時代的 要請에 의하여 速記와 打字의 不可分性을 認定하여 速記職과 打字職을 網羅한 記錄分野의 唯一한 國際機構로 登場케 되었다.

그러나 國際速記 및 打字聯盟이라는 名稱에서 풍기는 印象과는 달리 INTERSTENO의 幹部들은 全部 速記關係者뿐이고 이 機構에 打字가 끼게 된것은 어디까지나 速記業務의 補助的 機能으로서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時代的 要請에 의한것 같다.

第 28 回 大 會

이 聯盟은 每2年 또는 3年마다 順番대로 會員國 觀光地에서 大會가 열리며 速記 및 打字競技大會를 通하여 各國 會員間의 親睦과 技術向上을 꾀하고 있다. 1967年에는 「스위스」의 「베른」에서 第27回 大會가 開催되었으며 1969年에는 8月 2日부터 8日까지 7日間 「폴랜드」의 「와르샤와」에서 第28回大會가 열렸는데 主催國인 「폴랜드」는 1957年以來 그 會員國이다. 이 會議에는 全會員國(團體會員國 22個國, 個人會員 4個國, 計 26個國)이 參加하고 「옵서버」로서 日本이 參加하였다.

總會에서의 討議事項은 主「테마」가 「職業病」으로서 速記士以外에 言語學者, 速記學者, 醫師等의 專門家들이 많이 參加하여 3日間에 걸쳐 討議가 進行되었다. 討議는 매우 學問的이고 專門的이였는데 이러한 傾向을 批判하는 會員도 있었다.

國際速記競技大會와 世界 「타이프」選手權大會의 兩競技大會는 8月 3, 4, 5日에 「와르샤와」 工科大學講堂에서 열렸다. 速記競技大會는 14個國 100名의 選手가 10個國語를 가지고 各者가 지닌 技倆을 겨루었다. 勿論 이 選手들은 各己 그 나라에 있어서 有數한 「베테런」들이라 한다. 「타이프」選手權大會의 參加者는 14個國 134名으로서 「쿠바」와 「튜니시아」가 처음으로 參加했고 競

技에 있어서는 12個國語에 의하여 行하여졌다.

이 大會에서 第29回 大會는 「벨기」의 「부랏셀」에서 開催하기로 決定하고 다음 「부랏셀」大會의 「테마」로서 「폴랜드」는 「人類가 月世界를 征服한 오늘날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는 어떤 速記方式이 가장 妥當한가 라는 點이다」라고 말하고 速記方式 統一의 문제를 檢討하도록 要請하였다. 이 문제는 이 大會에서도 多少 論議가 되었으나 第29回 大會에는 主「테마」로 採擇될 可能性을 보였다. 이 當時의 聯盟 加入國은 團體會員으로서 22個國 個人會員으로서 4個國에 加入되어 있는바 個人會員이 團體會員으로 加入되도록 督促하였다.

○ 團體會員은

오스트리아·벨기·불가리아·덴마크·스페인·핀랜드·프랑스·英國·항가리·이태리·룩셈부르크·모나코·네덜랜드·폴랜드·西獨·東獨·스웨덴·스위스·터키·유고스라비아·체코스로바키아·튜니시아(이상 22個國).

○ 個人會員國은

알제리아·브라질·에쿠아돌·美國 으로 되어 있다.

定款에 의하여 이들 會員國中에서 1國 1名씩으로 中央委員會가 組織되어 있으며 委員의 職業은 技術者, 辯護士, 著述家, 企業家, 科學者, 軍人, 國會議員 그리고 速記專門家로 各分野의 「에리프」들에 의하여 構成되어 있다.

定款을 보면 「會員」은 各國의 全國的規模의 速記關係者의 團體라고 定하고 있지만 中央委員會委員의 職業을 가지고, 逆으로 類推한다면 歐羅巴 各國의 速記關係者의 國內團體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速記術을 習得하였으나 直接 速記를 職業으로 하지 않는 他 職業階層의 많은 사람들이 參加하고 있는 것이다.

同聯盟의 定款은 本文 18條 附則 1條로서 目的, 組織, 任員, 解散등 細部的으로 規定되어 있다. 여기에서 重要한 것만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第1條 名稱·目的

本聯盟은 國際速記 및 「타이프라이타」 秘書聯盟(Fèderation Internationale de Stènographie et de dactylographie, INTERSTENO)이라고 稱하고 法人

格을 갖는 同業組合으로 組織된 團體로서 다음 目的을 갖는다.

1. 全世界의 速記士와 「타이피스트」가 하나로 뭉친다.
2. 情報의 蒐集 交換 또는 應報
3. 會員間의 團結과 親睦을 圖謀한다.
4. 實務關係의 硏修를 共同으로 行한다.
5. 物心兩面으로 職業的利益을 擁護한다.

단 政治的 또는 宗敎上의 討論을 行하여서는 안된다.

第2條 會 員

本聯盟은 各國의 速記士와 「타이피스트」의 國內團體를 會員으로 한다.

國內團體가 組織되어 있지 않은 國家에 대해서는 그것이 組織되도록 聯盟으로서 助力한다. 또한 國內團體가 組織될때까지는 個人 또는 「그룹」이 聯盟이 行하는 諸事業에 表決權없이 參加하는 것을 聯盟事務局은 許可할 수 있다. 各國內團體는 1國의 全團體 意向을 代辯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第3條 本部의 所在地(略)

第4條 組 織

聯盟의 組織은 다음과 같다.

1. 總 會
2. 中央委員會
3. 事務局
4. 書記局
5. 會計監査委員會

第5條 加盟(略)

名譽會員의 推薦 (略)

第6條 脫退(略)

第7條 總 會

總會는 團體會員으로 構成한다. 總會는 聯盟의 最高機關으로서 通常 國際大會時 召集된다. 總會에 出席해서 表決權을 갖는 代表는 各團體會員에서

各各 3名 나머지는 人口 5百萬에 1名式 最高 12名까지의 代表를 보낼 수 있다. 代表는 各各 한票의 表決權을 갖는다.

第 8 條 中央委員會

同委員會는 1國 1名의 委員으로 構成되며 事務局의 要請 또는 5個國以上의 團體會員의 要請이 있으면 召集된다.

第 9 條 事務局

事務局은 聯盟會長, 副會長(5名), 事務總長으로 構成되며 各各 總會에서 選任한다. 會長은 次期大會 開催地의 團體會員中에서 選出한다.

第10條 會計監査委員會 (略)

第11條 定期大會

2年 또는 3年마다 大會를 開催한다. 이때 各種의 國際行事를 가지며 各行事는 中央委員會가 決定하는 特別規定에 따라서 行하여진다. 不意의 事態에 있어서는 事務局이 中央委員會를 代行한다.

第12條 財 政

聯盟의 收入源은 다음과 같다.

1. 分擔金
2. 出版收入
3. 寄附·遺贈

團體會員은 分擔金으로서 年間 30「푸랑」(스위스貨)을 醵出한다.

第13條 經費의 支出

會長 또는 事務總長의 旅費등의 派遣費用은 聯盟이 負擔하고 事務局員 또는 中央委員會委員은 團體會員의 分擔으로 한다.

第14條 責任의 免除 (略)

第15條 定款의 改正 (略)

第16條 解散 또는 淸算方法 (略)

第17條 不意의 事態 (略)

第18條

本定款은 1955年 8月 1日 「모나코」에서 採擇되고 1956年 8月1日 西獨 「펀

벨」에서 一部 改正되었다.

附 則 個人會員

國內團體가 組織되어 있지않은 國家에 대해서 聯盟은 個人, 學校, 商社, 事業所 單位의 加盟을 許可할 수 있다.

個人會員은 總會에 出席할 수 있으나 討論 또는 表決에 參加할 權利를 갖지 않는다. 分擔金은 年間 25「루랑」(스위스貨)으로 한다.

여기서 參考로 1967年 7月 22日부터 28日까지 21個國이 參加「스위스」의「베른」에서 열린 第27回 大會의 進行「프로그램」을 보면 다음과 같다.

22日 速記 및 타이프競技會審査委員會, 中央委員會, 大會開會式.

23日 世界타이프選手權大會, 市內見學

24日 國際速記競技大會

25日 中央委員會主催 晩餐會.

26日 大會第1部

討議「近代的인 事務處理와 秘書의 實務」=報告

「事務合理化와 人間」

「白耳義의 秘書」

「近代的인 事務處理技術」

「技術革新과 職業敎育」

大會第2部

討議「議會·一般·個人에 있어 今後 10年의 速記發達에 대해서」

27日 大會第3部

討議「速記 및「타이프」의 計劃敎育」=報告

「計劃敎育의 基礎와 實際」

「速記의 計劃敎育의 諸觀點」

「計劃敎育發達의 特殊性」

「速記의 計劃敎育의 實際」

午後부터 總會,「스웨덴」의 加盟承認, 決算報告, 任員選任等

大會閉會式 兩競技大會入賞者 表彰式

晩餐會・夜會・舞踏會

28日　觀光

그런데 우리가 注目할 國際速記競技大會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競技의 實施細則은 1966年 4月 5日 東獨「와이마르」에서 開催된 聯盟中央委員會에서 正式으로 承認된 것으로 雜多한 言語에 대한 競技인 관계로 細密하게 神經을 쓴 흔적을 規程內容에서 엿볼 수 있다.

○試驗問題・朗讀方法

試驗問題는 各國語「그룹」의 各審査責任者가 10分間 朗讀物을 準備하게 되어 있고 그 內容은 主로 經濟問題이며,

朗讀하는 方法은 各國語別로 規定된 初速(表2 參照)에서 每分 25音節씩 加速되어 8分째에서는 最高速度에 達하도록 읽는다. 말하자면 좇아 올라가는 朗讀法이다. 8分에서 10分까지의 速度는 變하지 않는다.

肉聲朗讀 대신 錄音機를 使用할 수도 있다. 朗讀에 있어 他國語「그룹」의 審査委員 1名이 競技室에 立會하여야 한다.

競技는 非公開로서 寫眞을 찍는다든가 「라듸오」「테레비」取材는 競技終了後 許可된다.

○繕　文

競技者는 審査委員의 信號를 기다려 一齊히 繕文을 시작한다.

速記用紙는 各自 持參한 것을 使用(但 事前에 審査委員의 檢査를 받는다)하지만 繕文用紙는 審査委員會가 配付한 것을 使用하여야 한다.

速記用의 筆記具는 鉛筆 또는「펜」, 繕文用은「타이프라이타」,「펜」, 萬年筆, 어느 것도 좋다.「타이프」使用者는 스스로 器械를 持參하여 別室에서 繕文한다.

繕文에 있어서 辭典使用은 禁止되며 萬一「컨닝」을 하였다고 判定되면 그 答案은 無效이고 繕文時間은 一律的으로 4時間 以內로서 그 時間內에 各自가 自己能力에 따라서 可能한 限의 量을 繕文한다.

朗讀이 初速을 起點으로 加速되는 方式이므로 自信이 없는 者는 速度가 늦은 最初의 몇分間 것을 繕文하면 된다.

〈表 1〉 第4回 競技大會 參加狀況表

國語名	人員	國名
獨逸語	40名	西獨・東獨・오스트리아・스위스
불가리아語	3〃	불가리아
세르비아・구로아치아語	7〃	유고스라비아
스페인語	2〃	스페인
핀랜드語	3〃	핀랜드
프랑스語	10〃	프랑스
이태리語	10〃	이태리
폴랜드語	3〃	폴랜드
스로바키아語	4〃	체코
체코語	4〃	체코

〈表 2〉 初 速(單位：音節)

獨逸語	250	항가리어 語	300	英語	250
이태리語	200	불가리아 語	355	폴랜드語	200
구로아치아語	250	세르비아 語	250	핀랜드語	275
스로베니아語	250	프랑스語	225	스로바키아語	300
네덜랜드 語	200	체코語	300		

〈表 3〉 第4回 競技大會 成績表(拔萃)

핀랜드語

順位	姓名	國籍	觀文量(分)	失點數
1	S. Veikko	핀랜드	10	39
2	A. Allan	〃	7	51
3	H. Pirkko	〃	5	28

프랑스語

1	P. Jeannine	프랑스	4	1
2	R. Christane	〃	4	19
3	G. Yvonne	〃	4	25
4	V. Paulette	〃	3	36
5	O. Marie	〃	3	22
6	B. Julienne	〃	3	23

第9章 U N

國際聯合에서는 總會와 安全保障理事會, 그리고 UN의 모든 機關의 會議에 있어서 速記錄을 作成하고 있다.

UN의 모든 審議는 英語·佛語·스페인語·러시아語·中國語의 5個國語로 行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各國語 擔當의 速記士가 配置되어 있다. 中國語를 除外한 各國語 速記士는 各各 8名의 team으로 編成되어 있고 10分 實務交代制를 採擇하고 있다.

UN의 速記士는 그가 會議場에서 10分間 取錄한 速記原文을 指定된 typist에게 口述한다. typist는 口述과 同時에 type로 謄寫用의 飜文原稿를 作成해내면 速記士가 다시 그 飜文原稿를 檢討, 訂正, 編輯한 後 대체로 速記를 끝낸지 1時間 以內에 chief reporter에게 飜文原稿를 提出한다. 이 chief reporter는 速記錄의 最終責任者이다.

하나의 original한 發言이 아닌 몇個 國語로 同時通譯되는 發言을 速記하는 경우는 通譯된 發言이 그 原發言을 正確하게 表現하고 있는가 어떤가에 대해 飜文原稿를 check하는 등 高度의 能力을 要求하고 있다.

UN 速記士는 分速 200 words 以上의 速記能力을 가져야 되며 諸般 國際問題를 理解할 수 있는 理解能力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例를 들면 國際原子力 平和會議가 開催됨에 따라 速記士는 原子 energy 專門用語에 대해서 6週間의 seminar에 參加하지 않으면 안되는 等 奔走한 訓練을 받고 있다.

■ 監　修 ■

顧問　權　孝　燮
〃　崔　興　俊
副會長　金　鎭　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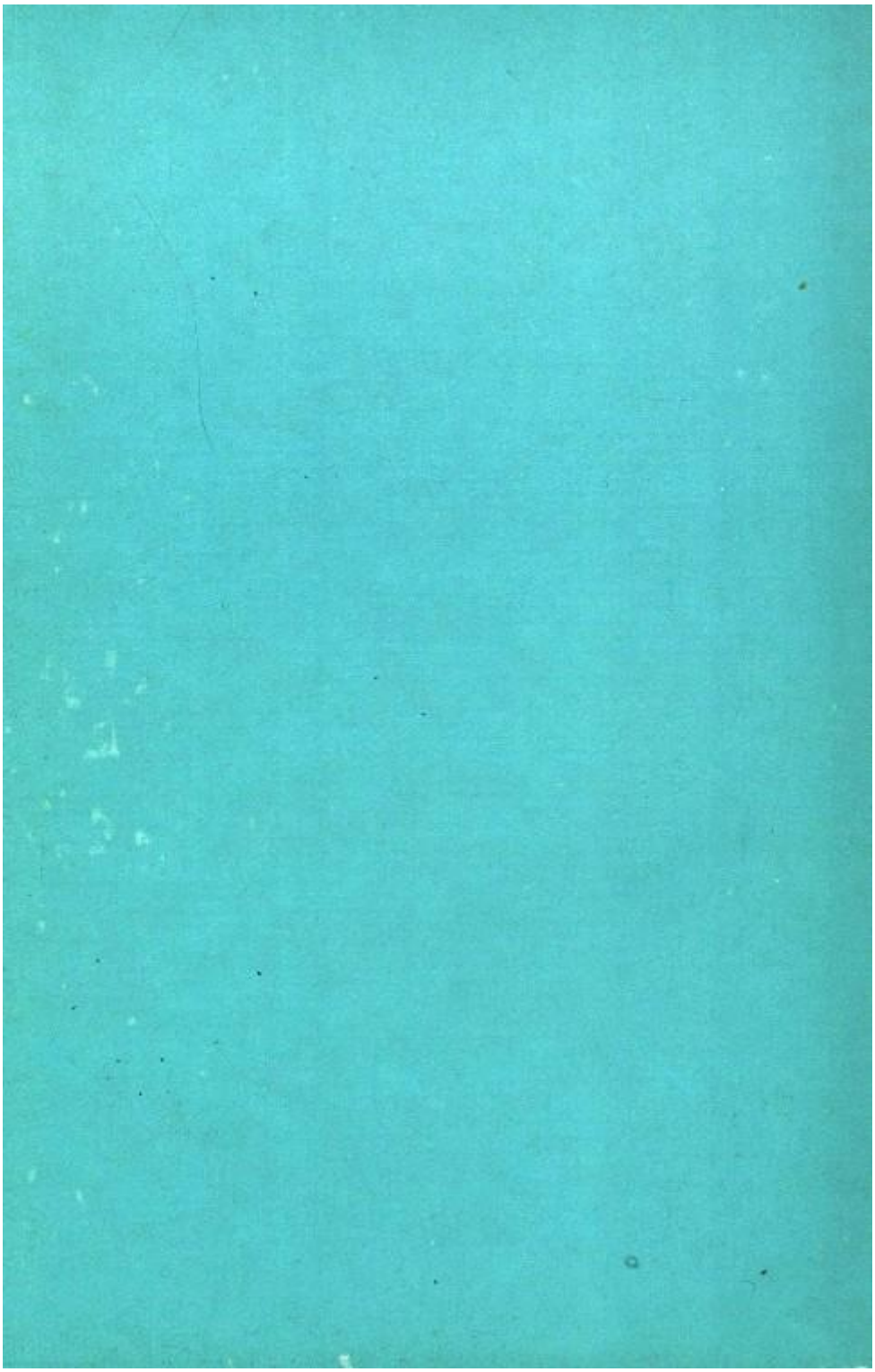
■ 編輯委員 ■

委員長　安　仁　榮
幹事　梁　源　龍
委員　金　永　善
〃　孫　弘　基
〃　金　允　洙
〃　柳　智　永

禁無斷轉載複製

速記總覽　<第 1 輯>

1972年　3月　20日　印刷
1972年　3月　21日　發行

發行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印刷　서울印刷株式會社

非賣品